

건축사

1998 **05** vol. 349

칼럼 _____ 건축, 또 하나의 문화자원

작품리뷰 _____ 일산 정형 822

테마기획 _____ 지역건축탐방⑤ - 충주, 청주

기획연재 _____ 한국의 건축기② - 김인호(2)



K
O
R
E
A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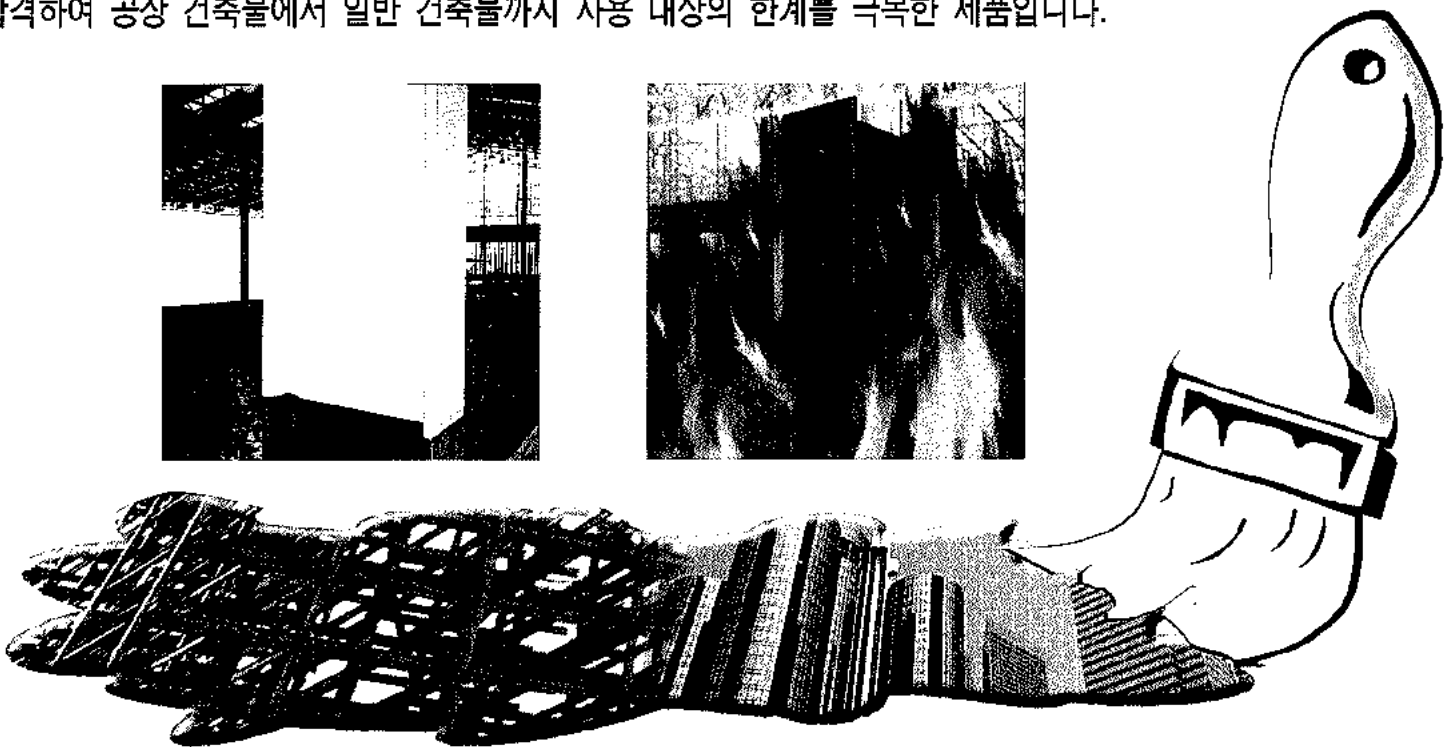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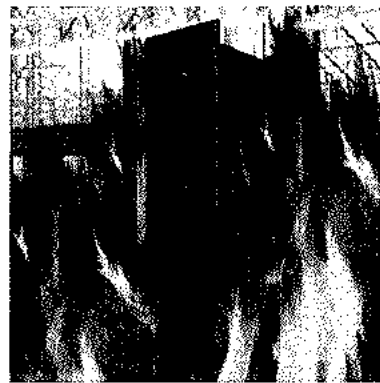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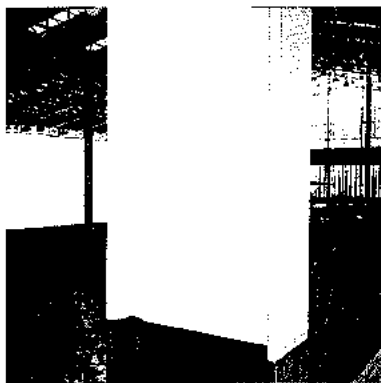
A
R
C
H
I
T
E
C
T

침단 철골내화 페인트

FIRE CONTROL 국립건설시험소 고시 제 1996-33호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

취급, 보관, 시공, 화재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냄새, 분진, 가스등의 유해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청정내화재 FIRE CONTROL은 페인트 타입으로는 국내 최초로 일반 건축물용 시험에 합격하여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사용 대상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입니다.



용도

철골 구조의 건축물 / 철골 구조의 공장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 물류센터 / 근린 생활시설 / 발전소 선박, 프랜트, 산업시설

특성

- 자체 독성이 전혀 없는 무해 재료이다.
- 화재시 유독한 연기를 방출하는 기존의 제품과 달리 발포성형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완전 불연재이다.
- 시공시 페인트 타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안전상 문제점이 전혀없다.
- 시공후 깨끗하고 미려한 외관을 유지하며 자체강도, 부착강도가 강하여 변형, 변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능

	대 상	내화시간	사용부위	도막두께
내화구조 지정	일반건축물 공장(2층이상) 창고, 물류센터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2.95mm 상도:3.20mm
	공장(1층,중2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1.95mm 상도:2.20mm

FIRE CONTROL은

건축법 제2조 제7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갖춘것"으로써 내화구조 외무화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필수적인 내화성능도로입니다.

H 하이템주식회사
HITEM CO., LTD.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92-4
남성 B/D 4F
TEL:(02)535-7230(대) · FAX:(02)535-6503
공장: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목리 861
TEL:(0335)33-6074-5

대한민국정부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성	거주지
성	거주지



제13180호 1995. 11. 10. (금)

정부시설공사

제13180호 1995. 11. 10. (금)

공문시행

제13180호 1995. 11. 10. (금)

공문시행

제13180호 1995. 11. 10. (금)

제13180호 1995. 11. 10. (금)

이제부터 정부시설공사 선정 프로그램인 EMS- 1234로

- 내역작성을하여 발주처에 디스켓으로 제출하셔야합니다.
수많은 발주처, 설계사무소, 시공회사들이 EMS- 1234와 R.C, K-FIN를 찾는 이유를 아십니까?

고려전산이 견적/적산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전산내역 입찰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 아프트 서비스

- 분기별로 일위대가와 자재코드 단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 지속적인 Up-Grade
- 철저한 교육(매주 정기 교육 실시)
- 지속적인 사후관리

● 적용분야

- 설계사무소, 감리사무소, 적산용역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교육용

적산용역 업무문의
☎ (02)278-9095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9-5 현우빌딩 4층
TEL : (02) 529-6071~4
FAX : (02) 529-6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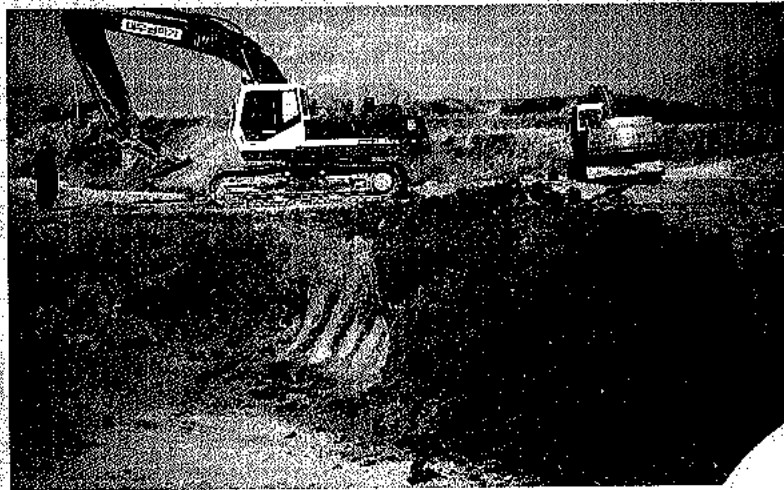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soft.co.kr>
E-MAIL: koreasb@koreasoft.co.kr

물류인쇄업서부터 내역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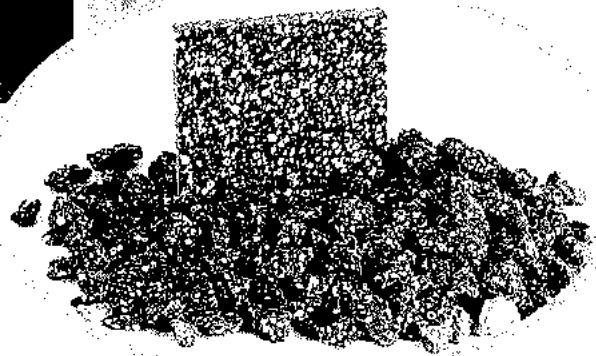
통한내역

황토방



磁玉山 황토방

맥반석을 첨가합니다.
피부를 곱게합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17년 전통 자옥산 맥반석



자석에 붙은 자옥석

磁玉山 건강 온돌재

자석에 붙습니다.
수맥을 차단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수면시간이 단축됩니다.
건강에 최고입니다.



자옥산 세라믹스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산 3-1 TEL : (0584) 52-8830, FAX : (0584) 52-8832, H. P : 011-533-8830

시민건축대학강좌

1998년 강좌(제7기)

기간

1998년 4월 20일 ▶ 6월 8일(매주 월요일)

장소

대한건축사협회 강당

대상

일반시민 · 학생 주부(선착순 4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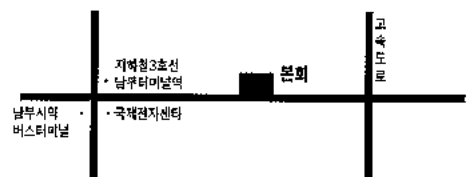
수강료

무 료

강좌배정

일 자	강 좌	시 간	강 좌 내 용
4월 20일	개 강		입교식
	1강좌	13:30-15:00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2강좌	15:15-16:45	풍수지리(양택론)
4월 27일	3강좌	13:30-15:00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4강좌	15:15-16:45	건축행정
5월 4일	5강좌	13:30-15:00	건축설계의 이해
	6강좌	15:15-16:45	통나무 건축
5월 11일	7강좌	13:30-16:45	한국의 전통건축(고궁답사)
5월 18일	8강좌	13:30-15:00	건축물의 안전관리
	9강좌	15:15-16:45	주택의 시공 및 재료
5월 25일	10강좌	13:30-15:00	주거론
	11강좌	15:15-16:45	스틸하우스
6월 1일	12강좌	13:30-15:00	재개발 및 재건축
	13강좌	15:15-16:45	건축구조의 이해
6월 8일	14강좌	13:30-15:00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 흥미감
		15:15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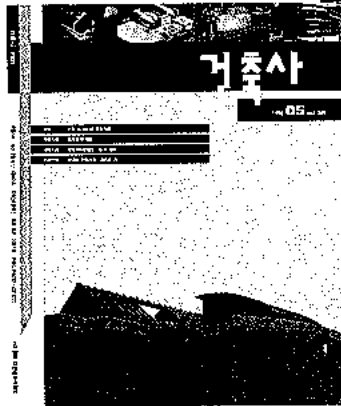
※ 강좌일시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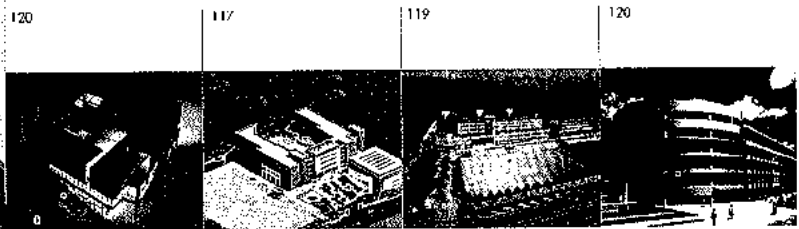
연락처: 02-581-5715/8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차례 1998 05 349호



일산장항822(송광섭작)



발행인: 김영수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방철린(위원장), 송효상(부위원장)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전현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U. D. C: 69/72(054-2) : 0612(519)
 연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Bang Chul-Lin, Seung Hcho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건축, 또 하나의 문화자원	오기수	12
작품리뷰 / 일산장항822	대담: 이 시대, 주거의 보편성에 대한 물음 비평: 시각적 필터로서의 주택	송광섭 손기천 김문덕	14 24 32
회원작품	XIAN SFUMATO 쌍용 글로벌타워 북부장애인복지관 조개전시장 양평 바탕골 예술원	부대진·김무현 김 헌 주영정 우시용 김재욱 손웅익	36 40 44 48 52 55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2] - 김인호(2)	박정우	58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⑤: 충주·청주	집·의자처럼 편한 자리 충청의 정신, 충청의 역사, 충청의 문화 시인의 눈에 비친 청주와 충주의 이미지 충주 도시탐색 청주 도시공간 탐색 충주 현대건축의 오늘과 내일 청주 현대음성내의 어제와 오늘 좌담: 충주·청주 도시건축의 바른 모습을 향하여	이철수 김승환 허의행 황재훈 황재훈 박대웅 김태영	66 67 71 75 78 84 86 91
기고	CAD, 과연 이대로 좋은가	김지덕	101
건축마당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게시판 현상설계 인터넷건축여행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신입회원		107 109 116 117 122 126 128

Column

Architecture as a Cultural Resource	Oh Ki-Soo	12
Review / Janghang 822 of Ilisan	Song Kwang-Sub	14
Interview This Era's Question of Generality in Housing Architecture	Sohn Kee-Chan	24
Critique House as Visual Filter	Kim Moon-Duk	32

Works

XIAN	Bou Dae-Jin & Kim Moo-Hyun	36
SFUMATO	Kim Hun	40
Ssangyong Global Tower	Joo Young-Jung	44
Northern Welfare Center for The Handicapped	Woo Shi-Yong	48
Shell House	Kim Jae-Wook	52
Yangpyong Batanggol Art Center	Son Woong-Ik	55

Serial

Korean Architect, Kim In-Ho(2)	Park Jung-Woo	58
--------------------------------	---------------	----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5]: Chungju · Chongju

A House, Like a Comfortable Chair	Lee Cheol-Soo	66
Spirit of Chung-cheong, History and Culture of Chung-cheong	Kim Seong-Whan	67
The Image of Chungju and Chongju Seen Through the Eyes of a Poet	Hur Eui-Haeng	71
Investigating the City of Chungju	Hwang Jea-Hoon	75
Investigating the City of Chongju	Hwang Jea-Hoon	78
The Present and Future of Chungju's Architecture	Park Dae-Yeung	84
The Past and Present of the Architecture of Chongju	Kim Tae-Young	86
Conversation : Towards an Ideal Urban Architecture in Chungju and Chongje		91

Feature

The Problem with CAD	Kim Chi-Duk	101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107
Archi-net	109
Bulletin Board	116
Competition	117
Internet	122
Statistics	126
New Members	128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달일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중북구건축사회/(9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9)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52-2275) · 노원구건축사회/(933-9076) · 등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22-6411) · 서초구건축사회/(552-8468)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53-2892)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유령구건축사회/(368-1486) · 중로구건축사회/(735-0905)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74-8836 · 66-5651, 7930
 ■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63-6902 · 평택건축사회/(02)684-5845 · 구미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6-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1-79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안산건축사회/(0345)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699 · 외곽부지역건축사회/(035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8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667-5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35-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3)31-6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94~6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43-6253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9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6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873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33-2000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74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680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6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89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삼천포지역건축사회/(0583)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91)45-6403 · 창원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건축, 또 하나의 문화자원

Architecture as a Cultural Resource

오기수 / (주)스페이스·오

by Oh Ki-Soo

경제적 고통, 위기를 겪어야 하는 상황, 즉 사람으로 비유하면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및 정형외과적 이상소견을 보이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넘고 있다. 그간 병치료를 위해 사방팔방으로 똥하라는 데는 두루 찾아다니고 있었지만, 딱히 차도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환자 본인의 마음자세에 있는 것이 아닐까? 병의 완치 과정에서는 의료적 치료외에도 회복하고자 하는 환자의 의지와 건전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와 동시에 환자의 체질을 바꿔주는데 있어 그 환자의 몸에 맞는 '대체적 치유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내 모든 문제에 대해 처방하는데 있어 서구적 약전(藥典)과 그 효능만을 믿으려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사실 르 꼬르뷔제가 금세기 초반에 그 좋다는 건축방법과 이론을 토해내는데 앞서 주장하고 전제한 것은 인간을 포함하여 건축을 구성하는 각 성분을, 인체의 생명력을 건전하게 유지시켜주는 혈액, 장기, 뼈, 살 등 4대 요소의 건강함과 그것의 원활한 상호관계를 연관시켜 설명한 건축과 도시의 '건전성' 이지 않았던가? 이 건전성을 회복하는 일이 작금의 우리에게 다가온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필자에게 이 화두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언급하려는 무모한 의도는 없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건축인들은 어떤 자세로 건축을 매개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그 구성원의 건전성 회복에 일조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건축은 문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건축은 일상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자 그 생활내용이다. 그것은 달동네의 정서로부터 대중문화, 고급문화의 성격을 모두 담아 어우를 수 있는 용기인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서의 이해를 통해 그 그릇을 사용할 사람들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바로 시작 시점이라고 하듯, 지금이야말로 건전성 회복을 위해 준비하고 실천할 기회인 것이다. 우선 그간 정신없이 생산해내느라 경황이 없어 챙기지 못했던 것, 즉 건축인의 본업과 필연여부, 의지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될 수 밖에 없는 문화, 예술분야들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고 연구하여 건축이란 그릇속에 농익어 들어가 진한 그 무엇이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자세는 오염되거나 상하지 않고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도 자가치유할 수 있는 울이 골고 건전한 건축행위의 토양을 일구는 단초이다.

둘째, 건축은 구체적 현실이며 가치높은 문화자원이다.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溢적으로 행하는 개편작업 중 필자가 일견 주목하게 되는 부문은 '문화관광부'의 탄생이다. -공보부, -체육부, -관광부 등 '문화'라는 말 자체로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을텐데 뭔가 허전하여 어마에 미시적인 분야를 강조하여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정부가 바뀌었으니 같은 얼굴이지만 그래도 이름이라도 새옷으로 바꿔입히자는 일회적 발상이

아니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도처에 있는, 그러나 너무나 친숙하고 일상적이어서 간과해 왔던 가치로운 것들에 주목하여 부가가치 높은 문화자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의 발로이기를 믿고 싶다. 물론 그 중심에 건축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과거 우리 정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프랑스에서는 한 세기의 절정기에 들어가는 60년대 중반 드골대통령부터 몇 대에 걸친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음 세기를 준비하고 세계 사회의 문화 중심임을 자신있게 선언하기 위해 향후 30여년 동안 기획·연구·실행·완성한 Grand Project는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문화관광자원이 되었다. 우리는 100년전의 에펠탑과 함께 세기의 전환점마다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과 정책적 지속성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이방인인 라이트가 설계한 제국호텔을 메이지무라/明治村에 이전 복원하고 일본 근대건축 성립의 조력자 A. 레이먼드의 가루이자와 탈리아신을 보존하여 금세기 초 서양인들이 자신에게 준 건축을 가치로운 문화자원으로 자랑스럽게 승화시켜 내·외국인 모두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고 그 밖에 많은 건축물과 시설들을 현재와 미래를 위한 문화자원이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의 예, 그리고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받아들여 그들의 건축작품을 관광코스의 한 부분으로 유도하는 등의 정책적 지혜를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떤가? 90년대 들어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캐치 프레이즈, 즉 구호에 불과하였더라도 문화관련 부처에서 제정하는 '무슨 무슨 해'가 많았는데 가장 국민에게 가까이 있고 그래서 가장 직접적이고 폭넓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의 해'가 제정되지 못한 것은 누구를 탓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와 정책 입안자는 아마도 건축을 모든 예술중 가장 하위예술로 서열매김한 세기초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예술론을 신봉하는가 보다.

우리의 현실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의 도시에 엄청난 재정적, 물량적 투자를 해왔음에도 그 안에 "좋은 건물"이 흔치 않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논리를 우선으로 하는 건축행위가 행해졌고 문화자원으로써 설계과정에서부터 완공과정까지 전반적인 건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 결과 짓는 과정의 안이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인식과 실천면에서의 "부실함"은 안타깝게도 최근 새로운 추세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官, 民 할 것 없이 거의 한 주일에 한 건씩 공고되다시피 하는 각종 설계경기, 입찰 등이 그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설계경기는 원칙적으로 좋은 질의 설계와 건축을 만들어내기 위한 건전한 절차이다. 하지만 최근의 현상은 건축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관자의 준비부족과 부실하고 막연한 지침, 그러나 작업의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밀도 끝도 없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주관자의 몰이해, 그리고 많은 경쟁을 통해 가능한 한 그럴 듯하면서 저렴한 결과물을 얻으려는 新 경제성 논리, 그럼에도 마치 어려운 시대에 거꾸로 설계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건축의 한국판 뉴딜정책'이나 되는 듯이 시혜하는 듯한 태도로 무책임하게 시행하는 일점, 게다가 생존이라는 급류속에서 그 당치에 관계없이 뛰어들어야만 하는 건축인들의 처절함을 자조적으로 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건축의 수요자나 건축인들이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선 어떤 단계를 취해야 할지 건전하고 세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만들어가는 치열한 의식과 안목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가 곧 오래 두고 보아도 건전하고 좋은 건축이요, 문화자원으로써의 건축이 될 것이고 중복투자가 필요없는 그 자체로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나 민망하게도 전문가들인 건축인들이 그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과 각 개척 도시의 경기장 건립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대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건립하고 얼마나 돈이 드는가가 물론 중요하지만 98년 프랑스 월드컵 주경기장이나 우리의 공동개최하는 일본의 주경기장 건립과정에서 처럼 단순히 축구경기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미래의 역사적 기념물로서 문화관광자원이자 도시기반시설로써 인식하고 판단하는 지혜와 결단력이 요구됨을 상기했으면 한다.

이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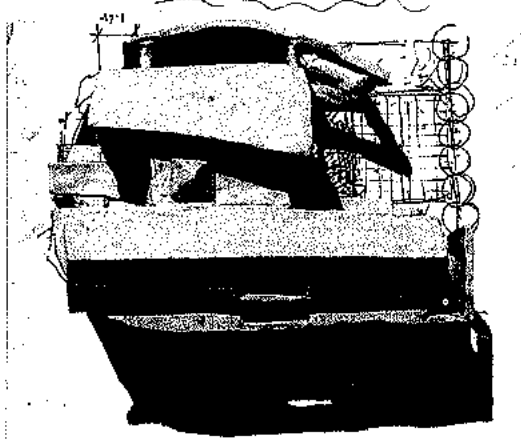
얼마전부터 프랑스, 영국 등 서구에서는 몇 백일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일천년 시대를 기념하고 주도적 문화국가임을 자임하는 일환으로 대대적인 건축적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전략 차원에서 모든 것은 불가피하게 현재를 꾸러가는 문화정책 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세심스럽지만 모든 건축인들이 건축과 우리 생활 전체를 문화자원의 한부분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한편 현실적인 고통과 위기는 건축인들의 정신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좋은 한국 건축"은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정신적 성장과 건전함을 도모하고 그것을 가치롭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면서 희망을 갖고 새로운 일천년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때 건축인 모두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송광섭 / 한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ng Kwang-Sub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822
지역지구	도시계획 · 주거전용지구
대지면적	233.5㎡
건축면적	110.38㎡
연면적	244.96㎡
건폐율	47.27%
용적률	79.73%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주요재료	외벽재료 · 지정벽돌 치장쌓기 지붕 · 동성글 없기
설계담당	박정란, 박준영
조경설계	한 건축사사무소
전기설계	서창엔지니어링
설비설계	보우설비
설계기간	1997. 2. ~6.
준공일자	1998. 3. 30
시공자	박대천

본란사진 : 박영재, Photographer : Park Young-Chea



스터디 모델

이 프로젝트가 가지는 장소성은 신도시 단독주택지내에 위치한 대부분의 땅의 모습이 그렇듯이 획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도시주택지보다 도로나 주변환경, 보행자도로 등이 비교적 친화력있는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빈 대지에 채워 넣어야 할 생각들은 노출된 시선들을 원가 슬쩍 가려지고 보여주고 암시할 수 있는 표정이 필요하며, 집이 가지는 방어적 속성을 거부감 없게 표출하는 것이다. 두면의 도로와 또 하나의 보행자 도로는 집 전체가 결과적으로 길거리에 나앉는 모습을 갖게 하기 때문에 주거생활의 일부가 적절한 장치로 인해 걸려져야 할 것이다.

도로의 일부를 동근벽과 가벽, 철넝쿨이 걸린 그물망은 일산의 복서풍을 막기 위함과 외적인 물리적인 요소를 방어하는 영역의 경계가 된다. 이러한 것들은 내적공간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음이며 외적으로는 절제된 시각적 단합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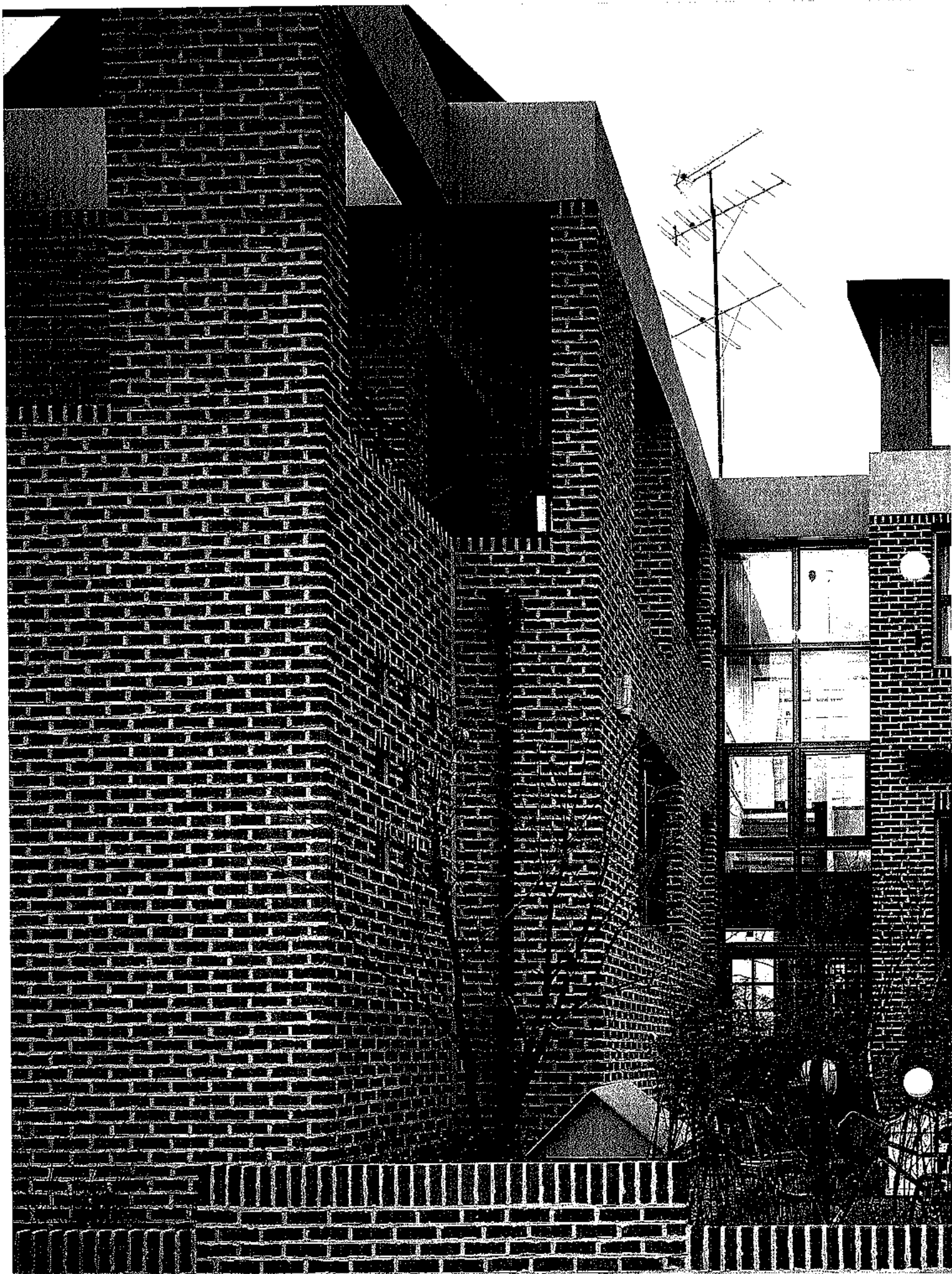
이 집의 시작은 외부에 할애된 몇단의 계단을 통과하는 포치부 분이다. 그곳은 소나무 그늘과 반쯤 가려진 차단막, 캐노피는 그장소가 출입구임을 알림과 동시에 반쯤 걸려진 중간영역의 매개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는 그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장소와 서두르지 않고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하며, 방향전환과 더불어 마을 전체 할애되어 반공개된 사적 영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지나치는 이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줄 수가 있다. 일종의 동적과정에서 정적과정으로 바뀌는 걸러내는 중간과정인 셈이다. 마당을 싸안은 두 개의 상반된 매스와 계단은 그 사이로 슬쩍 보이는 마당을 인지하게 하는 시각적 변화와 동시에 계단이 이집의 중심이 되는 순환과 방향성을 인지하는 수단이 되게 한다.

이 장소는 매스와 영역을 분절시키면서 내적공간과 연결된 중간 매체공간으로 존재하며 출발점과 연속되어지는 실의 방향과 느낌을 갖게 한다. 그곳은 이동되는 위치에 따라 제한된 풍경을 갖게 하고, 시간과 계절의 모습을 간간히 외달게 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배려이다.

식당과 복도에서 연계된 툇마루는 반투명 막과 소나무잎, 대나무 가림이 있는 정취와 더불어 여름날을 위한 포근한 썬치마당이 될 것이다. 이곳은 도시단독주택이 누릴 수 있는 숨겨진 장소로서 가족모두에게 또다른 친화력과 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2층의 침실에 있는 높은 천장과 가벽, 3개의 개구부가 있는 막힌 테라스와 노란벽은 그 장소를 외부공간이 내부화하는 장치로서 밤하늘의 별과 달을 제법 별과 달같이 볼 수 있게 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한 공간이동에 따른 시각적 변화는 경사진 녹색의 정원, 날마루 깔린 조그만 다리, 하늘이 열린 반개된 테라스, 반투명 막에 가려진 썬치마당, 같은 장치들에 의해 시작과 끝이 반전되기도 하고 이동과 멈춤에 따라서 정제된 차경효과와 더불어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에 따른 변화하는 매개공간의 순환체계를 갖게 한다. 그것은 때때로 잔잔한 감동과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두드러지지 않는 이 집의 특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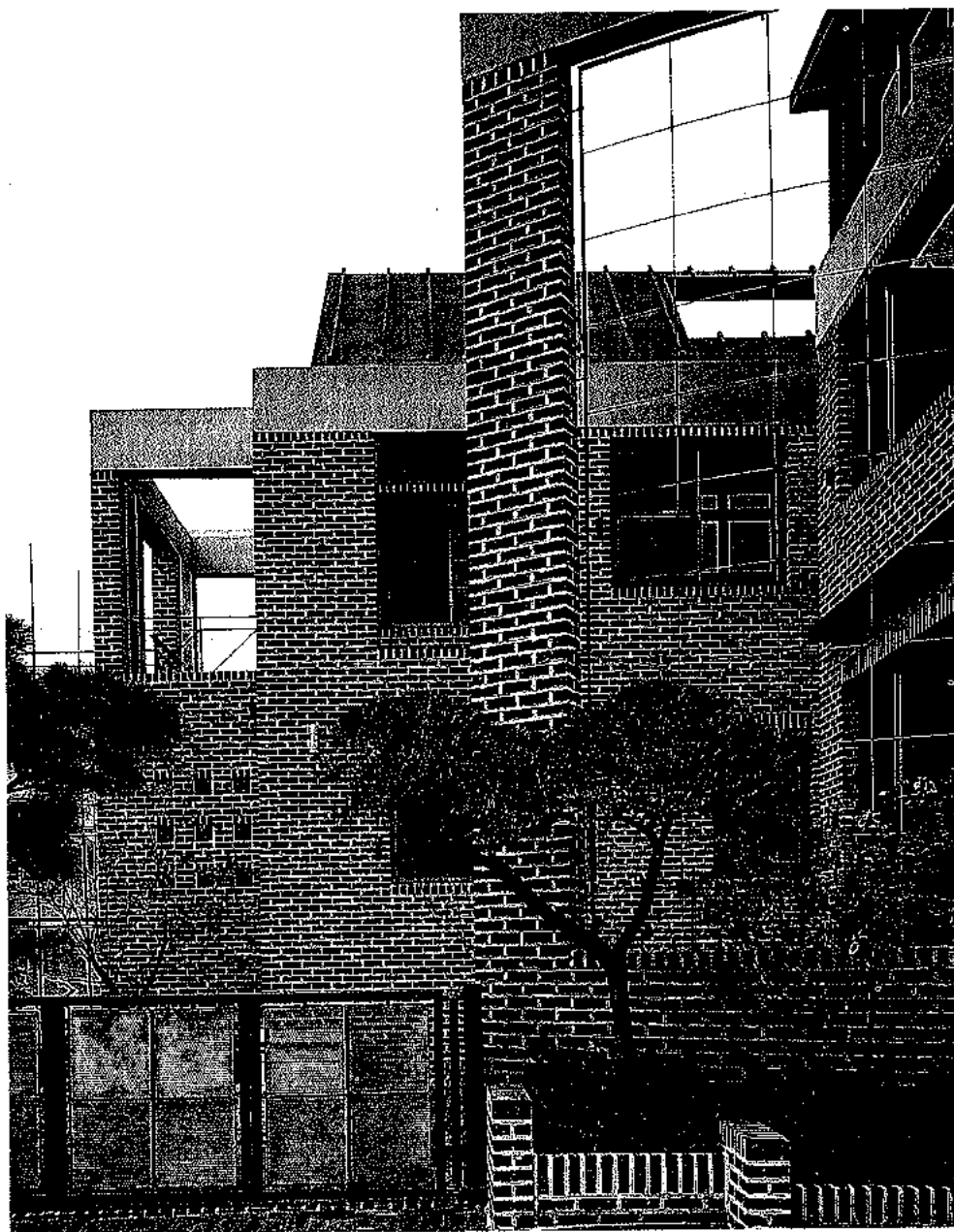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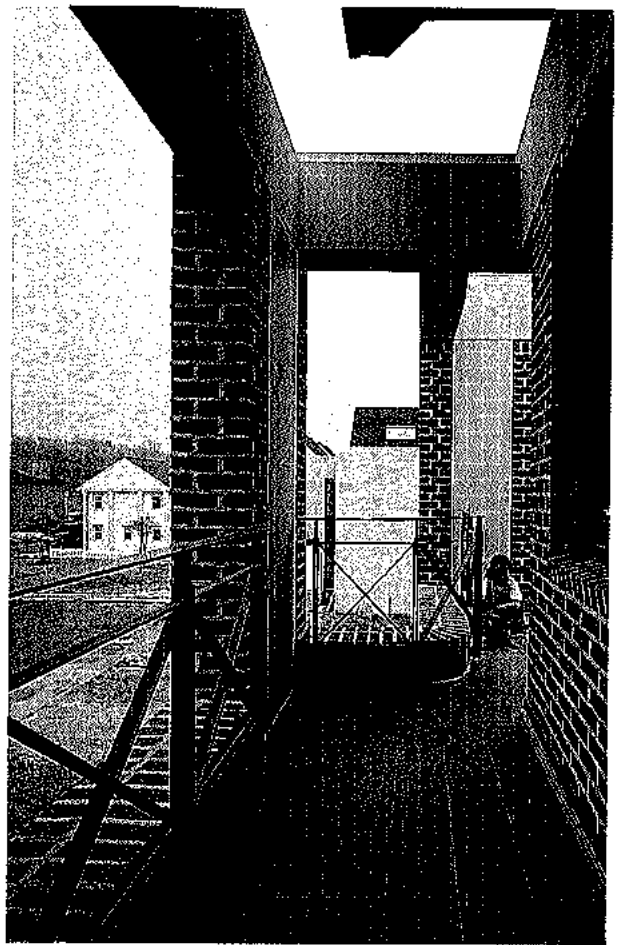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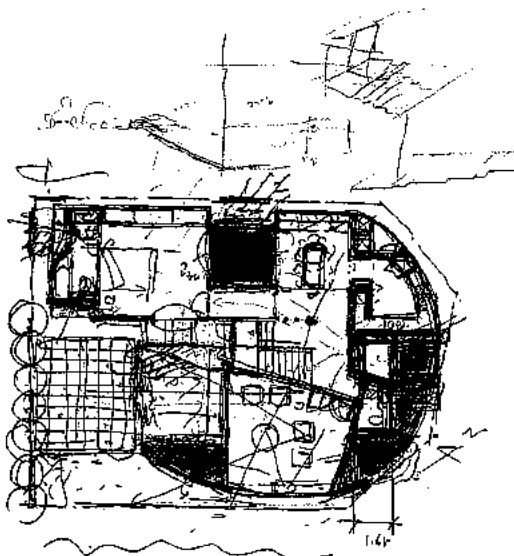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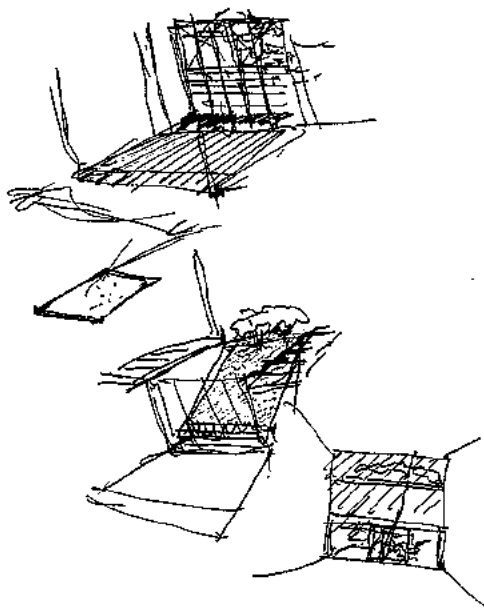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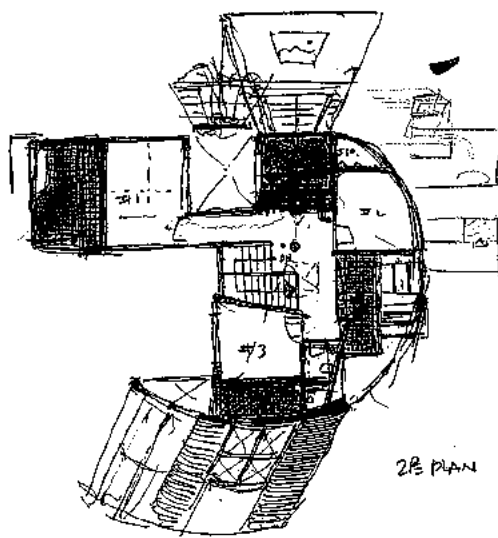




남측마당



남측마당 출입구 전경



2층 테라스



뜰지마당

The site of this project shares a lot of features of other areas in a private housing region: it is rather uniform without any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is place, however, presents a sense of scale somewhat more intimate.

The basic idea to be fitted into the site was that of subtly covering all the exposed aspects, and to express the defensive attitude of a housing in a discreet way. The bordering two roads, with the addition of yet another pedestrian way, makes the site totally open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o the closure on certain parts of the housing was necessary. This was met with the solution of placing a waving wall, a free standing wall, and a wire mesh filled with vines on the boundaries, which also have the function of blocking the regional north-west wind. These will provide comfort and stableness in the interior spaces, and to the outside a controlled exclusiveness.

The beginning of this house is the porch which is intervened with a few steps, where shades of the pine tree and the inviting canopy play important roles in mediating the exterior and the connecting interior spaces. They provide the visitors of a space for a brief pause and guides them in a new direction. They also are semi-public space visually connected to the outside street, where passers-by can enjoy its various views.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a place of transition from a process of movement to that of stillness.

The contrasting two volumes surrounding the garden reveals its view very discreetly so as to provide visual dynamics, and the stairway placed between them displays the overall circulation of the housing.

This place articulates the volume and area of the housing, and becomes connected to the interior space, forming a continuous flow from the beginning of the house. The movement of the viewer provides them with the changes of limited vistas, which varies along time and season. The rear porch linked to the dining room and hallway is supplied with opaque screen, pine trees

and bamboo pipes that confine its space. It should be useful especially in the summer, as a hidden garden in an urban context provided just for the family with intimacy and warmth.

The skylight in the bedroom of the second floor, the free standing wall, the terrace with three openings and the yellow wall together internalize the exterior as an indoor space, where stars and the moon of the night sky can be seen quite likely as stars and the moon. The changes in visual features along the viewer's movement is further enhanced and at times subverted in the slanting of the garden, the small bridge with wooden floors, the terrace with a cover half-opened to the sky, and the garden behind the opaque screen. The looking and the looked at together create a ever-changing circulation system of mediating spaces. They are modest features of this house that stirs up the viewer's delicate emotional effect.

Location Janghang-dong 822, Goyang Shi, Kyonggi-do

Area Classification Urban Design Area, Local Housing Area

Site Area 2335 m²

Building Area 110.38 m²

Total Floor Area 244.96 m²

Building Coverage Ratio 47.27%

Gross Floor Ratio 79.73%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ings Walls - Red Bricks, Roof - Bronze Shingles

Project Architects Park Jung-lan, Park Joon-young

Landscape Design Hwan Architects

Electrical Installations Suchang Engineers

Mechanical Installations Bowoo Installations

Design Period Feb - June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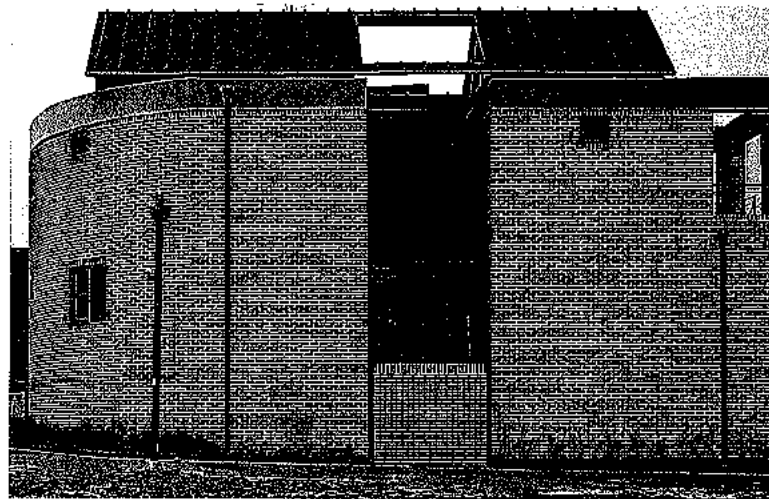
Construction Completion Mar 30, 1998

Construction Park Daec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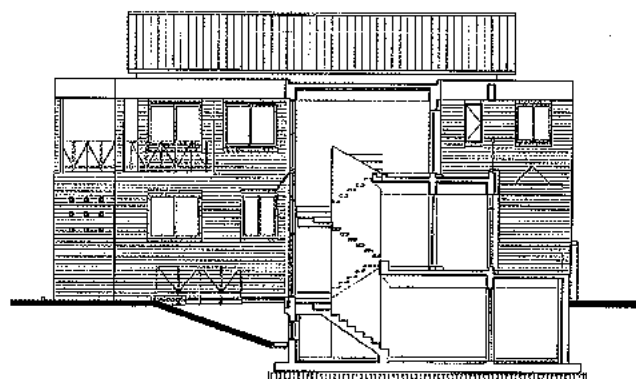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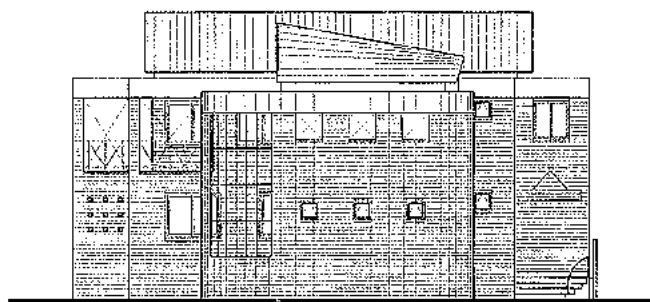
북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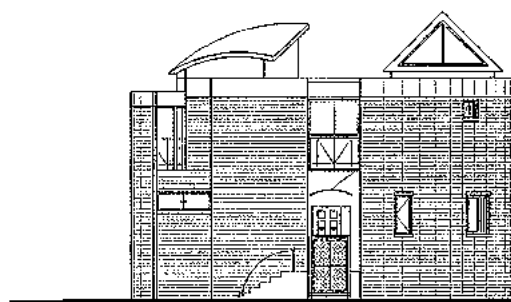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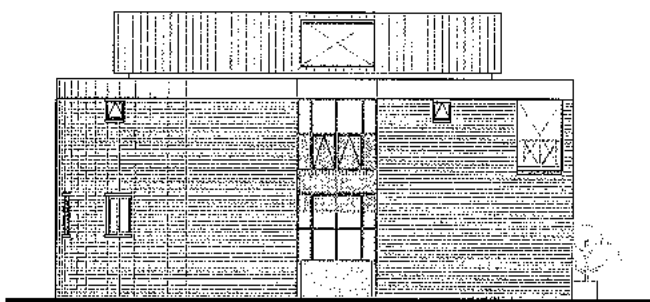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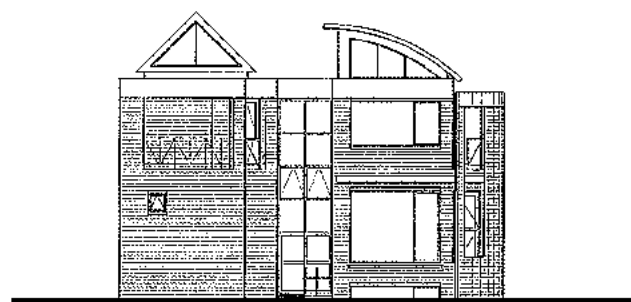
정면도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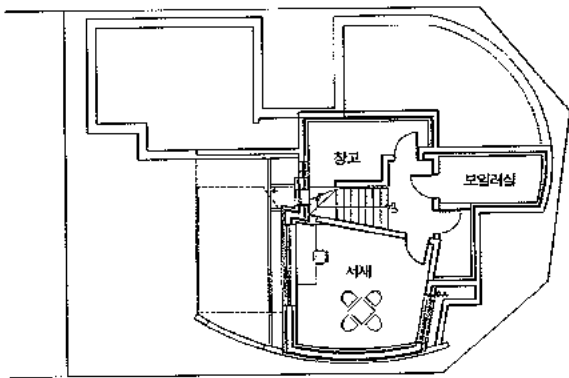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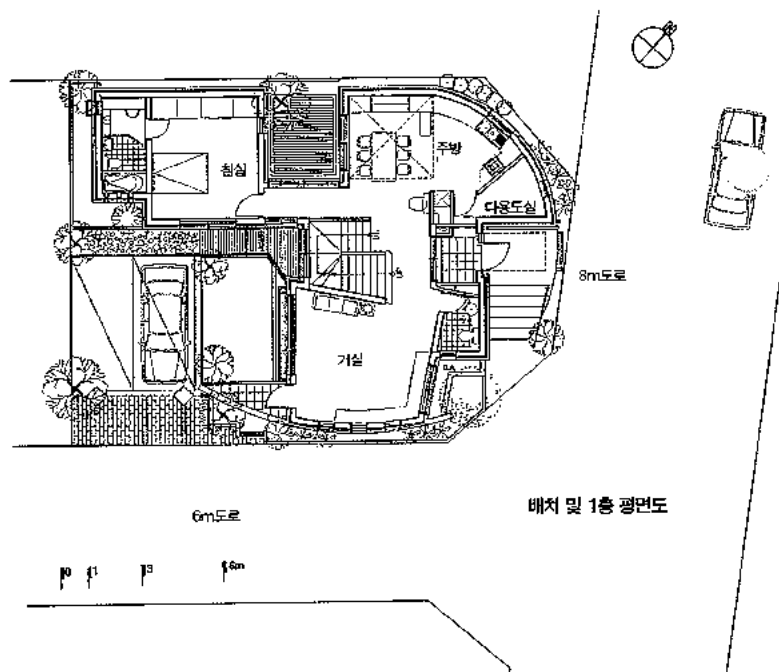


서측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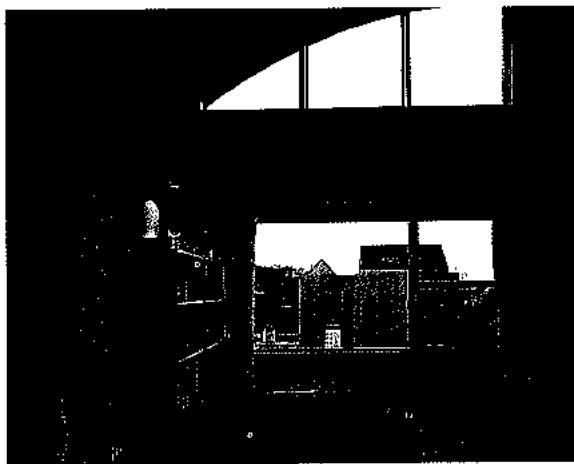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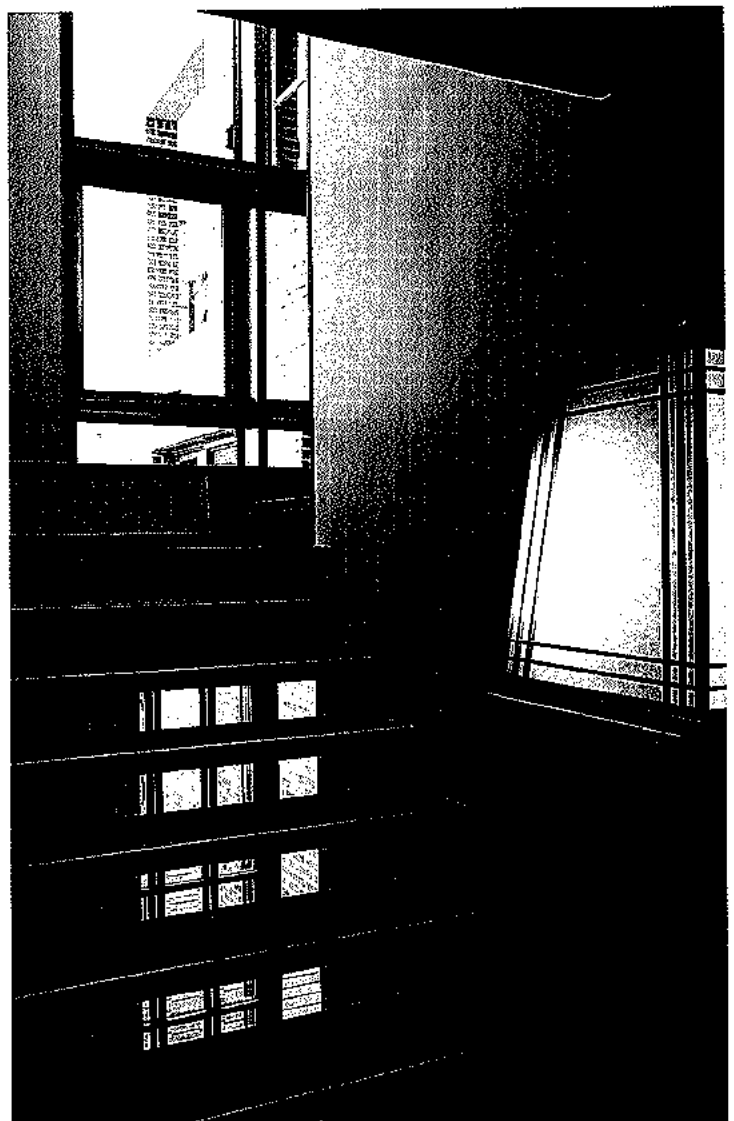


6m도로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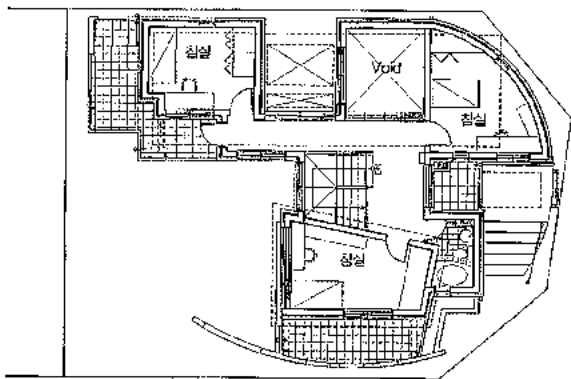
2층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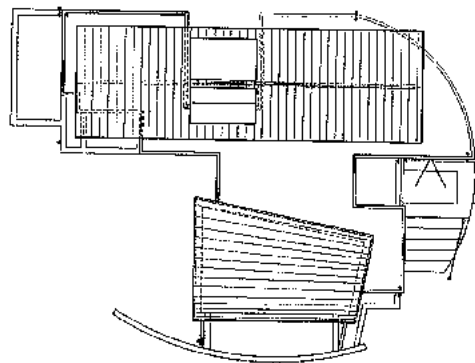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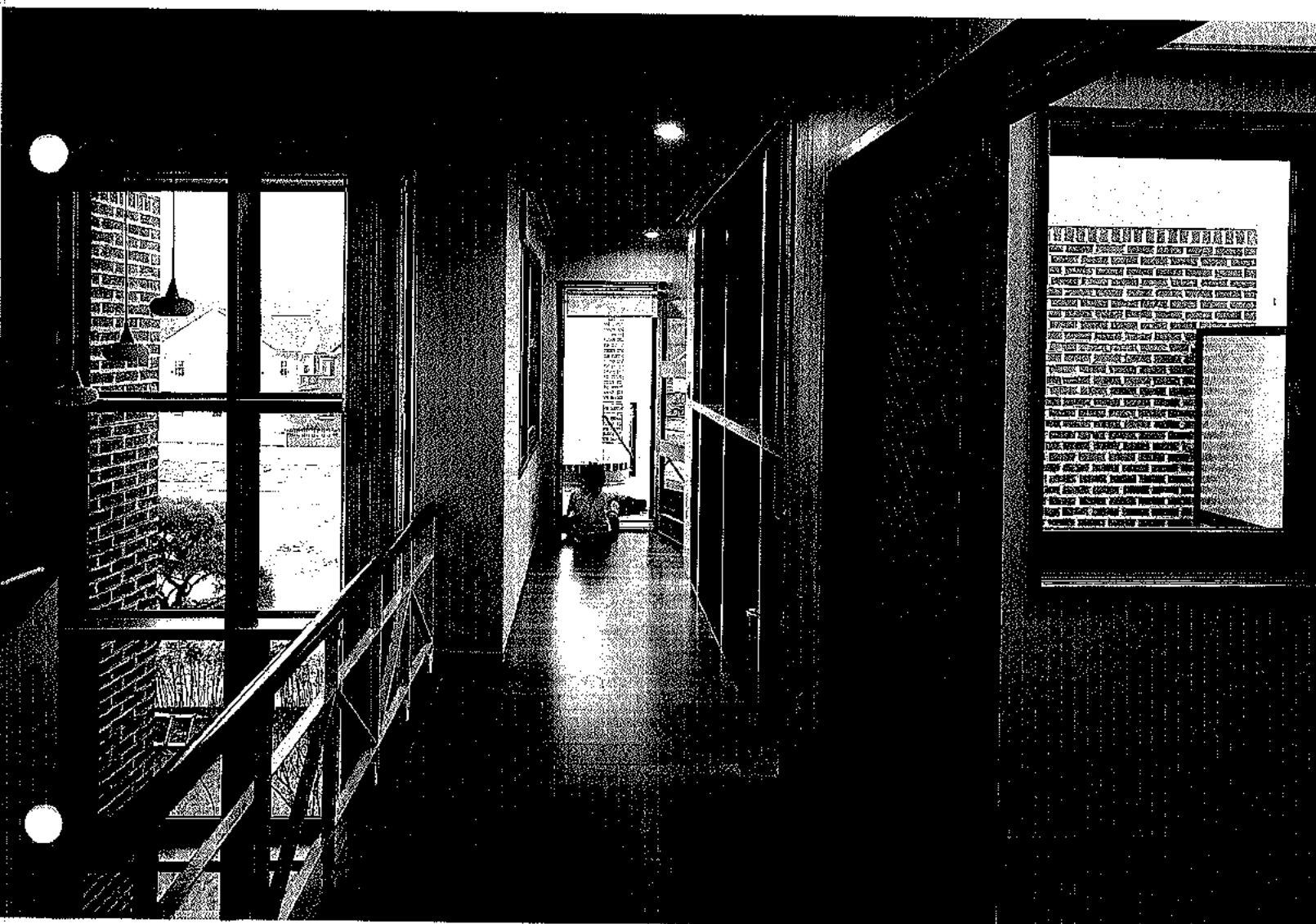
2층 복도



2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2층 복도

이 시대, 주거의 보편성에 대한 물음

This Era's Question of
Generality in Housing Architecture

대담자 / 손기찬(건축사사무소 동아)
설계자 / 송광섭(한 건축사사무소 / 인하대 건축과 겸임교수)
by Sohn Kee-Chan VS. Song Kwang-Sub
일 시 / 98. 4. 15(수) 오전 10:00
장 소 / 한 건축사사무소 회의실



대담광경(좌: 손기찬, 우: 송광섭)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끝없는 생존양식을 위해 많은 건축행위를 필요로 하고, 그 중 주택은 인간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담고 있어 건축의 가장 기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택은 사회 문화적인 보편성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개개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 자기자신의 주거가 필요하고, 이는 개인주의와 물산주의에 힘입어 주택을 개인과 도시의 존재양식으로서가 아니라, 급조된 사회적 신분과 끝없는 소비적인 소유가치로서 존재케 하였다. 건축가 송광섭, 그동안 누구 못지않게 많은 주택건축작업을 해 온 그에게 최근 작품인 일산 장항동 822에서 그의 의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 주택의 사회적 보편성에 대해 물음으로서, 한번은 정리되어야 할 과제로서 대담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손기찬 '주택이란 우리들의 최초의 세계이며, 하나의 소유주이다' 라는 가스통 바슐라르의 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주택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의미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건축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 자신이 설계한 주택을 통하여 건축가 자신의 독특한 세계를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대상이 된 작품이 일산의 한 주택이지만 그 주택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은 과정을 통하여 나온 것이라 봅니다. 시대적인 요구에서든지,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적응방식에서든, 최근 주택의 흐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지요.

송광섭 60, 70년대에 지어졌던 주거는 격동기를 겪으면서 부족함을 메우는 기능적인 해결이나 간단한 시공상의 해법으로 지어진 실리적인 주거였고, 80년대 들어서 건축가들이 주택을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전 시대의 바탕에 의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80년대, 90년대는 주

택이 건축가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 자기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근래 건축하는 분들도 많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고 실용적인 집을 많이 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생활에 비취 본다면 그렇게 설계된 집이 건축적이라 보여지지만, 어떤 면에선 건축가 스스로 자기도취나 성취감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택은 사용자에게 쉽게 사용되고 편안해야 하며, 집이 부담되거나 집에 구속되지 말아야 합니다. 집은 스스로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건축주가 끼워 맞춰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요즘 짓는 주택을 보면 박물관, 미술관 같은 성격이 짙은 것 같아요. 집이 사람을 정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공유할 수 없는 특이한 공간이 되어 주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괴리감을 갖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란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접근되어 있으면서, 건축가가 사용자에게 한 두 가지 정도 편안히 느낄 수 있는 건축적인 공간만을 제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손기찬 듣고 보니, 주택의 접근의도가 편해 보이는데요. 송소장님의 작업과정이 건축가적인 작품이라기 보다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반포 P씨주택은 참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83년 준공되어 1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당시 주택의 전형이 아니었는가 생각되지만 정원이 있고, 긴 처마가 있고, 온실을 채택하는 등 외부 자연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것인데, 반면에 논현동 주택이나 최근의 빌라들은 상당히 변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건축가의 의지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여건에 의한 것인지요.

송광섭 두 가지 요인 다겠지요. 먼저

반포 P씨주택을 보면 마당을 마당같이 써 보자는 생각과 온실로 자연을 끌어들이는 것은 평면을 구성하다 보면 집이 너무 기능적이고 삭막하게 될 것 같은 생각에서였습니다. 통로과정이나 중간과정에서의 변화는 여허가 더 풍부해질 것이고, 나머지 개체들이 비교적 기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논현동주택과 빌라는 실리와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지요. 앞서 말한 주택은 건축주가 자신이 살려고 지었던 집이고 후자는 상업성을 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출발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손기찬 _____ 오늘날의 주거는 도시화되고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부공간보다 많은 내부공간이 요구됩니다. 송소장님 같은 경우 중간과정공간, 즉 마당을 설정하셨는데 사실은 마당이라면 생활과 관련된 복합적인 기능이여야 하는데, 전통적인 마당의 어휘를 쓰기에 그 중간과정이라는 것이 다분히 시각적인 정원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요. 오히려 명수동 빌라의 마당은 여유가 있었는데 논현동이나 가회동주택에서는 마당으로 보기에는 시각적인 정원의 효과 이상의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광섭 _____ 마당의 기능은 다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단독주택이나 도시주택의 마당이라는 것은 자연을 끌어들이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마당이 시각적인 기능을 가진 '보는 마당' - 일본의 경우처럼 - 하면 우리의 마당은 대부분이 생활이 혼재된 기능이 많습니다. 일부 극단화시켜서 공간을 비워 놓은 경우도 건축적인 컨셉이 있다고 보지만, 우리 옛 건축에서 보듯이 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다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그 집은 그것으



반포동 P씨 주택

로 인해서 불편해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속박을 주게 됩니다. 집은 가족과 생활하고 싶은 일들을 어떻게 묶어 주느냐의 문제이고, 건축가가 의도한 공간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즐길 수 없을 때나 의도적인 공간이 무엇인가가 불편하다든지(대부분 건축주가 끌려 살게 되는 경우) 하면 그러한 집은 결국 좋은 집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분명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며, 시간이 지나도 새롭고 또 채움자의 삶의 방식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사회 변화가 급격히 변하여 5년이나 10년이면 건축주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특수해로 얘기하면 포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남들할 공통분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기찬 _____ 주택의 보편적인 기능을 언급하신 것은 우리의 이야기 방향에 좋은 전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가가 설계해서 완결성이 높은 공간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 완결성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설계된 형태가 파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광섭 _____ 저도 건축가가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들만을 위한 집이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고, 건축 의도를 공간화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있어 건축가의 완성도, 성취감이 높을수록 건축주에게는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건축주에게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여유라는 말이 애매할 수도 있지만 건축주가 참여하여 변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를 준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완벽한 공간을 제안하게 되면 오히려 건축주가 원하는 가구를 놓고 싶어도 쉽게 놓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자의가 아닌 남을 의식해서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집의 생활은 자기 생활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건축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완결성이 아니라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 쉽게 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기찬 _____ 그런 여러 가지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려면 형태나, 작품에 가까운 작업보다는 생활양식 또는 재료, 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 스테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 주거는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나 공법이 발전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건축가의 폭넓은 참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요?

송광섭 _____ 요즘 유행같이 지어지는 주택들은 사실 우리 나라의 기후에 못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 장마철 1200밀리의 폭우나, 겨울 혹한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에 있어야 할 주택이 우리 나라에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우리의 기후는 분명히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지게 된다면 그 집은 2, 3년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디테일을 나름대로 해결한다 해도 사계절의 온도변화가 거의 40~50도에 가까운데 거기에 견디는 재료는 없습니다. 우리 옛 집을 보면 초기집이든, 한옥이든 치마가 있어 빗물이 벽에 직접 내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생활, 자연에 대한 지혜지요. 이런 지혜를 우리 건축가들이 주택을 설계하면서 너무 쉽게 간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나면 그것이 공공건물이나 오피스빌딩이면 관리자가 제3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관리자는 건축주 자신입니다.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집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건축주가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른 불안족인 셈이지요.

손기찬 _____ 개인적으로 주택이 전체 건축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체들이기 때문에 자제라든지 이에 따른 부수적인 산업이 발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가의 참여의식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에 건축가가 설계하는 건물이 5%정도라는 믿을 만한 추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집장사들이 짓는 집은 사실은 건축가의 간접적인 영향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장서서 가는 건축가가 있음으로 해서 뒤따라가는 집장사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의식하든 안하든 영세한 집장사들이 건축가를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송광섭 _____ 네. 맞는 지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장사들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집장사들의 집들은 쉽게 공사함에도 거의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집들을 지으면서 하자에 대한 기술을 쉽게 습득하고 있으면서 공사비는 싼니다. 그들은 집을 팔 생각으로 짓기 때문에 집을 살 사람의 생각과 시대적 요지를 읽고 있어요. 그러나 건축가들은 그것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지은 대부분의 주택들은 기호성도 적고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이 되고, 시공이 완성도 면에서 설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0여년 전에 강남일대에 똑같은 재료, 똑같은 지붕으로 통일되어 지어진 집장사들이 지은 집들이 오히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공통된 통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즘 지어진 집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깨고

있습니다.

손기찬 _____ 우리 나라에서는 건축가가 주택 시공에 참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시공에 참여할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서 집장사에게 배울 게 있다는 것은 시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이 설계로서 끝나지 않고 시공 내지 사용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송소장님은 건축가의 시공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광섭 _____ 건축주가 동의한다면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건축가의 생각을 잘 따라 줄 시공자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공비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경우도 있고, 건축주의 오해여지가 발생할 수가 있으나, 시공의 완성도 면에선 비교적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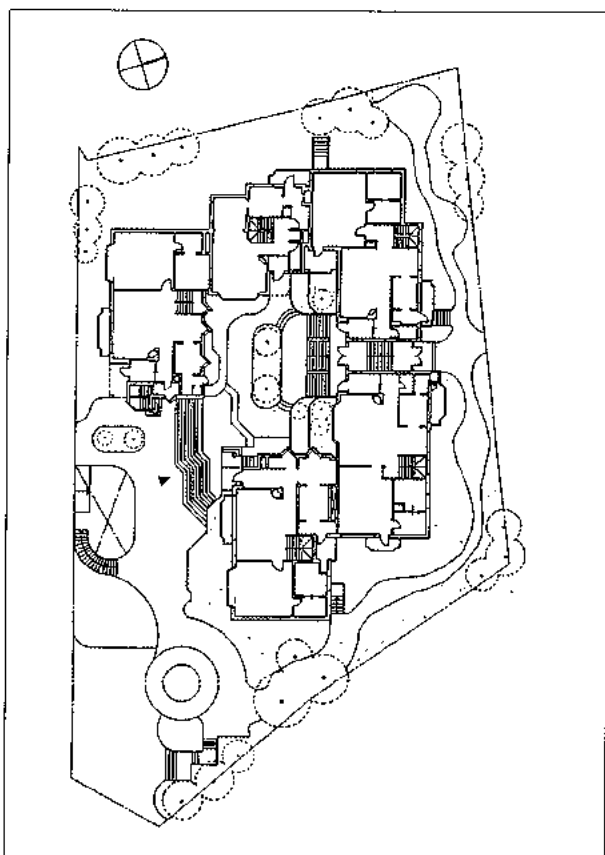
손기찬 _____ 원시시대부터 주거라는 것이 - 하이데거는 주거 자체가 우리 인간이 지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 사실은 존재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동참여하고 사용자 스스로 참여하여 스스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전문가가 생겨나고, 더 분야가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사용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버렸는데, 일부 농촌이나 미국같은 경우는 자기가 간단한 작업에는 직접 참여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용자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송광섭 _____ 주택에 있어서는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것은 공간을 채우는 가족간의 공동작업에는 일하는 즐거움도 있고, 이런 작업들을 통하여 좋은 가족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가까이 집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일을 즐겨워하는 건축주가 있는 반면, 요즘 아파트에 익숙해져서 그러한 일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건축주가 시공에 참여하는 것은 직영공사 정도이며, 건축물의 부분적 참여는 건축재료의 비규격화와 반제품으로 개발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기찬 _____ 이제 일산으로 들어가 보면, 신도시 개발형태의 모범적인 주택단지가 일산 전원주택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모범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도 될 수 있고 하나

의 유형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단독주택 단지에서 그 많은 다양한 외관과 마감, 자재에서 보편적인 해를 찾을 수 없는 것 인지,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여지는데요. 분명히 단지계획을 해서 만들고 어떤 디자인크리테리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주택의 정주성으로 보여지기보다는 다분히 가설무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 서부의 활기 있는 곳에서도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세계적이고 광복할 만한 주택단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화곡동 주택단지라든지 개봉동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국민 주택유형들이 비슷한 형태로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좋다는 의미는 아까 이야기한 통일, 반복, 질서의 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인지...

송광섭 _____ 일산의 도시계획지침은 비교적 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축가가 할 세부지침까지 나와 있지만 요즘은 변질되어 갑자기 집들이 전시장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매스컴에 편승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외국문화를 받아들이기 때 너무 분별없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불특정 단위의 통괄된 어휘의 집을 제안하는 것



명수대 S벨라

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필지를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각자 기호와 생각,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간에 혼재되어 버린 것입니다. 관에서 허가를 내어 줄 때 도시계획과 통일된 것만 심의 해 준 것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심의했기 때문에 온전한 심의가 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애초에 의도한 일산의 도시계획이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도시를 만든 개념이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것인데 애초 취지와는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 규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면 질서 있게 그룹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유형에서 선택하리든지, 아니면 어느 건축가, 설계집단, 어느 회사 등 절제된 공통분모를 가지고 선택하게 했다면 좀더 좋은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손기찬 _____ 그런 책임이 정책일 수 있고 아니면 집장사들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건축가의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완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치부되기에는 분명 건축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끼리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송광섭 _____ 건축주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산에 개개의 땅을 분양 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내 개인의 재산으로만 생각할 따름입니다. 시대적으로 보아 건축주의 사고가 사회 전체를 생각할 만큼 여유 있진 않습니다.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어때' 라는 생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손기찬 _____ 그렇다면 건축가의 역할이 의심스러워지고, 건축가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주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건축주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건축주를 대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 보는데요.

송광섭 _____ 건축주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건축주의 의도도 있겠지만, 건축주가 원하는 것을 모두 수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주가 편하게 살아가 수 있게 접근하는 것이고, 또 건축가가 봐야 할 것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규사항이 제한하는 것이 모순도 있지만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잘 읽었다면 자금과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손기찬 _____ 일산의 도시계획의 처음 의도는 공동체로 단지계획을 해서 공동의 주차공간을 둔다든지, 물을 만들다든지 하는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바슬라르는 집을 소우주라고 했는데, 소우주라는 의미는 사실 전체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산에 보면 개채만 있고 도시라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물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집과 도시와의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처음 지어진 동네보다 나중에 지어진 동네에서 두드러지는데, 일산에 세 채의 주택을 설계하면서 길과의 관계 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셨는지요.

송광섭 _____ 건축가가 물론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하겠죠. 건축주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부분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가는 단지 상황을 충분히 읽고 주변과의 조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과의 관계 설정은 이렇습니다. 일산주택단지는 담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정서는 담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또 경계선을 그어 봐야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정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외벽 자체가 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나머지 자투리 공간은 길과 연계하여 마을 전체에 할애해 주는 공간으로 해석했고, 건물 내에 있는 통로공간과 연계시켜 변화 있는 볼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손기찬 _____ 그런데 일산에서는 도시의 기존 주택과는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져 버렸는데 담이 없다는 것이 큰 전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반포 P씨주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담을 높이 쌓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사실 담이 없는 것은 대문이 경계가 아니라 현관문이 경계고 외벽이 경계니까 그 앞의 정원은 개방될 수 있고 또 공공에게 시각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데 우리는 대문이 틀림없이 경계선까지 와야 합니다. 실제로도 일산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어중간한 정원이 된 것 같은데...

송광섭 _____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연결방법은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곳에선 어차피 공개된 장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을 약간의 레벨 차와 사적인 영역 표시만 가능하다면, 건축적 해결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원은 내부에서 접근하거나 또는 통과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중간한 장소가 될 수 있지만 사용방법에 따라 다르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손기찬 _____ 미국 같은 경우는 앞마당이 개방되었지만 사적인 뒷마당이 있어서 괜찮은데 일산 같은 경우 대부분이 개방되어 버린 것 같고, 집을 외벽으로 막는 방법은 유럽의 전통적인 거리의 경우 담이 없이 마당이 할애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중정이 있고 외벽이 도로에 면하면서 상가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방법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골목이 모두 외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광섭 _____ 외벽의 역할이 서양의 경우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는 방어적 기능을 갖게 하는 점이었습니다. 어차피 50% 건폐율에 선 마당 같은 공지가 생기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처럼 길과의 관계가 건물과 길로 뚜렷하게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그 단지는 골목화가 되지는 않겠죠.

손기찬 _____ 그런 점에서 보면 장항동은 발전된 안으로 보여지는데 전면 외부공간에 할애되는 현관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있고 현관을 들어서면서 사적인 넓은 공간인데 어쨌든 이유가 주차를 2대 놓아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버려진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을 처음부터 긍정적인 공간으로 의도하신 것인가요.

송광섭 _____ 네 그렇습니다. 그 마당이 지금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시간은 주로 밤시간대입니다. 낮에는 그곳을 정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녹색공간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냥 잔디를 깔면 잔디가 죽게 되기 때문에, 느낌은 다르지만 잔디보호용 그릴블럭을 깔았습니다. 차가 없는 낮에 아이들이 공놀이를 해도 잔디는 부분적으로 살아나죠. 주차 공간을 낮시간과 밤시간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손기찬 _____ 그렇다면 첫 번째 주택 같은 경우에서처럼 주택을 가진다는 의미가 정원, 마당을 가진다는 의미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정원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용한다는 의미는 내부 공간, 또는 인방과 관계되어 있는데 자하실 같은 경우 드라이에이리어로 마

당과 차단되어 있고 그 마당에 담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길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이 옹 면에서 보면 오히려 바깥에서 보기 위한 마당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송광섭 _____ 그 마당은 내부 계단의 통로와 연결되어 있고, 주방 식당과 가깝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곳은 개를 키울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잔디를 밟을 수도 있고, 야외 식사공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차장 출입구가 외부의 길과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적 마당의 성격이 강하고, 외적으로도 정돈된 마당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손기찬 _____ 건축가가 생활의 그릇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기 개성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송광섭 _____ 생활의 그릇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건축주가 바라는 상황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손기찬 _____ 그렇다면, 일산의 주택들이 그렇게 다양해 질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게 다를 정도로 다양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송광섭 _____ 사용자의 생활 습관,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집의 형, 기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양해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설계한 세 채의 집들은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주와 제가 좀 더 집요하게 생각했던 경우는 일상적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논현동 L씨 주택

세 번째 집을 제외한 첫 번째, 두 번째 집은 적은 공사비로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건축가가 완성도가 있는 집을 의도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집은 비교적 그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고, 건축주 자신이 좀 즐거울 수 있는 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해졌지만, 보편성과 일상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손기찬 _____ 그렇다면 건축가는 일정 공사비 이상의 주택의 경우만 좋은 주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이면서 생활을 담을 수 있는 좋은 집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송광섭 _____ 두 가지 다 해당한다고 봅니다. 정말로 좋은 집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내용이 풍부한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건축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건축가가 공사비에 맞는 공간형식, 재료를 선정해 주면 건축주는 자신의 생활 습관에 따라 승낙합니다. 생활을 담는다는 것은 삶의 질에 따라 건축가의 제한된 의도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편의성이겠죠.

손기찬 _____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건축가에게 하이코스트의 좋은 여건으로 주택을 맡기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고, 보기 위한, 하나의 오브제로서의 주택이 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건축가가 설계한 집은 비싸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어 일반인들에게는 거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송광섭 _____ 그 문제는 대부분의 건축가가 공사비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꼭 하이코스트라고 해서 건축물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주택은 보기 위한 오브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통용될 수 공사비는 책정되어야 합니다. 건축가가 예산보다 많이 드는 설계를 한다면 건축주는 부담이 됩니다. 건축가가 작품으로만 의식하면 종종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고 건축주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손기찬 _____ 그러면 일산의 다른 집들과 비교해서 송소장님께서 설계한 집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송광섭 _____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보수적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쉽게 승낙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와 재료, 공간의 연결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손기찬 _____ 83년 반포 P씨주택 설계 후 1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재료나 형태, 볼트의 채용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변화는 사회적 상황이 변한 데 있는 것 같은데, 80년대 말과 90년대 초가 다르듯 일산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사회적 심리상태도 다를 것 같은데요.

송광섭 _____ 예, 다릅니다. 제가 경험이나 공부로 얻은 것도 있지만 집이 다른 시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의 제가 설계한 주택에서 보면 공간이나 형태가 외형적인 것이 고작이었는데, 근래 일산에 세 채의 주택을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내부에서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과정적인 순환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족을 한 울타리로 엮어 놓았지만, 각 개체인 방을 연결해 보면 서로 다름에 따라 가족의 생각과 경험과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와는 다르게 단독주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처럼 구획된 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가깝지 어떤 과정이나 생각,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준다면 시각적 변화와 함께 사계절의 기후 변화에 따른 공간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시각적 변화는 내면의 생활에 변화를 주면서 생동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건축에 있어서 생활을 담아 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기찬 _____ 장항동같은 경우 과정공간을 의식하여 개체와 개체를 연결시켜 주다 보면 실이 너무 고정되어 융통성이 없어져서 그것이 실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가변성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이 주택의 중심개념을 설명해 주시지요.

송광섭 _____ 가변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 지 모르겠네요. 장항동 주택의 외피는 북서풍에 대한 고려와 주택의 방어적 속성이 고려된 것입니다. 외부공간의 형식은 아까 얘기한 동도의 일상적 미당과 현관 입구의 레벨을 달리한 반 공개된 포치가 있고, 식당과 연계된 키타루 같은 씬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하늘로 열린 테라스가 있습니다. 현관과 연계된 계단실은 이 집의 중심이며 이동하면서 가지는 방향성과 시선의 변화, 외부풍경과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내부화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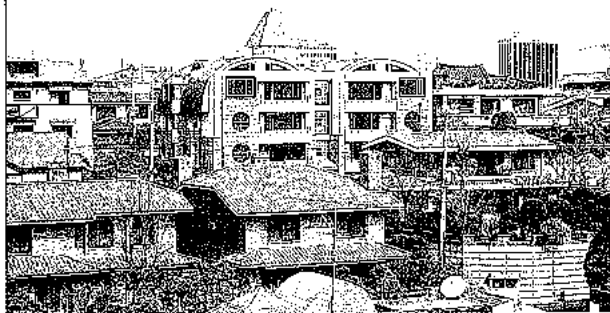
길의 시작입니다. 이 집의 가변성은 식물의 자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각 개별적 외부공간은 정형화된 개실에서 탈피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손기찬 _____ 앞으로 일산 단지가 완성되었을 때 주택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일산 단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해야 되는 것이지, 과연 지금의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송광섭 _____ 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혼재스러운 상황이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어차피 출발점이 그렇기 때문에 포이동같은 경우처럼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부수고 다시 짓게 되리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은 일상적인 모습과 보편성이 무시되어선 안 되겠지만, 전체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손기찬 _____ 찰스무어 같은 건축가는 이론적이라기 보다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많은 주택설계를 해 왔고 그것을 주택의 선택의 문제로까지 정리하였는데, 송소장님께서 '주택은 이래야 한다' 라고 압축시켜서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송광섭 _____ 결국 주택은 건축주에게 참여하는 즐거움을 줘야 해요. 생활을 담게 해 주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고요. 그 집에 사는 이가 그 집의 작은 요소에서도 감격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의 커가 물어 가면서 사용자가 새로움을 가진다면 좋은 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는 이것을 정리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어떤 형태가 독특하거나, 튀는 생각, 새로운 제한,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건축가가 실험적인 것을 도와시하면 안되겠죠. 여건에 따라 탄력있게 제



논현동 한우리 빌라

한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지어졌을 때 주변 사람 대부분에게 '그 집 참 느낌이 좋다'라고 이야기된다면 더 좋겠죠.

손기찬 _____ 그렇기 위해서는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나 공간에 대한 연구에 의한 즐거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용자가 실제 생활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려면 내부의 구성, 물리적 요소, 건축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송광섭 _____ 물론입니다. 설계 전 꼭 그들의 생활 습관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공간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사의 반영과 조그마한 장치를 해주면, 그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 공간을 즐긴다는 것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제가 말하는 즐거움이란, 일상적인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수층이나 건축가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기찬 _____ 그렇다면 사실은 건축가가 주택설계 시 너무 건축화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건축가가 폭넓게 알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 하는데 이것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축가의 범위랄까, 가구까지 디자인하여 주택의 완결성을 높임이 바람직한 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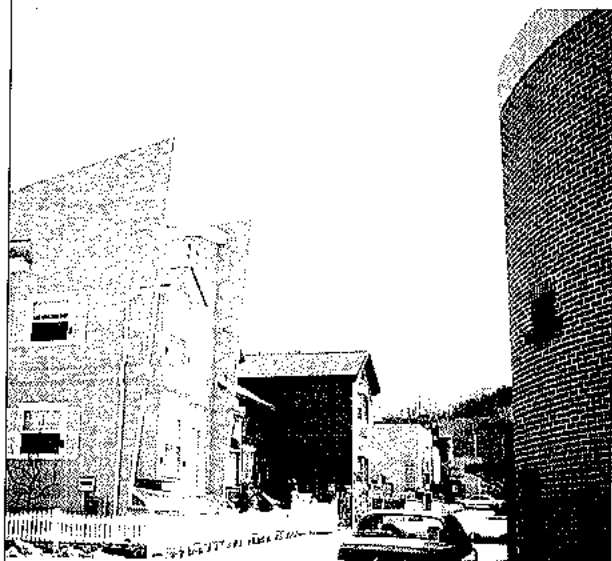
송광섭 _____ 우리는 너무 문제점만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생활을 봤는가', '생활해 보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생활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건축가가 보편적이고 평범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건축가적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진짜 건축가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가가 그들에게 여지를 준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생활의 범위나 가구의 디자인도 가능하지만,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게 한다면 참여하는 심성을 유발시킬 수 있고 주택의 실용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기찬 _____ 반대로 주택을 많이 하셨는데 책임을 느끼는 입장에서 반성적인 주택에 대한 시각은...

송광섭 _____ 설계를 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점들이 집을 지으면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 대부분의 건축가가 느끼는 것이겠지만, 건축적 개념, 시공의 완성도가 떨어질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감대를 갖는 공간, 공용의 공간, 매개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거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고 생활을 좀더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축적 자기 언어를 아직도 개발하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 어떤 면에서 시도되어야 할 개념을 너무 의도적으로 꺾한다는 반성도 있습니다.

일산 단독 주택 단지의 그 다양한 주택형상 만 큼이나 긴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건축가의 설계라는 것이 어느 주어진 시기의 건축 활동 중에서 극히 일부의, 때로는 무의미한 부분을 대변해 왔다는 사실만큼이나 밀려드는 파도와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에 휩싸여 떠밀려 가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일산 주택단지는 이 시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스를 수 없는 공시적인 유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부분의 역할을 맡아왔고, 또한 주거의 정체성과 주택의 보편성에 대한 물음에 계속 답해야 할 것이다. 우리 또한 방치된 유적지에 대해 통시적인 책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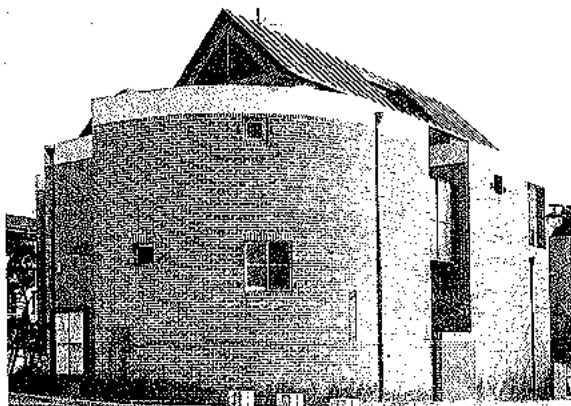
일산 주택군

시각적 필터로서의 주택

House as Visual Filter

김문덕/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by Kim Moon-Duk



신도시에서

최근 일산지역에 신축된 단독주택들이 주목받고 있다.

일산 1자집, 학익재, 일산 22393 주택에서 TV드라마 “남자 셋, 여자 셋”의 주 무대로 나오는 주택에 이르기까지... 건축가들이 단독주택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로서 일산지역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일산에 가면, 적지 않게 실망스러운 점도 느껴진다.

미국 어느 도시의 주택가에서 서 있는 듯한 목조 주택들의 모습... 과연 신도시는 각 나라 건축양식들이 난립한 건축박람회 전시장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IMF의 위기는 우리의 문화적 시대주의에서 생긴 것이구나 하는 느낌도 들게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베를린이 베를린이라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IBA건축전을 개최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분단 후 슬럼화된 지구를 재개발하기 위해 전세계 유명건축가들을 초청, 실제적인 건축물을 통해 주거공간에 대한 실험을 시도했던 것과는 달리 일산지역은 최근 수도권지역 중산층들의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경향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서 건축박람회 전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다.

우리나라를 홍보할 때, 반만년 역사의 단일민족이니 조상을 섬기고 고유문화를 사랑하는 민족 운운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과거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현재는 적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신도시의 목조주택들에서부터 조지 알마니움의 타원형 안경, 그리고 이스트팩의 가방에 이르는 서구 문화 사대주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건축물을 통해 조형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건축가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비관적이기 보다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일산장항 822라는 주택으로, 신도시에서 단독주택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건축가 송광섭에게 눈을 돌

려 보자.

주택건축가 송광섭

건축가를 주택건축가로 지칭하는 것은 건축가 자신에게는 실례가 되는 말인지도 모른다.

실제 송광섭은 대한건축사협회 회관을 비롯하여 반도패션 사옥, 사랑유치원에 이르는 비주거건축의 작품들도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를 주택건축가로 지칭한 것은 그가 다른 건축가들에 비해 많은 주택작품을 내놓았고 또 그의 작품을 건축잡지를 통해서 볼 때마다 주택건축에 애정을 기울이는 건축가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산장항 822 주택을 거론하기 전에 건축가 송광섭의 이전 주택작품을 한번 살펴 보자.

90년대 이전의 많은 작품들에서 보이는 특징은 우선 평면의 구성에 있어 계단실을 평면의 중심에 두어 조닝의 분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형태나 재료에 있어서는 박공지붕에 벽돌계열의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한 작품이 대다수였다. 80년대 말 초기지붕을 유추해서 곡선형 지붕을 채택한 화성 B씨댁이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면서 서서히 평면이나 형태, 재료에 있어 다양한 시도들이 그의 주택작품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물론 화성 B씨댁 이후 그의 모든 주택 작품들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평면에서 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나 평면구성에서 곡선이나 사선의 요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전개하고 있고, 외형이나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볼트형 지붕의 사용이나 외벽재로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산장항 822를 방문하는 날, 송광섭이 이전에 완성하였던 일산지역 주택들도 함께 둘러 보았다.

온실이 전면에 위치한 일산주택 37, 그리고 일산마두 949가 그것이다.

이 두 주택을 살펴 보면,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있는 두주택이 채의 분할이란 개념을 의식한 것, 외벽 일부를 시선을 도입하여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 담을 두지 않는 일산지역의 건축조례를 고려하여 일산마두 949의 경우, 식당 외벽에 창을 두는 대신 천창을 이용해 프라이버시와 채광을 해결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일산장항 822를 방문해 보자.

일산장항 822를 둘러보면서

일산지역 주택들은 우리가 도시에서 만나게 되는 도시주택들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담장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일산지역의 건축조례가 이 지역 단독주택들이 다르게 보여지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벽은 경계와 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원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려는 의도가 단독주택에도 투영되고 있으며 이런 제한조건이 우리가 방문할 일산장항 822의 골격을 형성하는 전제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팩스로 보내온 주택의 도면을 보고 느낀 것은 과거 머리속에 입력했던 송광설의 주택건축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원이라는 도형을 변형한 평면구성이 약간은 산만하게 생각되었다는 점이다. 아마 명쾌한 기하학적 도형에 길들여진 필자의 선입관에 기인한 것으로 후에 생각되었고, 또한 상기한 일산의 두 주택이 송광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유보하게 하였다. 오히려 실제 방문한 건축물 자체가 더 새롭게 느껴지면서 선입관을 불식시켰다.

남서측에서 바라보았을 때, 안마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곡선형 매스와 장방형 매스의 대비, 주출입구측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치장벽돌마감으로 처리된 곡선의 벽체와 가벽, 그리고 북서측 입면에서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망임유리로 처리된 반투명의 가림막 등으로 인상지워지는 이 주택을 보면서 건축가 송광설이 그의 이전에 일산주택들과는 다른 자세로 이 작품에 전력투구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필자가 이 주택을 둘러 보면서 생각했던 키워드는 “프라이버시장치로서 필터(Filter)” 이었다.

프라이버시장치로서의 필터

일산지역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단독주택에 있어 담을 두지 못하는 건축조례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공간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는 프라이버시의 노출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며 따라서 프라이버시의 유지를 위해 건축가는 어떤 공간적 형태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했을 것이다.

장항 822를 둘러 보면서 건축가의 설계소묘에서의 첫단어 “신도시 세 갈래 길모퉁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

다. 8미터 도로에 면한 모서리가 찢린 부정형하게 느껴지는 대지형태에 건축가는 어떤 건축적 질서를 도입할까 고민했을 것이고 3방향으로 노출된 공간에 중심적인 원형공간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장치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미 논현동 L씨 주택에도 시도하였던)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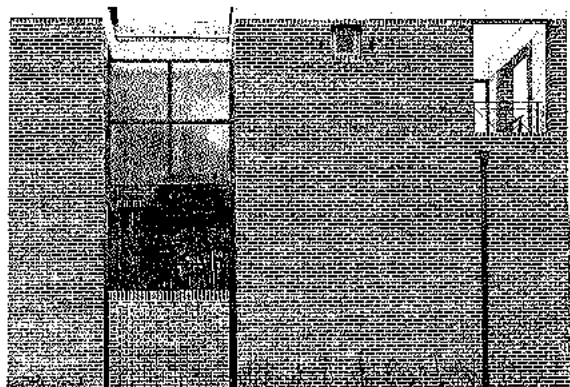
그리고 북서측의 매스는 도로와 평행한 장방형 매스를 취해 곡선벽으로 처리된 거실측 매스와 대비적인 균형감을 이루도록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3방향으로 노출된 이 대지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곡선의 가벽에 와이어 매쉬를 설치해 만든 미래의 차면장치(후에 창냉물이 와이어매쉬를 따라 지리면 형성되는), 북서측입면에 설치된 망임유리로 만들어진 차면시설, 주출입구에 세워진 편칭메달로 처리된 구조물, 그리고 1층 주침실과 식당 사이 상부를 오픈하고 바닥을 마루로 처리한 공간에서 있는 소나무들이 이 주택공간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방어하면서 내부에서의 시선을 내향적으로 제어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터라는 공간적 장치외에도 이 주택은 시각적 변화를 유발하여 실내외에서 공간감을 풍부케 하는 장치들이 의도화되고 있다.

실내외에 위치한 계단은 단지 수직이동장치만이 아닌 시각적 변화를 유발하는 장치로 오르면서 폭이 점점 좁아지거나 넓어짐으로 해서 시각적 변화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주택 역시 90년대 이전의 그의 주택처럼 계단실이 실내공간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공간을 조닝화하고 있지만 그 처리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의 주택들에서 계단실이 실내공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외부공간에 대해 폐쇄적인 형식을 취한 예가 많았던 데 비해 최근 그가 설계한 주택은 다천장이나 장항 822에서와 마찬가지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의 시각적 변화감을 최대한 증폭시키도록 시도하고 있다. 가벽 역시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형태적 질서를 조정하는 장치로 기능하면서 2층 발코니에서 바라보았을 때 시각적 프레임을 형성하는 틀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 주택의 골격을 살펴보면, 하나의 매스로 구성된 것 같지만 주침실과 식당간의 오픈 공간이나 계단실의 처리(계단의 발판 사이를 개방시켜 주출입구로 진입하면 발판 사이로 정원이 보이도록 하는)를 통해 채의 분할이라는 개념이 이 주택공간에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건축가는 이 주택의 실내외공간에서 개방과 폐쇄가 순환되는 전통공간의 느낌을 이 일산지역이라는 조례와 엮물려서 세심하게 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장항 822를 떠나면서

이 주택의 주출입구측 외부공간에 오브제로 처리된 자그마한 석조(石槽)가 놓여 있고 그 석조안에는 금붕어가 노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도시생활에서의 여유를 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주택에서의 자연과의 교감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즐거웠다.

지하 서재의 창을 통해 경사진 정원을 감상하도록 한 배려나 맞바람이 치게 고안한 창호의 배치, 2층 침실에

서 고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한 처리, 흙통을 통해 흘러내리는 우수를 유희적 요소로 처리한 것 등 건축가 송광섭이 이제까지 그가 시도하였던 공간장치들을 통합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산의 전작들에서 보여진 것처럼 건축가에서 건축주에게로 사용권이 넘어간 이후 거실이나 작업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수납공간에 대한 건축가의 배려가 이 주택의 거실공간이나 서재에 행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비단 이 주택의 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가들의 작품을 몇년 후 방문해보면 거실 등의 공간이 의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간 장항 822는 건축가 송광섭의 노력이 결집한 역작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건축가의 시도를 통하여 건축가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항 822를 떠났다.

What comes to focus in recent discussions of Korean architecture are the newly developed private housings in the new city of Ilsan. They are now the objects of the architect's various experiments on this building type, and popular among people since many provide locations for TV dramas and sitcoms. An actual visit to Ilsan, however, is not such a satisfying experience. Rather presenting the looks of a fragmented American landscape consisting of wooden houses, it is a display of uncompromising variety of architectural styles. Unlike the IBA plan of Berlin, which, for the purpose of redeveloping a decaying region, invited international architects to participate in a demonstration of new ideas on space and living styles of housing, the houses of Ilsan merely reflects the recent inclination of Seoul's middle class towards private housings.

We often mention ourselves as a nation proudly inheriting our unique culture that sums up the history of 5,000 years, but as we look into contemporary circumstances, these words do not seem to ring true. The flooding consumption of Armani's oval shaped glasses, the Eastpack backpacks and the Ilsan exotic housings all seem to be signs of our cultural dependence on foreign trends.

But among these madding crowd we still find architects striving to present his/her will to form, and one of them is arguably Song Kwang-sub of Hwan Architects, who recently completed his housing work in Janghang-dong 822 of Ilsan.

It may be politically wrong to call an architect an housing expert. Actually, Song has a number

of works that are not private housings, such as the headquarters for the Institution of Korean Registered Architects, the office for Bando Fashion Co., and the Sarang Kindergarten. But his works includes the number of housings which far exceeds that of other architects, and, over the last years, he has reminded us of this fact through many architectural magazines. Before the discussion on his Janghang 822 work, let's take a quick look back on his previous housings. His housing works before the 90s showed the unique composition of plan placing the staircase in the center and thus zoning its spaces, and also the continuous use of traditional materials and forms such as bricks and slanted roofs. The Hwasung B House of the late 80s marks a transition of style, with its waving roof suggesting the shape of traditional thatched houses and other 'new trials' on the space's arrangement, shape and material. As many of his housings are in Ilsan, a visit to the city gave many chances of encountering his works, for instance, the Ilsan House 37 and the Ilsan Maru 949. These two housings, placed nearby each other following a diagonal line, display similar features: the arrangement of spaces considering the traditional spatial unit of chae; the slanting of a part of the exterior walls; and following the code of Ilsan region, preventing the use of physical boundaries of traditional fences, or dams. To secure privacy, the dining room of Maru 949 has a window not on the wall but on the ceiling, inviting natural sunlight into the interior space.

The private houses of Ilsan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typical housings in other cities. The code that discourages the use of dam is a crucial factor that

marks their difference: here the exterior walls are the boundary of both interior-exterior spaces and each dwellings. The overall environment seeks an atmosphere of an idyllic housing, which provides the background for our investigation on Janghang 822.

The diagram of the plan that I received from the architect by fax had a rather unexpected shape: it seemed quite different from his previous designs, rather chaotic with variations on a circular form. This was later proven as a result of my preconception oriented towards geometrical forms, which was more than shattered on my actual visit to the building.

Seen from the south-west, the contrast between the curving and rectangular volumes in the inner garden provided a striking impression. The view from the main entrance displayed the waving wall finished with red bricks, whereas the north-west elevation showed the use of opaque glasses for visual privacy. These all suggested that the architect has approached this project from a totally new stance, which in some reason reminded me of the expression "filter as a device for privacy."

In the Ilsan city, where, as mentioned before, the regional code prevents the use of dam as boundary of each housing, there is some anxiety of the occupants on their living privacy, which ultimately affects the design of the architect.

Looking into Janghang 822, what came to mind was the beginning of the architect's own description: "a corner in a three way street from a new city." A street corner facing an 8-meter-wide road with an irregular shape, open to three sides, must have stimulated the architect, whose solution was to create an order with a center-oriented circular layout (This method has already been exploited in the architect's Nonhyun L House). Its exposure to three sides was dealt with the wire meshed wall, enabling vines to grow and create a screen, the wire-inserted window on the north-west side, the structure made of punched metal on the main entrance, and the pine trees in between the main bedroom and the kitchen. These protect the interior spaces from the gaze of the street, and direct its own inner gaze in a introspective way.

Apart from this device of 'the filter', this work presents various changes in its visual structure to provide a wide range of spatial experiences. The staircases located in the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are not only for vertical circulations but an object inducing variety in visual expression, which is further enhanced by its gradual change in width.

This house, like Song's previous works built before the 90s, has the staircase at the center of the interior space, thus zoning its plan composition. But its method shows a difference: whereas the earlier examples display the use of the staircase quite exclusive to the outside, here it is open to it and uses it as an object of visual changes. The free standing wall controls the physical dimensions of the whole composition, and simultaneously acts as a visual frame that arranges the view from the second floor's balcony.

The overall layout seems to be structured of a single volume, but as we can see in the open space

between the main bedroom and the kitchen, and in the exclusion of rises in the stairs that opens the entering person's view to the garden, the method of articulating chae in the inner spaces still rem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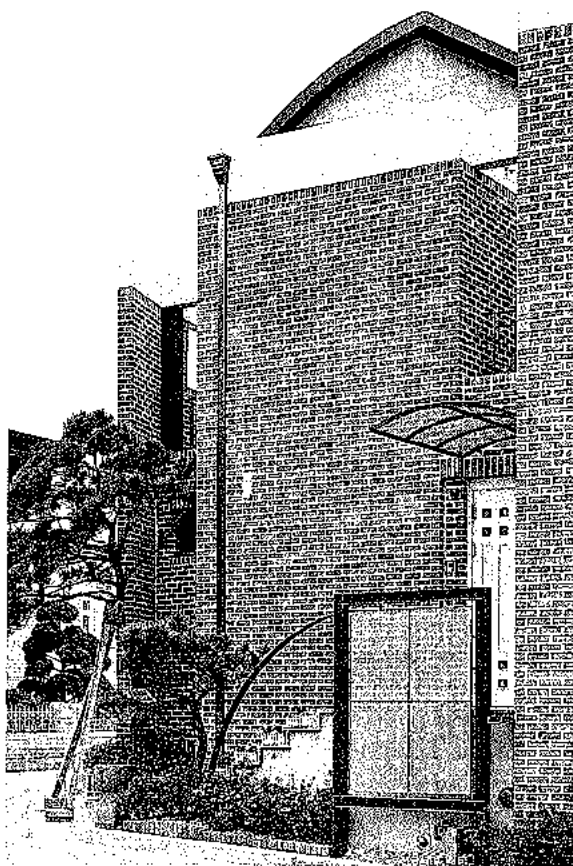
The regional architectural style of Ilsan has come in harmony with the spatial experience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s alternating between opening and closing, and created this subtle but effective piece of work.

There is a small carved out stone just outside the house's entrance, where we can see goldfishes swimming. It seemed to be enjoying the silence from the urban life, and at the same time symbolized a healthy dialogue with nature.

The window of the basement's study looking out to the slanted garden, the layout of windows to create a head wind, the window of the second floor's bedroom opening up to the sky, and the joyful use of dripping waters from the flume show that the architect's various creative devices are at play as a whole.

But as we can see in his other housings of the Ilsan area, the use of the client does not always correspond to the architect's intentions, so this should have been more an important factor in the design, especially in the living room and the study.

Nevertheless, this work is a tour de force synthesizing Song's past efforts. May these trials add to reach the architect's continuous endeavor to establish his own identity.



Xian

부대진 · 김무현 / (주)친아 건축 · 도시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Bou Dae-Jin & Kim Moo-Hyun

이 Project는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에 기존의 주택을 개조하여 동·서양의 음식문화를 혼합한 독특한 형식의 Restaurant을 계획하는 것이다. 물론 가장 큰 계획개념은 인접한 주거지역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주변의 요구에 의해 폐쇄적인 공간은 필수적인 것이었고 그에 따른 내부 공간은 건물 자체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결국 주변의 상황에 의해 건물의 표피에는 한계가 있었고, 모든 필요조건은 내부 공간의 창출에 의해 충족되어야 했다. 그래서 막혀있는 형태와 뚫려 있는 내부공간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 극적인 대비가 큰 이미지로 적용되었다. 비어 있는 공간, 차별화된 공간, 행동하는 공간, 이 세가지 개념은 계획건물이 폐쇄된 공간속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제공하는 요소들이다.

비어있는 공간 : 마당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이다. 전통건축에서의 마당은 비어있는 곳이다. 그 마당은 특별한 목적에 주어진 목적적 공간이 아니며, 빛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당을 채우는 것은 빛, 바람 그리고 장소뿐이다. 그래서 마당은 중심성을 갖게 된다. 이 Project에서의 마당은 중심성을 갖게 된다. 그 마당은 막혀진 두면과 2개층을 유리로 처리된 두면에 의해 구성되었다. 그 마당을 중심으로 식당의 좌석을 배치하여 밀접한 관계를 설정하였고 내부에서는 그 속에서 빛과 바람같은 환경적 요소를 느낄 수 있다. 모든 내부의 동선, 시각은 그 곳을 향하여 있고, 막힘과 트임의 극적인 공간은 사람들에게 특별함을 가져다 준다.

차별화된 공간 : 젊은 층을 겨냥한 Restaurant의 기본 방침은 가장 Modern한 공간 창출을 요구했다. 장식과 컬러가 배 치된 공간은 절제된 美를 통해서 質을 가지게 했다. 그 절제된 형 식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를 Volume으로 설정하였 고, 그 Volume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을 만 들었다. 크지 않은 주어진 공간내에서 층고를 7m, 3.6m, 3.0m, 2.4m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에 영역성과 특성을 부여하여 이 용자에게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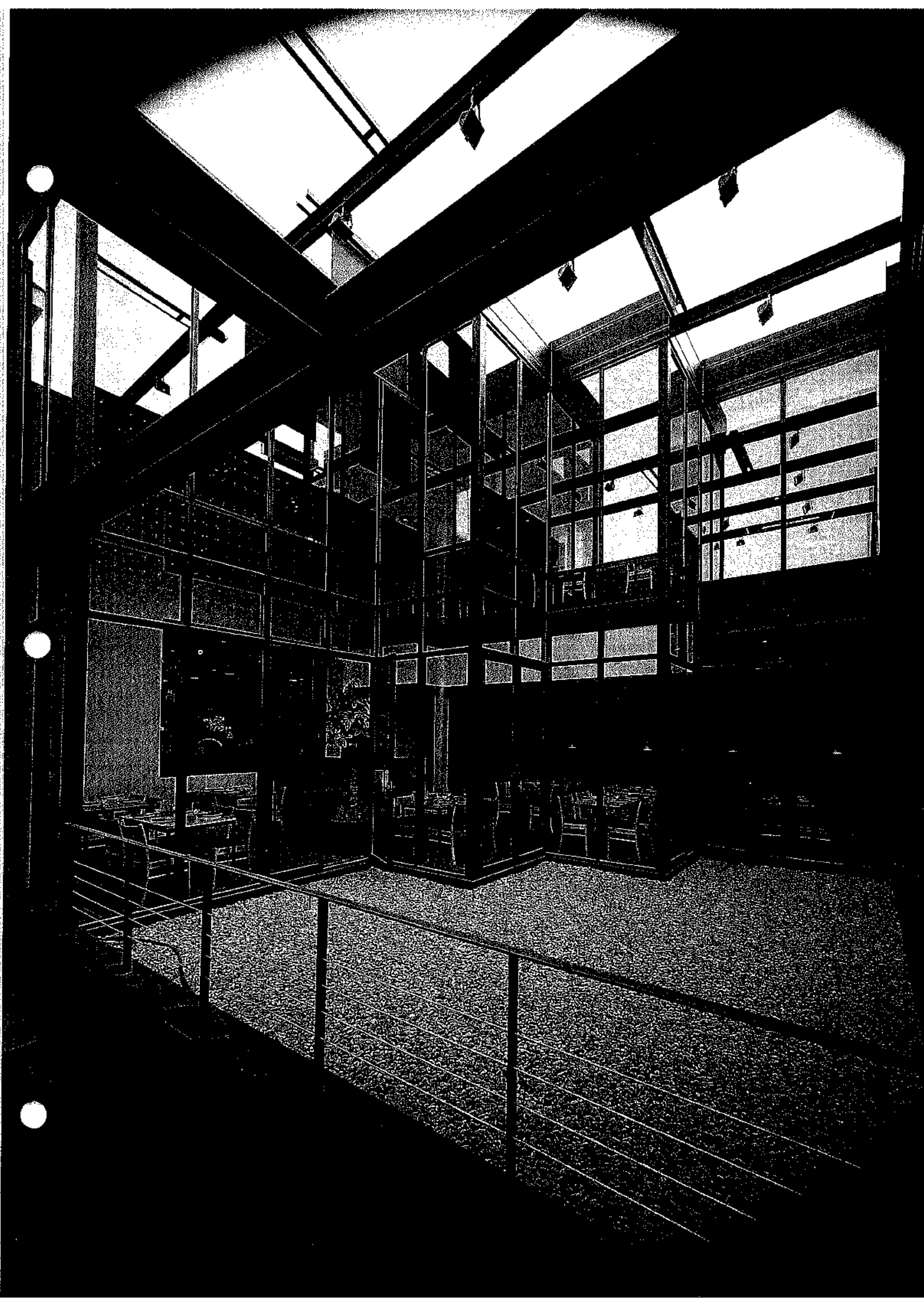
생동하는 공간: 시간은 다양한 빛을 제공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변하는 빛은 공간에 대한 느낌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낮과 밤은 완전히 다른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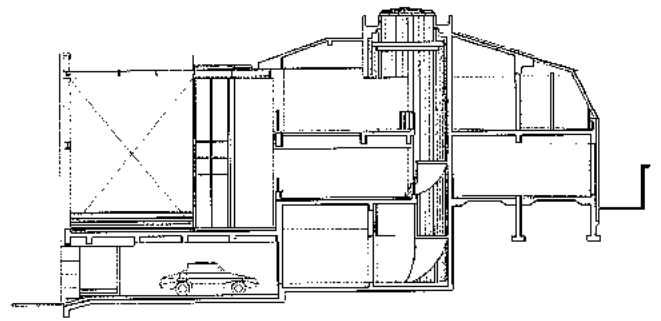
이 Project에서는 그 빛의 특성을 적용시키고자 했다. 낮에는 두가지의 자연광이 건물내에 존재한다. 미당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타공된 철판사이로 스며드는 빛. 특히 이 빛은 시각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별함을 가진다. 반면에 밤에는 두가지의 인공광이 있다. 미당을 환히 비추주는 600W의 조명과 타공된 철판사이로 밖으로 새어나가는 빛이 바로 그것이다. 미당을 밝혀주는 빛은 밤에도 중심성을 유지시키고 내부에 스며들어 태양과 같은 의미를 갖는 요소이고, 밖으로 새어나가는 빛은 전면에 독특한 Identity를 형성한다. 전면을 따라 움직이면 빛에 의해 만들어진 독특한 Graphic을 보게 된다. 즉 낮에는 내부에서 밤에는 외부에서 움직이는 빛을 느낄 수 있고, 그 변화에 따라 생동하는 공간이 형성된다.

청담동 Xian Restaurant은 이 세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졌으며 Xian이라는 명칭은 동·서양의 교류가 이루어지던 실크로드에 있는 도시인 서안을 지칭하는 말로서 실크로드의 교류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조적조의 기존 건물을 개조하는 과정은 시간의 문제로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축보다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설정된 개념은 그 속에 담으려고 했다. 큰 기대감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했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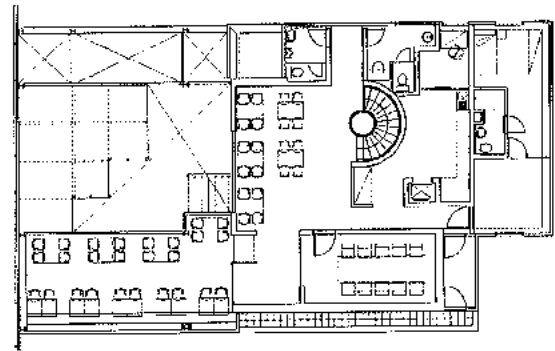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3-10번지
지역지구	일반 주거 지역
대지면적	415.60㎡
건축면적	240.54㎡
연면적	514.43㎡
건폐율	57.88%
용적률	104.91%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외부भाग	㉠ 1.8 ST'L 타공판/절전분체도장, ㉡ 50 샌드위치 패널
계획담당	장기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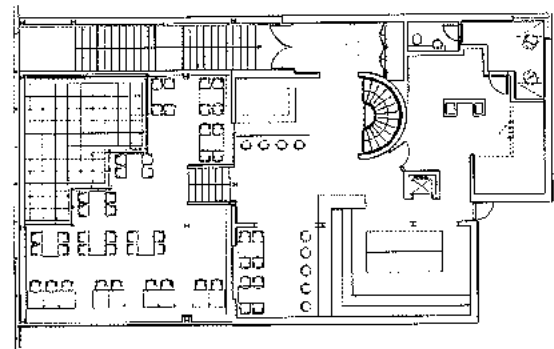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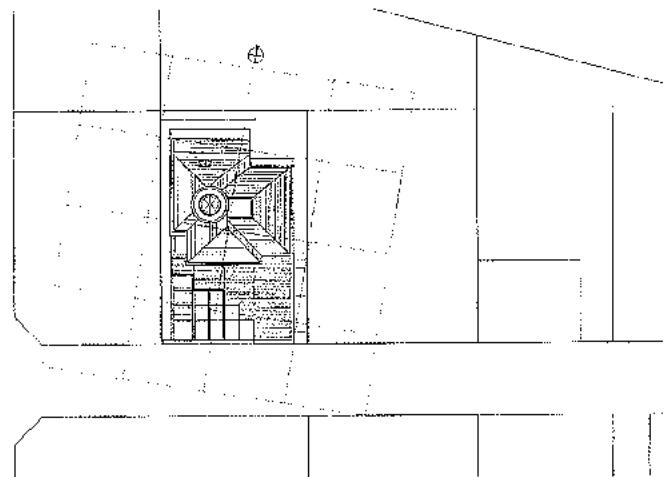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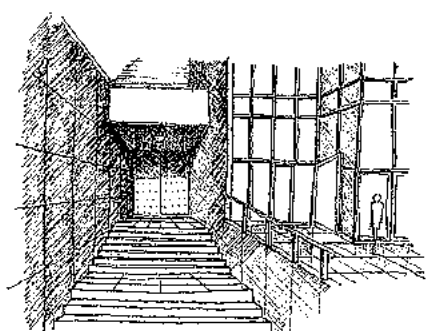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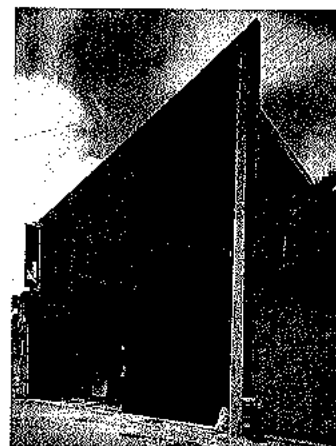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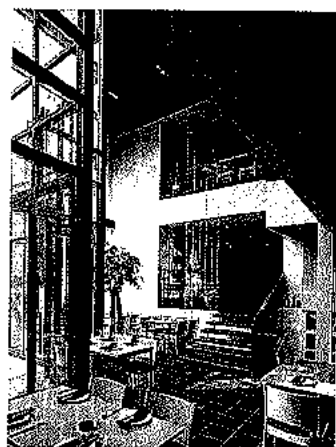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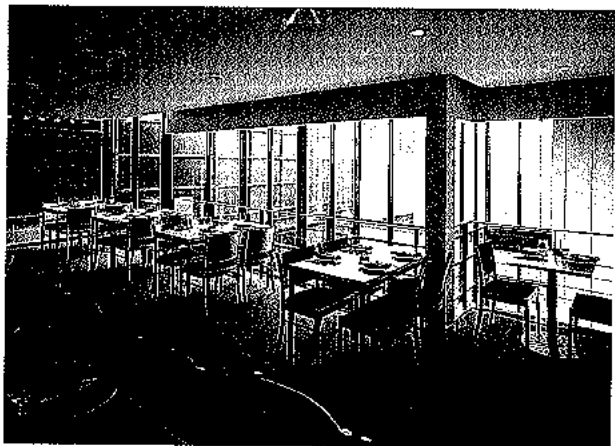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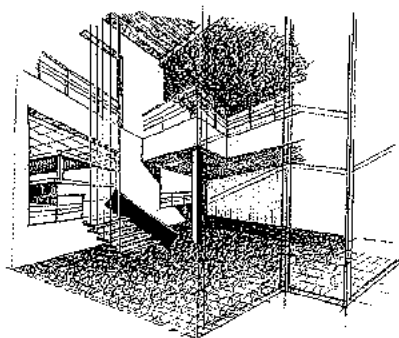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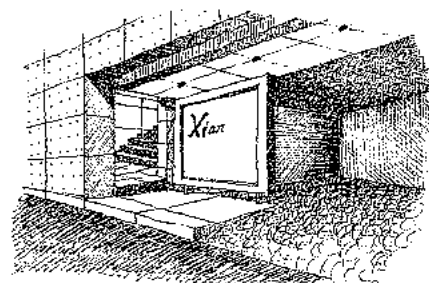
배치도



현관 부분 스케치



내부스케치



주출입구 스케치



SFUMATO

김 현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다

Designed by Kim Hun

도시적인 삶이 꿈꾸는 여러 가능성을 건축행위 속에 투사시키려다 보면 늘상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이질적인 가치들 간의 마찰과 이로 인한 프로그램 과정의 반잡함이기 마련이다. 아들을 한참 껴들어 보다 문득 하나의 굵직한 획으로 그어 모든 것들을 엮어볼 수는 없을까 하는 충동에 되려 사로잡히는 때가 종종 있다. 이 프로젝트는 50평 남짓한 좁은 땅의, 그나마 세 방향에서 죄어오는 사선제한으로 짓눌린 볼륨속에서 원가를 채워 넣으려는 욕구와 비우려는 욕구가 뒤엉킨 채 겹으로는 아무일 없는 채하며 조용한 골목길 한 칸에 끼워넣으려 했던 작업이다.

지금껏 남의 집만을 꼼꼼히 지어주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건축주 겸 시공자 부부와 치매를 앓지만 건강한 노인, 곧 머리가 굹어질 아들 둘 등의 3대가 '넉넉한' 각자의 영역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계단실을 등뼈처럼 박아놓고 우선 3층에 가족이 모일만한 공용 블록(Block)을 끼운 후 위아래로 개실의 블록을 등거리에 놓아가는 수직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이만한 땅 크기론 여간 기대하기 어려웠던 넉넉한 크기의 방들을 얻을 수 있었다.

복도가 아닌 계단실만이 연결해주는 공간이동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이곳에 사는 이들의 인식상에 어떤 미묘한 영향을 줄 것인가와 개실의 강한 독립성이 과연 가족 구성원간의 구심력을 엮게 하는 부작용을 실제로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 등이 궁금한 문제로 남는다.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가 각 공간과 만나는 방법과 멀어지는 정도에 따라 위계와 성격을 달리하여 다섯가지로 나누어 수직적으로 뿌려심는 태도를

취했다. 바닥재료의 느낌, 조경의 내용, 시선의 트인 정도, 공간의 개폐감, 빛을 얻는 방식 등을 모두 다르게 적용해 시간에 따라 또는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기를 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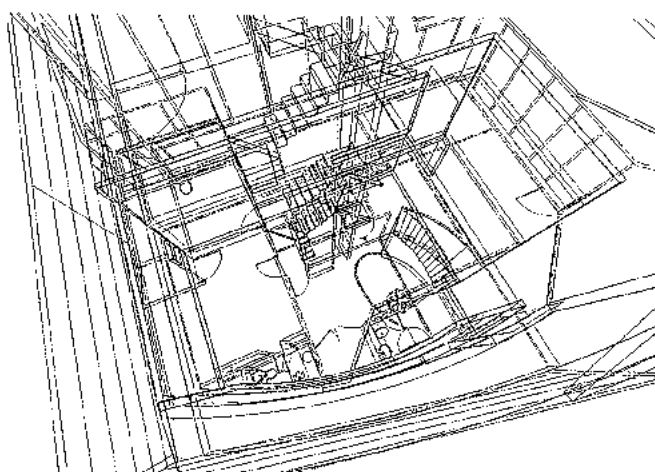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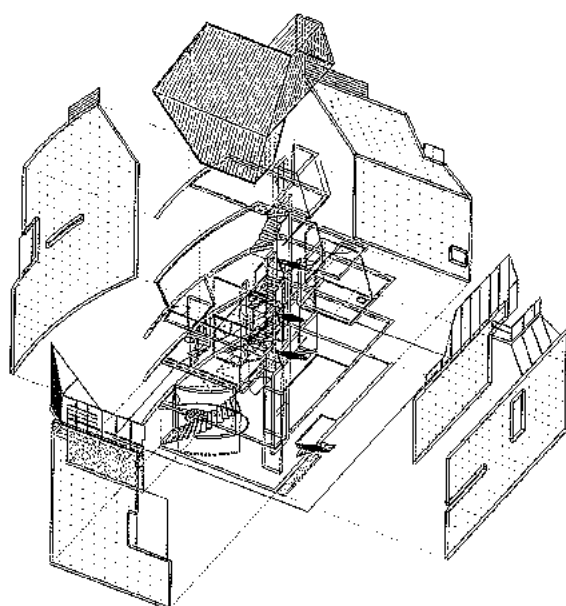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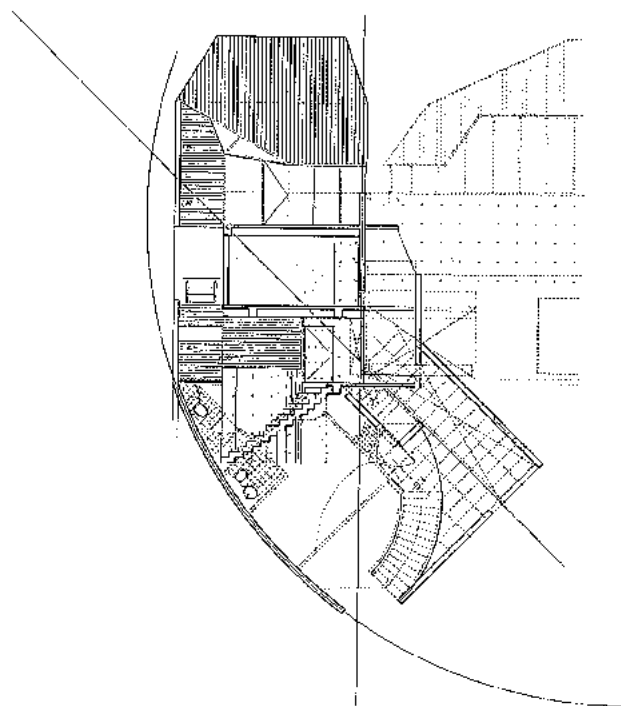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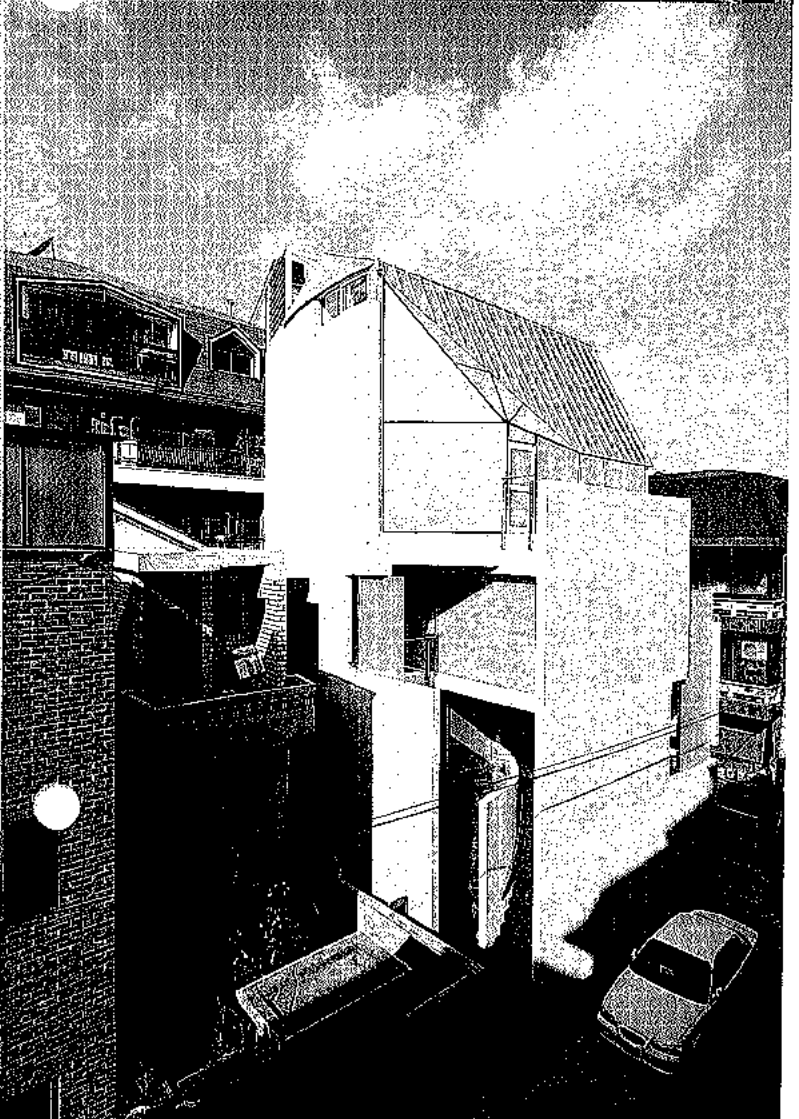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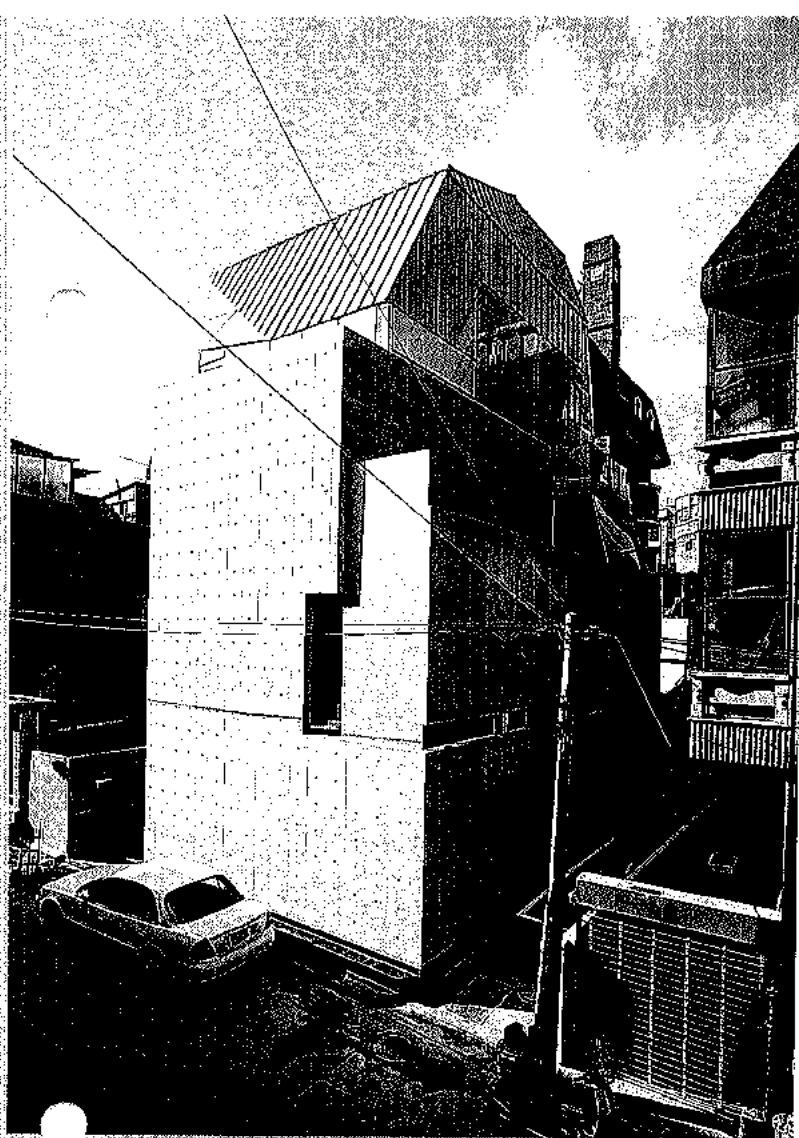
공간의 안팎을 가로지르는 작업의 단층에 '두터움'이라는 한가지의 추상성이 일관되게 흐르도록 하고 싶었다. 다·빈치(Da Vinci)가 그의 회화에서 열은 톤을 수없이 덧칠해가며 면과 면사이의 '경계'의 풍부함을 얻어내기 위해 쓰기 시작한 이른 바 스푸마토(Sfumato)기법의 의미를 함부로 빌어와 발상의 큼직한 단서로 삼은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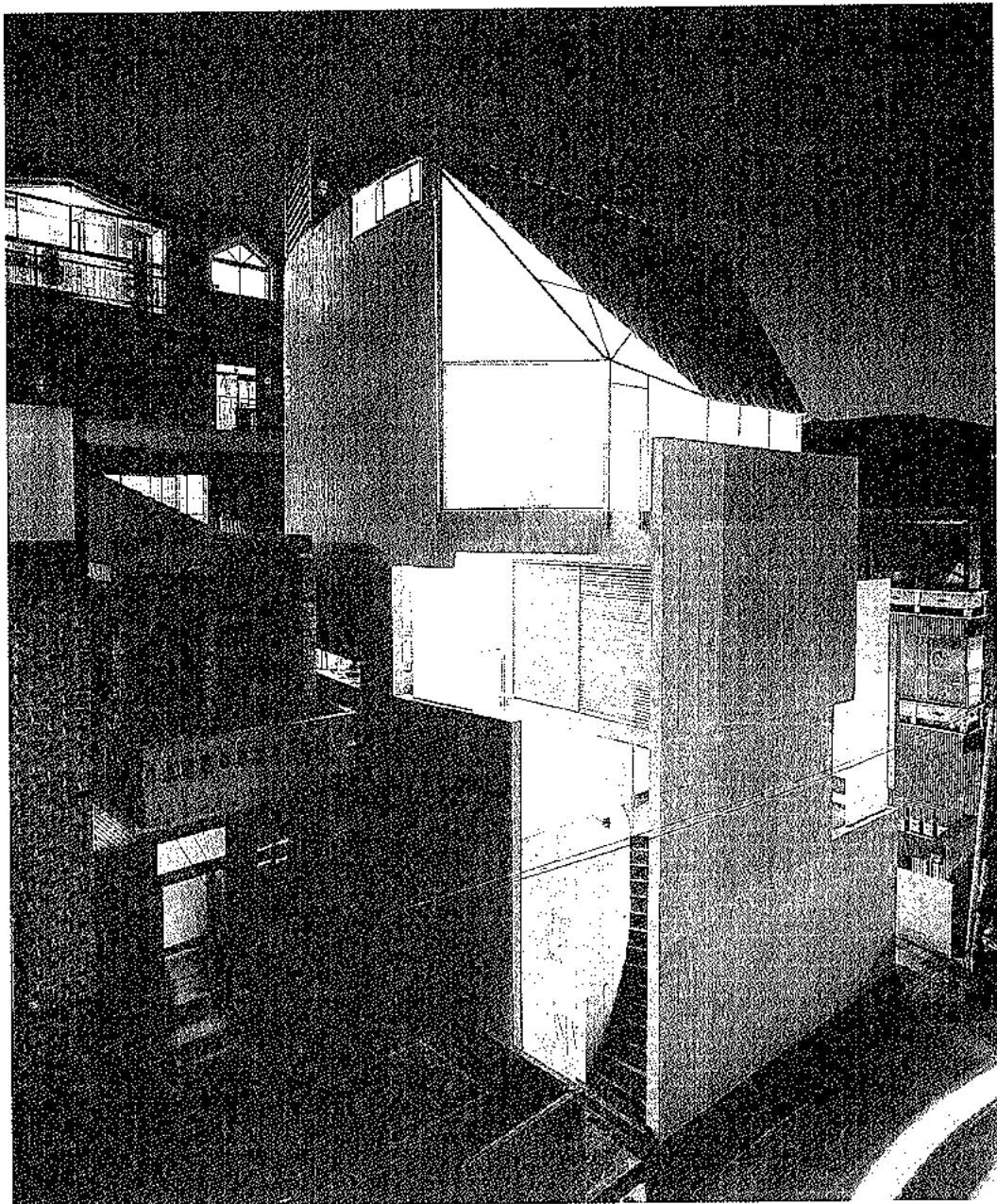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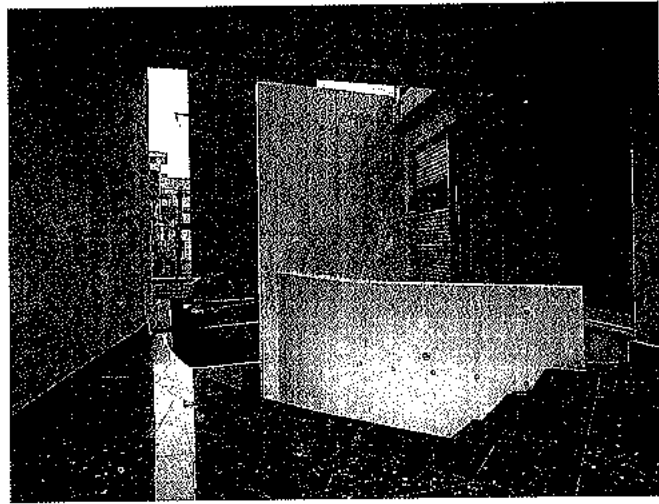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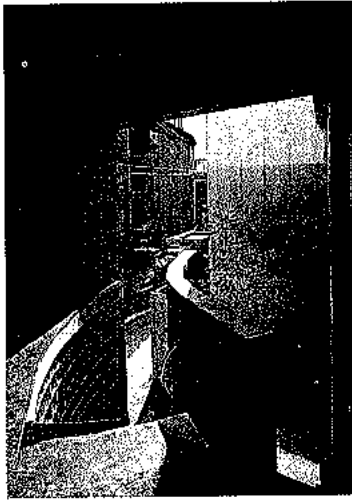
외부로부터 내부에 이르는 경계영역에 다양한 밀도의 물질과 비물질로 이루어진 공간을 개입시켜 비교적 복잡한 경로를 거쳐 빛을 끌어들이는 한편 모호한 테두리를 덧씌워 쉬 속살이 내비치지 않는 수줍고 말없는 듯한 표정의 '두께'를 입혔다. 마치 대화가 깊어감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세계가 점차 밝아오듯이, 건축행위의 내용도 찬찬히 뜯어볼 때 조금씩 파악이 되는 흥미로움을 겨냥한 구조의 설정을 통해 나름의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두터움'이라든지 '말없음'의 표정을 자연스레 취하게 된 까닭은 상업적 본능으로 눈에 띄게 알파해진 도시적인 건축의 수많은 몸짓과 어휘를 차가운 눈길로 되돌아 보고 사유하는 존재를 담아냈던 일종의 고전적인 집의 의미를 되살리고픈 바람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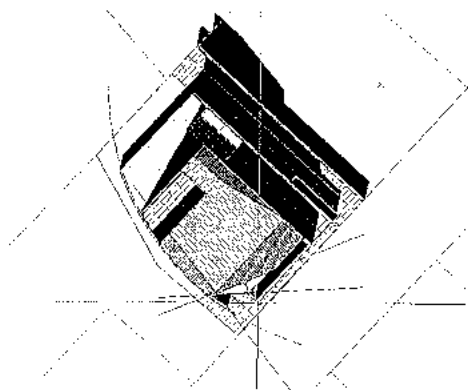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28번지 5호
대지면적	171.5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용도	근린생활시설, 주택
건축면적	101.56㎡
건폐율	59.21%
연면적	29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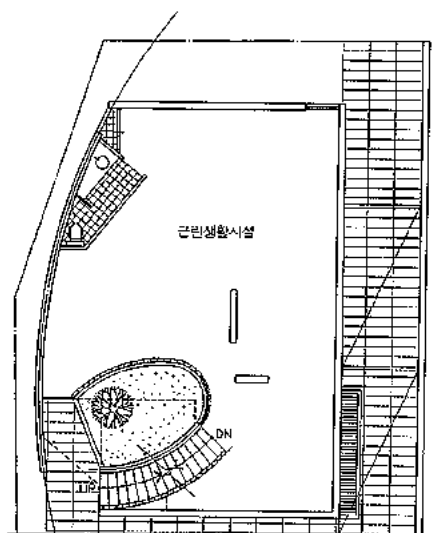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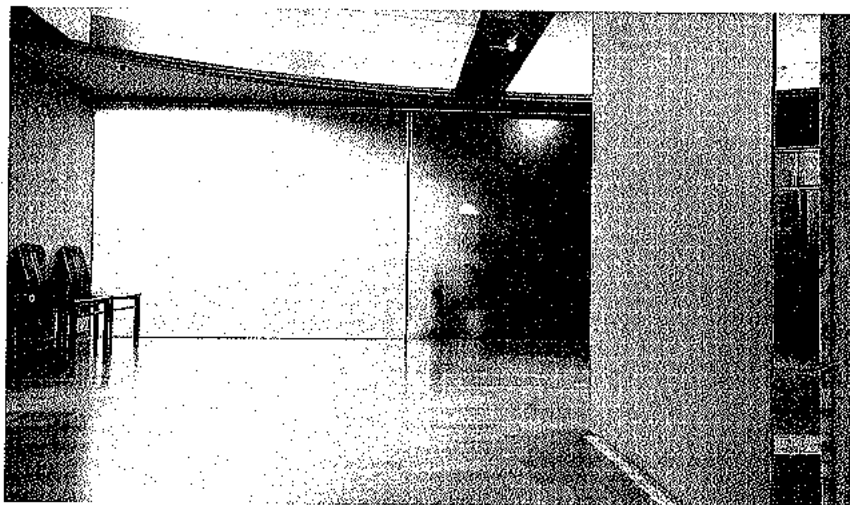
용적률	157.55%
구조	철근콘크리트, 일부 철골조(지붕)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합판위 Aluminum접기(지붕재)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설계담당	박현수, 이혜경, 강태희, 이승주
Computer Graphic	이동현
시공	최선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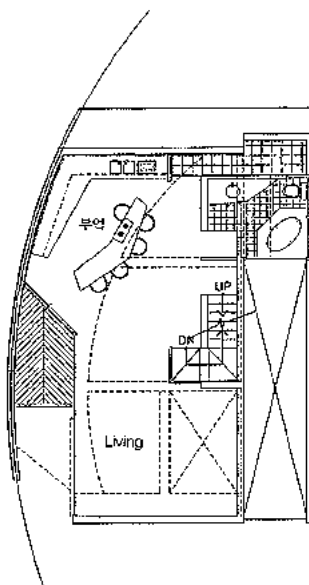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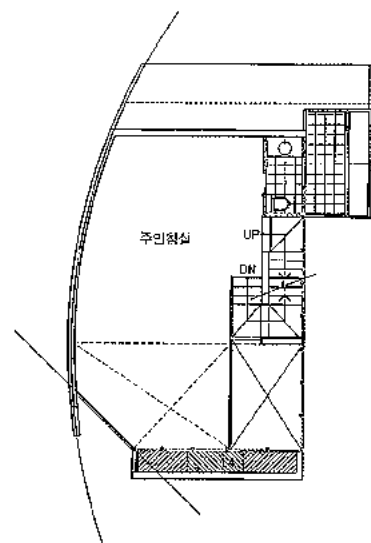


0 1 3 6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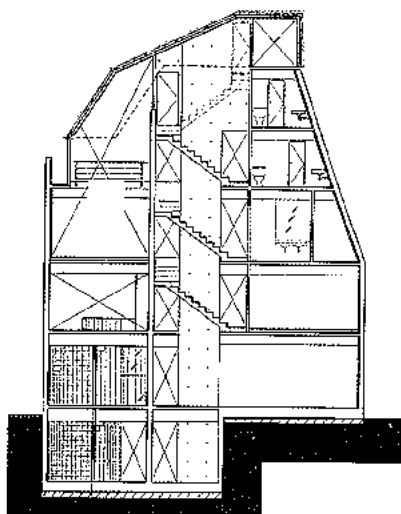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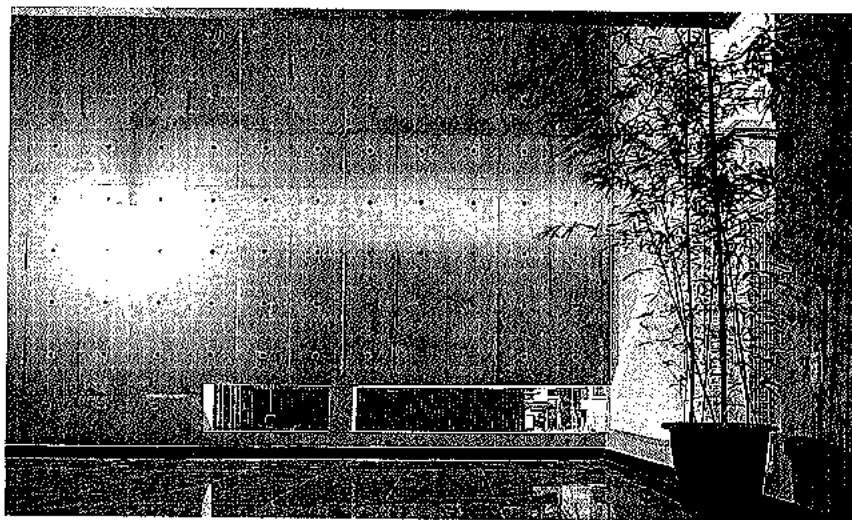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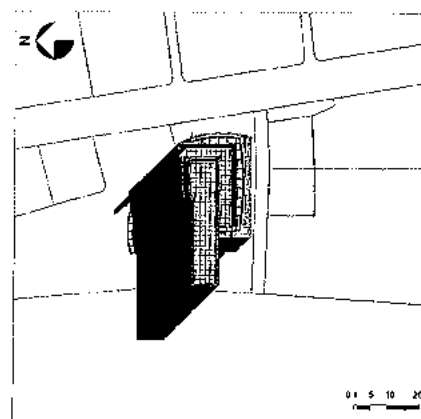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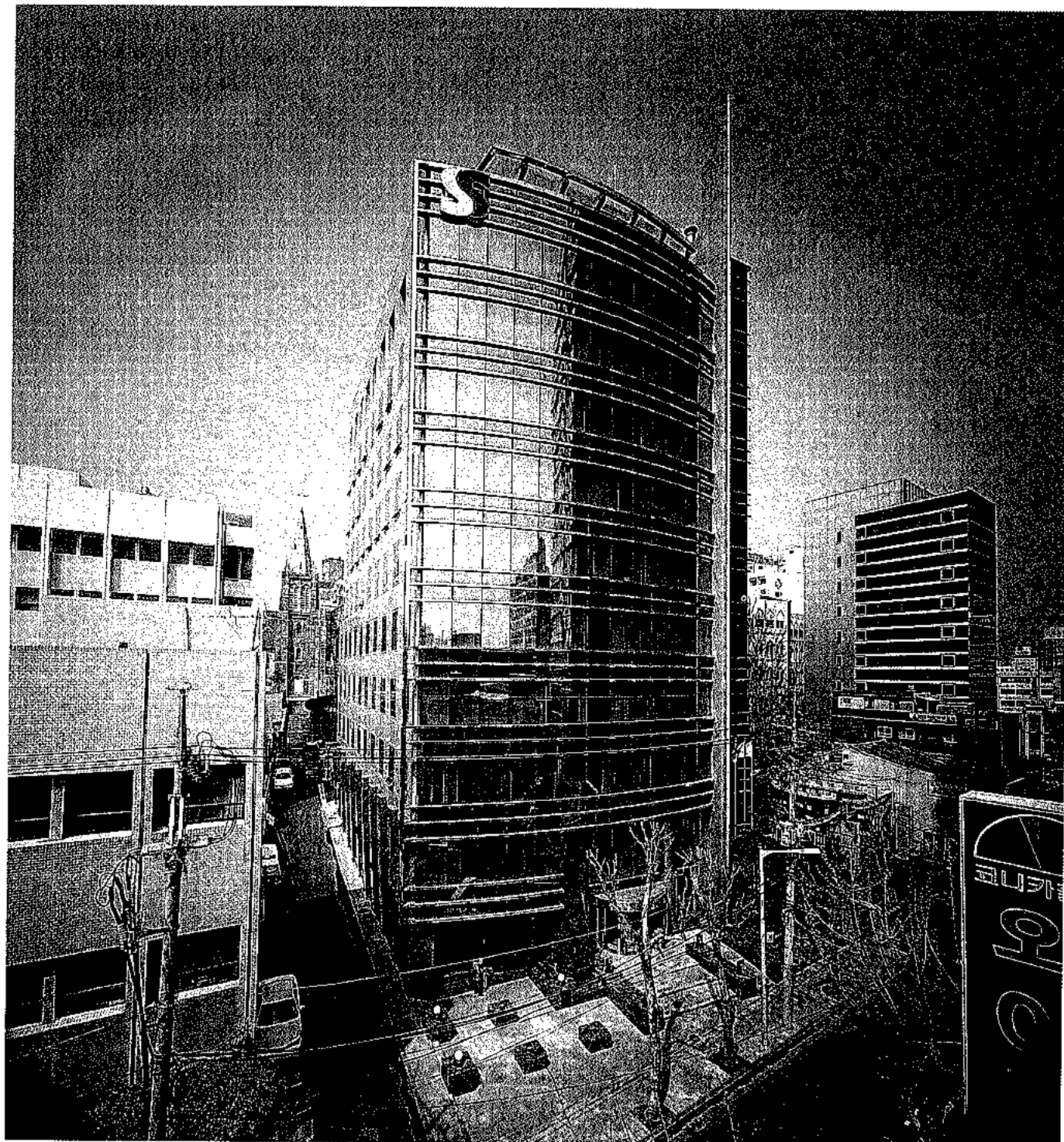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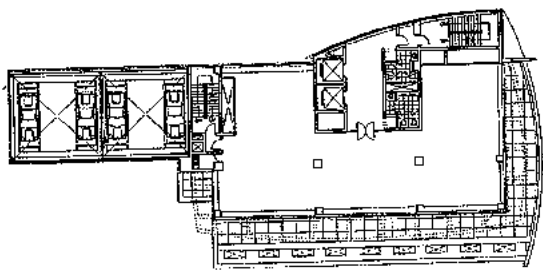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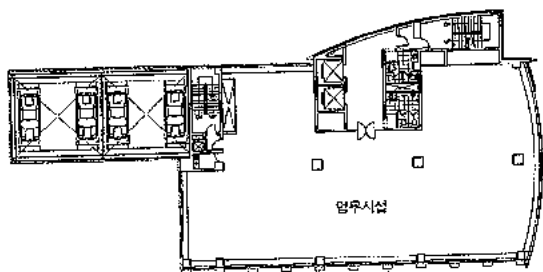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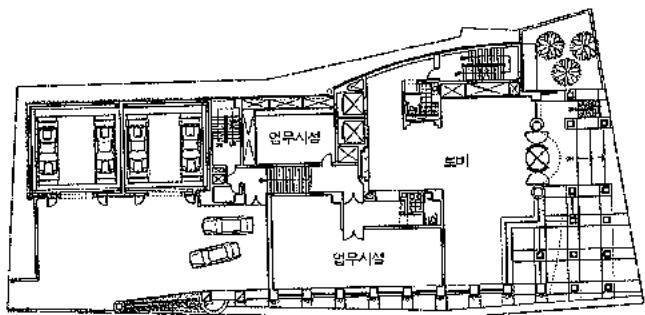
경전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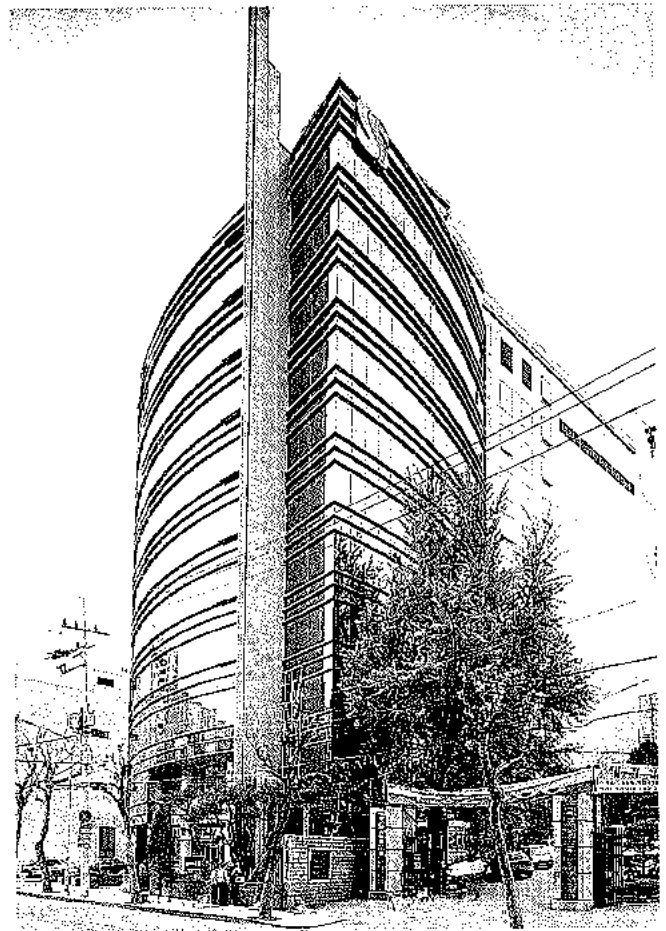
1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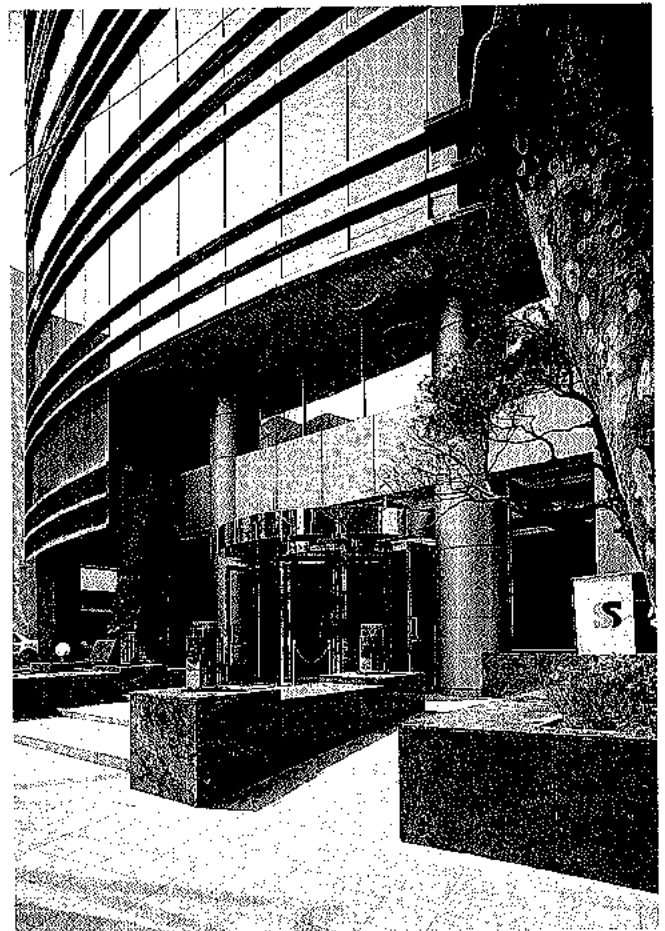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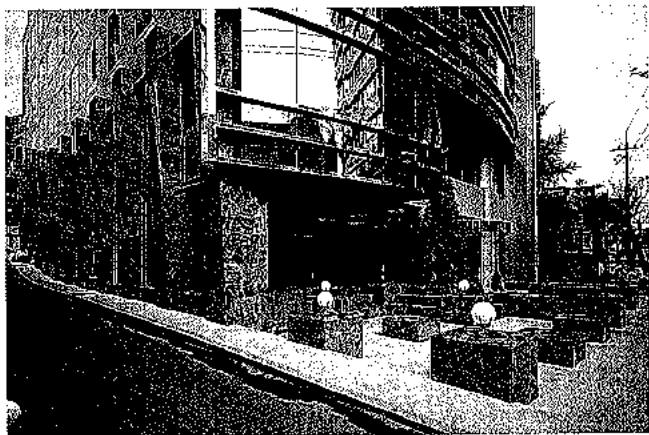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북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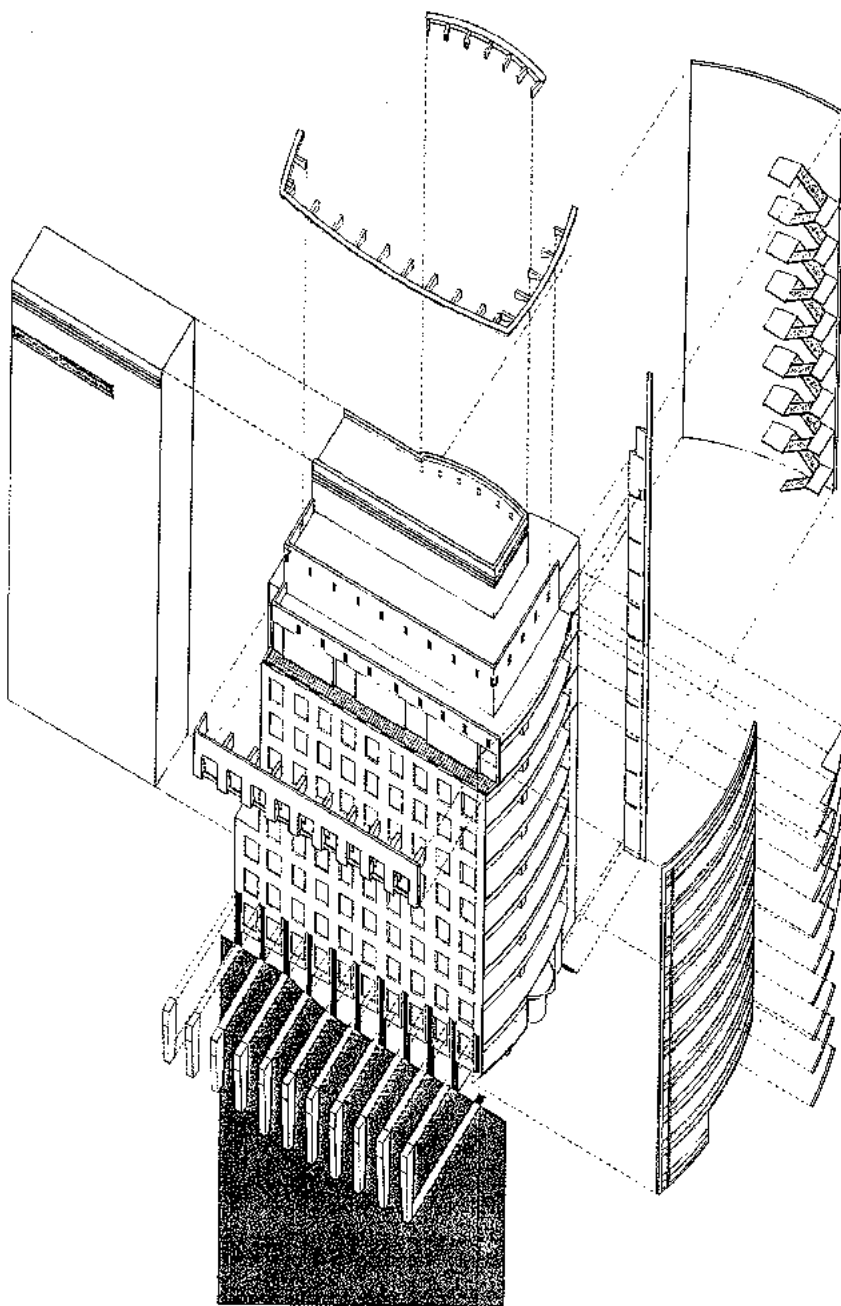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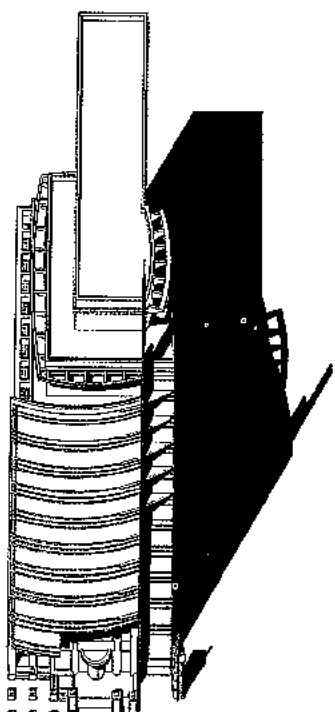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저층부 전경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로비

북부장애인복지관

Northern Welfare Center for The Handicapped

우시용 / 건축사사무소 시공
Designed by Woo Shi-Yong

대지는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로 대지 안에는 뇌성마비복지관, 서울맹인복지관, 서울상이군경복지관, 북부청소년임대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는 장애인 시설 단지로서 뇌성마비복지관과 서울상이군경복지관의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이 계획 대지로서 북측에는 근린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의 설립 목적은 동북부 지역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립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사회교육, 장애예방 등 중요 사업을 추진하며 초기 계획의 배경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정신지체자를 위한 시설 기능을 보강하면서 건립 부지 인근의 상이군경복지관, 서울맹인복지관, 뇌성마비복지관과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대지 분석 결과 북측의 근린 공원의 열린 조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이군경복지관과 뇌성마비복지관, 청소년임대아파트로 둘러싸인 외부 공간을 계획 건물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어진 요구 조건과 각 소요 공간의 파악 등으로 계획의 몇가지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첫째로 개방적이고 친근한 느낌 부여로 접근성 및 인지성을 높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올바른 이미지를 부여하고, 둘째로 기능별 동선의 분리 및 연결로 인한 공간 사용 극대화 및 시설 이용의 편리화를 유도하였다. 셋째로 모듈에 의한 계획으로 공간 사용 극대화 및 시설 이용의 편리화를 유도하며, 현존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형태 구성의 의미로 수평, 수직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상징성을 부여하고, 장애인 시설로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각 기능간 내·외부공간의 편리한 연결 동선을 제공하고, 대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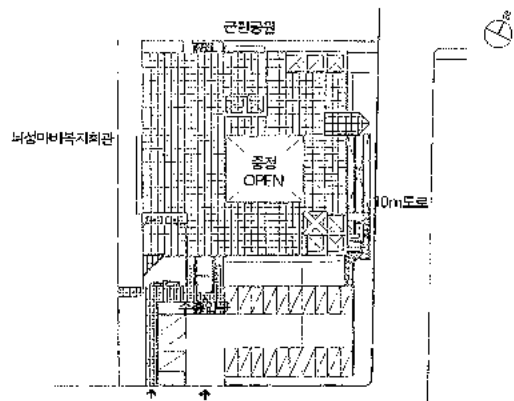
특성상 여러 종류의 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시설로서 다방면의 정면성을 확보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되면서 휴먼 스케일의 건물이 되도록 하며, 사회복지 기금으로 운영되는 건물로써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기로 하였다. 각 소요실의 배치는 1층은 이용도가 많은 상담 및 치료 기능을 배치하고 2층은 사무 및 사회적응 교육기능을 배치하며, 지하층은 강당, 식당 등 이용도가 낮은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대지 분석 결과로 대지 전면의 Open Space인 중정의 시간적, 공간적인 연결로 내, 외부 공간의 상호관입 효과를 기대하고, 중정을 지하층에 두어 강당과 식당에서의 휴게 시설로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시설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으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 경사로로는 장애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교육 훈련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1층에 부모 대기실 및 휴게실을 북측에 두어 근린 공원으로의 조망을 확보했다. 평면 모듈은 실제로 가구 및 집기의 배치가 가능하며 용도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7.2m×7.2m를 기준으로 하여 3.6m×7.3m, 7.2m×10.8m로 하였다. 외부 형태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써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부여하며, 건물외부에 강렬한 색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시력이 약한 사람도 강한 느낌을 받아 건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수직, 수평선을 강조하여 건물이 간결한 느낌을 주며, 형태를 분절시키고 계단 및 경사로의 천창, 모든 방향에서 Visual Target이 될 수 있는 헛기둥과 헛보에 의한 Pyramid 등으로 진입 방향에 따라 다양한 입면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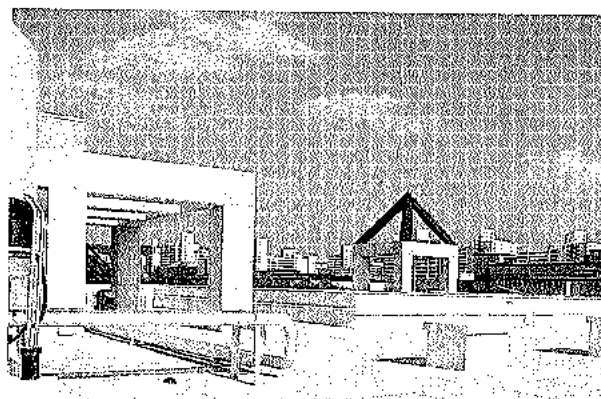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71
지역지구	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용도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2,852.3㎡
건축면적	1,124.54㎡
연면적	2,939.96㎡

건폐율	39.43%
용적률	72.45%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자기질타일, 투명복층유리
내부마감	화강석물갈기, 인코트, 수성페인트, 양면흡음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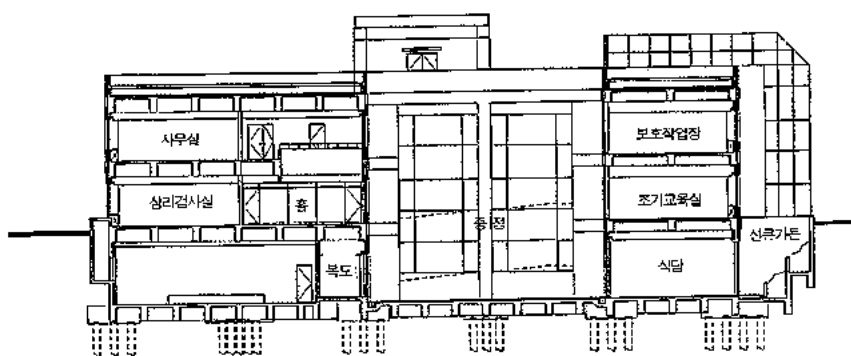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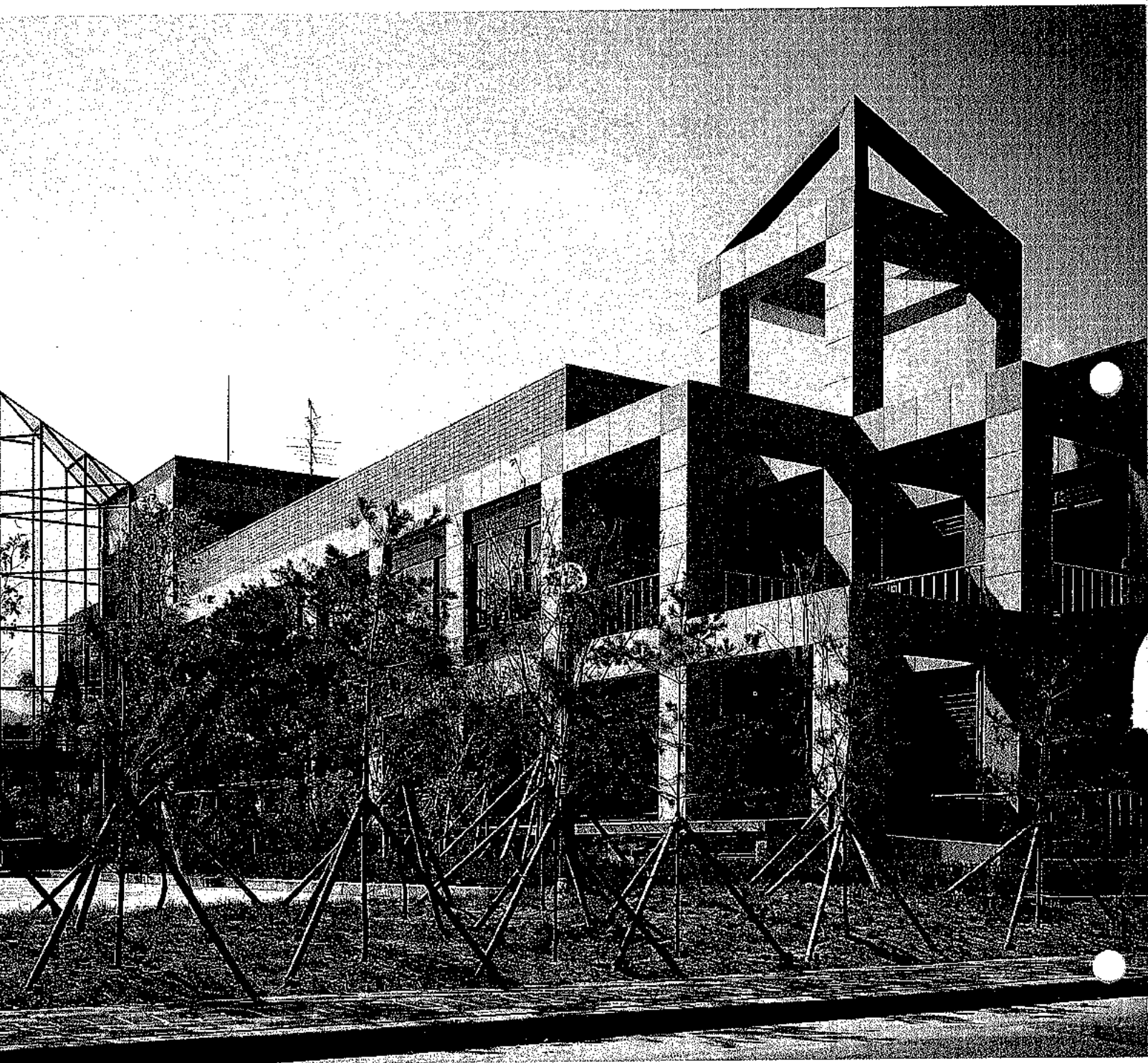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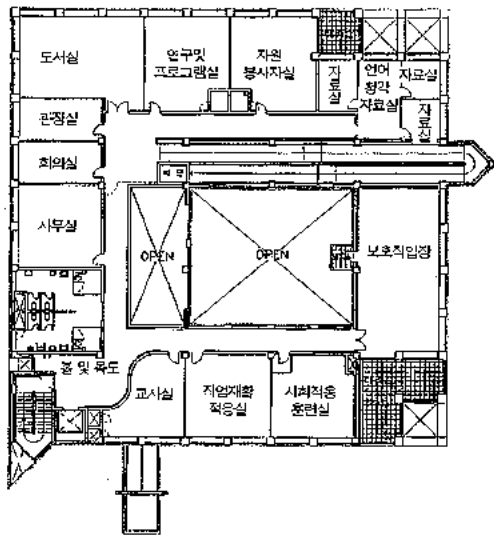
남측 전경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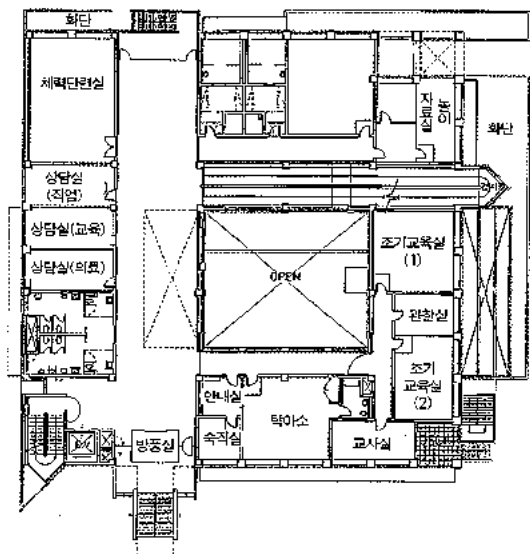
정면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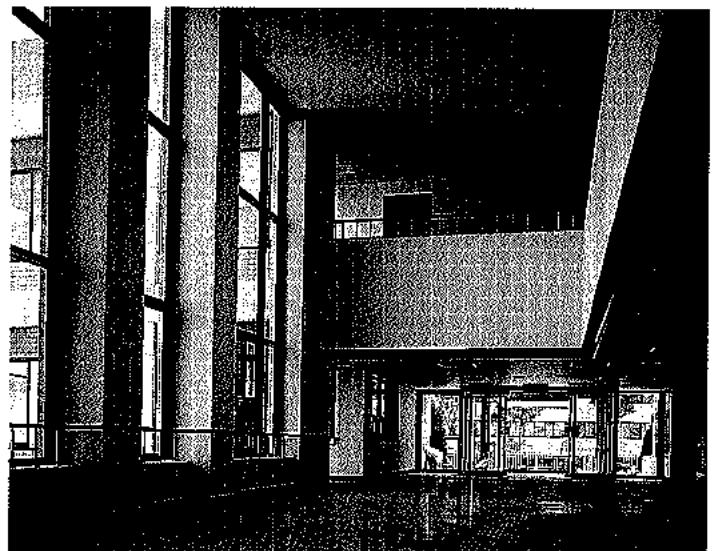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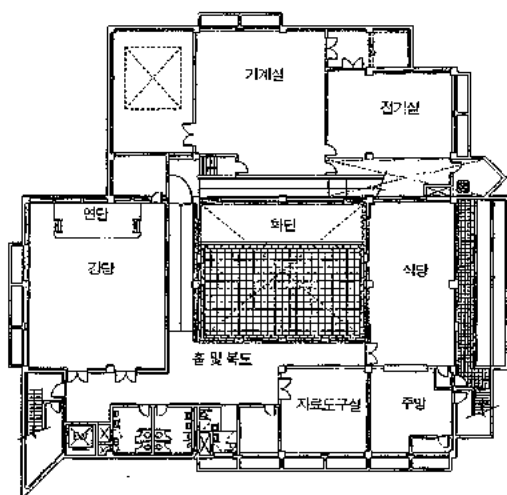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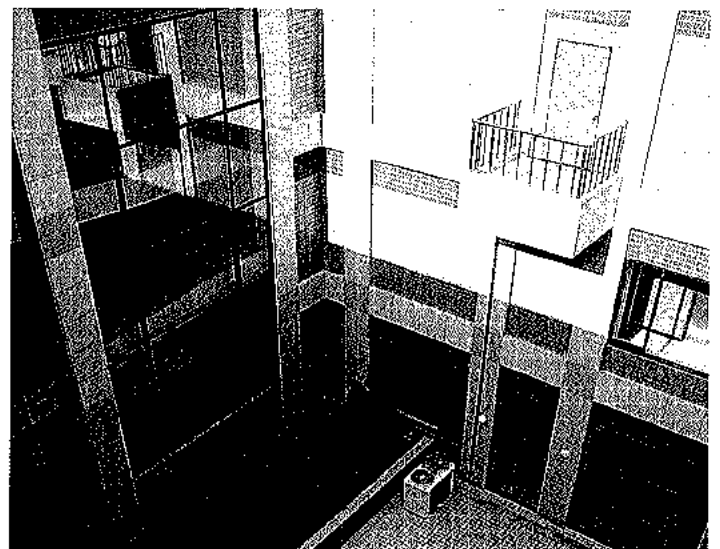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로비



지하1층 평면도



중정

조개전시장(珠貝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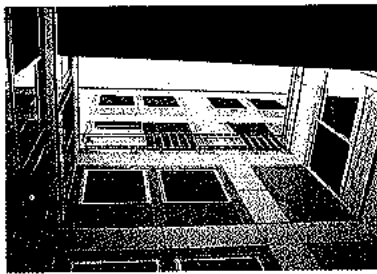
Shell House

김재욱 /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우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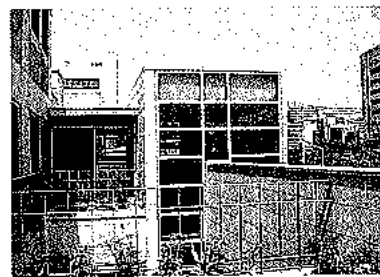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Jae-Wook



계단실



중정상부



4층 테라스에서 본 계단실

1970년대 구성된 서울의 주택밀집지역은 이제 주변의 개발확산으로 인하여 서서히 주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 대지도 이러한 주택지에 있으며 건축주가 20년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이 대지의 형상은 약간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 8m도로와 6m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비교적 넓은 오픈스페이스(계몽문화센터)와 접하고 있는 주택가의 평범한 대지중의 하나이다. 건축주는 이 대지에 건축주 자신이 평생동안 수집한 조개를 전시하고 연구하는 국내 최초의 조개박물관과 사저를 건립하고자 하였다.

건축물의 배치는 비교적 적은 폭의 도로임에도 통행량이 상당한 도로로부터 시선과 소음을 여과시키고, 전시물에 접하기 전에 전시물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전이공간으로의 진입마당(중정)을 전면에 설치하여, 중정을 중심으로 전시실, 홀, 계단 등을 배치하였다. 이 중정은 전통한옥에서의 그것의 될 수도 있고, 자칫 표정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물에 대한 하나의 오브제가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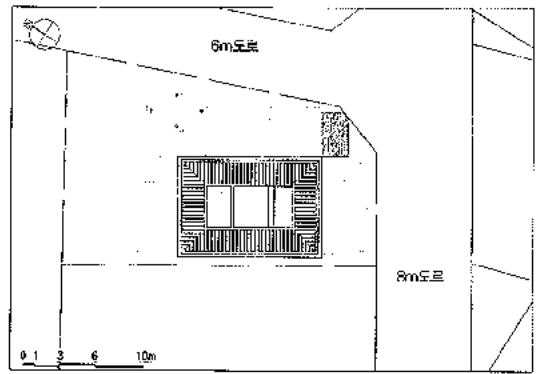
출입구를 통하여 건물로 들어서게 되면 바로 그 중정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다. 이 중정을 하나의 전이공간이 되며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하늘과 땅의 만남이란 단어는 곧 땅과 바다, 하늘과 바다라는 개념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조개를 전시하고 연구하는 이 건물에 잘 부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정을 통하여 들어서면 전시실인 1층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곳부터 1층은 전시실, 2층은 전시실과 연구실, 3층은 독서실로 이루어진다. 4층과 5층은 사저로 구성하고 사저는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관람내방객과 사저와의 동선을 분리시키고자 하였다. 중정과 함께 이 건물에서의 또 하나의 오브제인 층별연결계단은 내·외부의 경계가 되는 가벽사이에 위치하여 중정과 외부공간, 내부공간을 교차하며 연결되어서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외부형태는 하나의 커다란 매스에서 제하는 Subtract 방법으로 매스를 구성하였으며 비교적 장식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며 전체적인 색채와 질감을 중성적(모노톤)으로 계획하여 건축물보다는 전시물이 부각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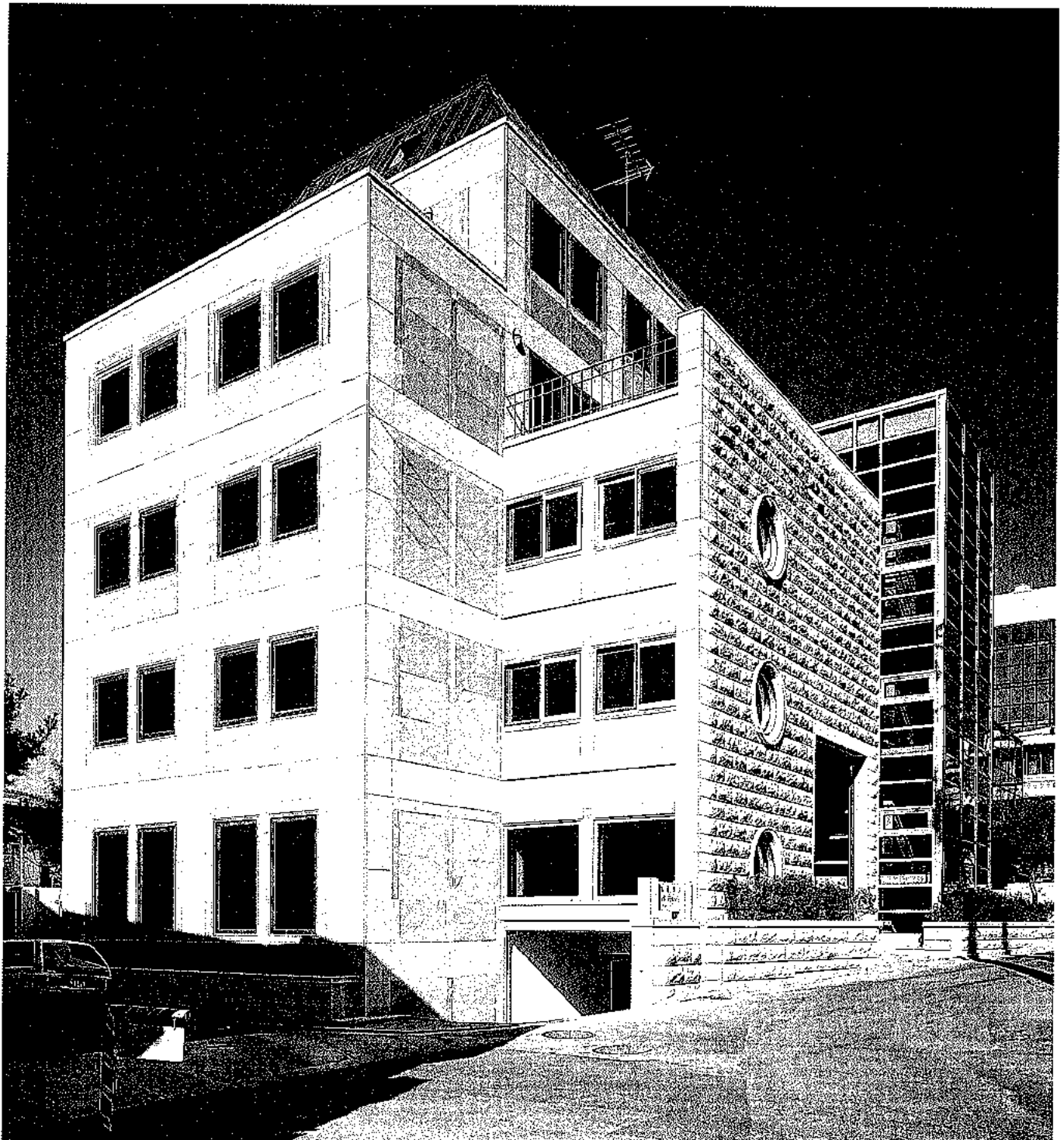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1-11
대지면적	395.50㎡
건축면적	236.89㎡
연면적	1,171.80㎡
건폐율	59.90%
용적률	233.81%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설비방식	FCU+패널히팅
외부마감	외벽 - 화강석버너마감, 화강석혹두기, 샌드 스톤, 복층유리
	지붕 - 1.0T 동판가공
내부마감	바닥 - 화강석, 리노름
	천정 - 목재천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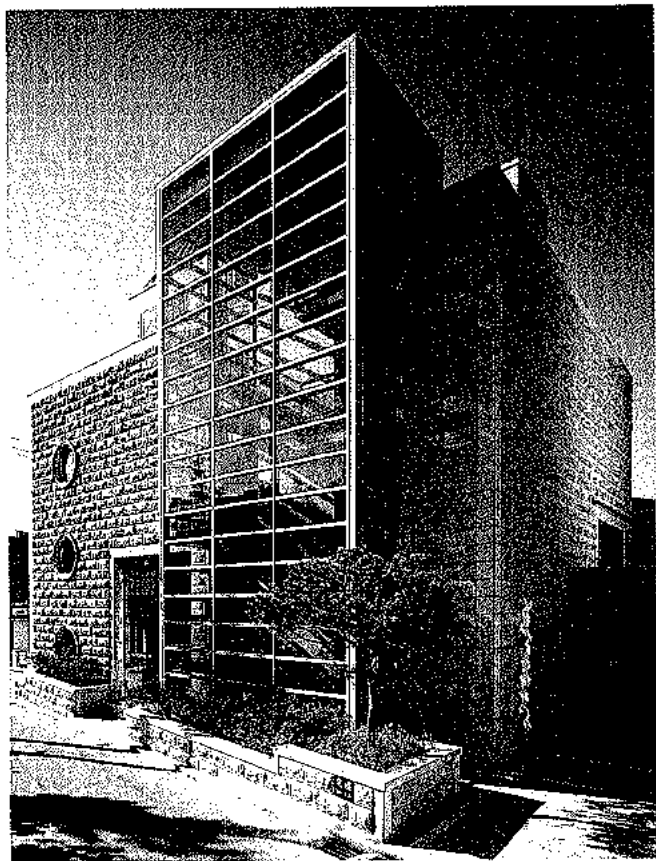
배치도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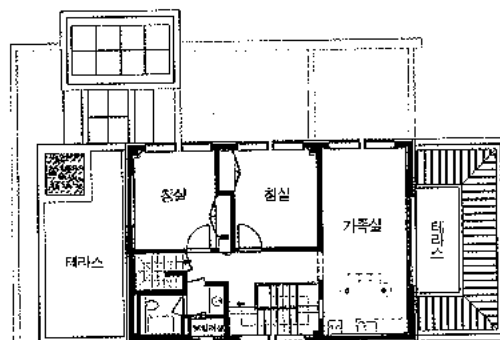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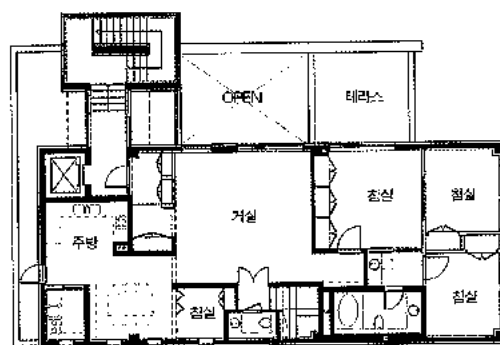
북쪽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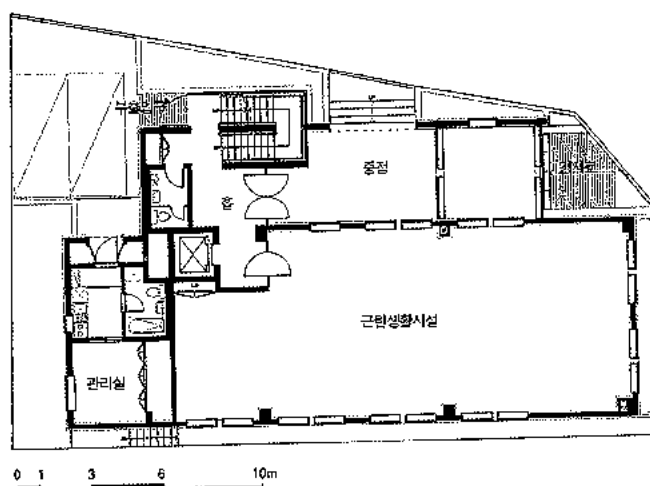
1층 전시실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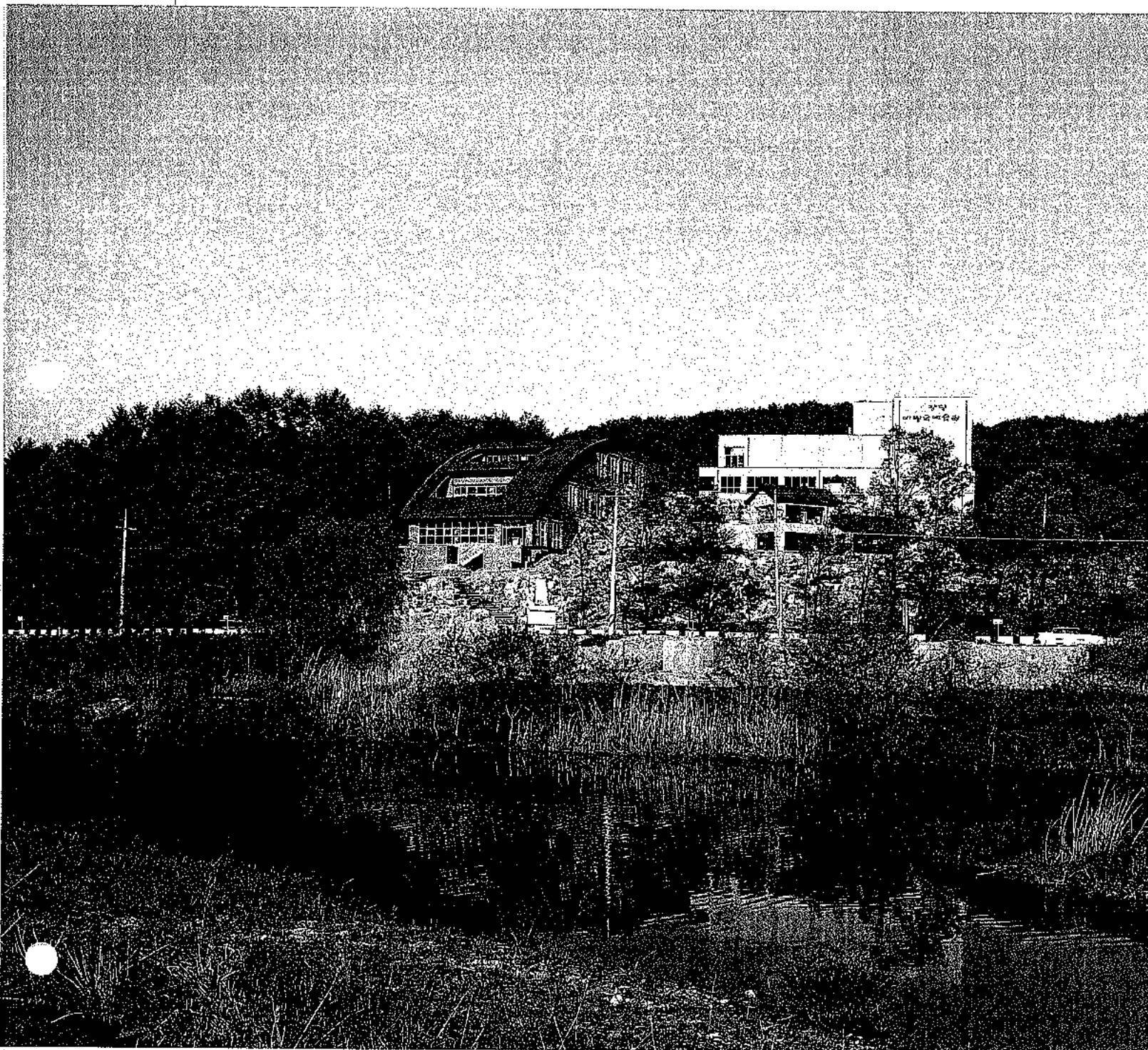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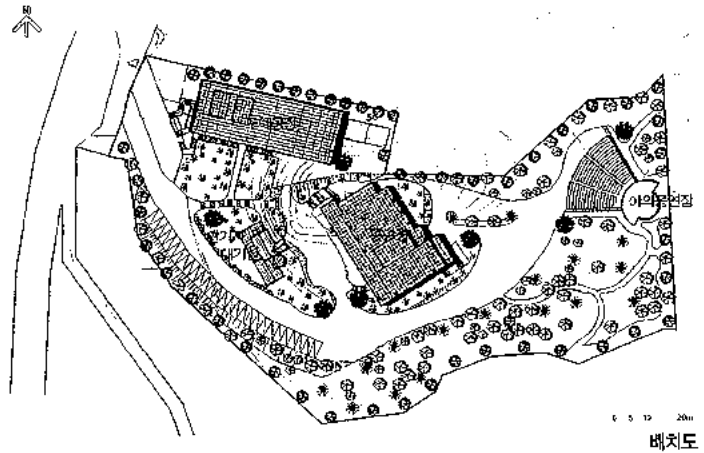
0 1 3 6 10m

양평 바탕골 예술원 Yangpyong Batanggol Art Center

손웅익 / 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Designed by Son Woong-Ik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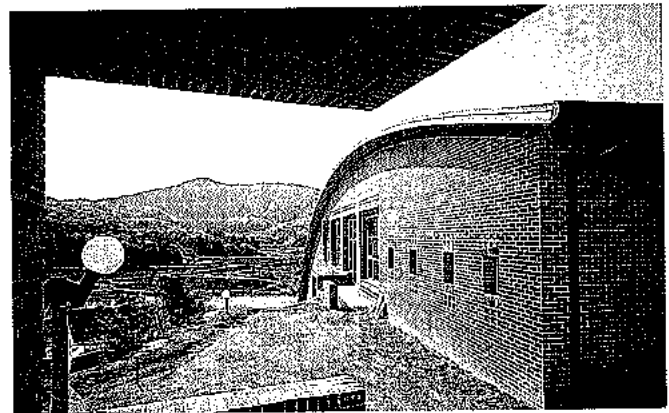
팔당호 수질 문제는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남한강 양측에 난립한 음식점, 모텔들은 계속 늘어만 간다. 개발과 보존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나, 방치된 보존은 무절제한 개발보다 때로는 더 파괴적일 수 있다.

양평 바탕골 예술원 부지를 처음 대했을 때 마명산 끝 자락인 이 조그마한 야산은 방치된 보존의 이미지로 다가왔다. 전면도로와 정상은 30m정도의 표고차이 인데도 전혀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잡목이 심하게 엉켜있고 경사가 심한 지형이었다. 광주군 퇴촌에서 양평을 잇는 308번 지방도로변에 위치하고, 서울에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지만 시설 성격상 공간적 거리는 1시간을 훨씬 넘는 곳이기도 하다.

문화체육부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것이 '지방 문화 육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시설이 아니라 해도 남한강 주변에 난립하는 음식점과 유사업종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는 결심이 불가능한 투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환영받고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시행자의 투자가능 재산목록, 각서, 시행자의 의지 등을 서면으로 제시했으나, '허가만 득한 후 땅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가지가 지원 불가능의 이유였다.

이곳은 상수원 보호 특별 대책지역에 포함되므로 당시 법규로는 필지당 건물 연면적 800㎡가 상한이었고, 대부분의 경사도가 30%이상 이므로 공연장, 전시장으로서의 대지조건이 불리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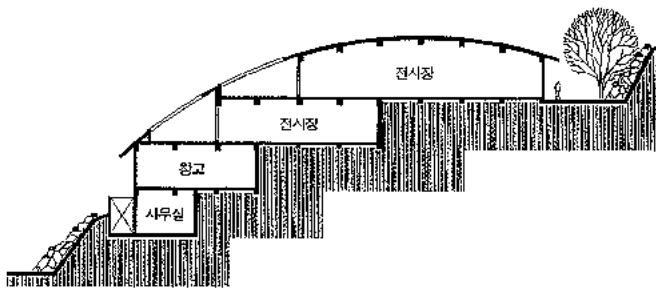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 시설을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심한 경사지를 절개하여 조성된 시설들이 완성되었을 때 지형의 가까운 형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시설배치와 외형을 원형으로 추진했으나 공연장의 외형은 사용자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도예공장, 전시장은 기존지형 경사를 계단으로 오르면서 지상 각층 전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고 매층마다 외부 공간으로 연결된다. 1층 계단실에서 3층까지 거대한 하나의 원형지붕으로 덮여 외부 지붕의 이미지가 내부에서 공간적으로 느껴지도록 했다. 공연장의 객석도 지형 경사도에 적절하게 맞추었고, 무대 뒷벽을 개방하여 필요에 따라 자연을 배경으로 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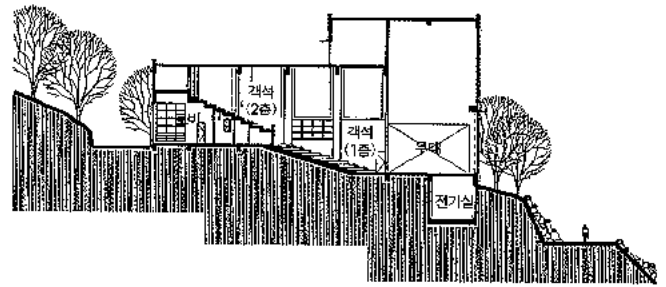
공연장에서 본 남동측 전시장 전경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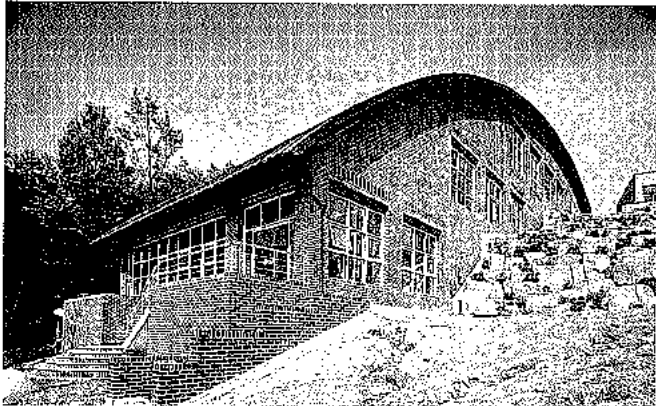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산1-1, 운심리 산25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총부지 - 27,892㎡ 신청부지 - 11,598㎡
주요용도	관람집회시설(공연장), 도예공장, 야외공연, 전시장
건축면적	공연장 - 767.79㎡ 전시장, 도예공장 - 578.1㎡
연면적	공연장 - 1,029.67㎡ 전시장, 도예공장 - 799.2㎡
건폐율	공연장 - 8% 전시장, 도예공장 - 28.98%
용적률	공연장 - 10.72% 전시장, 도예공장 - 36.75%
규모	공연장 - 지하1층, 지상2층 연기자 대기실 - 지상2층 전시장, 도예공장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적벽돌 치장쌓기
내부마감	바닥 - 벽 - 적벽돌치장쌓기 천장 - 파스킹코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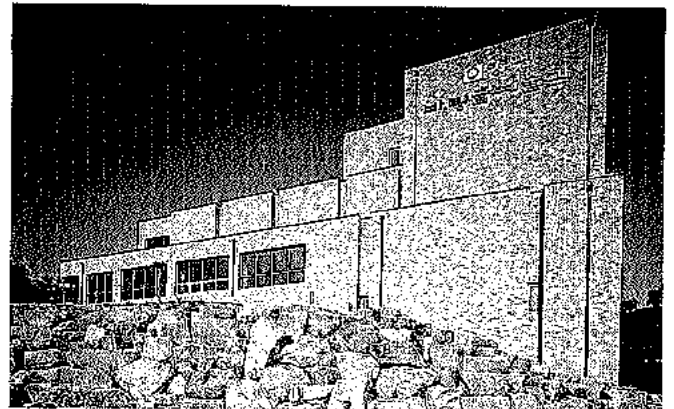
전시장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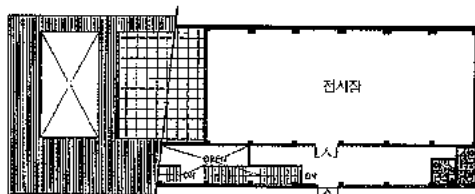
공연장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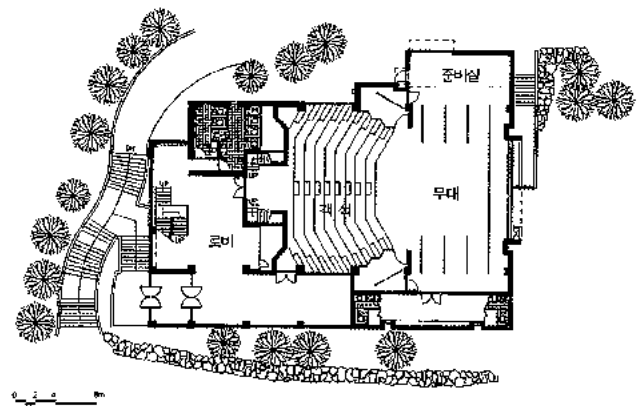
전시장 서측전경



공연장 남서측 전경



전시장 3층 평면도



공연장 1층 평면도



전시장 남측 전경



공연장 북서측 전경

한국의 건축가 12 - 김인호(2)

Korean Architect, Kim In-Ho

김인호사단의 계보 및 활동

박정우 / 계명전문대학 건축과 교수
by Park Jung-Woo

◇ 연재목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1. 김순하 (9802~9803)
12. 김인호 (9804~9806)

1. 김인호, 그 짧은 삶에 대한 기록
2. 김인호사단의 계보 및 활동
3. 김인호의 작품세계

김인호가 그의 스승 정경운과 작품활동면에서 결별하게 되는 시기는 이미, 1966년 정경운이 청구대학을 떠나면서 부터인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1965년, 건축사시험거부사건이 있었을 때, 정경운은 무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고, 김인호는 시험을 치뤄야 했던 시점부터 이미 신·구의 갈등과 대립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김인호는 1966년부터 최성덕과 함께 동방건축설계연구소를 개소한 이래, 1969년 면허취득 후 <대아건축설계연구소>로 개명하고 1988년 그가 서거한 시점까지 22년 이상을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대구건축계의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였다.

<표1>은 그동안 김인호의 계보로 알려져 있는 멤버들을 입사한 시기와 졸업년도에 따라, 임의로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그러나 입사나 퇴사의 시기가 서로 다르고 군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분류에 선후배간의 정확한 위계는 따질 수도 없고, 또한 그 의미도 크지 않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가능한 당시 근무한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을 토대로 정리하였고, 청구대학 졸업자는 이름 뒤에 졸업년도를 표기하여 두었다. 되도록 완벽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다소의 미흡한 점이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독자들의 해량있으시길 바랄 뿐이다.

김인호사단, 대구건축을 이끌다

김인호는 그의 대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감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소화해내므로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보다도 알짜, 폭넓고 다양한 건축세계를 체득케 하였다. 또한 문재로 접근하는 수법이나 탐구정신, 그리고 창의적 사고가 길러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토론하고 독서하는 자세를 몸소 보여줌으로써 상호교육을 실천하였다. 다음은 일찍부터 김인호사단에 흡수되어 성실한 수련을 거쳐, 오늘에 이르러서는 나름의 건축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김인호 멤버들의 면면들을 간략히 소개하므로 김인호 계보의 역사적 맥락과 그들의 대구건축에의 역할의 관계성을 일별하고자 한다.

합동건축 - 김인호의 건축설계연구소가 배출한 수재자는 권태식이

다. 그는 1969년 일련의 실내체육관 설계를 마무리 지으며 퇴사하였고 그 이듬해, 윤태식, 류문대, 권영환 등과 함께 <합동건축설계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29년째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대구의 최장수 합동사무소이다.

그들의 1970년대 작품으로는 상공회의소회관, 세관청사, 대구시민운동장, 충북체육관, 대구동부소방서, 대구청소년회관, 경북대 공대3호관, 대구섬유회관, 대구여고, 경상북도지사관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글라스 커튼월의 고층부와 필로티의 저층부로 구성된 상공회의소회관은 초창기 고층사무소건축의 전형이 되었고, 동부소방서는 동대구역 앞 사거리의 모서리부지에 저층부의 부드러운 라운드와 노출콘크리트 망루의 질감처리가 돋보이고 프로포션면에서도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는 삼일빌딩의 이미지를 닮은 경제한 외관의 미도백화점 빌딩(최초로 로터리식 기계주차방식 도입) 외에, 대구사이클경기장, 영남공업전문대학 본관 및 학생회관, 경북대 중앙도서관, 시립두류도서관, 영희유치원, 대구상고, 뉴영남호텔, 동산호텔, 광외과의원, 현대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작들을 내어 놓았다.

1990년대를 전후한 작품들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려는 노력들이 작품 곳곳에서 보여지는데, 대구타워, 대백프라자, 도시개발공사사옥, 원도시와의 합작으로 현상설계에 당선한 대구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성건축 - 이 성은 김인호 문하에서 가장 오래(19년간) 그를 보좌하며 성실하게 <대아>를 지켜온 산 증인으로, 1986년 다소 뒤늦게 독립하여 성건축을 개소하였다. 그는 <대아>시절, 아세아신경외과를 위시하여 대구시 의사회관, 대구실내스포츠센터, 남서울 대운동장계획안(잠실야구장), 매일신문사옥, 동아쇼핑, 대구시 종합복지관, 구미시청사, 평리성당, 경북대 다목적강당 등을 설계하였다. 독립한 후 그는 올림픽기념관, 대구시민체육관, 경북대 전자공학관, 경북대 대학원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세명건축 - 김화자는 대구 최초의 여성건축가로서, 원만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일꾼을 자처하는, 시들줄 모르는 열정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1968년 광병원원장 주택(최근 1996년까지, 건물바위 무속박물관으로 사용)설계를 시작으로 성 누가의원, 세강병원, 태남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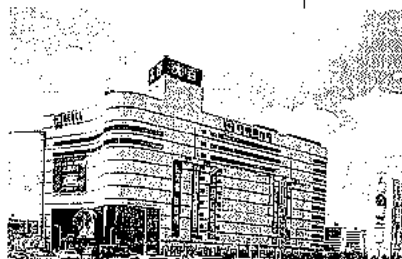
(표1) 김인호사단의 계보 (1966-1988)

권태식(權泰植)/ 1966졸-대구/ 주)합동건축 대표	
/ 한국건축가협회 제11대 대구지회장	
이현동(李弦東)/ 1966졸-작고	
여옥동(呂域東)/ 1964졸-대구/ 세명건축 대표	
허주열(許主烈)/ 1964졸-서울/ 주)영지건축 대표	
황 상(黃 璜)/ 1964졸-전 국회의원	
김정강(金正剛)/ 1964졸-뉴질랜드	
윤삼균(尹三均)/ 1966졸-워싱턴 D.C	
이 성(李 盛)/ 1967졸-대구/ 성건축 대표	
/ 한국건축가협회 제13대 대구지회장	
김화자(金花子)/ 1967졸-대구/ 세명건축 대표	
김성환(金盛煥)/ 1968졸-대구/ 조형건축 대표	
이영기(李英基)/ 1967졸-경주/ 동아건축 대표	
/ 경북건축사회 회장	
안원달	/ 미학인-대구/ 개인사업
문귀동(文貴童)/ 미학인-경기 용인/ 수림건축	
이장우(李長雨)/ 1968졸-대구/ (주)청구 전문	
김우권(金武權)/ 1969졸-대구/ 주)현대건축 대표	
/ 현, 한국건축가협회 제15대 대구지회장	
김충삼(金忠三)/ 1967졸-대구/ 삼협건축 대표	
서장남(徐正男)/ 1969졸-대구/ 정우건축 대표	
구성일(具誠一)/ 1970졸-대구/ 현대연합건축 대표	
김수웅(金秀雄)/ 1968졸-서울/ 조달청 과장	
장영근(張永坤)/ 1969졸-대구/ 공영건설 전문	
서보광(徐輔光)/ 1970졸-대구/ 동상건축 대표	
박영필(朴英八)/ 1972졸-대구/ 개인사업	
김봉근/ 연세대졸-캐나다	
정광홍/ 미학인-개인사업	
윤상국(尹 國)/ 1973졸-대구/ 대아건축 전문	
박정수(朴正壽)/ 1973졸-대구/ 대아건축 대표	
/ 대유주택 대표	
이병락/ 미학인-서울/	
신무홍(申茂弘)/ 1971졸-대구/ 동국무역	
유병준/ 미학인-대구/ 건축업	
임성식(林聖植)/ 1973졸-홍일건설 전문	
강영균(姜榮均)/ 고려대졸-대구/ 반석건축 대표	
한운길(韓運吉)/ 1976졸-대구/ 한실건축 대표	
최상용(崔相龍)/ 미학인-대구/ 예림건축 대표	
신종학(申鍾學)/ 1975졸-대구/ 경일대학교 교수	
장석하(張錫河)/ 1975졸-대구/ 경일대학교 교수	
박 건(朴 健)/ 미학인-부산/ G.A건축사사무소 대표	
배창복(裴昌福)/ 계명전문-대구/ 대아건축	
김상곤/ 대구공고-대구/ 실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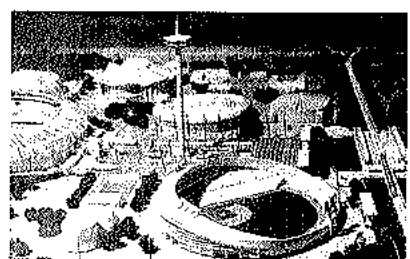
고려빌딩, 계산성당 사제관 등의 작품이 있고, 1973년 대구 최초의 삼덕동 태양열주택에 이어 1983년 남산솔라맨션은 당시 에너지 절약차원의 공동주택의 모델로서 화제를 모았고, 대구시 건축상을 수상한 1996년의 우방 하이니스는 고급형 맨션의 새로운 모



대구상공회의소회관(1971)



대백프라자(1988)



잠실야구장 모형사진(1977)

델을 제시하였다.

조형건축 - 일찍부터 김인호로부터 그의 능숙한 그림솜씨 덕택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성환은 군입대로 인해 <대아>를 떠났다. 그는 1973년 합동건축의 멤버가 되어 최병달, 우종수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그는 1983년 반월당 사거리에 위치한 덕산빌딩에서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처음으로 등장시켰고, 1986년 본격적인 리조트호텔의 개념을 도입한 대구파크호텔을 필두로, 아리아나호텔, 크리스탈호텔, 크라운관광호텔 등 일련의 호텔시리즈를 연속해서 설계하기도 했다. 김성환은 1991년 새로이 조형건축설계사무소를 개소했다.

현대건축 - 김두권은 1976년, 존경하던 스승 김인호를 떠나 이종우, 박용룡, 권국현, 구성일 등과 함께 <현대종합건축사사무소>를 열었다. 바로 그해에 그는 뛰어난 조형 감각이 돋보이는 앞산공원의 낙동강승전기념관을 위시하여, 건축사회관,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의학관 현상설계 등에 당선되어 그의 완벽한 기능성에 바탕을 둔 정작한 심미안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경일투자빌딩, 계명대학교 자연관과 체육관을 위시한 성서 캠퍼스 관련시설 대부분, 영남대학교 제2 화학동과 미술대학 등 상당수의 교육연구시설들을 설계하였고, 불규칙한 긴 대지에 종탑을 중심으로 본당과 사제관을 연결시킨 신암성당외에도 동명성당, 요한 바오르2세의 집, 예수 성심수녀원 등 수작으로 손꼽히는 천주교회건축물들,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 병원 등의 병, 의원건축, 대구시 건축상을 수상한 대명빌라 등과 같은 주거건축물 등 무수히 많다.

그는 그의 종교적 성향 때문인지, 유난히 적벽돌 쓰기를 좋아하고 앞차를 즐겨, 주위로부터 다전(茶邊)이라는 별호를 얻기도 했다. 그는 또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에서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일해오다, 1997년부터 제15대 지회장직을 맡고 있다.

삼협건축 - 김홍삼은 경주 화랑의 집의 구조설계이후, 대구시민회관 현상설계에 참여한다. 그는 설계년도인 1972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객석수를 1,972석으로 맞추었으나, 실제로 그렇게 시공되지는 못하였고 현재 1,654석이다. 대구시민회관 실시설계를 끝낸 1973년, 항시 자신의 성실함을 믿어준 김인호의 만류가 있었으나 퇴사하여 삼협건축설계연구소를 개소하

였다. 그는 김인호의 인간론에 영향받은 바가 컸고, 과욕을 모르는 소박한 성품을 지녔다. 금지탐독서실의 다수의 작품이 있다.

정우건축 - 서정남은 1969년 입사이후 일반 및 현상설계에도 여러번 참여하였으나, 주로 불국사, 황룡사지 등과 같은 전통건축의 복원 및 설계에 관여하였다. 그는 대학졸업작품을 불국사복원계획안으로 발표할 정도로, 전통건축분야의 설계에 일찍부터 길을 잡았고, 책임감 넘치고 성실하며, 성실한 만큼 자부심도 강한 건축가이다. 그는 경주 화랑의 집이나, 영남제일문과 같은 전통건축 외에도 명성에식장, 성당동성당과 같은 수작들이 상당수 있다.

동성건축 - 서보광은 드물게도 박사학위(영남대)를 수여한 건축사다. 그의 기민하고 적극적인 성품은 그의 작품에서 웅의주도하고 치밀함으로 나타난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중정의 아트리움공간을 도입하여 수도자의 폐쇄적인 공적공간을 연출한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원을 위시한, 트리피스티나 수녀원, 평화의 모후원, 성 바오르 안나의 집, 지산 천주교회 등 다수의 종교건축들과, 기능성과 심메트리한 외관이 돋보이는 영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영남대 제2사회관, 김천시청사 등과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의 다수의 작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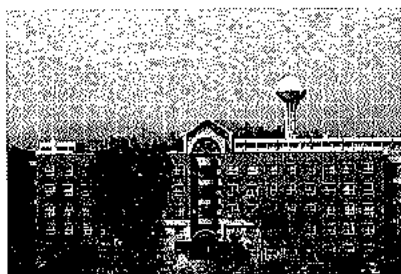
그는 1976년 동성건축을 세운 지 20년이 되는 해를 기념으로 1996년, <라스메니나스의 지형학>이란 이름의 작품집을 내기도 했다.

반석건축 - 강영균은 김인호건축의 후반부 10년간, 많은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국제호텔, 명성에식장, 동아쇼핑센터, 구미시청사, 대구시문화예술회관, 대구 두류실내수영장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그의 작품으로는 가든하와이, 자연스포츠헤터, 성서공단 종합전시관, 진보빌라 등이 있다.

후당 김인호 교수 기념사업회

김인호의 서거 1주기가 되던 1989년 7월 28일 정식 발족된 기념사업회는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건축가로서, 또 불자로서의 그가 남긴 수많은 업적들을 오래도록 되새기기 위하여, 또한 그의 정신과 사상이 후학들의 영원한 귀감으로 남게 하기 위하여 몇가지 기념사업의 추진을 준비하여 왔다. 그 중 묘비



경북대학교 대학원(1993)



남산문화센터(1983)



우방 하이니스(1996)



덕산빌딩(1983)

건립과 건축작품집 발간은 여러 운영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91년 7월 27일, 묘비제막식과 작품집 헌정식을 무사히 치뤄내므로 일단락 지을 수 있었다.

그동안 기념사업회 회장은 권태식, 부회장에는 김기철, 문 곤, 이종우, 장기웅, 황 설, 총무에는 김우권, 김충삼, 서정남, 이 성, 윤상국, 고문에는 노영하, 박병기, 서경보, 오세도, 정경운, 김현산, 그리고 추진위원은 강성욱외 48인으로 추진하여 왔다.

한편 이들은 고인에 대한 깊은 추모의 뜻과 아울러, 김인호의 건축정신의 대를 잇기 위한 사업으로써 후당건축상 제정을 준비하여 왔다. 금년 7월이면 10주기가 된다. 기념사업회의 운영위원들은 그동안의 모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렀고, 10주기에 맞추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막바지 작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후당건축상을 계기로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는 건축활동을 통하여 특별한 성취, 또는 현저한 업적이 있었음을 기리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하는 기금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별상제도를 마련하여 그 첫번째 대상으로 <후당건축상>을 채택하였고, 그 첫 시상은 1998년 가을, 제18회 대구건축대전 시상일에 함께 치르기로 정하였다.

그들의 증언

권태식/1966-1969/ 합동건축 대표 - 대학 시절, 선생에 대한 인상은 늘 우아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선생과 디자인에 대해 깊이있는 접촉은 못하였으나 설계시간에는 실무적인 설계에 대하여 자주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다. 나는 중앙건축(이성해씨 운영)에서 2년간 설계실무를 하던 중, 1966년 5월 선생의 부름을 받고 작고한 이현동과 만경관 근처의 2층건물에서 직접 설계를 지도받았다. 그 몇달후 선생은 복성로에 조그만 아프리카를 꾸며 이전하므로 그 때부터 동방건축설계연구소가 시작된 것이다.

1966년 당시 경북실내체육관의 현상설계경기가 있어 선생께서 손수 건물의 윤곽과 형태를 디자인하여 그것을 토대로, 나와 이현동이 체육관의 기능과 형태를 다듬었고, 지금은 미국 워싱턴D.C에서 건축활동중인 윤삼균이 당시 목공예소를 운

영중에 있었기에 목제모형을 그가 만들었다.

당시 선생이 스케치한 페이퍼가 남겨지지 않아 못내 아쉬움이 더하지만, 지금의 체육관 형태를 거의 완벽하게 스케치한 것으로 기억한다. 늘 그랬듯이 선생의 스케치는 건축법규를 무시한 것이었지만,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멋을 담으려는 시도는 한결같았다. 경북체육관의 요청으로 당시 서울대 김희준교수와 한양대 함성권교수를 청계천 김교수 아파트에서 만나, 체육관의 설계와 구조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그러한 디자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구의 풍토가 부럽다는 김교수의 말을 듣고는 가슴 뭉클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1967년경, 경북실내체육관 기공식에 참석하였던 태종학 강원지사의 요청으로 강원도 춘천실내체육관을 설계하게 되었다. 연구실의 일손이 부족하여 원주에서 근무하던 여육동을 합류시켜 그 프로젝트를 맡게 하였다. 춘천 실내체육관 팔각형의 형태는 역시 선생의 한국의 전통적인 멋을 한껏 풍기는 디자인이었다. 경북실내체육관과는 거리가 먼, 또 하나의 체육관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것은 당시 허주열이 감리를 맡아 심혈을 기울였던 건축이기도 하다.

경북체육관이 두 개의 아치를 3한지의 콘크리트 박스(대나무구조처럼 속이 빈 구조)구조로 하고 지붕트러스도 3한지로 처리하였는데, 춘천체육관 역시 지붕은 중앙부에 형을 두어 건물 외주부 기둥에 한지를 설치하여 3한지 구조시스템을 채택하였다.

1968년에는 대전체육관의 요청으로 대전 충무 실내체육관을 설계하게 되었는데, 평면은 원형으로 구상하고 지붕은 철골 셀로 처리하여, 또다른 체육관건축을 탄생시켰다. 역시 이 체육관도 원형이긴 하지만 곳곳에 한국적 분위기를 뽐내지 않아 선생의 전통건축에서 한국적 멋을 찾으려는 정신을 읽을 수 있었다.

건축을 배우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지론으로 선생도 많은 책을 섭렵하였지만, 제자들에게도 건축외의 많은 책들을 권하였다. 술을 좋아하였지만 술보다는 술자리에서 좋은 대화를 이끌기를 즐겼던 분으로 회고된다. 제자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분이었지만, 돈은 모르는 분이라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마음만 아파하였다.

선생과의 만남은 체육관 설계로 시작하여 체육관



대구파크호텔(1986)



낙동강승전기념관(1976)



동명성당(1987)

설계로 끝나 버렸다. 1968년 춘천실내체육관이 완성되고, 1969년 경북실내체육관이 완성된 후 대전충무체육관이 완성되므로 일련의 실내체육관 설계의 장은 마감되었다. 이러한 선생과의 만남으로 후일 나는 대구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자전거경기장, 궁도장, 사격장, 두류경기장 야구장, 안동종합경기장, 충북 실내체육관, 대구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설계 등으로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다.-(후략)

이 성/1967-1986/ 성건축 대표 - 1967년 2월 28일 졸업식날이었다. 4학년 2학기부터 취업이 되었거나 대학원 진학을 택한 학우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때까지 망설이다가 졸업식을 맞게 되었다. 졸업식을 마치고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학과 사무실에 들어서 다짜고짜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오후에 연구실(동방건축설계연구소)로 나오라고만 말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연구실에 찾아가니 연구실의 첫안상은 빼적거리는 목조 2층 건물에 낡은 제도판과 집기, 청사진도면들이 어지러이 널린 어두운 실내분위기가 내심 실망스럽기도 했다. 선생님은 낯익은 선배들께 인사를 시킨 후, 청사진도면(동성로 공외과 신축공사, 시공자는 진영건설)을 주시면서, 내일 부터 이 현장에 공사감리를 맡아하라 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건축입문은 차츰 사무실 분위기에 익숙해지면서 선배들의 따스한 조언과 함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었고, 청구대학 붕괴사고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도 흠어지지 않았고, 오로지 선생님을 믿고 공자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하였다.

이미 많은 것을 배운 선배들이 선생님을 떠나 독립함에 따라 나와 선생님과 대화시간이 길어졌고, 그 때 나는 선생님의 철학과 건축세계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선생님은 작품에 대하여 많은 애착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잠시라도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진행 중인 작품구상에 몰두하였고, 심지어는 스케치나 메모를 담배갑에 하고는 우리에게 건네주며 작품에 반영케 하였다. 외지로 출장을 함께 갈 때는 모든 사물들을 건축과 연관지어 말했고, 그것을 작품의 세계로 끌어 들였다.-(후략)

김화자/1966-1970/세명건축 대표 - 건축을 전공한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다. 1966년 청구대학 3학년 겨울방학이었다. 나는 당시 학과장이며,

지도교수였던 김인호선생님의 건축설계연구소에서 실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60년대는 설계사무소라고는 고작해야 대학교수 몇몇분과 건축사들의 연구소가 몇군데 있을 뿐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곧 쓰러질 것 같은 목조건물이었는데, 그 땐 그 연구소가 정말 신기하고 멋진 사무실이라 여겨졌었다. 선배님들 또한 훌륭하고 성실하여 정말 신비람나게 일했고,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새롭다. 실습생시절, 서투른 연탄감기며, 60자루의 연필깎던 일, T자와 삼각자를 비누로 씻고 닦던 일을 요즘에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경사가 급한 목조 2층의 좁은 계단을 빼적거리며 올라가면, 바닥은 시멘트먼지가 흩날리고, 스텐트지붕이라 겨울엔 유난히 춥고, 여름엔 너무 더웠었다. 더구나 건물 서측엔 유명한 동해반점이 붙어 있어, 각종 요리냄새와 주방열기가 등전하여 무더위에도 창을 제대로 열어본 기억이 없다. 그래도 모두 불평 불만없이 선생님의 밝고 인자한 품성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평을 넘을까 말까한 설계실에 다닥다닥 붙여놓은 제도판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 12시, 통행금지시간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다.

경북실내체육관 현상설계를 준비할 때, 선생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투시도를, 지금은 유명한 조각가이시고 영남대 미술대학 교수인, 정은기선생님께 부탁하여 유화로 그렸다. 우리는 오구에 먹을 찍어 체육관도면을 그리다가 먹물이 퍼져나와 버리기를 수십번씩 하였다. 그런 고생 끝에 우리작품이 당선되었을 때,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선의 영광을 돌리고 제자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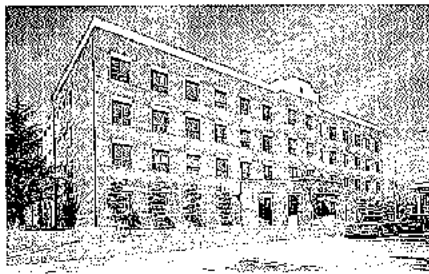
지금은 모두가 이 지역의 명망높은 건축가로, 또 건설회사 사장들로 성장했지만, 이 모두가 선생님의 가르침과 또 무언의 행동으로 물소 실천해 보여주던 단합과 성실, 인내, 그리고 선후배간의 두터운 사랑과 신뢰 덕분이었다.

김성환/1966-1969/조형건축 대표 - 〈동방건축설계연구소는 1968년경, 북성로에서 대봉동 달성제사(현, 달성맨션 자리)공장이 있었던 공장 빈건물에 그 일대의 단지계획을 위해 이전하였다가 계획이 무산되면서 1969년 누비(루비)다방 4층으로 이전하여 대아건축연구소로 개소하게 되었다고 증언함〉

선생님과 첫만남은 내가 대학 2학년 때, 문화동 캠퍼스(현, 대우호텔신축 현장)에서 졸업작품 전시를 준비하면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원(1982)



영남대학교 제2사회관(1993)



자연(현, 동아)스프츠텐터

서였다. 2학년으로는 유일하게 졸업전에 출품하였던 내 작품을 보고는 선배들 투시도손질을 부탁해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패널작업을 도왔던 것이 인연이 되어, 그 길로 주간에서 야간으로 수업을 옮겨 받고 복성로 선생님의 사무실에 입사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다. 그 당시 설계사무실에 취업한다는 것은 졸업생중 한, 두명이 고작이었으므로 그 때의 환희를 잊을 수 없다.

당시는 워낙 큰 프로젝트가 많아 입사한 지 일년도 채 안되어, 사무실 막내였던 나에게도 명성사진관사목(현, 한일극장 건너편 4층건물)을 계획서부터 본설계까지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중략)-

일년내내 밤 열한시가 퇴근시간이었지만, 조금치의 피곤함이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사무실 바로 뒷편 향촌동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건축가의 길과 인간됨의 강론을 듣는 즐거움 때문이었으리라.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일은 달성공원재개발 현상설계공모 때의 일이다(당선작은 없었고 선생님만이 최고상을 받음). 선생님사무실에 적을 두고 있던 내게 임시 휴직해 개인자격으로 현상공모에 출품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그 일로 인해 서먹해진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다시 받아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선생님의 넓은 도량에 새삼 고개를 숙이게 된다.

-(후략)-

김무권/1966-1976/현대건축 대표 - 내가 선생님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1966년 대학 2학년 여름방학때 경북 실내체육관 현상공모팀에 참여하면서였다.

당시 청구대학 본 캠퍼스는 효목동에 있었고, 야간부는 문화동교사를 사용했다. 저녁 5시 선생님께서 야간부 강의실을 하러 문화동으로 갈 때, 나는 선생님 가방을 들고 강의를 받으러 갔다. 그 가방이 어쩌나 무겁던지 하루는 살짝 열어 보았더니, 일어로 된 르 꼬르뷔제, 라이트 등 당시 건축가들의 작품집이 가득 들어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는 또 선생님 가방을 복성로 사무실에 갖다두어야 했다. 수업을 마치고 밤 9-10시경에 배격거리는 사무실 목조계단을 올라가면, 선배들에게 잡혀 저녁식사도 못한 채 늦게까지 일하곤 했다. -(중략)-

그 무렵에 경북실내체육관 실시설계, 달성공원 기본계획 현상공모와 공사중 붕괴된 청구대학 본관 실시설계 등이 이루어졌다.

제대후, 중구 전동 대동별관 8층시절에 다시 선생님실에서 대구시민회관 현상설계 및 실시설계, KBS중앙방송국 현상설계, 대구스포츠허브 실시설계, 경주화랑교육원 실시설계 등을 하였으며, 특히 경주 미추왕릉(155호 고분)복원설계와 불국사 경내 조경설계시, 당시 조경에 관한 마땅한 책자 하나 구해보기 힘든 시절이었으므로 식물원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정원수 식생에 관한 공부를 힘들게 했던 기억도 있다. 언젠가 팔공산을 함께 오르다 선생님께서 말씀했다. 가까이의 이름모를 잡초서부터 연산 기

암절벽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그 모든 것이 조물주의 완벽한 조경작품이 아니겠는가라고. -(중략)-

선생님의 곁을 떠난 뒤에도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을 얻었던 관계로 자주 찾아 뵙고 구수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하였다. 특히 대구문화예술회관 현상설계를 준비할 때에는 선생님과 서로 작품구상을 공개하면서 여러번 술자리를 함께 했지만, 선생님은 국세청 뒷골목 소주집에서조차 주대계산을 허락지 않아 제지된 도리를 한번도 하지 못한 것이 지금껏 서운함으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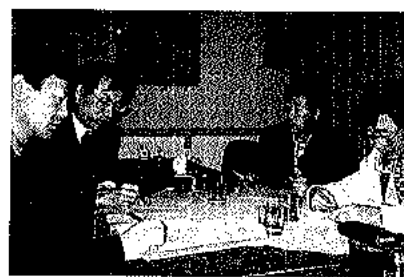
김충삼/1968-1973/삼협건축 대표 - 내가 당시 선생님의 동성로 사무실에 입사할 때는 4년간의 설계경력을 쌓은 상태였다. 내게 처음 맡겨진 설계는 청구대학 학장을 지냈던 최해청 전 학장의 자택이었다. 신천동 높은 산자락, 신천이 완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좋은 부지였는데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완성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비록 작은 작품이었지만, 선생님과 건축주 최박사, 당시 처해 있는 두분의 관계는 술한 역사의 뒤안길에서 대학의 교주가 바뀌는 등, 그런 시절이었기에 선생님으로서 더욱 애착을 보인 것으로 기억된다.

1971년, 경주 화랑의 집 설계당시 나는 구조를 담당하였는데, 몇 해전 청구대학 붕괴사건의 영향으로 구조에 대한 선생의 관심은 대단하였다. 한번은 화랑의 집, 추녀가 구조상 불합리하다는 연락을 받고는 나에게 다시한번 구조검토를 해보라고 하기에 재차 검토해본 결과,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다. 선생님은 직접 경주 현장에 내려가 시공자와 시행청 담당과장에게 근거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말라고 노발대발한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1972년 대구시민회관 전국현상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길, 작가는 신념과 자신을 가지고 혼이 깃든 걸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노력한 만큼 순수한 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가끔씩 선생님은 건축교재 하나없이 공부했던 초창기 건축교육의 어렵던 환경에 견뎌온 우리지만, 그래도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선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한 작품이 당선되어 다같이 기뻐하던 축하연에서,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훌륭한 작가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1년여에 걸친 설계를 완성하고 정말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에 지금도 무한한 긍지를 느낀다.



김인호 건축작품집 표지(1991)



김인호교수 기념사업회 임원회의(1998. 2. 16)

언젠가 술자리에서 인간이 태어나면 산다는 자체가 최악이니, 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업소멸(業報消滅)의 기회로 여기고, 후회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후략)

서보광/ 1973-1975/동성건축 대표 - 평소 모든 일에 스케일이 크고 다정했고, 자주 홀로 술을 들며 고뇌하던 선생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오래 내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중략)-

선생님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나의 생애와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인격을 갖춘, 그야말로 인간적인 사람만이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다"고 한 말씀이 아직도 나의 채찍이 되고 있다.

윤상국/ 1976-1988/현, 대아건축 전무 - 1982년 현상설계 당선작, 대구종합문화예술회관과 관계하여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다목적 공연장과 미술전시장으로 구성된 예술회관을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와 전통공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선생님의 주요 화두였다.

함각지붕을 형상화한 세종문화회관의 아류가 되지 않게끔 우리의 공간과 전통의 형태를 현대화하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3을 사용하여 정삼각형 그리드에 한변이 6m인 벌집모양의 6각형을 기본공간으로 하여 변화시켜 나가면서 아리랑곡선, 감사고깔 등 전통디자인을 요소화하였다.

예술회관 앞의 성당못 조성 기본계획은 예술회관의 축을 같이 하며, 봉래(蓬萊), 영주(瀛洲), 방장(方丈)의 삼신산을 못 한가운데 두고, 못의 형태를 자연스런 곡선으로 하고, 오솔길을 만들고, 향토의 고유수종을 식재하여 예술문화회관과 조화롭게 하였는데, 실시공사를 하면서 건물과 축이 호트러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영균/1976-1986/반석건축 대표 - 선생님께서는 작품을 계획할 때는 "늘 작은 부분에 치중하다보면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해 전체와 부분의 조화로운 중용지도를 가르쳐 주었다.-(중략)-

자연적인 선, 인체의 선, 한국적인 선 찾기를 좋아하였고, 프로포션을 중시해 눈에 보기 좋고 자연스러운 것이 구조적, 경제적, 미적인 것이기도 하라며, 건축외적인 것에 대한 교양공부와 독서를 권하였다.-(후략)

신종학/ 1976-1978/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후당 김인호 선생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76년 2월로 대구건축이 한층 도약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가 합동이 되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던 시기였다.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조금 지나 나는 유병순선배의 추천으로 대아건축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때 나의 주요업무는 구조설계고 일반설계는

거들어 주는 정도였는데, 선배들이 그동안 일해온 작품들을 보면서 나의 부족함에 많은 자극을 받았고, 선생님께서도 자상하게 용기를 불러 넣어 주었다. 선생님은 내가 작성한 도면들을 언제나 세심하고 자상하게 검토하여 주었고, 밤늦은 시간에도 사무실에 들러 인생에 대한 조언과 충고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그 중 기억나는 하나는 "구조설계자는 항상 디자이너와 함께 하여야 하고, 과감한 디자인 수법을 소화할 수 있는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 말씀이다.

1978년 3월에 사무소를 떠나, 당시 경북공업전문학교 건축과에 부임하여 교육의 길로 들어서면서 선생님을 뵈 기회는 적어졌지만,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건축구조에 관한 의문거리가 있으면 항상 사무실로 불러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술자리에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사랑의 따귀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 한 대가 아무에게나 주는 손장난이 아니라며 만면에 미소짓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후략)

장석하/1977-1983/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1977년 군을 제대하고 곧바로 공평동에 있던 대아건축에 입사하였고, 그 몇 달뒤에 받은 교통비조의 월급은 2만원이었는데, 첫 월급치고는 많이 받은 것이라면 선배들의 말이 생각난다.-(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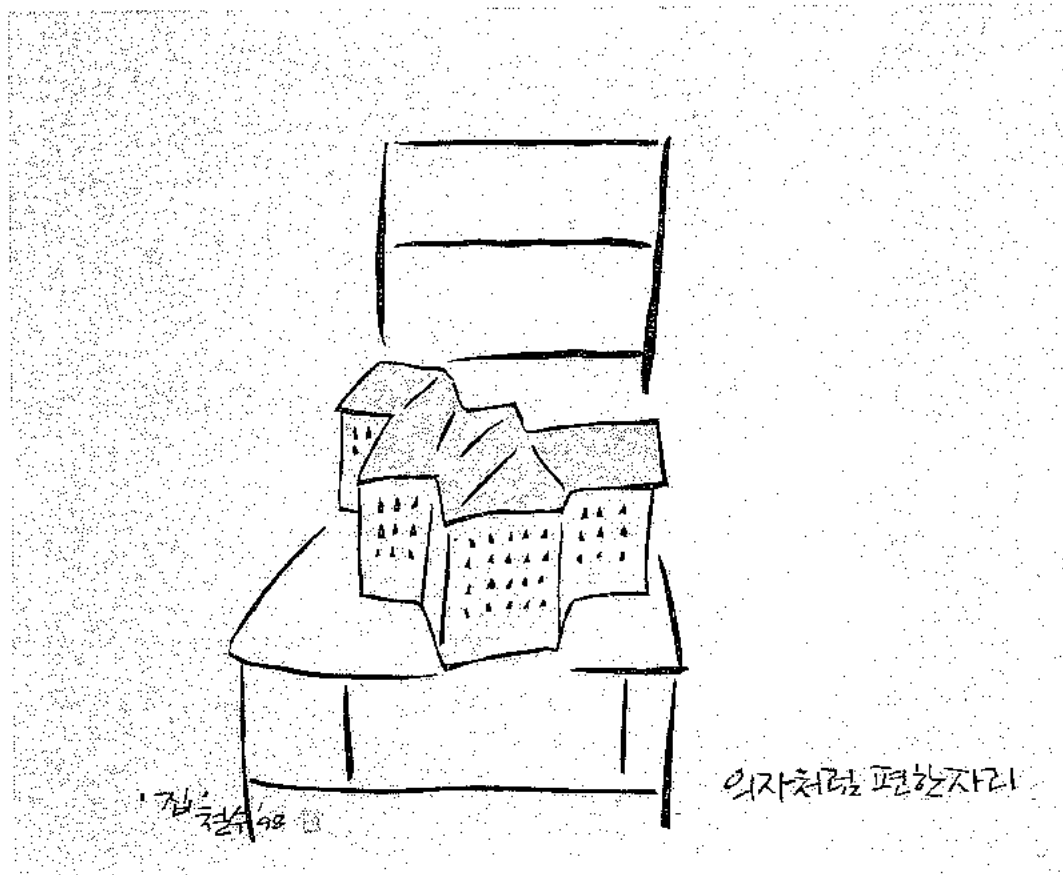
선생님은 자상하고 포용력이 있는 가운데서도 엄격함이나 카리스마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신뢰감을 끌어내기도 하였다. 78,9년쯤의 연말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고 회식으로 송년회를 대신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 성선배님과 함께 선생님이 주는 소주한잔을 받으며 그 유명한 '사랑의 따귀'를 맞았던 기억이 난다.-(중략)-

하지만 계명대학교 도서관 현상설계, 구미시청사 현상설계, 충훈탑 현상설계 등 3개의 현상설계를 동시에 수행할 만큼, 일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분이였다.-(중략)-

선생님은 한국전통의 목조건축의 형태를 현대화하거나 한국적 조형성을 추구하였고, 특히 휴먼스케일, 공간의 시퀀스, 작품의 주제적 개념을 한국적 이미지에서 찾으려고 한 점 등은, 청구대 재직시에 연구했던 고건축의 학문적 말바탕이 깔려 있어서가 아닐까 싶고, 또 그것이 선생님의 건축활동과 자신의 건축언어 탐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된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은 한자루의 연필로 최소 6가지의 선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서울, 부산을 두 번 왕복할 만큼의 선을 그어 본 후에야 건축을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가슴에 와 닿는다.-(후략)

상기의 인물들 이외에도 김인호의 건축인생에 관한 증언자는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들에게 미처 취재의 선이 닿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도 크다할 것이다.(계속)



집 - 의자처럼 편안한자리

사람도 잘난 사람은 잘난 값을 합니다.

장식품처럼 쓰일 사람보다는 친구하기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게 어울리고 내게 편한 집이라야 내 집이고 좋은 집입니다

내 살집인데 내 눈에 안맞추고 남들 눈에 우선 맞추는 이들도 있습니다.

굴이 곧 사람이라 하듯, 집 역시 그 안에 사는 사람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집에도 격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알면 허장성세와 억지가 잔뜩 느껴지는 집을

자랑으로 여기기 어려울 법한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어리석은 자랑이 날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특별하고 크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부담없이 작고 겸손한 것을 부끄러워 합니다.

절제있는 작은 집에서 깊은 평화와 휴식을 얻을 줄 아는 마음이

흔치 않은 세상이라 당연한 일입니다

〈글: 이철수(판화가)〉

충청의 정신 · 충청의 역사 · 충청의 문화

Spirit of Chung-cheong, History and Culture of Chung-cheong

김승환 / 민예총 청주시 지부장, 충북대 교수
by Kim Seong-Whan

충청의 역사, 충청의 문화

조선 중기에 이종환은 18세기초의 「택리지」에서, “물산(物産)은 영남 · 호남에 미치지 못하나, 산천(山川)이 평평하고 아름다우며 한양 남쪽에 가까운 위치여서 사대부(士大夫)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대(代)로 서울에 사는 집으로서 이 도(道)에다 전답(田畠)과 주택을 마련하여서 생활의 근본 되는 곳으로 만들지 않는 집이 없다. 또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에 차이가 없으므로 터를 고르면 가장 살 만한 곳이다.”라고 충청도에 대해서 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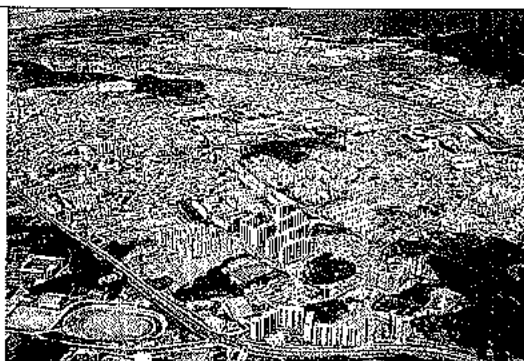
이 글에서 강조되고 있는 충청도적 특질은 ① 시대부의 주거지라는 것과 ②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형태적으로 유사한 풍속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종환은 ‘서울 이외의 지역 중에서 가장 살만한 곳’이라는 규정을 내렸다. 바로 그의 이 말, 즉 물산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지만 살기가 좋다는, 모순처럼 들리는 이 규정 속에 충청도의 역사 문화적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경제보다도 지리적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중앙집권제 하의 정치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며 양반들이 근거지를 마련했다는 것은 양반이란 신분의 중요성과 왕의 직할지적 성격을 가진 관료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자연적 환경이나 경제적 조건보다도 정치나 문화를 중요시한 이 측면이야말로 충청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

어야 한다. 그렇다. 충주와 청주의 머리글자를 따서 명명한 충청도는 봉건시대 정치와 문화의 앞마당이었다. 충청남도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충청북도도 고려시대 이래로 왕(王)의 직할지(直轄地)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다 아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유교의 덕목에 따라 정치를 담당하던 계층이 바로 양반이다. 이종환이 말했듯 많은 양반들이 충청도에 근거지를 두었고 그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양반의 수효가 많아진 것이고 그 결과 이 지역은 양반의 고장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충주와 청주 사람들은 양반이라는 신분적 자부심이 강하며 그래서 형성된 양반 문화의 특징이 이 지역 정서라고 믿고 싶어한다. 대부분 보수적이고 수동적이며 아첨한 행동거지와 형식을 중시하는 경향은 바로 이 양반유교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한편 충주와 청주를 일컬어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하기도 한다. “충청도 = 맑은 바람 같고 맑은 달과 같다”는 시적(詩的)인 묘사는 원래 자연지리적 특징을 일컫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성정(性情)을 규정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맑은 바람 맑은 달’을 가진 산자수명(山紫水明)한 충절(忠節)의 고장이라는 식의 규정은 왜 생겼을까? 한강과 금강 그리고 소백산맥과 차령산맥을 끼고 있는 지리적 요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접경이라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중앙의 직할지라는 정치적 요인이 합쳐져서 ‘청풍명월의 고장’ 또는 ‘산자수명한 충절의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충북이 양반의 고장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봉건적이며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상류계층 중심의 양반문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공유(共有)하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자랑만해서는 곤란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성 또는 평민이었으며 옳지 않은 일에 항거(抗拒)하는 저항의 정신도 강했다. 또한 이 지역에 양반문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평민문화, 민중문화도 있었고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신과 아울러 저항의 정신과 진취적인 기상도 높았다. 고급문화인 양반문화에 대립하는 서민문화 또는 민중문화는 양반문화와 함께 우리 지역문화의 토양(土壤)이면서 실제였음을 이제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충주시 전경



청주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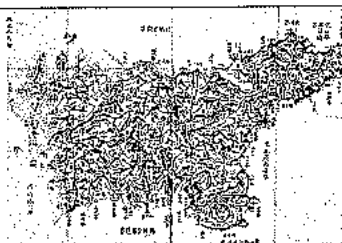
충주 - 중원의 정신, 청주 - 서원의 정신

충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남한강과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 환경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 이제까지 남한강과 소백산이라는 자연지리적 특성이 충주의 과거를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충주의 역사는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주는 삼한 중 마한에 속했고 근초고왕 시절에 백제가 남자곡성(娘子谷城-충주)을 점령한 후 신라가 죽령을 통하여 북으로 진출하려 하면서 곧바로 격전지로 변했다. 후에 고구려도 충주의 지리적 중요성을 깨닫고 국원성(國原城)이라 명명하고 이곳에 고구려비를 세웠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주가 삼국의 접경이면서 신라 백제의 문화가 혼합한 남방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충주는 신라 백제의 남방문화 외에 고구려적인 북방 문화적 특징도 가미되어 있다. 충주는 고구려 장수왕과 진흥왕 시절에는 국원성 또는 국원소경으로 불렸으며 신라 경덕왕 시절엔 중원경으로 신라의 중앙이라는 의미가 덧붙여졌고 고려 고종(1254) 시절엔 국원경으로 승격되었다. 조선 태조(1395) 시절에는 충청좌도의 중심지였다. 1896년 고종 33년 지방관제 개편 때에는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였다가 1908년 도청이 청주로 이전하면서 군과 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역사의 고장 충주엔 우륵과 김생 그리고 임경업 장군과 신림의 원혼이 살아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동요 시인인 권태웅의 나라사랑이 전하고 있다. 남한강과 새재의 자연을 역사적 관점에서 시화(詩化)한 신경림은 이 고장의 정신을 대표하는 뛰어난 민족시인으로 충주의 자랑이다. 청주는 충주와 마찬가지로 원삼국 시대의 마한(馬韓) 땅에 속했다. 원삼국 시대에 대한 학계의 이견(異見)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한이 청주 일대를 근거지로 했음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족국가 마한이 백제 고구려의 각축지에서 신라의 중요한 행정 거점으로 발전한 것은 신문왕 5년(685), 5소경 중의 하나인 서원 소경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 757년(신라 경덕왕 16년) 서원경으로 승격되었고 940년(고려 태조 23년) 청주로 개칭되었다. 1018년 청주목이었고 그후 양광도에

속했는데 당시에 이미 조치원, 전의, 청천까지를 아우르는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였다. 1395년 양광도지역 중 한 부분이 충청도로 바뀌면서 충주목과 함께 충청도를 이루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1895년에는 청주군으로 재편되었고 1908년에는 충청북도의 도청소재지로 개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략 그 무렵부터 충청북도의 정치와 경제는 청주 중심으로 옮겨왔다. 충주시민들에게는 일종의 박탈감을 안겨주면서 그 반작용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전통지향적인 측면을 보이도록 만들었다. 반면 청주는 청주대로 서원경이었다는 역사적 자긍심 외에 현대의 중심지라는 뜻에서 배타적 독점성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학문과 예술의 고장이라고 전해오는 명성은 홍덕사지 발굴로 더욱 높아졌으며 신채호 손병희 한봉수를 비롯한 수많은 의인들이 이 지역의 정신을 드높였다. 특히 민족의 스승인 단재는 민족지주, 민족지강의 사상을 설파(說破)했다. 단재의 사상은 봉건양반의식이 긍정적인 민족자존의 의식 또는 민중사상으로 변화하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산업화와 발맞추어 청주는 크게 변모하였다. 문학과 학문의 고장이면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도시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반작용으로 주변의 농촌인구를 흡수하여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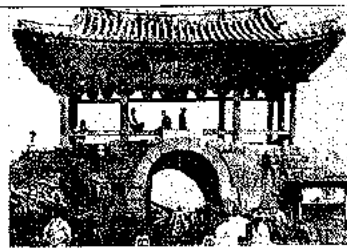
충주와 청주는 오랫동안 상대적 경쟁관계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에 놓여 있었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두 지역의 갈등과 화합 또한 오랜 역사의 산물이다. 본자는 이에 대해 제도의 사회사적 관점에서 비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중앙집권제도 하에서 중앙은 강력한 인력(引力)으로 지방을 통제해 나갔고 지방과 지방들의 관계는 중앙의 인력에 의해서 정립되었다. 봉건 관료제도는 경제나 교육을 포함한 모든 삶의 하부구조를 규정하면서 충주와 청주의 동질적이고 이질적인 요인들을 확대 재생산해 냈다. 충청도적 특질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충주와 청주는 협력과 보완의 관계이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배타적 동질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Irony)라 할 것이다.



忠清道 五十三官



일제시대 청주 번화가



청남관(1920년대 옛 청주읍성의 남문)

충주와 청주의 인정투쟁(認定鬭爭)

헤겔(GWF Hegel)은 정신현상학에서 인정투쟁이란 용어를 쓴 바 있다. 자기가 자기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간은 목숨을 건 인정투쟁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사회나 인류역사도 바로 이 인정투쟁의 역사였다는 것이 대 학자 헤겔의 관점이었는데, 우리에게 낯설지만 인간이나 사회나 존재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해석한 음미해 볼만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충주와 청주를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본다. 충주와 충주 지역 시민들은 청주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 청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까지 보인다. 반면 청주와 청주시민 또한 그러하다. 충주와 청주는 오랜 중앙집권제 하에서 대등하면서도 경쟁적인 지위를 반복했다. 이 문화권에 사는 지역인들은 서로가 자신의 충청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경우마저 있다. 이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선의(善意)의 경쟁을 통한 두 지역의 의미를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다. 물론 두 지역의 배타성은 지역내의 특성일 뿐이며 외면적으로는 하나의 문화권, 하나의 역사단위로 존재하고 있음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두 지역의 고유성과 공통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 지역의 문화 역사를 살펴보기로 하자. 1970년대 들어서 충주와 청주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중원문화로 담아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른바 5대 문화권인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백제문화권, 영산강문화권과 아울러 중원문화권이란 용어가 정립되고 화계에서 중원문화의 특징을 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용어엔 국토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의미도 담겨 있고 삼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던 중원지역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실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우리 지역의 문화를 대중원문화권으로 설정한다면 그 하위 영역으로 충주 음성 단양 제천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문화권, 보은 옥천 영동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유역문화권, 청주 청원 과산 진천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문화권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서 청주지역은 독자적

인 서원문화권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 명확한 개념이 정립(定立)되어 있지는 않다. 이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동질성은 중용(中庸)의 정신이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얹히고 설켜서 현재 충주 청주의 문화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충주 청주의 문화는 고금문화/하금문화, 양반문화/서민문화, 엄숙주의/신비람, 북방문화(고구려)/남방문화(신라 백제), 백제문화/신라문화, 전통문화/외래문화, 세계적 보편주의 지향성/지역적 특수주의 지향성, 농경문화적 특징/도시문화적 특징, 중앙지향성/지역지향성, 문화엘리트/문화시민, 건전한 민족문화/소비적 퇴폐문화 등의 복합적이고 대립적인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과거 역사문화의 특징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변모했다. 식민지 이식문화(移植文化)와 민족의 저항문화가 대립하던 시기를 지나 반공문화, 군사문화 그리고 성장제일주의 문화로 이행해 갔다. 1960년대 이후 사람들은 서울로 몰려갔다. 눈물을 뿌리면서 서울로 미국으로 사라졌다. 작별의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한다. 근대화란 이름 하에 고향을 등지고 떠난 우리 삼촌과 형제들... 살기 어려워진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도시로 몰려간 이모와 자매들... 1909년에 진행된 「한국충청북도일반(韓國忠淸北道一斑)」에는 당시의 충북인구 504,885명 중 충주군이 80,406명, 청주군(현재의 청원군 포함)이 85,006명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98년 현재 청주는 약 55만 충주는 21만이나 도시화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충북의 지형도까지 바꿔버린 것이다. 경제개발의 결과인 도시화로 충주와 청주는 중소도시로 변모한 반면 주위의 농촌은 붕괴되었고 농경문화에 바탕을 둔 전통문화는 이질적인 서구문화로 대체되어 갔다. 농촌사회에 기반을 둔 농경문화는 근대의 도시문화로 바뀌면서 시민계층이 등장하여 서구적 경향을 띤 시민문화로 이행해 간 것이다. 이러한 도시(서울)의 횡포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1세계 금융자본의 폭력은 역사적으로 우리 내부의 민중성과 민족성을 발견하는데 기여했다. 부당하게 억눌리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의식이 팽배하면서 비판적 시민(즉 민중)의식이 대두했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민족의 손으로



1930년대 충주



1960년대초 청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直視)하면서 민족적 의식이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화는 서울 또는 국가권력의 강한 통제 아래에 놓이고 특정한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홍보로 전락(轉落)한 경우마저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문화예술도 많이 번모했다. '지역'과 '지역문화'란 개념이 등장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건축 바깥에 있는 사람의 건축에 대한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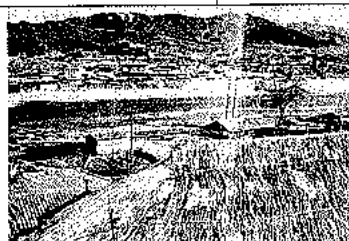
바르셀로나에서의 일이다. 세계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건축가 가우디(A. Gaudí)의 걸작 사그라다 화밀리아를 보고 절망감이 들었다. 왜 우리는, 아니 우리 지역엔 저런 건축물이 없는가. 찬찬히 따져보면 없는 것은 아니다. 망선루, 남석교, 상당산성, 충주 관아, 미륵사지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어딘지 허전한 것은 왜일까. 사그라다 화밀리아가 웅장하거나 빼어나서가 아니다. 저런 상상력을 우리가 키우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절망한 것은 거의 백년을 두고 끊임없이 지으려고 하는 까딸로니아 지방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열정이었다. 만약 우리가 백년을 두고 짓는 건축물이 있다면, 아니 지으려고 한다면 모르긴 해도 그 못지 않은 작품을 남길 것이 분명하다. 바르셀로나(Barcelona)에 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가우디의 걸작들을 보러 온다는 케밥 파는 주인의 자랑에 나는 그만 주눅이 들어 버렸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절망하거나 주눅들 일인가? 우리가 파리의 개선문이나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성바실리카 성당과 같은 건축물이 없다고 해서 잘못이라도 했던 말인가? 그 지역엔 그 지역에 맞는 건축이 있어야 할은 당연한 것이며 또 그러한 건축물은 분명히 있다. 비자울 강담에 물매 산 개울가 초기지붕의 아름다운 우리 건축, 아니 그냥 집이 있다. 삶의 현실과 맞고 환경과 어우러지는 건축이라야 의미있는 것이므로 함부로 절망하거나 주눅들 일은 전혀 아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인가? 우리가 잠시도 탈출할 수 없는 숨막힐 듯한 시멘트 숲은 우리의 영혼을 무수히 괴롭히기 때문이다. 이 딱딱한 돌집 안에서 어떻게 인간답고, 아름다운 삶이 가능할 것인가? 파시즘의 폭력이라고 해야 할 저 무시무시한 실용주의 건축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옥의 연극을 하고 있는 배제로... 예술적 아름다움과 민족의 정서를 나타낸 건축이 아니라 효용성만을 따지려는 천박한 경제제일주의 건축을 우리는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저 획일적인 무국적 건축은 대체 어째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인가! 나는 매일매일 제1세계의 금융독점자본이 명령하는 실용주의 건축을 증오한다. 특히 건축에서의 서구 중심 또는 일본적 인력(引力)과 물신주의적 경향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요소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우리의 건축을 가져야 한다. 당연하고도 당연한 논리 아닌가?

우리 근대건축의 두 명제는 아마도 ①반봉건 근대 시민(민중)건축 ②반외세 민족건축이라는 두 지향점일 것이다. 과거 우리 건축이 이 두 명제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세의 봉건건축 양식에서 근대의 시민건축으로 이행했어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렇지가 못했다. 이식건축이 민족건축과 민중건축을 몰아내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한 사실은 잘 증명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주의 정신을 가진 근대 시민건축(민중건축)과 우리의 형식을 잘 살릴 수 있고 우리 삶에 잘 맞는 민족건축을 하루바삐 정립해야만 한다. 건축이 아름답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또한 건축이 실용주의적이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건축이 초역사적이고 초현실적이기만 해서야 되겠는가? 건축의 영원성과 예술성은 민중적일 때 얻어지고 민족적일 때 확보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는가?



경주 홍덕사지 교인쇄박물관
(사적 31호)



1960년대초 청주 무심천변



충북예술제

시인의 눈에 비친 청주와 충주의 이미지

The Image of Chongju and Chungju Seen Through the Eyes of a Poet

허의행 / 시인, 중원문학 주간
by Hur Eui-Haeng

청주, 충주의 이미지와 상징성

청주의 이미지는 정이품송이나 청풍명월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맑은 바람이나 벚꽃 또는 철당간이나 적지심체와 같은 불교의 이미지나 연꽃이미지가 더 가깝게 와 닿는다.

청주가 다른 도시보다 청결하고 개방적이며 예술적으로 섬세한 느낌이 강한 것은 비교적 신도시라는 점과 학생들과 젊은 근로자들이 많다는 탓도 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문화가 꽃피고 창의성이나 흥행성이 강하다.

시의 상징물은 느타리무와 까치, 그리고 우아한 멋을 풍기는 목련꽃이다.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나 청주 정서에 잘 맞지 않는다. 가령 느타리무는 과산이 적지니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로 정하면 어떨까. 까치 또한 충주와 같으니까 충주쪽에 서 천둥오리나 물새로 바꾸면 좋을 듯 하다. 여하튼 청주는 바람과 초록의 청량한 느낌과 건강미 넘치는 명랑한 아가씨 이미지를 연상하기에 좋다. 도시를 둘러싼 광활한 전원과 나즈막한 산자락이 평온을 주며 공간적 자유를 연상하기에도 충분하다.

“바람결 설레이는/ 플라타너스 터널을 지나면/
무심천 풀어놓고 활짝웃는 그대여”

- 허의행의 '청주 중에서' -

서적 이미지에 있어서도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이 영그는 곳이 청주이고 무언가 미래에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

어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나 청주의 환경이 오염되고 훼손된 현실을 가슴 아리게 노래한 시인도 있다.

“예쁜 산 쓰러진 자리에 / 불쑥불쑥 솟아나는
회색 건물 / 내 생명의 영토는 자꾸 줄어들고 / 꿈속에서도 검은
숲과 해골 꿈꾸는 나

오늘도 인구가 몇 명 늘었습니다. / ... 찌릿 찌릿 함성이 하늘로 제비처럼 날아갑니다. / 오늘도 골목에는 연기가 무럭무럭 오릅니다.”

- 이현암의 '청주노래' -

산업화 된 도시의 쓸쓸함을 노래한 것은 이 시인만이 아니다. 청주의 대표시인 도중환의 우수와 박용삼의 비감은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현실복원을 더욱 애절하게 기다리는 구원의 목소리다. 김초혜 시인은 고향의식의 상실과 유년을 회상하며 청주를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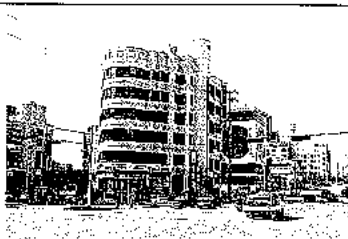
대부분의 청주문인들은 감성이 풍부하고 구성력이나 메타포어도 뛰어나다.

임승빈, 이석우 등이 이끄는 '마음을 가리키는 시' 동인들과 반철환 같은 시인들은 탄력이 강하다. 그러나 이들의 대다수는 고향이 인근지역이라 청주에 대한 근원적인, 청주에 대한 깊은 성찰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이 그리워하고 보고 파 한 곳은 청주보다는 텃줄을 묻은 산간 고향들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청주로 이주해와서 사는 사람들은 청주가 낯설고 쓸쓸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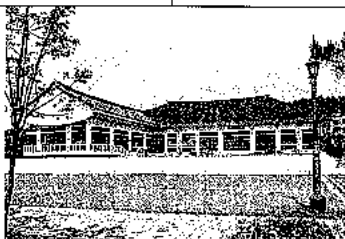
“무심천 방죽따라/벚꽃이 만발해도/내 눈가엔
/달기미 언덕/흰한 싸리꽃만 아른대는걸/- 종락 -”

- 박천호의 '낯선 땅에서' 중에서 -

청주에 살면서 고향을 그리는 맘을 쉽게 알 수 있다. 끝연에서는 '아니잖아 아니잖아, 고향땅 흠내음이...' 하는 독백으로 할 수 없이 얹혀사는 실사를 토로했다. 아웃사이더인 이들의 삶의 궤적에서 우리는 청주가 현대도시의 성격을 갖춘



충주 신도시 교차로 근린생활시설들



충주 태권전수관



충주 우록당

큰 도시라는 점과 고향임은 많은 표류민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청주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시다. 사람들 성격도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맛이 있다.

다소 도시의 밀집성과 익명성으로 눈에 거슬리거나 무책임한 일들이 청주인의 품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따뜻한 인심과 선비적인 기질은 양반 도시다운 청주이미지를 든든하게 해준다.

충주는 지형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산과 강이 잘 어우러진 도시다. 도시의 발달과정을 보면 신도시보다는 전통적인 고도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곳을 무대로 삼국이 겨루었으며 주변에 많은 문화유적이 이를 증명해준다.

충주의 젓줄인 남한강과 달래강이 비옥한 땅을 만들어 자연적으로 농경문화가 성하였고, 도시는 농산물의 집산지로 전형적인 농촌도시로 발달했다. 또한 남북의 긴 산지에는 육질이 단단하고 당질이 높은 '충주사과'가 전국적으로 팔려 나간다. 이곳의 주요 생산물로는 사과와 고추 등 농산물과 전국에서 이름난 수석 그리고 향기가 뛰어난 산나물 등이다. 시의 상징물은 은행나무와 까치 그리고 굳은 절개를 나타내는 매화꽃이다. 그러나 충주는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충주호, 수안보, 능암온천 등으로 물빛 이미지가 강하다. 물빛은 투명하고 맑으며 생기를 띤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강가에 나가면 은행반 같은 호수로 옥빛 햇살이 번지고, 득길마다 피어있는 무수한 들꽃을 만난다. 물가의 중앙탑도 충주의 이미지로 많이 팔렸다. 충주의 문인들이 쓴 글중에는 강에 대하여 쓴 작품이 많다. 이 또한 지역성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남한강을 쓴 신경림 시인은 강의 시인이라 할 수 있다. 양채영 시인은 들꽃의 시인이다. 박재륜 시인도 산과 강을 노래한 것이 많다.

"인간들이 모여사는 동네보다는/그 이름없는 산 줄기를 바라보며 살아왔다./그 산줄기가 빈으로 갈라져/비켜앉은 사이로 흘러내리는/남한의 가람기를 거닐며 살아왔다. -중략-"

- 박재륜의 시 '작품 32' 중에서 -

충주의 대표적인 시인들은 산과 강의 이미지를 작품의 소재로 삼고 있다.

강이 유순한데 비해 거칠며 신성한 느낌을 준다. 또한 산은 굳은 불변의 의미와 고집을 나타낸다. 충주의 이미지가 산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강과 산이 있기에 물이 좋고 꽃도 많다. 그러나 산과 강은 인간의 발길을 막고 정보를 더디게 한다. 그래서 그런지 덜 개방적이고 폐쇄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충주사람이 전통을 중시하고 사고성이 부족하여 남과 쉽게 사귀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 것은 어쩌면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근 30년 가까이 살아왔어도 충주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큰 강물처럼 흐르는지 고였는지 분간이 안된다. 도시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중원군과의 통합으로 12개 면이 통합된 것과 목행쪽으로 연수동에 신도시 그림자가 생긴 것 외에는 변한게 없다. 질기도록 변하지 않는 도심과 건물들, 답답할 뿐이다. 이 또한 충주의 얼굴이다.

청주와 충주의 도시 모습과 건축문화

청주와 충주는 중부권의 중심적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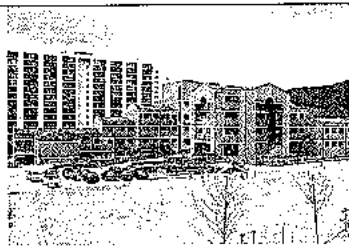
이는 한반도의 중심부라는 점과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 중간지역 즉 산록과 평야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 비교적 살기좋은 고장이 충청도라는 점이다. 앞뒤로 높은 산맥과 강으로 둘러 쌓여 타지방과 문화교류나 정보가 늦고 보수적이며 폐쇄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이 말은 교통요지인 청주보다는 충주쪽이 훨씬 심한게 사실이다.

아마 충청도 양반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교통이 불편하여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역설이 가능하다. 선비의 덕목이 청렴과 지조를 지키며 전통을 따르는 유학



충주문화회관



충주 연수초등학교 (열린교육 시범학교)



충주실내체육관

적인 생활과도 관계가 깊은데 이는 충청도가 사대부들의 유배지였거나 휴양지였음을 짐작케 하는 단서가 된다. 그들의 지지자나 제자들이 뿌리내리고 있었기에 중앙에서도 두려워 한 곳이기도 하다.

충주는 충북 최대의 곡창지대인 미호평야를 끼고 있어 농산물이 풍부한 도시다. 일제시대인 1906년 충주에서 청주로 관찰사가 이전되면서 충북의 관문이 되었고 지금은 교육·문화도시 뿐만 아니라 산업도시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예전에 충주는 성안을 중심으로 멋진 기와집과 고건축이 즐비했고 집안에 들면 사군자나 서화 한두점은 쉽게 눈에 띄었다. 삶에 여유가 있으니 인심이 넘쳐나고 풍광이 수려하니 시인묵객(詩人墨客)이 무수히 드나들었다.

충주는 내륙 깊숙히 자리하여 육로교통은 불편했지만 옛부터 물길이 발달하여 강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곳곳에 역사유적이 많고 산과 강이 아름다워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도심은 충주읍성을 중심으로 성서, 성내, 성남동, 그리고 적동쪽으로 변화했고 충주 중심보다는 외곽지역이 더욱 중요한 요충지가 되기도 했다. 옛 건축물은 관아공원의 청녕헌 뿐이며 강변에는 창고나 주점, 객관이 많았다.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탄금대, 가흥창, 목계, 용원, 수안보 등은 충주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명들이다.

근래에 들어 충주는 대도시로 급격히 발전했다. 70년대 들어 농업과 상업,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발전했고 청주공단이 완성되면서(69~89년) 산업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교육과 공업화와 80년대 공단조성으로 충주는 산업도시로 성장했고 인구도 60만을 육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도시의 모습도 종래의 남문, 북문로가 있는 상당구를 벗어나 가경, 봉명, 복대, 강서쪽으로 기형적으로 확장되어 본래의 순수성을 잃고 있다. 건물의 모습도 신도시가 그렇듯 사무실이나 아파트, 주상복합상가, 위락시설용 빌딩군이 우뚝우뚝 들어섰다. 그 중에 현대적 조형미가 넘치는 예술의 전당이나 성당도 있고 주제를 살린 청주시청과 공설운동장도 특색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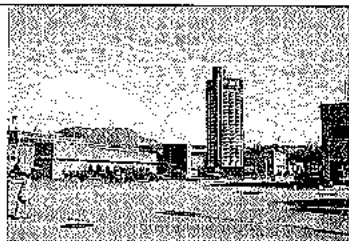
건축가 김수근씨가 설계한 청주박물관이 청주의 명물일 것이다. 양지 바른 우암산 자락에 위치한 청주박물관은 자연과 현대적 조형미가 조화를 이룬 명작임이 틀림없다. 화강암을 소재로 한 점이나 운치있는 공간구성, 그리고 관람객의 편리성을 고려한 감성적인 건축물이라는 평이다.

근래에 들어 충주에도 보기에 좋은 건물들이 눈에 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우연히 맞닥뜨린 연수동의 백상빌딩과 안림동의 힐하우스(지붕은 깨진 옹기로 덮고 내부는 흙으로 넓게 장식한) 그리고 금릉동의 파라다이스 레스토랑(프랑스풍)이 신선감을 주었다.

열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지은 연수초등학교는 기존 학교라는 개념을 모두 제거하여 내 집 같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 밖에도 전통적 가옥구조를 살린 우록당과 한국코타의 콘도미니엄 등은 휴양도시의 정취를 물씬 풍겨준다.

이 두 도시는 전원의 포근함과 산천의 아름다움을 효율적으로 살려내지 못한 점에서 아쉽다. 기령 충주는 낮은 구릉과 무심천을 유연하게 살려 시민들의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해야하고 성안길은 걸어서 다니도록 도로나 건축물이 설계돼야 한다. 그리고 건물의 높이나 모양, 색채도 청주의 정서를 살리는데 관심을 두어야겠다.

충주는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도시 가운데 우뚝 선 아파트나 건물들이 보기 흉하다. 스카이라인이나 지평선을 소홀히 한 점, 주변의 건물들이 대칭과 비례, 전체와 부분, 기하학적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 어느 도시보다 아름답고 깨끗한 충주와 충주, 그 좋은 자연적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건축가들과 행정기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건축미학에 대한 수준이 전무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의식을 일깨워 줘야 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사회·경제적 수준이 따라줘야 건축문화도 발전하겠지만... 주제가 있는 건물과 충북의 특색을 살린 건축물이 하루 빨리 보고 싶다.



충주 새한미디어 전당대
(옛 충주비료공장 싸일로 개조)



충주 파라다이스 웨딩홀('97 건축상 수상작)



충주 호일지변 경관(아파트, 후랜드리 호텔)

충주와 청주의 문화유적과 명소들

청주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2개 있다.

철당간과 직지심체가 그것이다. 그 외에는 지방문화재로 청주동헌과 상당산성과 우암산의 석불군 등이 있다. 국보급이 3개(중앙탑, 고구려비, 정혜원 용탑)인 충주는 보물급과 지방문화재도 무수히 널려 있다. 자연적인 여건이 좋아 선사 시대부터 강의 문화가 발달한 곳이라는게 학자들의 견해다.

가볼만한 명소도 청주보다는 충주가 많다.

산과 강과 온천, 계곡 등 자연적인 혜택을 많이 받은 곳이 충주다. 필자가 청주에 오면 갈 곳이 없다. 청주시내 학생들이 소풍지를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주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자연적인 것보다 예술적인 문화가 활성화되어 각종 전시회나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충주에서는 왜 없는가 불만을 토로하니 흥행에 자신이 없다는게 이벤트사의 얘기다.

사실 5~10만원 주고 콘서트를 갈 문화적 수준과 시민의식을 장담키 어렵다. 건물은 지으면 되지만 의식은 쉽게 함양되는 게 아니다.

문화는 생활속에서 즐기고 향유할 때 발전되고 계승되는 데 충주의 경우는 문화유적이 많고 고도인데도 잘 가꾸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유형 문화재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 상실도 심각하다.

충주에는 택견과 탄금대 방아타령, 목계별 신굿이 전해오고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택견만 겨우 전수되고 있다.

청주의 모내기예에 관계된 풍속도 사라진 지금 우리의 문화는 급히 사라지고 외래문화의 범람에 시달리고 있어 문제다.

생각을 접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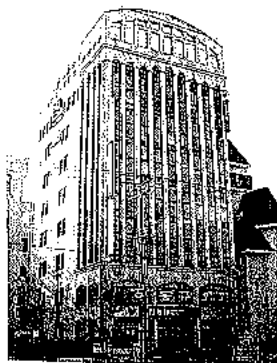
들녘의 포근한 황토언덕이나 풀 한포기 그리고 작은 실개천이 당장엔 우리 삶에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부가가

치를 창조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입장이나 개발논리에서 보면 오히려 구차하게, 아니 낙후된 후진성만 올려주는 꼴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성급하게라도 빨리 신도시다운 빌딩군이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물론 도시의 기능이나 편리성에서 또는 토지의 상승기를 기대하는 소시민들의 투가심이라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 보다는 정치적인 정책이나 재벌들의 장사 속심이 더 큰 역할을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 옛 향기가 물씬 우려나는 고건축이나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 뒤늦은 '직지' 찾기 같은 일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때늦은 후회를 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없어야겠다.

난 가끔 전국의 명물이 된 청주 플라타너스 터널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신선한가. 청주를 찾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내뱉는 말이다. 또한 친자연적인 요소와 건축미가 함께 빛나는 청주박물관을 보라. 명암지를 지날 적마다 감탄하게 하는 그 기막힌 발상과 감성적인 건축미학 이것이 바로 예술인데 우린 그 같은 함의에도 동떨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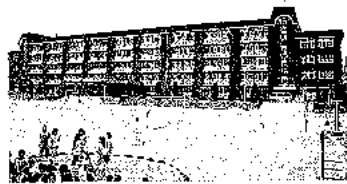
잘 지어진 건축물 하나는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정서와 소재에 어울리는 한국적 건축물이 눈에 많이 띄었으면 좋겠다.



청주 덕재빌딩
(97 아름다운 건축물 우수작)



청주국제공항



청주 수곡국민학교(97 아름다운 건축물 가작)

충주 도시탐색

Investigating the City of Chungju

황재훈 /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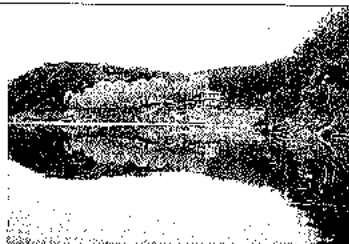
by Hwang Jea-Hoon

자연환경과 토지이용 특성

충주시는 주덕, 가금의 좁고 긴 소평야를 포함하는 충주평야의 저지대를 중심으로 계명산, 남산, 대림산, 천등산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대부분 오랜 침식기반을 거친 노년기의 저산성 구릉 침식분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충주시가지의 3/4정도를 우회하며 특징있는 배산임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충주댐과 연결된 수변공간은 시의 북쪽과 동쪽의 경계를 형성하며, 남서쪽의 지류의 일부만이 호암지와 연계되어 중요한 시의 외부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중부내륙에 위치하면서 부족하기 쉬운 수변공간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다양하고 충분하며 내륙지역이 가지는 고유한 산악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산과 강의 풍부하고 균형 잡힌 자연환경은 어느 도시보다도 우수하고 특징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충주는 약 15만의 인구를 가진 중급 규모의 개발잠재력을 가진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지류가 만나는 지역을 정점으로 도심이 형성되어 동서방향의 자연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남북방향으로 도시발전축이 형성되었다. 북쪽으로는 시청이전과 더불어 행정중심적 기능과 그 주변을 신시가지로 개발되고 있고, 남쪽으로는 자연적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시설과 관광지향적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의 구성도 기존 시가지의 경우 충주천 복개도로를 중심으로 좁고 부정형에 가까운 격자형구조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발지역의 경우 평평한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격자형 도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 국도 3호선과 국도 38호

선이 광역가로망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도심지역은 대봉로, 예성로, 성남로의 남북축과 달천로, 중앙로의 동서축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 가로망에서 중요한 교차로는 로터리의 형태기 때문에 늘어나는 교통량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호암로중 일부구간과 성남로, 예성로, 중앙로 구간은 양방향 2~4차선의 중심도로임에도 도로폭의 협소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이용의 경우 전체 도시계획 면적중 80.94%가 그린벨트와 녹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각각 12.63%, 4.16%, 2.28%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지역의 경우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저층위주의 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9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금릉, 용산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건설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의 질은 향상시켰으나 도시경관을 파괴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스카이라인의 형성으로 자연환경을 시각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필지, 가구, 건축물 규모등 도시구성입자(Urban Grain)의 비례 또한 깨고 있다. 또한 아파트가 주는 획일적이고 큰 스케일은 저층 주거지역이 주는 작고 다양한 공간구성입자와 어울리지 못하고 위압적인 형태로 군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화동에 위치한 럭키아파트의 경우 도시경관파괴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구릉지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지과 마찬가지로 용적률로 건설되어 14층의 높이이지만 실제로는 20층 이상의 시각 차단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서쪽 진입로에서 볼 때 충주의 주산(主山)을 가리면서 주변의 낮고 작은 건물군과 시각적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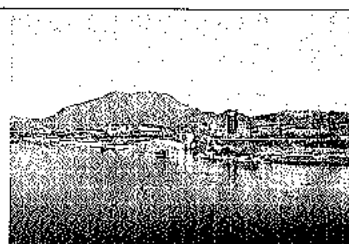
이런 아파트군의 개발과는 달리 새로운 주거형태의 시도가 돋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원도시형 주택단지조성이다. 충주호로 가는 목벌의 남향 구릉지에 위치한 단지로 아직은 작은 규모(40여 세대)이고 건축적으로 충분한 특성을 살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위치적으로나 주변환경으로 볼 때 외국의 비버리힐스와 같이 지역의 대표적 상류사회의 주택지로써 손색이 없게 느껴진다. 현재는 같은 형태의 소규모 단독 주택으로 계



충주 탄금대



충주 수안보관광지



충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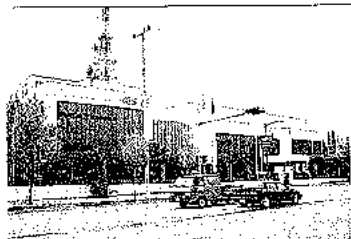
획되어 위치적 장점을 살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완만한 구릉지 경관이 주는 자연적 조건과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조화시킬 수 있다면 대표적 주거지역으로 또한 지역성을 가지는 공간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상업지역의 경우 중앙로를 중심으로 부민로터리와 (구)시청앞 로터리아이에 선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계획적 뒷받침이 없었던 구도심으로써 5~6층 규모의 건물이 대부분이고 건축적 형태와 언어가 기능만을 바탕을 두어 여타 중소도시의 중심부와 마찬가지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상업건물의 경우 그 도시의 건축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성과 설계가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또한 단핵의 도시공간구조가 가지는 도심지의 절대적 의존성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과 보행공간이 충분치 못하며, 그나마 있는 공간도 도로시설물이나 상점들에 의해,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자동차들이 점유하고 있어 도심의 기능성과 보행의 쾌적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도시규모는 자전거생활권으로 적당하여 이에 대한 공간과 시설이 매우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도심공간 이용패턴으로는 자전거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행히도 명동이라고 불리는 보행자 전용공간이 있어 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충주의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거리로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전체의 길이 또한 그리 길지 않아 확장이 필요하고 보행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적 특색을 가지는 가로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공업지역은 충주시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으로 사가지와 분리되어 소음, 공해의 시내 유입이 적고, 주위의 강으로부터 풍부한 공업용수의 확보가 가능하여 공장입지 조건이 양호하다. 또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 거리적으로도 멀지 않아 물류수송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대규모 산업시설을 유치하지 못해 소규모의 공업형태를 하고 있으며 공단의 공간구조가 산업공단의 면모로 계획되기보다는 지역적 규모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중부권의 위상의 제고와 업종재조정을 통하여 기존의 공단보다 북쪽에 대규모의 새로운 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근래에 주덕을 첨단과학단

지로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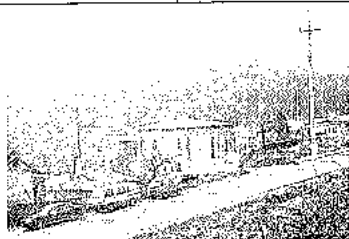
도시공간과 도시건축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공간으로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적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외부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은 탄금대로 두 개의 강지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역사적 가치는 물론 경관성이 뛰어나 전망대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탄금대 주변에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과 함께 자전거도로망이 갖추어져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어 충주시민들의 휴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탄금대를 굽어쳐 흐르는 남한강의 경우 강폭이 넓고 유속 또한 완만하여 수변공간 개발(Waterfront Development)로 국민관광지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장소의 역사성과 특이성으로 인한 탄금대와 직접 연관된 개발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연계하는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며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계획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역이다.

호암지는 탄금대와 함께 특징적인 외부공간으로써 자연환경속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공공공간이다. 탄금대가 주는 동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호암지는 산책과 낚시와 같이 정적인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북측의 우록당과 함께 전통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호암지를 순환하는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경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호암지의 북에서 우록당의 모습과 뒷 배경으로 깔린 자연지형이 물에 비추어진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산중턱에 위치한 우록당의 배치는 형태적 전통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배치의 전통성을 무시하고 말았다. 자연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전통적 배치양식은 산 중턱의 자연의 모습을 훼손한 채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자세로 앉아 있다. 또한 이 공간과 호암지와의 연계성이 없어 공간적, 형태적 단절감을 가져 오고 있다. 탄금대와 호암지가 충주시의 전통적 도시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신시가지에 위치한 시청의 경우는 현대적 도시공간의 상징으



충주 KBS



충주 삼란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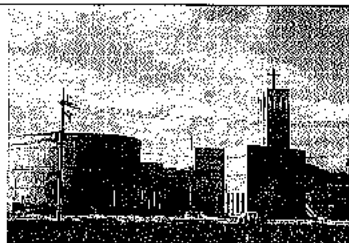
충주문화원(탄금대)

로 여겨진다. 행정적 중심공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중심지를 표방하고 건축된 시청은 단순히 건물만을 보면 다양한 건축적 언어와 함께 공간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변의 도시조직(Urban Tissue)을 볼 때 스케일의 오류가 발생하여 주변의 건물들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통 시청의 경우 다른 건물과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두고 계획하여 상징성을 높이거나 혹은 주위의 건축스타일을 배경으로 공간의 중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건물로 이르는 주접근로의 도시 그레인(Urban Grain)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기능 또한 위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실패한 도시건축이다. 그리하여 마치 행정기관이 시민들을 위협하는 위압적인 모습으로 보이며 도시규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공룡으로 인식되어 청사부근의 접근과 공간이용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도시공간과 도시건축물은 종합운동장과 외부공간이다. 충주에서 가장 큰 인공적 외부공간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시청앞 광장으로 기능이 부여된 공간보다 부대공간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도와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형식적이고 주변환경과 연계가 되지 않는 공간은 이용자의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지만, 운동장앞의 경우 주변의 주거지역과 시내중심에서 가깝고 다양한 지형지물이 있어 자연스러운 시민참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진행되어 충주에서 가장 도시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외부공간은 다양한 '거리'의 제공이 필요하다. 의도된 기능과는 별도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만날거리들이 제공되면 특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것이다.

충주는 전형적인 한국적이며 특징있는 중부내륙 도시이다. 우선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이 배산임수의 개념과 맞도록 배치되어 있으며, 대도시에서 느끼는 복잡함이나 부산함이 없이 한눈에 잡히는 도시경관이 친근감을 가지게 한다. 특히 도시를 들어가는 육교에서 우회도로를 따라 원주/제천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원경을 유지하면서

양쪽에 펼쳐지는 대조적인 경관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산을 배경으로 하는 정돈된 도시의 모습과 반대쪽으로 펼쳐지는 남한강과 어우러진 전원적 경치는 한 번쯤은 방문하거나 머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청주의 가로수길에서 오는 상직적인 입구의 개념을 충주는 남한강을 건너 오면서 인간의 시점을 띄워 시가지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여 입구에서의 경관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관은 도심지를 지나 충주호를 넘어가는 길목에서 다시 한 번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리 급하지도 않은 경사도와 전원적인 풍경을 가진 지역을 지나 마즈막재에 다다르면 시원하게 펼쳐진 사내의 경관이 한눈에 펼쳐진다. 강을 넘을 때의 짜임새 있는 모습과는 달리 약간의 안개에 가려져 넓은 평야위에 펼쳐진 모습은 자연스러운 구름지와 멀리 굽어 흐르는 남한강의 지류가 서로 어우러져 낯익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오래동안 머물지도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풍경들은 고향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생각은 저자 뿐만 아니라 어느 외지에서 그저 충주가 좋아 정착했다는 건축가의 말처럼 그리 도시답지 않으면서 도시의 요소를 갖춘 도시공간의 특성을 요약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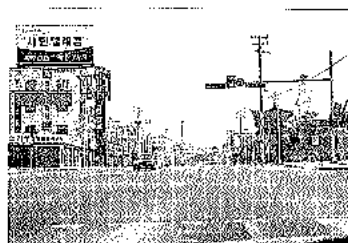
“충주는 이상한 매력을 가지는 도시다. 그저 평범함이, 그리고 소박함이 사람을 푸근하게 만든다. 내륙으로는 보기 드물게 산과 물이 균형잡힌 자연환경을 가지고 개발난후의 뒷전에서 벗어나 막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도시이다. 자연조건과 함께 중원의 문화재 공간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이들과 연계하여 아직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간들이 새로운 지역성 창출을 위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현재는 도시계획적 공간과 비계획적 공간이 부딪치며 전통과 현대의 모습으로 대립되고, 경제력의 한계력으로 도시건축의 외부지향도가 높고, 상징적 공간과 상징적 건물의 부재는 뒤떨어진 도시기하구조만큼이나 시급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 곳 전문가들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해결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중소도시의 모델로의 탈바꿈이 가능한 그런 도시이다. 따라서 충주는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도시다.”



충주 업정교회('96 아름다운 건축을 수상)



충주 남산 안씨주택



충주 신도시 가로공간

청주 도시공간 탐색

Investigating the City of Chongju

황재훈 /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by Hwang Jea-Hoon

공간체계 특성

청주시는 우암산을 배경으로 무심천을 끼고 성장하여 왔다. 따라서 시가지의 형성이 70년대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공간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전하였고, 도시의 주요 기능의 밀집은 물론 유일한 도심부의 역할을 하게 되어 전형적인 단핵도시의 공간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충북지역의 중심으로써 새로운 산업수요가 유입되고 교육과 이를 뒷받침 할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도시는 형태적 확장을 하게 되었다. 지형상의 특성상 청주시의 확장은 주로 서쪽으로 진행되었고, 일부분의 기능이 대전권과의 연계를 위하여 남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쪽의 사창, 봉명동이 새로운 생활권의 중심지를 형성하게 되고 90년대이후에는 가경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부도심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 상권과 도시미관에 필요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도시발전의 새로운 외형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두 지역의 개발적 차이를 과정적으로 보면 전자의 경우는 상당로를 중심으로 도시확장(Urban Sprawl)의 개념이었다면, 가경동의 경우는 택지개발과 주요 도시계획시설 입지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안으로 성장하게 된 지구계획개발(District Plan Development)의 개념이다. 또한 형태적으로 보면 사창, 봉명지역의 경우 도로변을 따라 발전하

는 선적(Linear Form)을 특색으로 한다면, 가경지역은 개발이 지구단위로 이루어져 면적(Areal Form)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계획성이나 공간독립성의 경우 가경지역이 특색이 있고, 토지이용혼합율과 공간조직율(Ratio of Urban Tissue)의 경우는 도시팽창적 성격이 강한 사창, 봉명지역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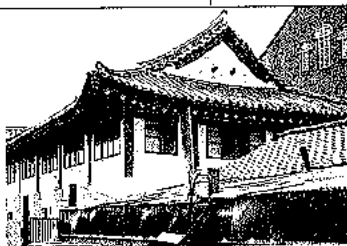
계획성이란 하나의 구체화 현상이나 현상이 결과물로 도출하게 되는 과정의 이성적(혹은 합리적)인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경지역은 위치의 선정단계에서부터 단위계획(Unit Plan)에 이르기까지 옹호계획(Advocacy Plan)으로 전문적인 과정에 의존한 반면, 사창, 봉명지역의 경우는 부분적인 개발에 대응하는 비지정계획(Ad-hoc Plan)의 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공간독립성이란 일정한 지역내의 단위공간과 지구공간의 영역성구분의 명확성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가경지역은 지역지구의 구분은 물론 가구나 필지내의 공간적 영역성이 기능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반면, 도시확장에 의한 경우는 공간과 공간사이의 상호의존성이 높아 공간독립성이 낮게 된다. 그 이유는 지역공간조직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새로운 기능으로 변하게 되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공간적, 형태적 변형(Urban Transformation and Modification)이 일어나게 되어 공간사이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창, 봉명지역이 우세한 토지이용혼합율이란 일정한 대상구역안에 혼재된 토지이용기능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창, 봉명지구의 경우 다양한 업종의 분포로 인하여 토지이용 혼합율의 정도가 높고, 특히 일반상업 기능의 밀집이 두드러진 반면에, 가경지구의 경우는 토지이용의 계획된 분리에 의하여 토지혼합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거밀집기능이 우세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간조직성이란 일정한 공간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조직화된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적 성격이 강한 도시확장의 경우 공간구조의 입자가 작게 형성되어 한 지역내



청주 상당산성(사적212호)



청주 제일교회 뒤 망선루



청주시 가로수 터널

의 건축물이나 공간규모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지만, 지구단위의 계획이 진행되는 곳에서의 공간구조입자는 계획과 설계의 특성상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는 도시설계적 혹은 도시건축적(Urban Architecture)상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규모의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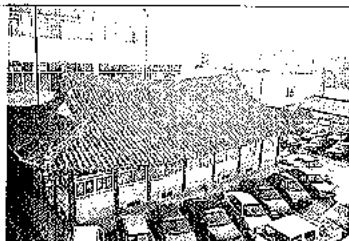
또 하나의 부심적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는 상세계획구역에 의해 시행된 웅암 1지구를 들 수 있다. 약 38만 명 대지에 4만8천명의 수용인구를 계획하여 382인/ha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주거면적이 전체의 84.4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녹지(8.71%)와 상업지역(6.84%)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계획상으로는 중밀도의 개념이지만, 우리나라 건축법과 청주시 조례에 의해 건설된 결과는 공공용지의 제척비율로 실제적으로는 고밀화된 주거단지로 변하게 된다. 아직까지는 주거위주의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의 산남동과 행정타운의 계획으로 실제적인 부도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도시확장과 함께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공업단지의 위치도 수도권과 교통이동이 편리한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최초 공단위치설정시에는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청주시의 발전이 서쪽으로 진행되고 공단의 규모도 커짐에 따라 토지이용은 물론 환경적 측면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공단과 시가지 지역간에 완충적 역할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도시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의 편서풍이 강한 청주의 경우 공단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그리고 냄새가 시가지로 유입되어 대기오염은 물론 도시환경의 질적 하락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히 첨단업종으로 공단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이고, 새로운 형태나 미래지향적인 공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용도지역별에 의한 도시공간

청주시의 주거공간은 현대도시의 대표적 병폐인 저층주택과 고층주택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바람직한 주거환경체계란 도시전체가 일정한 공간구문(Structural Grammar of Space)을 가지고 형성되어 지역과 지역사이에 단절됨이 없이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스카이라인, 건축물의 크기는 물론 건축적 맥락성을 통하여 가능한데, 유럽의 경우는 각기 다른 형태의 건물들이 전체성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도시공간구성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전혀 다른 공간의 배치에 있어서도 완충적 성격의 공간을 배치하거나 전이공간(Transitional Space)구성기법을 통하여 전체의 흐름을 유지한다. 그러나 청주시의 경우 지역지구제간의 부조화성은 물론 가성시가지의 주거지역과 새로운 주거지역(아파트단지)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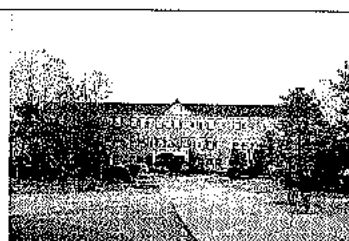
주거기능상 두가지의 유형이 형태적 상이성이 내재되어 있을지라도 지역간 두 유형의 조화를 위한 노력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청주시의 내부(Inner Ring)는 전형적인 저층 주거양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고층의 아파트 단지가 환형(Outer Ring)으로 에워싸고 있다. 전형적 주거는 우암산기슭을 따라 대성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무심천 주변으로 확장되어 왔다. 수동근처의 산구릉지에는 중저소독층 위주의 주거가 형성되어 한동안 청주시의 대표적 주거경관으로써 역할을 하였고, 평지에는 양호한 주거유형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주거지역의 특성은 지역적 동질성(Homogeneity)과 형태적 통일성(Unification)으로 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지만, 지금은 도시기반시설의 낙후로 점성성이나 이용효율성이 저하되어 구릉지에 위치한 주택들은 문제경관을 양산하고 있고 평지의 주거지들은 개선적 변화없이 공간의 질적 하락을 하고 있다. 80년대부터 시작된 고층아파트단지의 형태는 청주에서도



청주 동원



청주 충북대 법학관



청주대 법학관

주거전형(Prototype)을 바꾸게 되었다. 특히 이들 아파트단지의 경우 시의 남쪽부분에 거대한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기존의 웅암 1지구, 분평지구, 산남지구, 가경지구이외에 새로운 주거단지(개신지구, 웅암2지구)의 건설예정지로 고층아파트 블록화가 심화될 예정이다. 이 블록화된 아파트의 경우 청주시나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나 설계에 의해 건설되기보다는 지역단위별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바탕으로 인해 단지간의 조화가 결여되고 특히 획일적으로 남향배치형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단조로운 주거지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건물의 배치시 시각회랑을 고려하지 않아 모든 면이 다른 아파트로 둘러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맨 앞과 뒤 건물만이 다른 경관을 접하게 된다. 또한 아파트 형태 또한 같은 크기의 판상형으로 배치되어 변화가 없고 지루한 주거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거대한 콘크리트덩어리의 모습으로 시각소통효과(See-through Effect)없이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의 형성과 함께 경관적 단절을 가지고 온다. 외국의 주거단지배치시 건물 사이사이로 뒷배경이 보이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상하를 전혀 다른 요소로 나누어지게 계획하지 않아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뒤의 다른 기능의 축조물을 보이도록 하여 다음 공간으로의 연결을 돕고 있다(Picturesque 기법). 청주시의 대표적인 아파트 주거지역인 웅암 1지구의 경우, 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구교통계획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나 공간적 측면 혹은 설계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거주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살기는 편한데 왠지 삭막한 느낌이 드는 곳', '정돈되고 깨끗하지만 왠지 정이 붙지 않는 곳' 등 계획적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성, 편리성, 재산성을 이유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공간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비인간적이고, 획일적이며 또한 동네의 공동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유로는 지구내 단지별로 저밀도 개념보다는 고밀도의 단지로 구성되어 인간척도가 무시되어 있고 경관적인 측면에서 주거한

경의 쾌적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밟고 살지 않는 건물형태와 반복적이고 주위와 단절된 주거단위의 형태, 그리고 알고 지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웃들속에서 예전의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잃어 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청주의 상업지역은 읍성지역을 중심으로 북문로변의 지역, 상당로변을 따른 선형의 상업지역, 그리고 기경동의 중심상업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흔히 시내라고 불리는 읍성부근과 북문로변이 면적으로나 업종분포로나 청주시의 대표적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당로주변의 상업지역의 경우 도시확장과 더불어 간선도로변에 형성된 상권으로써 읍성지보다 우수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현대적 상업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 지역의 건축물은 청주시의 진입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미관적 우수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건축적 면은 높지 못하다. 건축으로써의 기능성과 예술성은 있으나 서로간의 형태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개발의 주체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상업주의적 형태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의 맥락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 상업지역인 읍성부근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내의 다른 용도와와의 혼합성을 들 수 있다.

이지역의 경우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온 상권이며 청주의 가장 중요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다. 관공서는 물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백화점 등이 위치하여 인구흡인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도청, 시청, 청원군청, 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관들이 1km반경이내에 밀집되어 일반상업시설과 혼재되어 있다. 이는 기관간의 기능적 효율성은 양호하나 시의 상징적 공간의 부재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도시와는 달리 중소도시의 경우는 상징적 공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공간위계질서를 가질 때 비로소 지역적 장소성과 지역성이 명확해진다. 외국의 경우 청주시 규모의 도시의 경우 관청(주로 시청)이나 종교적 공간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방문자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키



청주 양관2호



청주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1993. 1. 7)



무심전 풍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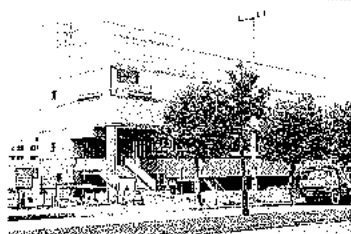
고 지역사회의 형태적, 정신적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청주시가 가지는 중심부지역의 상업과 행정의 혼용상태를 정리하여 각각의 영역을 분리하고 다른 공간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또 다른 특성은 보행에 의한 연결성이다. 상업지역내 대부분의 중요시설간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보행안전성이 확보되어 상업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공공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당로변의 지하상가와 성안길의 연결을 통하여 가로몰(Street Mall)을 형성하고 있고, 각각의 길이가 보통 성인들이 지루함이 없이 걸을 수 있는 800m~1,000m사이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다(외국 물의 길이와 유사). 더구나 성안길의 경우 보행자 전용도로와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청주에서 가장 테마가 많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두 개의 백화점과 각종 소규모상업시설들이 15m도로변을 따라 위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면도로까지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성안길 남쪽은 가구거리가 가로지르며 특화된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한 블록 북쪽으로는 생활용품(혼수품) 가로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권은 중앙공원, 철당간, 관아 등 역사적 공간과 연결이 되어 공간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마지막 특성은 도시공간의 조작성이다. 지역내의 가구(街區)의 경우 격자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크기는 평균 1,000㎡정도이다. 가구내 건축물의 높이는 상당로변을 제외하고 평균 3층이하로 소규모의 시설들이 입지하기에 적당하다. 또한 필지의 크기가 아직 변화(합필이나 분필 등)가 없어 건축물의 크기 또한 보행을 하면서 인식할 수 있는 규모와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환경심리적 측면에서 인간의 시물인지의 적정각이 15도임을 감안하고 채광과 통풍을 고려할 때 성안길에 위치한 건축물의 규모는 쾌적한 보행성을 위해 적당한 규모이다. 그러나 성안길이 지구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와 같은 시각적 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적 장치가 없어 차량차단에 의한 보행성만 확보되어 지역적 상징성과 함께 바람직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무질서하고 난립된 공간으로 인식된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건물간의 맥락성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여 지역적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맥락성의 경우 여러 단계의 요소중에서 일정한 수준이상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 지역의 경우 건물간의 스케일만 제외하고 색깔, 높이, 재질, 비례, Datum 등 유사성을 찾기가 어렵다.

청주시 공원녹지공간의 특색을 살펴보면, 첫째는 풍부한 공간성과 건강성이다. 동쪽의 우암산공원, 서쪽의 부모산공원, 그리고 남쪽의 구룡산을 중심으로 하는 청주대공원 등 자연성이 우수한 공원의 면적이 전체 공원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공간의 위치로 인해 Buffer기능 뿐만 아니라 양호한 수림을 가지고 있어 청주시의 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암산의 경우 명암유원지를 시작으로 박물관, 어린이회관, 동물원, 약수터를 거쳐 상당산성까지 다양한 문화시설과 외부공간이 선적(Route)으로 연결되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여가공간이며, 또한 청주시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우암산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이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관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는 도심침투형 녹지체계이다. 도 시내 위치한 공원이 분산된 형태로 자연스러운 공원경계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자연공원이 가지는 자연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지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암산공원의 경우 산의 능선을 따라 공원이 지정되어 상리나 종리처럼 공원에 의해 둘러싸여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공공원의 경우 자연공원처럼 자연형태를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시내 중심부에 큰 면적의 공원들이 위치하고 있어 시민생활에 상당한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공원의 경우 가장 중심적 위치에서 문화적 가치와 함께 일반시민은 물론 노년층을 위한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 셋째는 녹지축의 형성과 다른 기능과의 연계성이다. 우암산과 부모산을 동서축으로 하여 가로변 녹지공간(가로수터널)을 통하여 연결이 되어 있고, 남북축의 경우는 북쪽의 운천, 신봉공원을 시작으로 체육관을 거쳐 모충공원과



청주 시청동 농림(93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작)



청주SHIPS(94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작)



청주 한씨종중 근린생활시설(94 아름다운 건축물 최우수작)

수곡공원을 거쳐 청주대공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들 남북공원축이 동서축을 양분하면서 형성되어 청주시를 지역적 권역으로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청주공단의 경우 운천, 신봉공원이 다른 지역과 원충적 역할을 하고 모충, 수곡공원의 경우도 기성시가지와 계획시가지 사이의 경계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남북축은 무심천변과 도보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수변공간과의 연계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 무심천의 경우도 현재는 체육공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점차 천변복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녹지공간으로의 탈바꿈이 예상된다.

공원녹지공간의 경우 청주의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는 많은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설율이 높다는 점이다. 자연공원 3개 전부가 미시설이며, 근린공원의 경우 34개소중 20개소가 미시설로 남아 있어 경계만 지정되어 있을 뿐 시민들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시설화된 공원과 관리의 비효율화로 공원의 질이 저하되어 있고, 특히 공원시설물들이 낙후되고 이용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 공원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설문조사(충북대 건설기술연구소주관, 1997)에 의하면 청주시민들의 48%가 공원수자나 면적에 대하여 아주 부족하다고 대답하고 39.4%가 약간 부족하더라는 대답하였다. 청주시가 가지는 좋은 녹지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설화와 관리의 미숙으로 일반시민들의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생태적 개념의 부족과 다양한 형태의 도시공원의 부족이다. 공원녹지의 축의 개념이 아직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특히 생태적 단절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도시생태를 위한 에콜로지 맵, 생태순환모델, 수용능력분석 등을 통한 공원이정정보는 식재위주의 공원이정되어 되어 생태적 건강성이 불균형적이다. 또한 기존의 도시공원이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계획되어 있지 않고, 공원내의 공간과 시설이 천편일률적이어서 각 공원만이 가지는 특성이 매우 약하

다. 이는 외국의 공원이 주는 이벤트를 통한 지역의 대표성과 공간의 장소성을 가지지 못하는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공업지역의 경우 공단이 도심부의 서쪽에 근접하고 있어 환경적, 공간적, 기능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공업지역의 구조상 첨단성이 아직은 떨어지고 있어 공해나 수질오염 등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청주시의 발전축상에 위치하여 공간구조개편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와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중복투자나 경쟁력 상실 등 기능상의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다행히 공단이 신봉, 운천공원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주위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편이다. 공업지역의 공간성은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능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반시민과는 거리가 먼 생산현장으로써의 공간만을 가지고 있어, 설계의 기본원칙인 공공성(Public Communication)이나 사회성(Social Mix)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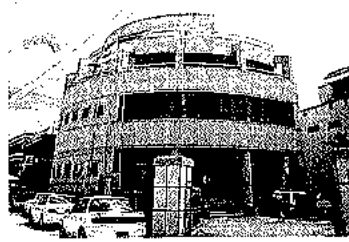
외국의 경우는 공단의 개념과 주거의 개념, 그리고 문화의 개념을 환경적인 측면과 함께 고려하여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다양한 공간을 창출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공업지역의 경우 낮활동 위주의 공간에서 전일활동의 공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때 장소성을 가지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공업단지의 경우 구조조정을 통한 기존의 틀을 고부가가치화, 기술집약, 저공해 및 새로운 수요패턴에 부응하는 산업으로 한정시켜야 한다. 이는 청주시가 가지는 공업용수의 한계성과, 위치성, 특성화된 공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소규모의 기술집약적 형태를 취함으로써, 현재 공간의 효율성도 높일 뿐 아니라 산업성과 주거성을 함께 형성하여 장소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주변의 공간이용패턴과의 연계방법으로 오창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하되 청주, 증평, 오송신도시를 지원도시로 각기 고유기능을



청주 서천동 전주교회
(95 아름다운 건축물 우수작)



청주 명성제(95 아름다운 건축물佳作)



청주 영운동 동사무소
(96 아름다운 건축물佳作)

을 분담하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성을 위한 용도지역별 제언

주거지역: 첫째, 지역지구상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만 구분되어 주거용지의 혼용 정도가 심해 특색 있는 주거형태는 물론 지역의 형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거지역을 건축법규에 명시된 대로 구분하고 전용주거지역을 지정하여 특성화된 지역주택건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고층화된 남부아파트벨트내에 새롭게 계획되는 단지의 경우 기존의 아파트배치기법을 고려하여 시각적 통일성을 주도록 하고, 자체내의 스카이라인을 조정하여 경관성은 물론 장소성을 강조한다. 셋째, 지역건축성을 살린 주거유형을 개발하여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주거지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건본주택을 만들어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업지역: 첫째, 소규모의 상업에 의한 공간구성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의 영역성을 분명히 확보하고 고밀화를 통한 도시건축화를 추진한다. 외국의 몰(Mall)의 시장적 개념과 전통의 공간적 장터개념을 혼용하므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상업지역이 가능하다. 둘째, 총체적 공간구성패턴내에서 상업지역을 형성하기 위하여 설계지침을 통하여 지역내 정리된 시각화를 창출한다. 특히 구읍성내부지역의 경우 상업적 공간이면서 문화적인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과정과 기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공간특성화를 유도한다. 뉴욕의 그리니치빌리지(Greenwich Village) 경우 역사적인 공간과 상업성이 공존하는 좋은 사례지역이다. 셋째, 읍성지역의 면적인 상업공간과는 별도로 가로수도로부터 중앙공원까지 이르는 도로를 대표적 가로경관계획지구로 지정하여 맥락성을 고려한 고층상업건물들을 위치시켜 차량위주의 공간으로 전환하

고, 배후불력을 저층 건물로 유도하여 선적인 보행자위주의 물 개념으로 전환시켜 공간을 특성화한다.

공원녹지지역: 도시의 지역성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공원과 오픈스페이스 계획이다. 프랑스의 식재계획을 통한 다양한 공원이나 이테리의 조각품이나 가로시설물계획을 통한 피아자(Piazza)들로 도시의 지역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청주의 녹지공간체계와 연결시켜 보면 첫째, 우수한 주변 자연공간과 인공성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조화될 수 있도록 도심지내 침투형 녹지체계를 가진다. 둘째, 용도지구별이나 생활권별로 대표성을 가지는 공원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경우 도심을 4등분하여 각기 다른 성격의 공원을 각 지역의 중심에 위치시켜 생활권의 중심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셋째, 산재한 녹지공간들을 형태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연계를 시키며 다른 기능의 공간과 유기적 관계를 수립한다. 특히 무심천변의 녹화사업을 통하여 생태성회복을 통한 공원화를 유도하여 지역적 특성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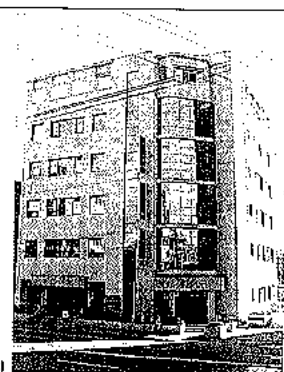
공업지역: 첫째, 첨단업종과 기술집약적 공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공업지역내에 여러 가지 다른 공공기능들을 첨가시켜 시민의 이용을 유도한다. 특히 공업단지의 일부분을 친환경적 계획기법을 도입하여 변화된 공단의 공간을 모색한다. 폐수를 이용한 양어장이나 친수공간을 마련하거나, 완충적 공간에 목축을 하므로 공간효율성의 제고는 물론 공공의 접근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 둘째는 이전부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강구한다. 프랑스의 라빌랏공원의 경우 단순한 공원의 성격외에 산업정보를 부여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므로 복합화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대농부지에 관한 계획도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통하여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청주 금천동 근린생활시설
(96 아름다운 건축물 우수작)



청주 성주가성당
(97 아름다운 건축물 최우수작)



청주 수곡동 화성불당
(97 아름다운 건축물 기작)

충주 현대건축의 오늘과 내일

The Present and Future of Chungju's Architecture

박대웅 / 예가건축
by Park Dae-Yeung

지역성은 지역의 문화,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교육, 기타 모든 환경의 총합적인 표현이며 특징이라 생각한다. 또한 지역성의 개발이란 그 지역 고유의 잠재력(Potential Energy)을 찾아내고 문화의 원천이 되게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 주는 잠재력 그 지역의 역사적인 잠재력, 지리적인 잠재력, 인적인 구성, 문화적인 특성, 이것이 우리의 지역성에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오늘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지역성을 표출시키는 문화로 만들었는지 되돌아 보아야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충주란 도시의 잠재력(Potential Energy)은 무엇인가?

첫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도시고, 둘째,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장소성을 가진 도시이며 셋째, 오염되지 않은 좋은 자연환경(남한강, 충주호, 호암지, 월악산, 남산, 계명산)을 가지고 있다. 특히 좋은 수변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넷째, 인구가 작고 도시의 개발지역이 적어 미개발지역이 많으며(새로운 시도로 좋은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음), 다섯째, 주변의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여섯째, 수도권 배후 도시 개념으로의 장소성이 있으며, 일곱째, 환경 오염시설이 적다. 여덟째, 인구에 비해 도시 기반시설이 비교적 풍부하며, 아홉째, 전통문화의 고장이다(우륵의 가야금 연주, 전통음악의 계승 및 태권도의 본고장).

이러한 지역 고유의 잠재력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문화화되어 우리의 지역성으로 표출되고 있지 못한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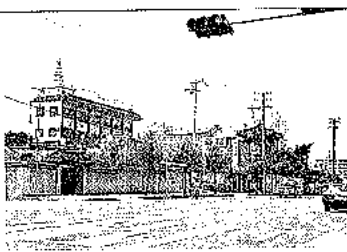
이다. 충주의 건축환경은 이러한 좋은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인구 15만의 도시가 이제 개발의 기지개를 펴면서 개발되고 있지만 지역성을 살린 뚜렷한 방향 없이 대도시의 10여년전 변두리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듯한 모습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징 없는 아파트군의 모습, 개성없는 주택단지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충주지역의 자연환경은 너무나 좋은 곳이다. 작은 도시지역 주변의 구릉지에 펼쳐진 괴수원 그리고 넓은 들녘, 에워싼 산들... 충주댐을 넘어가는 뚝배기 마즈막재에서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스러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와 무계획적인 주택군들로 우리의 도시 곳곳을 표정없고 개성없는 다른 도시의 모습을 서서히 덮아가게 하고 있다.

필자가 건축설계사무소를 충주에 개설하게 된 동기도 이 지역의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로의 비전을 보고 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도시는 아름다움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나 자신 이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부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충주는 도시의 규모가 작으므로 시내 구도심의 건축물은 3층 정도의 낮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신축한 건물은 5~6층 정도의 규모로 건축되고 있다. 지역 특성을 내세울만한 뚜렷한 작품이 없다. 시내의 몇 되지 않는 대형건물은 외부 건축가가 설계하였으며 지역성을 표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충주시청사는 인구 30만 충주시의 발전을 대비한 규모로 지어졌으나 충주시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표출하는 언어로 계획되지 못하고 위압적이면서도 전형적인 관청의 모습으로 시민 앞에 군림하고 있다.

충주시내의 허파라 할 수 있는 호암공원 지역에 건축되는 태권수련원, 우륵당은 전통건축양식의 직설적인 채택을 하였는데 직설적인 채택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여 극적 없는 형태를 가지게 되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공원정상 부분에 청소년 수련원의 큰 매스 건물이 앉혀져 자연과의 조화가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설계경기를 통하여 채택된 작품들이 이 지역의 장소성과 자연과의 조화와 지역성을 표출하지 못한 것은 이 지역 모두의 책임이며 이제는 건축행정인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지역성을 표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충주시내에 있는 사찰



충주 차 없는 거리



충주 KBS와 지천천위 상가

하겠다.

소규모의 근생시설이나 주택은 대부분이 소위 집장사라 하는 업자들이 시공을 주도하며 설계에까지 깊이 관여하여 건축 문화와는 상관없는 조악한 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중건축물(소규모 건축물)이 우리 건축환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우리가 체험하는 도시건축의 환경이 되므로 시민의 건축의식 향상이 지역의 건축문화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은 시대의 문화 의식의 반영물이므로 지금 현재의 수준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단정하여야 하는지... 우리 건축인은 시민의 건축의식 향상을 위하여 설득과 교육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시민 건축의식 향상을 위하여 싸를 뿌리고 땀을 흘려야겠다.

지역성을 고려한 전원 도시형의 주택단지 조성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자연과의 조화, 환경친화적인 모습으로 계획되지 못하고 조악한 건축언어로 획일화된 모습으로 건축되어 안타깝다. 건축문화의 수준과 인식의 부족, 경제력의 부족 등 복합적인 결과로 생각된다.

지역성을 고려한 작품으로 좋은 자연환경에 조화될 수 있는 교회건축의 작품이 지역 건축인에 의하여 다수 시도되어 지역주민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작품으로 엄정교회, 안림교회, 금가교회, 달천교회(이상 예가건축 박대웅 설계), 삼탄교회(토건축 이응우 설계)가 있다.

충주의 건축문화발전과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충주시 주관 아름다운 건축물 수상제도가 97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수상작으로 우수상에 주택(건우건축 최영배), 장려상에 파라다이스 워딩홀(건축동인 정세영), 엄정교회(예가건축 박대웅)가 선정되었다. 좋은 제도를 시행한 충주시에 감사한다. 하지만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여 수상자에게 부상은 커녕 건축물에 부착할 동판하나 제공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또한 현장답사와 설계자의 작품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또한 아쉽다. 이러한 제도는 시민의 건축문화 의식향상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된다. 적극적인 행정관청의 후원과 홍보와 시민과 건축인의 참여가 있어야겠다.

충주 지역의 지역성과 도시건축문화의 정체성

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우리 지역의 잠재력(Potential Energy) 인식을 통한 지역성의 발견 및 표출과 개발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② 지역성을 살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먼저 배려되어야겠다. 첫째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며, 둘째로 보행자를 위한 쾌적한 가로계획 및 가로부근의 건축계획, 도심의 차 없는 거리의 확대 및 주차계획, 자전거 도로의 확보 등이다.

③ 충주는 개발된 지역보다는 아직 미개발된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많다. 충주 전체의 권역별 미관지구의 지정 및 심의방향을 수립하여 백년대계의 충주발전을 위하여 제안하여 본다. 수변 미관지구(강과 호수부근), 상업 미관지구, 일반주거 미관지구, 도시부근 전원 미관지구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 그 지역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하면 아름다운 도시건축환경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은 기존의 우리의 도시 건축행정의 발상과는 아주 엉뚱한 발상이지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 또한 새롭게 거듭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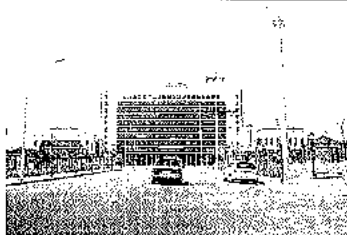
④ 수변공간의 개발: 환경요인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계획으로 수변지역을 개발하면 우리의 지역성을 표출하는 좋은 공간이 탄생되리라 생각된다.

⑤ 충주의 도시 성격을 파악한 적합한 도시계획의 수립: (예: 국토 중심의 도시 - 물류의 중심지, 수도권 배후도시 개념 - 전원도시, 관광도시 등등)

첫째, 구릉지 파수원 등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이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 계획 및 주거계획, 둘째, 자연녹지에 전원형 주거단지의 조성, 업무단지, 연구단지 등의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의 조성(건폐율 20% 적용).

시행방법으로 지역 형편을 잘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도시발전위원회 등의 구성으로 도시 계획가와 협력하여 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건축의식 향상과 건축인의 지역성을 살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충주시청사



충주 중앙공원과 충주박물관



충주 근민생활시설

청주읍성내의 어제와 오늘

The Past and Present of the Architecture of Chongju

김태영 / 청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Tae-Young

현대의 도시는 높낮이가 각기 다른 건물이 들쭉날쭉 하면서 수직적으로 높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건물의 모습은 똑바르게 난 도로에 의해 통일되면서 도시는 기본적인 질서를 이루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수평방향으로 전개하는 질서와 수직방향으로 전개하는 욕망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다. 수평방향의 질서는 평면도에서 읽을 수 있고 수직방향의 욕망은 단면도에서 읽을 수 있다. 청주는 수직방향만으로 전개하는 도시민의 욕망이 수평방향으로도 전개되어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청주는 이러한 현대적 도시의 혼란스러움에 벗어나 있는 것같이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이런 연유에서 더욱 애착을 느끼게끔 한다. 1911년에서 1915년 사이에 기존의 청주읍성이 허물어지면서 시작된 청주의 근대적 도시건축의 모습은 무심천변과 우암산 자락을 끼고서 남북방향의 기다란 선형의 격자도시를 이루다가 1968년 청주역사의 이전과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현재의 상당로와 사직로가 개설되면서 북부와 서부, 그리고 남부 쪽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80년대 도심 주변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완공을 보면서 저층의 공동주택군이 들어섰으며, 90년대 본격적으로 개발된 도심 외곽의 신혼주택지에는 고층아파트군이 들어서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도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체적 도시경관으로 볼 때 타 도시와는 다르게 청주지역은 도심 외곽의 신혼주택지에 고층아파트군이 입지하고, 구읍성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과 도심 주변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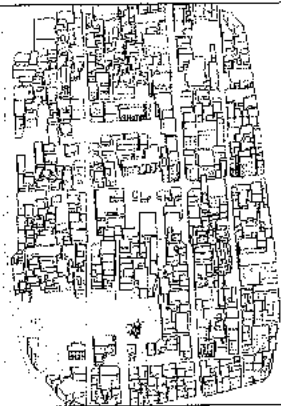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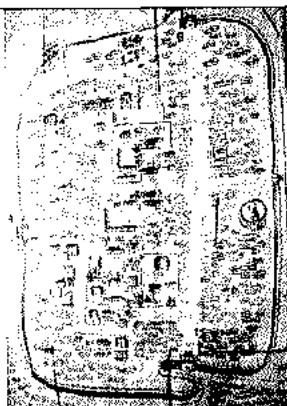
수평방향으로의 질서는 도로 뿐만 아니라 청주읍성자리인 구도심을 중심으로 크게는 남북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까치내까지 이어지는 무심천의 수자원체계, 상당산성에서 우암산, 당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체계, 신봉동 백제고분군·운천공원·흥덕사지·사직종합체육시설단지 및 사직공원으로 이어지는 구릉체계에 의해 통일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질서는 작게는 도시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철당간·암각수·충청병마절도사 영문·동헌 및 망선루를 비롯한 도성에 위치한 각종 문화재 및 유적지, 적절하게 자리잡은 중앙공원·상당공원·동공원·모충공원·사직공원·술밭공원·서운공원 및 시청앞 시민공원 등의 도심공원, 도심의 쉼터로 이용되는 공개공지 등에서 욕망이 아닌 통일된 질서를 볼 수 있다.

오늘-청주 현대건축의 전개과정

1) 청주 현대건축의 기점

청주지역에 있어서 현대라는 시기의 기점에 대하여는 정치·사회·문화·경제적인 면에서 다각적인 이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현대건축의 기점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지을 수 있다고 본다. 그 기점이 되는 작품으로 '청주시청사'를 들 수 있다. 이 건물은 1965년에 준공된 것으로,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친근성, 청주지역의 상징성, 형태구성체계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점에서 볼 때, 청주 현대건축의 기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해는 대한건축사협회의 결성에 따라 충청북도내 건축사 7인(표재범·박오군·최송심·이학로·오석균·김현식·김태철(작고))이 발기하고, 11월 1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본회를 설립한 해이기도 하다.

청주가 본격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60년대 접어들면서 상당로 개설공사를 착수한 때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인 1965년 12월 19일 현 청주시청사가 준공되었다. 이 청사는 제13대 이준영 시장이 당시 대학에서 교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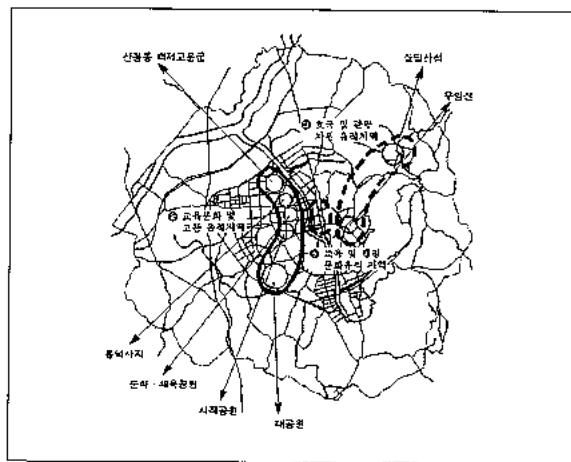
청주 철당간

청주읍성의 과거
(좌)와 현재(우)의 모습

을 잡고 설계사무소를 자영하던 건축가 강명구(1917~) 선생에게 직접 의뢰한 것이다. 작자의 말을 빌리면, "당시로서는 모든 관청건물, 국민학교 등 공관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의 시메트릭한 좌우대칭형의 위압적인 외형에서 벗어나 관청건물의 좌우대칭적인 중심강조를 없애고, 주민이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외형을 주 테마로 한 최초의 관청건물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또한 준공당시부터 설치된 유탄리 넓은 녹지공간과 일찍부터 일반시민에게 할애된 공개공지는 시민들의 만남과 휴식장소로 사용되어 시청사와 시민들을 가깝게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맑은 고를 '청주'를 상징하는 주성(舟城)의 배 모양을 은유적-어느 면에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청주시청사는 원경에서 근본적인 주제가 나타난다. 지면레벨인 대지의 지평선은 바다, 강, 혹은 무심천과 수평선이고, 그 위에는 3층 규모의 배 몸체가 비유되고, 위로 솟아오른 옥탑부분은 돛대로 나타난다. 수평선은 층을 구분하는 수평돌림띠와 난간선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돛대의 수직이미지와 상호보완작용을 하면서 평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형상의 이미지는 1983년 3층 규모의 건물에서 4층으로 증축되면서 사라졌다.

전체적인 외관은 전통목구조의 공포구성, 혹은 지붕의 처마구성을 새롭게 표현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수평난간은 인방·도리·장여, 혹은 평고대의 수평선이고, 난간등자는 소로, 혹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서까래와 부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목구조의 형태구성체계를 콘크리트라는 건축재료와 그에 따른 구조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¹⁾. 이 작품은 30년 뒤인 1995년 4월에 준공된 '청주 예술의 전당'보다 전통적 표현의 형태적 해석면에서 훨씬 심도 있다. 물론 '청주시청사' 역시 당시 일본건축의 경향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는 하나, 목구조의 구성수법을 현대적 구조의 입면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형태구성요소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청주예술의 전당과는 형태표현-취급이 아니라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차를 보여주고 있다.

'청주예술의 전당'을 직설적 복고주의라고 흔히 언급하고 있지만 직설적 복고주의가 아니라 직설적인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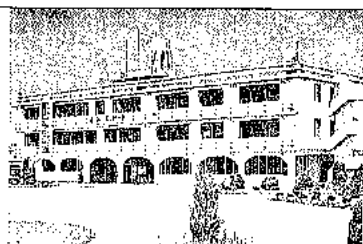


청주지역 문화·역사·체육공원 대상화(帶狀化) 가능지역

- ① 철당간, 영문, 중앙공원, 망선루, 동헌 등 현존하는 구 읍성의 시설군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행정문화유적지.
- ② 신봉동 백제고분군, 흥덕사지 인쇄박물관, 청주 예술의 전당, 시민광장, 체육종합시설단지, 사적공원, 청주대공원 및 종합체육·레저·자연공원지구를 대상화한 교육문화 및 고분유적지.
- ③ 상당산성, 명암약수터, 자연공원예정지, 우암산, 청주국립박물관, 삼일공원, 당산토성을 대상화한 호국 및 관광자원유적지역(출처: 청주주택지산책, 김태영 지음,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8. 2, 87쪽).

이란 어휘가 더욱 적합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직설적 표현은 건축가의 표현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청주시민-물론 이는 건축전문가에 한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만-이 직설적 표현이 아닌 은유적 표현에 의한 전통해석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작가는 은유적 표현을 어떻게 청주시민에게 금방 느끼게끔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많은 시행착오적인 단계를 거치고서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직설적 표현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던 데 있는 것 같다.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통적인 한옥요소의 디테일을 재료·구법·기법 등에서 작가적 변용의 과정은 있었다고 본다. 아쉬운 것은 이미 30여년전 청주시청사에서 보인 전통적 표현의 형태해석의 발전적인 전개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이러한 형태적 사고에서 공간적 해석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다. 실제로 이 점이 현재 한국 건축에서 가장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1) 미발표 건축을 찾아서-청주시청사 및 충북여성회관, 김대영, 건축가, 1995. 3 참조



준공당시의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 예술의 전당 정면



청주대 박물관

2) 1970년대

청주시는 1967년 제1차 도시계획 재정비를 단행하면서 무심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하기를 시작으로 사직동(69. 5)·수곡(69. 12)·사직·사창·북대지구(72. 7)의 토지구획정리사업, 1차 공업지역 지정(69. 3), 고속 및 일반 여객 버스터미널 부지 결정(72. 12)을 행하였고, 충북의료원(73. 8), 청주우체국(73. 9), 청주대 본관(74. 4), 청주소방서(74. 12) 등이 완공되었다. 1976년에 들어서면서 청주 인구가 20만을 돌파하자, 3월 시는 제2차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이어서 12월에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2차 공업단지 조성(78. 6)과 더불어 사창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주공 1단지 승인(78. 9), 사직동 아파트 건설사업-주공 2단지 승인(79. 5) 및 수동아파트지구 결정고시(78. 11), 주차장법 제정(79. 4), 청주대 박물관 완공(77. 11), 청주 종합경기장(79. 4), 종합체육관 건립(79. 5) 등이 이루어졌다. 70년대 건축관련 주요 일지로는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개설(70. 3), 선건축설계사무소 설립(75. 2), 대한건축학회 충청지부 설치(76. 12),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개설(78. 3), 충북미술대전 건축부문 신설(78. 10) 등을 들 수 있다.²⁾

3) 1980년대의 청주건축

1980년 12월 31일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신봉·봉명(81. 6), 율랑(87. 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뒤, 봉명(85. 12)·북대(89. 9)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3차 공업지역 지정(85. 9) 등이 이루어지면서 공공 및 민간업자에 의한 저층공동주택과 공장의 건설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3차 도시계획 재정비(85. 11)가 시행되기 전후인 84~85년 2개년에 걸쳐 총 120여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도심주변의 주택지를 중심으로 5층 이하의 규모로 지어지다가, 1987년에 사창동 현대아파트가 14층 규모로 사업승인이 결정되면서 고층아파트군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공동주택과 공장건축 이외에, 근린생활시설·사무실·숙박시설·판매 및 의료시설 등 다양한 건물유형이 시작으로

와 상당로의 대로변에 드러나면서 현재와 같은 청주의 도시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서울, 경기 및 대전지역의 건축설계사무소들의 두드러진 출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충북대 공학관(80. 3)·사회과학관(81. 6)·농학관(82. 홍순인), 청주 서부경찰서(81. 10, 김수근), 충북은행본점, 제일생명(83. 고려건축), 정식품(84. 우일건축), 청주대 중앙도서관(84. 6, 김종성), 충북대 중앙도서관(85. 11, 이상현), 한국은행 청주지점(85. 김기웅), 동일방직(85. 장석웅), 학천탕(87. 송효상), 국립청주박물관(87. 8, 김수근), 청주체육시설(세쌍둥이 건물 '89. 김정철), 충북도립도서관(89. 범아건축), 대우증권(89. 서울건축), 민병열 산부인과(89. 오양건축) 등을 들 수 있다. 80년대 건축관련 주요일지로는 충북대 공대 건설공학계열 특성화 지정(80. 3), 건축가협회 충북지부 결성(창립회원 18명, '81. 10), 충청실업전문대학 건축설비과 개설(85. 3), 서울병원-도심 고층건물문제 논의, 충북대 대강당 철거(88. 6), 흥덕사지 복원공사(88. 7~89. 6) 등이다.

3) 1990년대

1992년 1월 6일 청주시는 제4차 도시계획 재정비를 단행하였으나, 93년 1월 우암상가의 붕괴로 말미암아 한국 현대도시 전반에 걸쳐 제도적인 제도 수정을 낳는 계기가 되었으며, 95년 6월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말미암아 이는 더욱 가시화되어, 철저한 건축공사감리와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전문회사의 설립을 보았다. 설립 당시부터 비대한 인원 조직으로 인해 전체적인 기술자의 인배에 문제를 안으면서, 이는 건축계의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고층아파트의 건설은 9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15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붐이 도심 북·서·남부 외곽의 신혼주택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도심으로도 고층건물이 차츰차츰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고속버스터미널 남쪽 서문시장내의 9층 근린생활시설(90)과

2) 충북예총 30년사-회원단체약사: 건축가협회, 김태영, 1993. 4 참조



청주 영운동의 주택지



청주 사창동 주공 1단지



청주종합체육관

청주읍성내 북문로 1가의 9층 풍성실업 건물(91)이 도심안에 들어서고, 북문밖 삼충로변과 사직로 및 상당로변을 중심으로, 북문로 3가의 대한생명(92, 13층, 천일건축), 시청동의 삼성생명(94, 10층, 삼우건축)·현대코아(94, 9층, 종합환경그룹), 북문로 2가의 자연타워(95, 13층, 한울건축), 남주동의 신일마트(96, 정건축), 북문로 3가의 대우타워(14층, 시청동의 대림사옥(96, 10층, 가단건축), 한국통신사옥, 그리고 96년에 사업승인된 분평 C-1블럭의 25층 아파트 등이 있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는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과 사무실을 들 수 있다. 사직로와 상당로, 그리고 흥덕로 변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들 건물 - 특히 의원건물 -은 시대의 유행을 전달해주는 건축외관과 재료를 반영하고 있다. 90년대는 청주예술의 전당(90, 2), 서부출장소(90, 9), 가경 2지구 한국통신전화국(92), 상당구청(94), 충북과학교육원(96, 8) 등 많은 공개현상설계경기와 함께 각종 건축문화발견세미나 및 작품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청주건축의 활발한 성숙기를 맞이한 시기이다.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사직체육시설단지내의 넓은 시민광장을 확보한 청주예술의 전당 준공(95.4)을 보았으며, 이와 함께 애초에 청주예술의 전당 부지 옆에 세워질 예정인 서부출장소가 예술의 전당 부지의 협소함을 이유로 사직체육시설단지내 테니스장의 좁은 부지에 자리하여 원래의 작가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준공을 보았다. 우암동의 옛 청주방직자리에는 청주 동부경찰서와 상당구청이 들어서면서 이 곳의 도시경관을 변경시키고 있고, 시청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역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97년 청주국제공항이 개통되어 일반인에게 다이나믹하고 하이테크한 현대적 이미지로서 공항건축의 소개가 있었으나 홍보부족, 접근도로의 미확보 등으로 아직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90년대 건축관련 주요일지로는 대한건축학회 충북지부 창립(92, 3), 한국건축가협회 충북지회 발족(93, 2), 제1회 충북건축디자인캠프 개최(93, 6, 29~7, 3), 감리전문회사 설립(94), 청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제정(94.12), 서원대학교 건축공학과 신설(96, 3) 등이다. 이와 같이 청주시청사

의 준공을 기점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주 현대건축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0여년이나 되는 시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쩌든 무리가 있는 것이어서, 무책임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것이 시작이라든가 관점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일-보는 건축, 사는 건축, 그리고 자연건축

이 장에서는 '내일의 청주건축은 어떠해야 하나?'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그동안 청주 도시경관, 도심 고층건물문제, 망선루와 일부 읍성곽의 복원, 아파트, 높고 낮은 것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의논이 많이 개진되었으나 의논하여 가는 가운데 더욱 애매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이러한 주제는 감각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혹은 예전부터의 '청주다운 것'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이 혼동되어 결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도시의 발전방향과 사는 사람이 어떠한 식으로 타협을 할 것인가와 또 하나는 살아가는데 필요불가결한 자연을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라는 두가지 테마에 초점을 두어 청주건축이 보기에 좋고, 살기에 좋은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해보기로 한다.

게시탈트 심리학에서 「그림(圖, figure)」과 「비탕(地, background)」 이론이 있다. 그림에서 하얀 곳에 착안하는 것인가, 검은 곳에 착안하는 것인가라는 것이다. 하얀 곳에 착안하면, 하얀 부분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하얀 부분에 주목하면 새끼말이 떠오르지만, 검은 부분에 착안하면 새가 날고 있는 그림으로 된다(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커다란 차이가 생겨난다. 청주의 건축은 70년대, 아니 가깝게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림」으로서 보다는 「비탕」의 건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에 금방 띄어는 건물이 나타나 「그림」의 역할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당시의 평범한 건물이 「그림」으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건물, 특히 눈에 금방 띄는 형태



청주 운천동의 다세대 주택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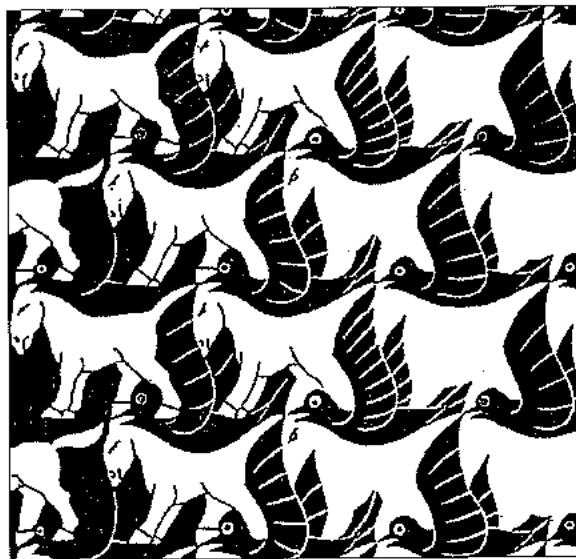
청주 성안길의 낮과 밤



를 처음 보면, 그 형태의 이상아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의식속에는 금방 들어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덜 놀랄 만하게 될 때 더욱 철저하게 보게 되지만, 못내 실망하게 된다. 물론 신기함의 기대에 따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상하리만치 금방 싫증을 느끼게 된다.³⁾ 이와는 달리 우리가 매일 보아 왔고, 보고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건물은 무의식중에 우리의 의식속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 같다. 이는 평범한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수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도시의 일부, 즉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보는 도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비탕」으로서의 건축인 것이다. 이러한 「비탕」으로서의 건축은 드러내기보다는 절제된 형태표현을 통해 주변의 자연환경(Natural Surroundings) 및 도시환경(Urban Context)을 인식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건축에 있어서 삶을 이야기할 때 우선적으로 기능적 편리함을 추구하게 된다. 기능적 편리함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불편하더라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물리적 쾌적성과 시청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공간을 지각하는 심리적 쾌적성 역시 표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건축공간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와에 인간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인간의 기억, 추억이 공간의 분위기를 인식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어린 시절의 체험에서 겪은 작은 규모의 공간, 크게 감명받거나 자극받았던 공간의 반영 역시 새로운 공간의 창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보는 건축으로서의 자연 및 도시환경 인식은 사는 건축에 있어서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안정적인 도시와 자연의 완충공간이라 할 수 있는 중정과 옥상정원은 하늘을 향해 열려있게 되고, 수평 혹은 수직적으로 트인 반옥외공간인 내부공간 역시 밖을 향해 열려 있다. 빛과 바람은 이들 공간에 의해 조절되어 작은 공간에서도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고, 풍경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자연 및 도시환경을 인식하는 디자인의 실에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옛 건물, 특히 일반 서민주택의 변화과정-증축 및 변경-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거기에 그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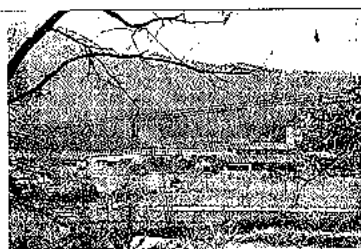


그림과 비탕(지각심리학의 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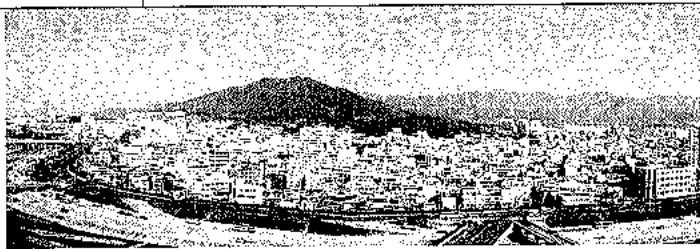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옛스러워서 좋은 것은 남아있고, 새로워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실제로 청주만의 독특한 특성은 청주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건물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보기에 좋고, 살기에 좋은 건축은 시각적으로나 체험적으로 자연과의 접촉 관계가 중요하여 건축으로의 시각에서 자연으로의 시각조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타 도시와는 달리 양호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흔적을 명확히 보존하고 있는 청주지역에 있어서, 「그림」과 같은 건축으로의 시각에서 자연 및 도시환경을 인식하는 건축으로의 시각조정을 통하여 솔직하고(Plain), 겸손한(Modest) 표현을 갖추게 될 때 청주의 미래건축은 그야말로 특색있고, 살아있는(Living) 건축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⁴⁾

3) 도시주택의 공간구성원리, 김태영, 대한건축학회 총록지부 특강자료집, 1997, 4월호
4) 청주건축·자연건축, 김태영, 선종합건축 창립20주년 기념문집, 1995, 2월호



청주박물관



청주시 전경

좌담: 충주 · 청주 도시건축의 바른 모습을 향하여

Towards an Ideal Urban Architecture
in Chongju and Chungju

일 시 / 1998. 4. 13(월) 14:00~

장 소 / 충북대 건축공학과 세미나실

참석자 / 김승환(충북대 국어교육과 교수, 민예총 청주시 지부장)

김태영(청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박대웅(충주 예가건축소장)

박성인(한국건축가협회 충북지회장, 기단건축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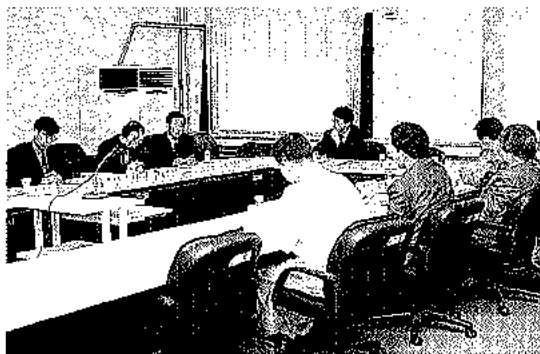
송재봉(청주 시민회 사무국장)

이강훈(충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동주(청주시 도시계획계장)

이주형(청주 경실련 사무국장)

황재훈(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좌담회 광경(좌담진행 / 이강훈)

이강훈 ————— 충주 · 청주 도시 건축문화의

지역성 탐색은 「건축사」의 기획시리즈 5번째입니다. 지난번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지역성 탐색 토론회는 지역 건축인들에게는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여겨 집니다. 지역성 탐색이란 주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여야 할 주제라고 여겨 집니다. 진행을 쉽게하기 위하여 '바른 모습, 참모습 찾기' 정도로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진행순서는 첫째, 청주나 충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두번째 지역성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모습인가, 세번째 청주, 충주 지역의 가능성, 잠재력, 더 나아가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성 제고를 위한 제안을 해주십시오. 우선 지역문화, 민중, 민족문화를 위하여 활발한 시민운동을 하고 계신 김교수께서 말씀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김승환 ————— 저는 민족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지역성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집권주의하에서 우리 지역이 지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



운 다원화된 세기에서 우리 지역이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하나의 독립적이고 생명력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주나 충주지역의 과거문화는 어떠하였는가를 반성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중화, 모화사상에 의한 존

화주의적 세계관에서 민족적 세계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충주는 사실상 봉건외척에 정신적 기반을 보장해 준 지역이었고 또 그것을 우리 지역 최고의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청주와 충주는 예절바르고 충과 성을 다한다. 양반의 고장이다'라는 것들이 언뜻 보기에는 자랑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근대국가 이후의 과정을 보면 이게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양반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관리들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라를 지킨 사람은 민중 또는 시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민중적 세계관, 민족적 세계관으로 우리 지역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적 세계관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도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으로 청주성을 탈환했고 충주도 천민계층이 충주를 사수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에는 의병들이 활동했고, 제천, 보은 지역은 동학 회교가 열려 남쪽과 북쪽이 만나 우리 민족의 지역적 저항성을 느꼈었고, 청주만 하더라도 학문의 고장이며 시민적 전통이 있는 고장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점들을 강조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래 건축문화의 모방이란 용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저희 문학에서는 이식문화시란 용어를 씁니다. 건축에 있어서도 이식건축사, 즉 1900년대 전후 일본의 건축을 받아 들이고 일본을 렌즈처럼 굴절해서 서양의 건축을 받아들인 것이 기형적인 상태로 발전해

서 지금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민족적 현실을 가진 건축물들이 민중성과 더불어 흘러왔는데 그것이 차츰 민족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아, 우리의 건축이 중요하구나'라고 느끼면서 우리의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것과 일본적이고 서구적인 것이 좋게 말하면 선의의 경쟁, 나쁘게 말하면 서로 살아남기 위한 생명력의 흐름이 80~90년대의 건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청주적이고 충주적인, 즉 서원문화권적이고 중원문화권적인 지역의 건축을 고대에서나 중세, 근대에서 가져야 한다는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즉 서구적이고 일본적인 건축,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건축, 청주·충주적인 건축. 이 세축이 안정된 정신지향구도를 가지면서 우리 지역의 건축을 발전시켜야 앞으로 우리 건축이 지역성을 넘어서 민족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건축이 되지 않을까 문화적인 관점에서 큰 틀을 나름대로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강훈_____청주·충주의 서원/중원문화, 민중/민족문화, 일본/서구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제기로부터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말씀해주셨네요, 다음은 경실련이나 시민회쪽,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말씀해 주시지요.

이주형_____주제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건축과 관련되어 있어 일반인의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데요. 개인적으로 지역성이란 개념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이 과연 있는 것이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권적인 동질성, 경제적인 동질성, 문화적인 동질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다음에 이것을 지역권, 문화권이라고 부를 때 다른 권역과 얼마나 차별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를 북부, 중부, 남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보아 지역간 통합력이 미약합니다.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보아도 미약하고요. 다만 행정권적인 개념에서 나온 경제계획, 발전계획에서 그 의미를 조금 담아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성이란게 다른 지역과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충북같은 경우 지역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유형의 자산들 특히 건축이라든지 이런데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자랑할만한 것이 있는가라 할 때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드문 것 같습니다. 무형의 문화자산들 교육이라든지 의식구조상에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철강간 표지 문화에서 보여지듯이 굉장히 뿌리 깊은 교육도시이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시대에는 김승환 교수 말대로 존화주의, 왜곡된 양반정신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



니다라는 한편으로는 의사표시 방법에서는 경상권이나 호남권

과는 다른 의사 표현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충북의 지역성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흐름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청주와 충주를 아울러 중원문화라고 하는 특별한 차별성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민족성, 역사성으로 크게 아우르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강훈_____지역성의 개념과 청주·충주의 경우 지역성보다는 민족성이나 역사성 등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시죠.

김승환_____지금 청주의 건축이 제주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대전이나 진주하고는 다르게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청주의 건축이 서울이나 춘천의 건축하고 다르게 없습니까? 뭔가 좀 다르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는 건축가들을 무수히 원망합니다. 충북대학만 하더라도 경북대학이나 전남대학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충북대학교에 대학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거기에는 청주지역이나 충청도적인 이미지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원망할게 아니라고도 여겨집니다. 구조가 그렇고 여태까지 패러다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여기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송재봉_____지역성이라는 개념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분명히 지역성을 유지해온 것은 분명한데 중심문화를 형성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계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해방이후에 이루어진 건축문화가 과연 지역의 전통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왔는가의 문제에서 볼 때 저는 이게 조화보다는 파괴 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축도 그렇고 문화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이 청원군청 내에 있는 동헌의 모습일 것입니다. 청원군청은 웅장하게 들어선 데 비해 동헌은 초라하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현대건축이 전통건축문화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름다운 건축상, 건축문화상의 문제죠. 지역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상된 건축물은 예쁘게만 지은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전문적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게 아닌가 하지만요, 건축물을 짓고, 만들고, 관리하고 가꾸고 이러한 모양이 전통과 현대가 최소한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파괴가 우선인 그런 형태의 건축문화, 이것이 문제이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강훈_____건축상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

고 이번에는 도시분야에서 말씀해 주시죠.

황재훈 저는 사실 건축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이 지역성이라고 해도 괜찮고 정체성이라고 해도 괜찮고 저는 일단 총체적인 문제라고 단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세단계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사회적 배경에서부터 문제를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산업구조 조정등의 이유로 도시공간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고 특별한 건물이 정책적인 기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 새마을운동 등의 정치적 배경 때문에 갈아치우기, 전통의 것을 무시하고 국장남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화보다는 파괴로 가는 길을 밟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쪽에서 보면 현대건축의 무분별한 도입이라고 할까요, 그냥 똑같이 만들거라는 개념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성이란 것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각적인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 건물이 어울린다, 보기 좋더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각적 질이 상당부분 무시된 채 진행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계획이 주는 어떤 효율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기계중심적 사고, 다시 말해서 인간중심이 아닌 자동차 위주로 계획을 하고 공간을 꾸미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번째로 계획이나 설계를 하는 사람의 자질에 대한 문제이지만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지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공간의 위계에 대한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원인, 설계적 원인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작은 스케일로 넘어가서 건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 세미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 바 있지만 민중적인 것보다는 윤택하고 하는 스타의식에 가깝한 그런 식의 설계를 하게 되니까 사용자를 위한 공간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축가를 위한 공간이 양산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컨슈머리즘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특히 주거에서 정주의 개념이 들어가야 됴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경제적인 투자의 대상이라든지 소비의 개념으로 바뀌게 됴에 따라서 지역성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된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커머셜리즘이란 철저한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건축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조금 등한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집을 짓는데 있어서 중앙에 있는 건축가들, 유명한 건축가들이 지으면 좋은 걸로 생각하고 지역건축가,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건축가들이 지은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한 적은 없는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의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다 보니



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건축물자체가 특색있고 획일적인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봅니다.

이동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한다면 첫째 충청도라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점입니다. 충청남북도 빼 나머지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전부 남과 북이라는 위치개념이 확실한데 충청도만 유일하게 남북도 개념이 아니죠, 사실은 동서도죠, 이런 것 자체로도 청주라는 지역의 가치관에 혼란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지역이 과거 신라, 백제문화권 속에서 왔다갔다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지배를 받고 지배를 당하는 과정에서 다소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우리 충청도 사람의 의사표현의 불분명성이 그런 역사적 배경에 있을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의식구조 속에서 우리문화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결국 청주지역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건물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과거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충청북도가 뛰어나게 독특한 어떤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던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더욱 노력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주라는 도시가 도시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이제 한 80년 된 것 같아요. 과거 관찰사가 충주에 있다가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비로소 청주가 중앙과의 연계가 긴밀하여 져고 청주지역이 조치원으로 나가는 철도 때문에 이 지역이 발달되고 모든 면에서 충주보다 나아지니까 관찰사도 청주로 옮기게 되고 하는 등...그것이 아마 청주는 오늘날 50만이 넘고, 충주는 아직도 20만이 안된 도시로 남아있는 이유죠. 도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위치상으로나 개발여건상으로 볼 때 도시의 개발 잠재력은 매우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름다운 건축상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연 청주시에서 주고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의 시상 대상이 어느 면에 치중하고 있는가? 청주 지역다운 지역성을 가진 건축물이 있기는 하나, 있다면 어느 곳인지 알 수 있는거나 또한 어떻게 보면 국적을 알 수 없는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가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강훈 건축인들의 책임이 너무 큼니다. 이제 건축쪽으로 가겠습니다. 박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박성인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외래문화가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정체성이 많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청주 지역건축가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의식수준이 부족한거예요. 의식이 없으니깐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전통건축과 근대건축사이의 단절, 근대와 현대의 단절을 메울만한 선배들이 없었던거죠. 이제 와서 우리들이 중심건축가가 되다보니깐 우리 선배들이 우리한테 물려준 건물은 있다 하더라도 양식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지역성에 대한 자각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도 있죠.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면에서 보면 청주시만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활동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축인들의 참여보다는 비전문가가 많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는거죠. 그 결과로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공감대를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적맥락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우리 건축사들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문제가 많다든지, 지역성을 위한 세미나, 디자인캠프 등의 자리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런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면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전통, 지역성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작품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실제로 기성세대들은 거의 지역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청주의 정체성이나 지역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영 _____ 너무 복잡하고 근원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전통성의 표현이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통형식을 충실히 따르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부분적인 모티프만 채용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작적인 작품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례를 들어서 청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목구조구성을 콘크리트로 해석하는 외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창작적인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청주 예술의 전당은 부분적인 모티프를 채용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좋다 나쁘다고 따지기 이전에 각 방식 및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고 완성도가 높은 전개가 있을 후 그걸 놓고서 우리가 다시 판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관의 스타일은 물론 내·외부공간의 처리에 있어서 창조적인 수법의 전개가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 혹은 미래 건축에서 과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재훈 _____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인 점이 외국문화를 너무 무분별하게 수용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특성을 무시한 채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통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해서 지역성이 드러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

면 전 지역성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가지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전통적 지역성이라는 측면일 것 같습니다. 일본의 도쿄라든지 유럽의 여러 역사도시들이 이런 측면이겠지만 또 하나는 창조적 지역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도시같은 경우에 역사가 없어요, 전부 유럽에서 따오고 나름대로 만들어 가면서 장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상황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설프게 복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지역성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지역성이란 측면이 두 가지로 양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에 따라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웅 _____ 김교수께서 이식건축사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어느 분이 우리나라의 현대 건축을 소위 매거진 아키텍처라고 하면서 외국 건축잡지에 실



린 건축물을 그대로 모방하는 건축양상이 주도를 이루어 왔다고 비평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황교수께서 창조적 지역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들면 지역성을 잘 나타낸 핀란드의 알바 알토라든가 다음에 스위스의 경우 마리오 보타의 작품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지역에만 나타날 수 있는 전통과 지역의 창조적인 역량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서, 색상 등이 건축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우리의 경우 한 국적인 건축은 무엇인가라는 포괄적인 전통적 건축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고 그리고 우리 지역적인 건축은 무엇인가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가 또 역사적인 우리의 지역성을 어떻게 외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가 그 무형문화를 어떻게 유형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시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까지는 그 시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충주란 도시에 매력을 느껴 충주지역에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 잠재력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향성 제시를 하지 못하니까 대도시 20년, 10년 전 번두리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뭔가 문화적인 잠재력, 역사적인 잠재력 등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강훈 _____ 이상으로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셨는데요, 문제제기가 안된 것 한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인쇄박물관 옆 흥덕사지의 복원문제인데요, 이렇게 선불리 어설프게 복원하느니 안하느니 못하단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급히 조성하였고 예산 또한 너무 부족하였구나하는 느낌이 듭니다. 찬란한 우리 문화유산이고 인쇄매체인 이곳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 주는 인상이 어떨까요? 향후 청주읍성내 문루 복원등의 문제도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문제제기와 함께 지역성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성의 개념에 대해서 부족한게 있으면 지적하면서 다음으로는 가능성, 잠재력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능성은 자연환경, 역사적 흔적이 배어있는 구도심이 있을테고 신흥개발지들 그려 나가 신도심의 문제, 다음에 어우러진, 무리진 아름다움이나 빼어난 아름다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문제를 한번 던져볼까요. 청주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보물인 용두사지 칠당간 주변이구요, 무심천변에서 시민의 날 문화행사나 예술축제를 많이 하구요, 예술의 전당 앞에서는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흥덕사지 박물관 앞에 사람들이 좀 모입니다. 건물과 어우러진 외부 문화공간, 그런 측면에서 충주쪽은 어떤지요 이것과 관련지어 잠재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웅 _____ 충주는 사실 그런 문화행위가 크게 발생되지 못했는데요, 근래에 충주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광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륵문화제가 그 광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도심의 차없는 거리를 확보해가지고 상업성을 전제로 한 도심축제, 그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과 시민들이 어우러진 축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탄금대를 중심으로 해서 야외음악당을 중심으로 문화행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재훈 _____ 호암지 주변으로는 그런 활동이 없나요?

박대웅 _____ 호암지 주변은 최근 우륵당과 태권수련원이 완공직전에 있습니다. 아직 조경공사등 주변이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이미 우륵제 기념공원이 열렸고 향후 활발한 문화체육활동과 행사가 개최되리라 여겨집니다. 호암지와 연계되어 충주를 대표할만한 명소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아쉬운 점은 앞에서 언급한 건축양식의 문제와 과연 향후 문화행사를 위한 외부공간의 설계가 잘 되었는가는 기다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충주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충주에서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자연환경이 빼어나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특히 강과 호수가 많고 조그마한 호수들이 시내에 산재해 있는데 이런 수공간들을 개발하는 것이 충주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지않나 싶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댐 주변의 상하수도를 철두철미하게 잘 연결하여 자연과 건축이 잘

어우러지게 건축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미관적으로나 아니면 도시설계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으며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김태영 _____ 청주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상으로 보면 청주읍성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상당산성에서 내려오는 산줄기가 우암산, 도청앞 동공원, 당



산흔적이 있는 녹지체계가 있고 무심천, 까치내, 미호천까지 이어지는 수공간 체계가 있고 서쪽으로는 신평동 부근에서 운천공원, 흥덕사지, 사직동 종합체육시설단지, 사직공원, 옛 모충공원에서 충북대 뒤편까지 이어지는 군집체형이 있어요. 구릉체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축에서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지만 부모산이 중부고속도로의 관문이고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 터널은 경부고속도로의 관문 이런 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는 구읍성을 중심으로 하여 공원이라는가 압각수, 칠당간, 동헌 그리고 제일교회 뒤에 있는 망선루 등 이런 문화재와 유적지가 있죠. 옛날에는 관아가 있고 병마절도사 영문이 있던 중앙공원이 실제로는 필지가 상당히 커요. 관아공원이라든가 그런 형식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청주는 중앙공원, 상당공원, 동공원, 모충공원, 사직공원, 솔밭공원, 시청앞 시민공원 등 도심공원이 실제로 도시의 쉼터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개공지로서의 성격도 커다란 잠재력이 될 수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쪽과 동쪽의 녹지 및 구릉체계와 남북방향으로 이어진 무심천의 수자원체계가 미묘하게 어우러져 청주의 옛 모습은 남북방향으로 수평적인 질서를 강조해 나가는 방향에서 이루셨습니다. 향후에도 무심천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의 체계와 동서의 구릉지체계가 어우러진 수평적인 질서체계 및 그 성장 가능성이 우리의 잠재력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강훈 _____ 앞에서 두분께서 자연환경, 녹지체계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도시에서 전통적인 지역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역이 충주는 차없는 거리이고 청주에는 성안길아닙니까?

이동주 _____ 다아시겠지만 성안길은 청주읍성에서 남문과 북문을 이어주는 곳으로 역사적으로 중심축을 이루어왔던 장소입니다. 또한 현재 성안길은 차없는 거리로 지

역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토, 일요일은 물론 평상시에도 오후 5, 6시가 넘어서면 그곳에 가야 뭔가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또 거기서 자기의 젊음을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청주의 살아있고 젊음이 넘쳐나고 활력이 넘치는 거리가 바로 성안길입니다. 거기에 문화적인 개념을 집어넣기 위해 차없는 거리를 만들고 바닥에 성벽 형태의 모자이크를 해서 깔아놓았습니다. 오늘날 성안길 축제라고 하는 것까지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 가지면서 청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성안길 일 것입니다.

황재훈 _____ 지역성이 있는 곳을 보면 주변 공간을 지니고 있거나, 건물들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대표할만한 뛰어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다 어우러지면 가장 확실한 것이겠지만 그 세가지 요소중에서 어떤 것이 강조된 것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 상당한 지역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안길은 대표적인 건물만이 조금 떨어져 뿐 나머지 두가지는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안길, 청주읍성이라는 역사적인 장소가 청주시내에서 뚜렷한 구심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앞으로 공간을 형성해 나가고 건축을 만들어 나갈 때 공간적으로나 형태적인 기준이 될만한 잠재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행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걸어가면서 경관을 대하기 때문에 경관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우리가 공간자체의 지역성을 파악할 때 선적으로 파악하느냐 면적으로 파악하느냐 점적으로 파악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역성을 다룰때 이강훈 교수가 말한 것처럼 빼어난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면적인 면이라고 하면 무리진 아름다움 이러한 것 외에 선적인 아름다움 이러한 것이 우리 청주에는 어느 정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문화재도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고 자연환경도 자연스런 흐름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서로 잘 연계시킨다면 선적인, 면적인, 점적인 그러한 지역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봉 _____ 저는 청주의 경우 잠재력 및 무형의 자산은 다른 지역보다 풍부하단데 현재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청주는 역시 앞에서 지적했듯이 성안길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재들이 일정부분 산재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주읍성터 자체도 아직 남아 있어서 새로운 지역성을 재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역시 청주는 인쇄문화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현재화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죠. 적어도 예술의 전당과 고인쇄박물관이 이 주변을 중심으로 인쇄문화의 거리 조성과 이에 따른 건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측면은 교육적인 상징성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망선루라는 건물이 갖는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인 _____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주가 교육의 도시, 깨끗한 도시의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교육도시라 하면 지금 망선루로부터 우리나라 3개 사범대학이 있는데 학교의 수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가지고 교육도시라 하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도시라 하면 청주의 경우 기차역이 도심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대개 도시가 역사주변이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 청주는 다행히 그린벨트 안에 청주역이 있어서 큰 고민거리를 덜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안길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 보존되어 왔던 것이 요즘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즉 우체국 앞의 광장 같은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쉽지만 새로운 이미지로 떠오르는 가로수길, 시내에서 상당산성까지 가는 재미있는 길 등이 분명 청주의 지역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심천의 물 흐르는 선형이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 간선도로변에는 건물들이 들어차 있고 그래서 시각적인 회랑을 잃고 있는데 적어도 무심천만큼은 그런 시각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경관적인 입장에서 지역성을 찾을 수 있다면 무심천이 가장 지역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강훈 _____ 과거의 청주시는 우암산과 무심천을 배경으로 성안길이 중심축이었다면 봉명동, 복대, 가경동 등 신도심들의 개발로 인하여 이제는 무심천이 시민의 날 행사 등 대규모 문화중심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승환 _____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되었다 해서 중앙공원으로 옮겨 시민들이 가깝게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문화공원으로 예술의 전당 광장과 고인쇄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축과 무심천을 중심으로 해서 철당간 축과 예술의 전당 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인데 엉뚱한게 또 하나 생겼어요. 용암동이라는게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오송을 중심으로 그 쪽이 하나 생기고 지구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청주적인 것을 뭔가 좀 살려야 되겠는데 건축에서 그걸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가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강훈_____가능성에 대해서 충주쪽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웅_____충주에도 중앙로가 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구도심에서 중앙로를 중심으로 차있는 거리와 문화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주에 비해 아쉬운 점은 청주는 역사적인 장소와 성안길이 연계되어 있는데 반해 충주의 경우 차있는 거리와 청년현 등, 관아건물이 있던 중앙공원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맥이 끊어져서 아쉽습니다.

이강훈_____그건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겠지요. 구도심에 대해서는 김태영 교수님이 조사를 많이 하셨죠. 도로망체계, 공원, 광장 등의 외부공간체계의 위계는 물론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존의 역사성과 함께 도로의 폭, 건물의 높이, 시각적인 연속성과 폐쇄성들이 어떻게 상호연계되어 있느냐의 문제이지요. 구도심에 있어서도 개발을 한다고 손을 대면 격자형 가로망이 되는데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도로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이라 생각합니다. 도로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길에서 우리는 과거의 연속성 및 향수를 느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걸모양보다 사실은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걷고 싶은 공간, 다시 오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걸모양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성안길의 여러 건물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재미있게 포착됩니다. 특히 IMF때문에 이걸 더 유효하죠. 이는 충주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주형_____청주가 원래는 삼경중에 하나인 적은 있었지만 권력이나 경제의 중심이었던 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문화유산이나 건축양식 이를테면 경주라든지 서울처럼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연환경만 하더라도 제주도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더해지는 것처럼 지방자치가 자칫 잘못 진행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빼어나다거나 무리진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서 숨어 있는데 뭔가 자연스러운, 이런 쪽이 오히려 우리의 문화적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옛날의 건축들을 전통적으로 재생하는 것보다는 청주다운 어떤 것들을 좀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도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건축문화나 이론 속에 숨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친환경적이면서도 가난하지만 사람의 정서에 쾌적한 이런 모양새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요. 그렇다고 할 때 청주시 청원군의 통합이라든가 백만이 넘는 인구팽창 등 물적 성장이 주가 아니라 지역분산 형태의 도시계획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주_____그동안 저희들이 인구목표를 높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며칠전 청주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하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을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첫째 인구가 제일 중요한데 2016년을 목표로 75만명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오송보건의료단지나 오창 테크노빌 등 주변의 유출·입 인구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학계나 시민들에게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도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살고 여러 유형의 행정 수행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한 군데로 뭉쳐놓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생활권별로 적정수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1도심 3부심의 생활권으로 나누어서 분산을 시켜 권역별로 문화가 새롭게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것이 국토지향적 목표이구요 그 다음에 현재 청주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남아있는 개발 가능한 면적이 약 55~60평방㎞ 내외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 개발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거꾸로 구도심 지역에는 오히려 도시공동화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 우암동 일부지역, 수곡동, 내덕동, 금천동, 모충동 등 이런 지역은 사실 개발이 지금 멈춰있고 지역자체가 상당히 슬럼화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향후 구도심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보전쪽이나, 보존쪽이나 아니면 창조적 지역성의 창조나 하는 측면을 잘 검토하여 진정으로 지역성을 살리는 건축문화쪽으로 우리 주거환경의 의식을 끌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영_____덧붙여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자꾸 대도시 사례나 외국의 사례만 적용하려 하지 말고 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지역을 조사, 분석하고 물리적으로 가시화하는 작업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좀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환_____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정책결정자나 경제권자들의 의지가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와 문화유산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여도 정치가나 관리 또는 건물주나 사는 사람들이 실용적인 공간만 지어달라고 하거나 자신의 주관만을 고집할 경우는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위대한 건축가를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분들을 믿고 위대한 건축물을 신봉할 수 있도록

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관리들이나 정치가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의 경우 저희는 경실련, 시민회 등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도시를 전공하는 교수들도 도지사 후보, 시장 후보한테 설문지를 보내고 당신 청주의 건축, 청주의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것냐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행정부의 장들, 의회의원들 그리고 결정력이 있는 분들이나 건물주한테 문화, 건축 문화적인 의식을 계속해서 가지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김태영 _____ 거기에 덧붙여서 법제도가 있습니다. 융통성 있는 법이나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이 다 똑같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융통성있게 법적,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관에 계신 정치하는 분들인데 ...

이강훈 _____ 이제 대안의 제시까지 벌써 나오는군요. 앞에서 건축인들을 너무 나무라셨는데 장점을 얘기하자면 저희 건축3단체에서는 시민대학, 디자인 캠프, 학회활동, 전시회, 세미나 개최, 건축답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아서 가족처럼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역성을 위해 생산적인 장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요. 바람직한 방향을 결론적으로 한문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환 _____ 뛰어난 건축가들이 많이 나와야겠고 동시에 그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민중적인 건축사들도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건축적으로 세계적인 건축물을 만들면서 동시에 청주적, 시민적인 건축을 두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성인 _____ 우리 청주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경제적 자립도도 떨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성을 살려가기에는 아직 어렵지 않은가 이런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방치해 둔 수동의 모습이라든지 금천동의 하천 부지의 모습이라든지 이제는 작아졌지만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인 시계탑 등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역성을 조금은 갖고 있는 거예요.

박대웅 _____ 저는 충주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아직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점이 도시의 잠재력,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발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하는 민중건축, 배경의 건축, 이런 것

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지 그대로 두면 소위 집장사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 마음대로 지어 버려요. 마음대로 짓는 것이 도시의 자유를 표출하는 좋은 것이라고도 생각되지만 그것보다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방향성을 제시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좋은 재료는 뭔가? 우리지역에 맞는 컬러는 뭔가? 우리지역에 맞는 도로나 외부공간체계는 어떠한가 등 민중건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주 지역의 장점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한가지는 미개발지역이 많다는 것, 그래서 백년대계의 충주발전계획을 세워서 권역별 미관지구를 지정하거나 발전계획 및 방향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적인 도시설계요소를 도입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충주지역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수공간을 개발한다던가 자연친화적인 도시계획, 주거계획등의 목표를 위해서 도시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풀어나갔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강훈 _____ 바람직한 방향이 많으시겠지만... 청주의 대표적인 과제는 청주 예술의 전당, 광장, 건너편에 성당이 있고 북쪽에 인공폭포, 넘어서 흥덕사지가 있고 남쪽에



쌍둥이 체육관이 있는 영역의 처리입니다. 근자에 들어 청주에서 최선을 다해 이루어놓은 건축물과 외부공간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람들이 과연 모이냐 하는 거지요. 광장에는 주차장만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기 싫지만 서울 예술의 전당과 비교해

보면 청주 예술의 전당 광장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옥외공연 등 다양한 해프닝들이 발생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요사이 고층아파트는 차를 모시기 위해 아파트가 세워진 듯하고 청주 예술의 전당 주변의 건물들로 도로와 차를 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도심의 성안길은 걸어도닐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다시 가고픈 곳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신도시나 청주의 제일 명소가 될 흥덕사지, 인쇄박물관이나 예술의 전당 지역은 걸어도다니며 주위를 느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청주를 대표하는 곳이며 앞으로 더욱 가꾸어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주의 경우도 근자에 원공을 보게 될 호암지 주변의 우륵당이나 택견수련원이 과연 어떻게 이용될 것냐하는 문제가 남겠지요?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지역이라도 우선 차근차근 손을 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김승환 _____ 지금 이교수 말씀도 우리지역에서 모델이 되거나 상징이 되는 건축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히

그것의 파급효과 때문에 결국 그 지역의 건축이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주에 갔더니 아주 뛰어난 건축, 위대한 뭔가가 있더라 그러면 그것이 차츰차츰 퍼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지역의 인적자원 즉 위대한 건축가를 키우는 것, 볼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위대한 조형, 위대한 건축을 계획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박소장님 한 수백억짜리 조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도지사나 시장한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청주관문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앞에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건축하나 만드세요. (일동 웃음)

김태영 _____ 홍덕사지, 예술의 전당영역과 함께 철당간 주변도 필요합니다. 그런 두 영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역 단체들과 함께 여러 제안도 하고 실제 반영이 되도록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이동주 _____ 예술의 전당이 좀더 청주다운 모습의 건축이 될 수 있었지 않나 하는데 사실 지금 예술의 전당이 저 모습이라도 갖춘 것은 당시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겁니다. 지붕을 한국적인 지붕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건축을 하신 분들이나 관계공무원을 한테 어떨 땐 혼내기도 하고 다룬데 가서 공부하기도 해서 지붕이 원래 슬라브지붕이었는데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 1,300석인 것도 미래를 생각할 때 1,500석을 만들자고 했는데 재정적, 기타 제반문제로 못하게 되어서 지금의 1,300석이 됐습니다. 광장을 만들 때에도 사실 그곳이 홍덕구청이 올 자리였는데 문제가 노출되어 결국에는 예술의 전당이 오게 됐습니다. 광장도 원래는 시민의 광장으로 돌려주려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어놓고서 그곳을 이용하려 오는 사람이나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에게 주차장으로밖에 쓰여지지 않고 있는게 아쉬운 점입니다. 다음에 또 대표적인 건물이 지어질 때는 좀더 많은 시민들을 위한 의견을 내고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 다음에는 국제공항 진입로 변에 지난해 충북도지사께서 공항 1주년 기념식에 상징탑을 만들자고 계획해서 전국공모에서 나온 탑이 하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는데 아마도 정치적인 문제로 지체되었습니다. 상징탑에 대한 문제도 아직은 미정이지만 구체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당간 주변은 주변이 보존지구로 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상가도 더 이상 증축을 못하게 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규제할 수가 없어 11m안가를 제안했을 겁니다. 미관지구를 지정하고 보존지구로 지정했는데 광장의 넓이를 좀더 넓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광장으로서 기본적인 면적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것이 아쉽습니다. 학계, 사무소, 시민회 등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내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황재훈 _____ 지역성을 찾는 방법으로 몇분들이 상징적인 것을 만들자 그래서 중심적인 것을 만들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 고대도시나 중세도시에서는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중심적인 건물이나 공간이 생기면 그것이 파급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는 우리가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통에서 현대로 넘어와 현재는 혼란한 상황에 처해있어 다양한 해석 속에서 다의성을 지니며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성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굳이 꼭 하나의 중심적인 것을 두고 추구해 나가는 것에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이동주 _____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법에 있어서 지구상세계화제도나 도시설계제도 이런 것들이 현재 나와있는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제도에 덧붙여 지금까지 언급된 역사성, 전통성 그리고 외부적이나 내부적인 측면의 편의성, 쾌적성에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도적으로 도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이상과 현실적으로 우선 내가 편하고 나의 경제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축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잘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건축이나 도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학교쪽에서도 가끔적이면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제안해 주시고 기회가 닿는대로 졸업작품을 한다던지 학교에서 과제활동을 할 때 이런 가치적인 측면의 훈련과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재훈 _____ 계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의 기준이라는게 사실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도시설계제도 같은 경우를 보면 규제의 의미보다는 Guide의 의미입니다. 쉽게 이걸 이렇게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이 어떠한 혜택을 받습니다라는 식의 홍보를 하는 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제도자체가 Minimum Standard 보다는 Maximum Standard로 갈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성을 확보하는 방

법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축적 해석을 유형학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형학이라는 것이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형태가 결정이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형되어지는 성질이라고 저 나름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Prototype 예를 들어서 학교는 학교건축이어야 되고 주택은 주택이어야 되는 것이죠. 공장이 주택이 될 수 없고 주택이 공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Prototype에 따라서 닮은 건축 그 다음에 뿌리가 있는 건축 그 리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되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지역성이 있는 건축물, 도시공간이 되지 않는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음성이 나가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도시에서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구음성은 기본 도시공간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작고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법적인 규준을 적게 적용을 해서 자연스런 어떤 변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철저한 계획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계획도시가 된다면 분리된, 차별화된 지역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영 _____ 무리진 아름다움, 빼어난 아름다움보다 제 생각에는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해 아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빼어나고 상당히 신경쓴 것보다 거꾸로 내부공간이나 외부공간에 초점을 두어야 건축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건축의 본질은 내·외부공간입니다. 청주의 흐름이 결국 내부공간을 창출하기 힘드니까 이교수께서는 외부공간, 철당간 광장, 예술의 광장으로 가면서 청주의 상징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친근성을 무각시켜 나가기 위해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제 생각에도 공간쪽으로 가야 할 것 같고 형태는 좀 더 절제된 표현으로 청주건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_____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청주 예술의 전당에 있어서 만일 시장님이 한옥지붕으로 하고 싶은 데 가서 사례를 보고와라, 그러니까 높은 분이 이런 생각이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물고가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경계할 점은 시민의 절대 다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릇된 방향으로 하향평준화된다면 이 또한 경계할 일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방자치시대로 하여 우리 지역 건축인들, 우리 힘으로만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김교수께서 이 지역의 훌륭한 건축가를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눈으로 미처 보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면 외국이든 서울이든 유명한 분 초빙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편성, 세계성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를 갖

춰야 할 것입니다.

박성인 _____ 자꾸 상징적인 걸 조합해 세우고 그것도 시장이나 도지사 생각에 따라 좌우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거죠. 우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철당간이라는 탑



인데 철당간은 건축가와 시민이 같이 운동해서 자리를 지킨거죠. 시민의 가치관을 그나마 지키고 우리 자존심을 지키게 한 것이 철당간이죠. 그 주변의 건축들도 그런 식으로 지역 본토화되게 가꿔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앞으로 상징탑을 여기 저기 세우든가

하는 것은 우리 후배들이 할 일이고... 도시개발하면서 가경동 발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의 Context가 안남어 있어요. 수공간이나 장소적 특성들이 없어요, 그런 것은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맥락들,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히 여겨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역성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동주 _____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이제까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가들,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모두 외지업체들입니다. 이 지역에 적합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 대도시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어요. 대개 이런 것이 99%라고 봅니다. 앞으로 강서지구 도시계획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찾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지역에 원가를 만들어 놓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게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일 것입니다. 이게 없이 지역성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안되지요?

김승환 _____ 지금 관에 이계장님 같은 분이 몇분만 더 계셨으면 우리 지역의 지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동주 _____ 아닙니다. 이제는 소신을 갖고 모두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이강훈 _____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충주가 덜 언급되어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지적하셨듯이 청주와 충주는 어느 도시보다도 잠재력, 가능성이 많은 도시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제의 거울입니다. 이러한 모임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고 흩어져 있는 지역 건축인들의 소중한 견해들이 한자리에 모여져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CAD, 과연 이대로 좋은가

The Problem with CAD

IMF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긴급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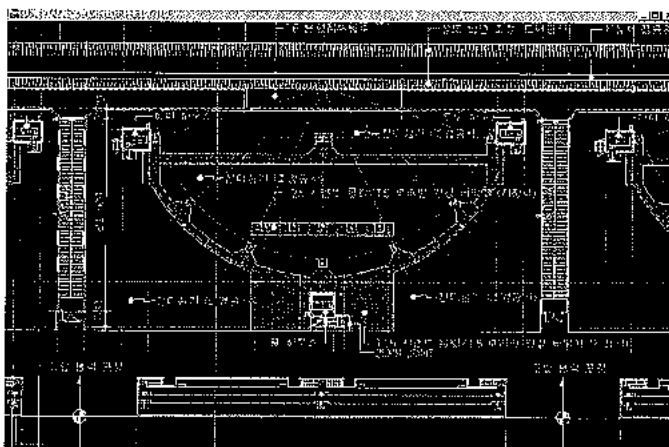
김지덕 / (주)유신건축사사무소

by Kim Chi-Duk

며칠 전 동료 소장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 즉 정품 단속이 있을지도 모르니 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그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사무실 유지하기도 힘든 지경인데 또 단속이라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용어란 말인가? IMF 이후 건축사무소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건축주들의 주문이 줄어 당장 직원봉급도 맞추기 어려운데, 또 단속을 한다고?"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고객에게 감사하고 봉사하기는 커녕, Copy당 소형차 한대 값에 이르는 제품을 불법복제해서 쓴다고 범법자로 매도하고, 갖은 협박을 일삼아 강매하는 행위를 일삼는 중세 유럽의 면죄부 판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현실 말이다! 위의 상황을 어찌 본인만이 겪었겠는가? 누구들 정품을 쓰고 싶지 않겠는가? 사실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회원사의 공동된 목소리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협회 건축정보센터 추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해결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통일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CAD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여러 회원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몇자 적어 본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무실도 다른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AutoCAD를 이용하여 설계업무를 진행하여 왔었다. 사무실의 규모가 확장되고 CAD System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시스템의 구입 및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FCAD를 통해서 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일단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럼 본인의 사무실에서 CAD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로 비교 검토했던 사항을 본인과 유사한 입장에 있는 여러 회원사를 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교체 당시 검토기준

1. 기존 제품과의 완벽한 호환 요구



- 1) 기존의 DWG 파일을 별도의 변환 없이 바로 읽어 들이고 저장
- 2) 도면내의 블록, 속성 및 기타 Non Graphic Data들의 완벽한 복구
- 3) 도면내의 해치 및 선형 등의 동일한 형태 및 축척으로 복원
2. 최단기간에 업무적용이 가능
- 1) 기존 사용제품과 개념이 달라 실무자가 배우고 익히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안됨.
- 2) 사용환경 및 명령어 등의 신규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방지

3. 기존 제품과 동등한 3rd Party 개발이 가능

1) 기존의 3rd Party를 동등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방대한 Lisp 및 C++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수정만으로 즉시 이식 가능하여야 하며,

2) 개발자들이 자신의 Know-How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함.

4. 한글의 입출력이 자유로우며, 글꼴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1) 한글 구현방식 및 글꼴 형태가 유사하여, 도면 호환시 최대한 원본도면의 글꼴이 유지되어야 하며, 재작업이 필요치 않아야 함.

5. 개방구조(Open Architecture)로써 사용자화가 극히 간편해야 함.

1) 각 사무소 및 개개인의 작업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자화 및 개인화가 가능한 제품

2) 상기 작업을 별도의 기술 및 학습 없이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함.

6.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 전체의 "TCO (Total Cost of Ownership)"를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제품 IMF시대임을 감안, 가격이 기존 제품의 1/2~1/3 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3rd Party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가이어야 함.

더 많은 검토 기준이 있겠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위의 6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결국 상기 기준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존 제품과 있는 듯 없는 듯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상기 기준에 의거, 본인의 사무실에서 검토한 제품이 얼마나 이들 기준들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FCAD의 성능

1. 기존 제품과의 호환 여부

1) AutoCAD의 R2.5~R14까지의 DWG파일을 완벽히 호환해 낸다. 특히 R12,13,14의 DWG파일을 버전별로 저장할 수도 있다.

2) 도면내의 블록, 속성 및 기타 Non Graphic Data는 물론 Paper Space, 확장 엔티티 데이터(Xdata)까지 완전히 복구됨은 물론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3) AutoCAD의 해치패턴(PAT)파일 및 선형(LIN)파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도면내의 해치 및 선형 등도 모두 동일한 형태 및 축척으로 복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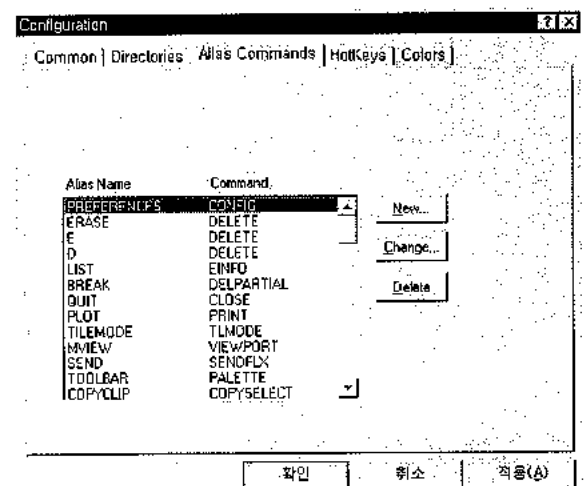
4) AutoCAD의 타블렛 메뉴 역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메뉴 정의를 훨씬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학습기간의 최소화로 최대한의 업무적용이 가능할 것.

1) 출판물에 의거하여 집계한 AutoCAD R14의 380여 개 명령어와 FCAD의 명령어 중 330개 이상이 동일하다. 또한 그렇지 않은 명령어도 이름만 다를 뿐 사용법은 100% 동일하다(예: AutoCAD의 "Erase: 명령 = FCAD의 "Delete" 명령임. 이 조차도 명령어 변경 기능을 이용, 즉시 재정의하여 사용 가능하다).

2) AutoCAD 사용자의 경우 개인차는 있으나,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학습할 경우 짧게는 하루, 길게는 3일 이내에 별 문제없이 현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다른 제품의 경우 새로이 학습하고, 기존과 같은 성과품을 내기 위하여는 적어도 2~3개월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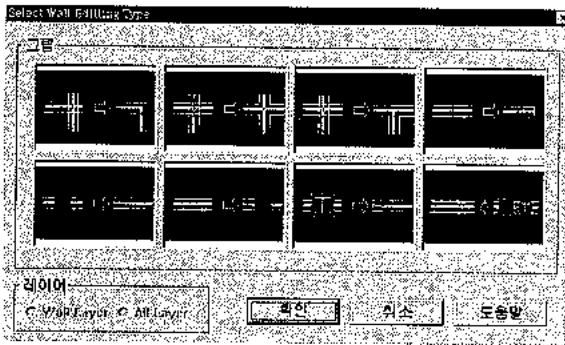


3. 기존 제품과 동등한 3rd Party 개발이 가능

할 것.

1) AutoCAD에 "Autolisp"과 "ADS"라는 개발환경이 있듯이 FCAD에는 "Flisp"과 "FDT"라는 95%이상 동일한 언어체계를 지원한다. 이는 곧 웬만한 Application은 약간의 수정만으로 바로 FCAD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 AutoCAD용 3rd Party가 대부분 Lisp 및 C언어로 개발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기존과 동일한 Know-How를 적용, 즉시 출시 할 수 있다(실제로 현재 시판중인 대부분의 검토 제품용 3rd Party들이 기존 제품용과 동일한 성능을 내면서도 이식기간은 한달을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



4. 한글의 입출력이 자유로우며, 글꼴의 변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

이동/키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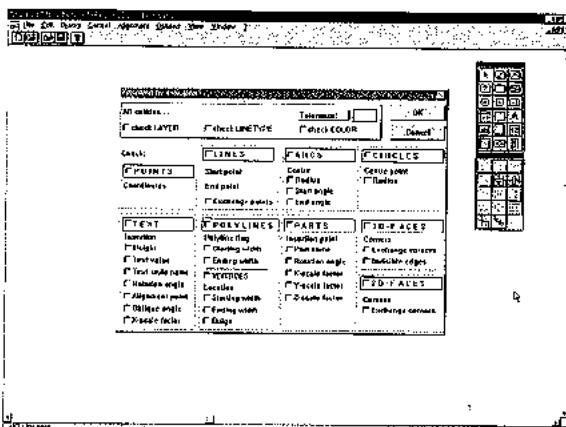
FCAD MENU(Window)	AUTOLOAD
2D전면도2로 저장	SAVEJIN2
3D전면도3로 저장	SAVEJIN3
3D전면도4로 저장	SAVEJIN4
3D오른쪽면도 저장	SAVEJIN5
3D고려면도 저장	SAVEJIN6
3D서면도 저장	SAVEJIN7
3D물체도 저장	SAVEJIN8
3D물체도 저장	SAVEJIN9
3D물체도 저장	SAVEJIN10
3D물체도 저장	SAVEJIN11
3D물체도 저장	SAVEJIN12

1) FCAD의 한글 구현 방식은 AutoCAD와 동일한 벡터글꼴 형태로, 한글코드가 표준안성 및 조합형일 경우 시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진한글, 고은글, 세한글" 등 대부분의 제품과 100% 호환된다. 물론 국내에 약 16종 이상의 CAD용 한글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AutoCAD 사용자들 간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FCAD는 이러한 점을 감안, 현재도 되도록 많은 종류의 한글과 호환되도록 지속적으로 한글코드를 수집, 한글 호환 프로그램을 갱신하고 있다.

5. 개방구조(Open Architecture)로써 사용자가 극히 간편할 것.

1) FCAD의 메뉴구조는 AutoCAD의 복잡한 메뉴 및 DCL구조와는 다른 Visual Basic류의 "Control Object:" 형태를 채택, 누구나 별도의 학습이 거의 없이 용이하게 즉각 수정, 변경할 수 있다.

2) FCAD의 대부분의 보조 파일(INI 및 명령어 변경파일 등)은 표준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텍스트 편집기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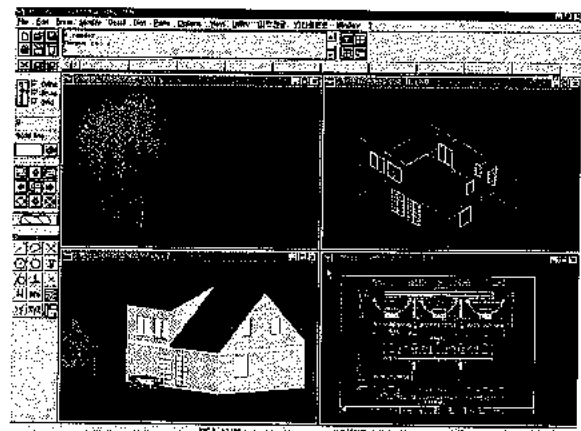
6.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 전체의 TCO (Total Cost of Ownership)를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제품 FCAD의 가격은 최근 AutoCAD가격이 현금으로 400만 원 대인데 반하여 약 1/4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만일 공동으로 다량 구매할 경우 파격적 납품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FCAD가 정식으로 국내 시장에 발표된 시기는 96년 9월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개최되었던 CAD/CAM 전시회를 통해서였다. 그 후 대외적 광고보다는 시범 사이트 구축에 주력, 특히 AEC 마켓에 비중을 두어 꾸준한 기술지원 및 기능보강에 주력한 결과 현재 국내 이름있는 건축사사무소에 FCAD를 성공적으로 사용토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FCAD는 발표 2년여 만에 기능보강을 거듭 현재 전반적 기능에 있어 AutoCAD R13~R14 중간 정도의 강력한 기능을 가진 가격 대 성능 비에 있어 최고의 제품으로 성정을 거듭했다. 여기서 AutoCAD와 비교한 장·단점을 몇 가지만 간추려서 알아보기로 하자.

FCAD만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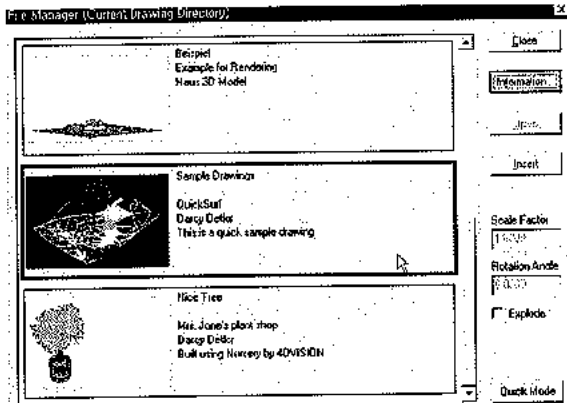
1. 동시에 4개 도면의 편집이 가능
- 1) 동시에 4개까지의 다른 도면을 개방, 편집할 수 있으며, 아울러 도면간 객체복사도 가능하다.
- 2) 도면간 객체 DB의 제어가 가능하므로 A도면에서 특정 부분을 변경할 경우 B도면의 특정 객체를 이와 연동되어 변경되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다.



2. 간편한 라이브러리 관리 및 간단한 도면 관리까지 가능한 "Part Library" 기능

1) FCAD의 Part Library기능은 수많은 블록을 라이브러리로 관리할 경우 실시간으로 갱신된 화면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AutoCAD의 Slide Library가 별도의 Slide파일로 라이브러리를 만듦으로 인하여 대규모 라이브러리 관리 시 일일이 컴파일 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특정 블록이 변경될 경우 이 부분을 일일이 다시 작업해 주어야 하는 불편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 FCAD는 자체 파일 형식인 FLX형태로 저장만 되면 언제나 실시간 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자동 갱신된다.

2) 또한 Library는 단순히 파일의 삽입을 도와주는 기존의 기능은 물론 각 도면에 각각의 도면이력 및 작성자, 작성일 및 기타 내용을 적어넣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도면내부에 기록되므로, 간편한 도면관리자 역할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3. 즉시 변경 가능한 명령어 및 기능키 재정의 기능

1) FCAD의 명령어 변경 및 기능키 재정의 기능은 AutoCAD에서의 어렵고 따분한 PGP파일이나, 프로그래밍에 의한 재정의 방식이 아닌, 명령어 재정의 도구 및 키 정의를 수록한 텍스트 파일인 Key파일을 간단히 수정함으로써 재정의할 수 있다.

2) FCAD의 어떠한 명령어도 Key파일에 "FCAD 명령 = AutoCAD 명령" 형식으로 적어주면 그만이고, 기능키 역시 "Fn=명령어" 형태로 적어주면 된다. 특히 기능키 정의는 Fn키와 Ctrl, Alt, Shift키 등을 조합하여 총 48개까지 정의가 가능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통일된 기능키 정의 파일을 부서나 회사에서 통일하여 사용한다면 사용법을 통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ACAD.KEY 등의 파일을 사용한다면, 흡사 AutoCAD를 사용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4. 기타 사용자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고려한 갖가지 기능들

1) AutoCAD와 비교가 안되는 직관적이고도 프로그래밍이 불필요한 메뉴 생성 및 편집도구(DME)의 지원

2) 직관적인 3차원 View 조정 기능

3) OpenGL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실시간 Rendering 기능 등등...

상기 열거한 내용 외의 기능 설명은 추후 기회가 되대로 독립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양지가 있으며 음지가 존재하듯이, FCAD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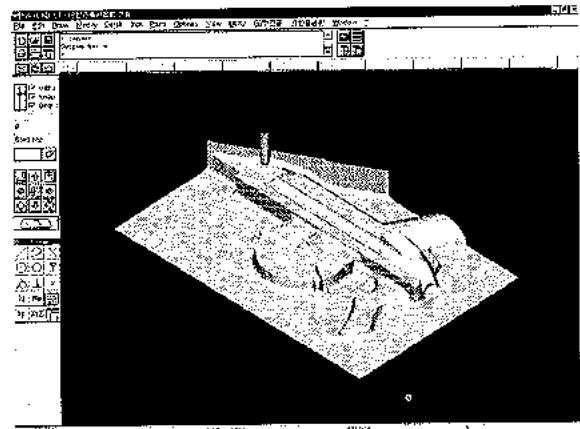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FCAD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절대 아니다.

FCAD의 단점

1. Solid Model의 지원 미흡

1) FCAD는 아직 ACIS Solid Model을 지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AutoCAD의 Solid 관련 명령어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기계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으로 건축 설계에 이용되는 기능이 아니다. 물론 FCAD 측은 현재 Solid Modeler가 있으나, AutoCAD 같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끼워넣어 값만 올리는 것이 아닌,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라 한다(언말개 판매 예정이라 함).

2) 이미 홍콩에서 이를 이용한 "Auto NURBS"라는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2. Windows TrueType 글꼴 미지원

1) FCAD는 현재 버전에서 Windows의 TrueType 글꼴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AutoCAD조차 R14에서 지원하기 시작하고 있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내 도면들이 R12에서 작성되고 있으므로 국내 사무소간 호환에도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므로 FCAD의 차기 버전에서 지원할 예정이라 한다.

3. 그 외 미흡한 사항

1) 이외에도 몇 가지 미흡하거나 지원되지 않는 기능들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이른 바, "일년에 한두번 쓸까말까 하거나" 혹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기능들이 대부분이라 지면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다.

본인의 사무실에서 검증을 위하여 사용해본 결과 FCAD 자체 기능만으로도 각종 작업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었으며 또한 그 기능조차 활용여부가 의심스러운 명령어들이 허다하게 발견되는 것을 보면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최대한 줄여서 가격을 낮추고 아울러 Compact한 커널로 실행

속도 향상에 주안점을 둔 FCAD 측의 판단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다음으로 우리 회원들이 실제 업무 적용에 반드시 필요한 건축 3rd Party 및 한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FCAD는 이미 국내에 2종류의 건축용 3rd Party를 내놓고 있다. 이름하여 "Powerplan 98"과 "FelixARCH"인데 두 제품 모두 성능은 AutoCAD에서 작동하는 "CADPOWER"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다. 물론 제품 자체가 저가인 만큼, 3rd Party 프로그램들의 가격도 이와 비례하여 저렴하다. 이러한 제품들도 기회가 되는 데로 비교 검토하여 알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약속하겠다.

마지막으로 FCAD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 사용국가 및 판매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의외로 세계적인 제품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현재 FCAD는 전세계 19개국에서 공식 Distributor에 의해 판매되고 있으며, 80여 개의 유명 개발자들이 자사의 AutoCAD용 제품을 FCAD용으로 이식, 판매하고 있다 한다(국내에는 총 20여 곳의 공인 개발자가 활동 중이다). 참고로 현재 공식 판매되고 있는 국가들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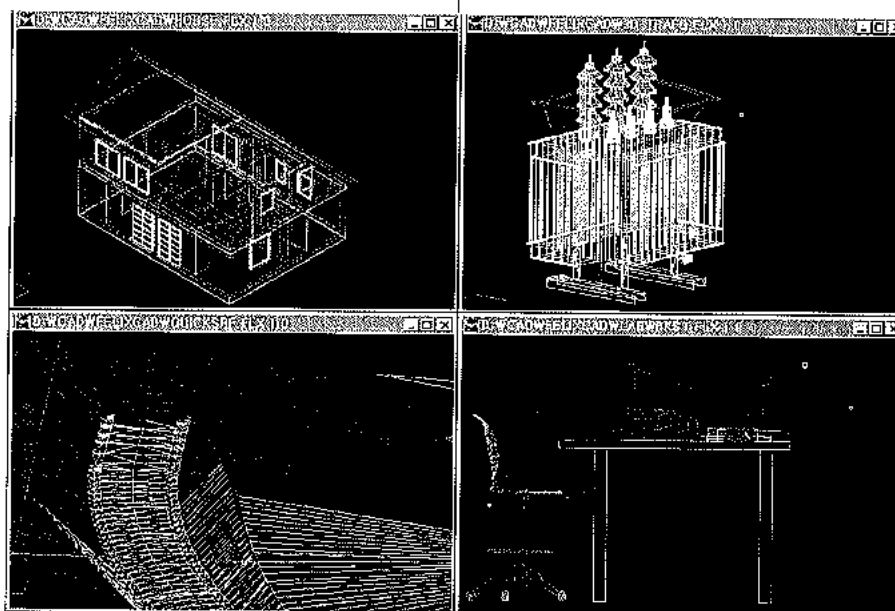
FCAD의 공식 판매국가

1. 아시아: 대한민국, 일본,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
2. 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터키 등
4. 남아프리카 공화국

5. 호주, 뉴질랜드

맺음말

지금까지 본인이 그 동안 유산건축의 CAD 프로그램의 대체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나름대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적어 보았다. 이 기고를 통하여 현재 건축설계사무소가 IMF의 여파로 국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프로그램 불법복제 단속이라는 주변 요인에 의하여 건축설계사무소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보다 가격이 저렴한 건축설계용전용 CAD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도입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회원사는 최근의 경제 불황을 헤쳐나가는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한편 협회도 협회 차원에서 건축설계사무소의 이익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업체 및 판매업체와 접촉을 통하여 회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과 보다 우수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곧 회원사의 이익 대변이고 나아가 한국 건축산업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첨언하여 독자들 중 몇 분은 혹시 본 기고의 내용이 너무 특정 상품에 대하여 유리하게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다른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이 본인 사무실의 프로그램의 교체 과정을 소개하다 보니 약간의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한다. 본 기고의 진정한 의미가 선량한 동료 소장들이 졸지에 범법자로까지 몰려 구속되며, 연중 행사이다시피한 불법 복제품 단속을 앉아서 당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우수한 성능의 대체 상품의 구입을 통하여 회원사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였으면 하는 심정으로 해석해 주었으면 한다.



협회소식 / 107

건축계소식 / 109

게시판 / 116

현상설계경기 / 117

인터넷건축여행 / 122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6

신입회원 / 128

협회소식 KIRA news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제2차 회의 개최

3국대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공동노력

건축설계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을 앞두고 한·중·일 3개국 건축사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문제 등 설계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논의를 펼쳤다. 우리협회와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사)일본건축사협회연합회 등 한·중·일 3개국 민간 건축대표단들은 지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 하얏트리전호텔에서 제2차 연례회의를 갖고 시장개방과 건축사자격 상호인정문제 등 참가국간 건축설계분야의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우리협회 김영수회장, 중국의 위이량 회장, 일본의 사와다 미츠헤사 회장 등 3개국 건축사단체 대표를 비롯해 각국 국제위원회 위원과 정부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해 참가국간 공동관심사에 대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호미해와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측 대표단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가별 현황보고후 가진 협의회 운영규정 및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안)'을 제시해 중국과 일본측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수 회장과 김규태 전 임회장, 이정근 국제위원장, 김지덕 이관영 국제위원 등 협회인사 5인과 최종수 건교부 도시건축심의관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으며 이세훈 서울건축사회 회장,

김기철 이사, 이근창 국제위원 등이 옮겨 버 자격으로 회의를 참관했다.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동북아지역 3개국 건축사단체들이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 및 방문, 건축사등록에 관한 제도·정책·법규 등의 자료교환, 학술·문화사업 협력, 기술교류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월 북경회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회를 결성키로 하고 협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탄생되었다. 차기 회의는 내년 하반기중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 개최

오는 5월 14일 협회 대강당에서

우리 협회는 오는 5월 14일 오전 10시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각종 건축기준의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건축법과 건축사법 개정을 앞두고 국민편익위주의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합리적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돼 건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IMF경제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 극복과 국제적 건축을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우리 건축계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과제들의 해결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제1주제: 건축법 개정방안

시간 / 10:00~13:20

좌장 / 이문보(동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발표자 / 조우현(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토론자 /

김종익(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김재열(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담당 과장)

변영진(서울특별시 주택국장)

김기철(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제2주제: 건축사법 개정방안

시간 / 14:30~17:40

좌장 / 이명호(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

발표자 / 최중수(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

토론자 /

배병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신용목(소비자보호원 주택생활용품팀장)

정기웅(건축사사무소 기용 대표)

양갑(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이사)

최찬환(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세훈(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이사회 개최

사무기구개편 관련규정 개정(안) 승인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6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4월 6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회

〈부의사항〉

- 제1회의안: 위원회 운영총칙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위원회 운영총칙 개정(안) 주요내용〉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98. 3. 26)에서 개별위원회규정이 일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운영총칙을 전반적으로 정비코자 ▶부위원장직을 삭제(제2·3·4조)해 위원회구성을 현실화하였으며 ▶위원직무(제5조) ▶회의의 소집 및 성립, 결정절차(제7조) ▶소위원회 구성(제8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제9조) 등에 관한 신설조항을 두어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

- 제2회의안: 사무기구개편 관련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사무기구개편 관련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사무기구 개편('98. 2. 1)에 따른 현 2인 본부장체제를 1인체제로 단일화(기획운영본부와 사업관리본부를 운영관리본부로, 기획운영회계팀과 사업관리회계팀을 회계팀으로 각각 통합해 2본부 4실 9팀 1연구소 1교육원의 현 기구조직을 1본부 4실 8팀 1연구소 1교육원으로 재개편)하고 직원 정원도 현 68명에서 67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상근부회장의 결재조항을 신설 보완함으로써 협회운영에 활성을 기하고자 함.

- 제3회의안: 보수체제개편 관련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인사위원회에서 검토 처리하도록 위임함

〈보수체제개편 관련규정 개정 주요내용〉

인사규정

- 초봉제/자연호봉승급제/수습기간 폐지
- 학력별 최저근무년수 통합 조정
- 건축사회 직원 인사서류의 분합회 제출 조항 삭제
- 연봉제 도입에 따른 직급구분 변경
- 재정보증금의 인상: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정년퇴직상의 폐지 → 공로상에 포함
- 징계위원회 위원 추가(회원 1인 → 2인)
- 징계의 처분 절차 구분 → 1차: 징계위원회, 재심: 이사회 또는 간사회

근무평정규칙

- 직무내용에 따른 평정대상의 구분 (간부직/일반직/기능직)
- 평정항목 세분화
- 상호평정도입 근거 마련
- 평정결과 예고제 시행

복무규정

- 결근 처리절차 구체화
- 인수인계시 상급자의 입회 조항 삭제

보수규정

- 정의(제2조) → 연봉: 기본급 + 제수당 / 시간외수당 제외
- 연봉결정(제4조) → 차년도 연봉계약 시 전년도 연봉 및 차년도의 기본급 인상을 및 근무평정결과를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확정
- 연봉지급(제5조) → 연봉: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
- 연봉계산(제6조) → 퇴직시 최저 근무일수 연장 (2일→15일)
- 승진 및 징계시의 보수(제7조) → 승진시: 기본급의 5% 범위내에서 차기년도 연봉에 가산하여 책정, 징계시: 징계일로부터 해당월까지 봉급의 90% 지급
- 제수당(제11조) → · 시간외근무 산정 기준 조정 (근무시간 전후 1시간 제외)
- 연·월차수당 및 가족수당은 연봉에 포함 지급
- 퇴직급여금(제13조) → · 퇴직적금 보조/퇴직금 누진제 폐지
- 퇴직금은 연봉계약만료후 차년도 1월 봉급에 포함 지급
- 제4회의안: 상근부회장 선임 승인의 건

- 임기가 만료된 박경환 부회장 후임으로
윤준섭(58세) 전 건설교통부 도시건축
심의관을 신임 상근부회장에 선임

신임 상근부회장에 윤준섭씨 취임

임기만료 박경환 부회장 후임

지난 3월로 임기가 만료된 박경환 부회장 후임으로 윤준섭(58세) 전 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이 신임 상근부회장에 취임했다.

윤준섭 신임 상근부회장은 충남 논산출신으로 건교부 녹지공원과장과 도시관리과장, 도시건축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윤준섭 신임 상근부회장

서울건축사회, 고건 前 총리 초청 조찬강연회 개최

오는 5월 12일 롯데호텔에서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이세훈)는 오는 5월 12일 서울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고건 전 국무총리 초청 조찬강연회를 개최한다. 고건 전 총리는 이번

조찬강연에서 IMF 경제관리체제로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축문화에 책임지고 있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서울건축사회는 지난해부터 한완상 전 부총리, 조순 전 서울시장, 오명 전 건설교통부장관, 송자 전 명지대 총장 등 사회 저명인사들을 연사로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문의: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건축사예비시험, 5월 10일 홍익대에서 치뤄

오전 10시부터 140분간
건축계획 등 3개과목 시험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가 발표됐다. 올해 예비시험은 오는 5월 10일(일) 홍익대에서 치뤄지며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140분간 연속해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3개 과목으로 모두 객관식 선택형 문제들이 출제된다. 시험장소인 홍익대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하차시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해 있다. 시험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 컴퓨터용 수정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 21일에 마감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8,222명이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지 게시판란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험장소 공고」 참조)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사법 개정 추진

법인 건축사사무소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수행,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앞으로 건축사사무소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입찰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실설계나 감리소홀로 발생된 소비자의 피해는 건축사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건축사등록이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건축사관리 업무는 민간단체인 우리협회가 담당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14일 우리협회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건축사법개정안은 건축설계용역업의 대외개방에 대응하여 설계용역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설계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제모화하는 한편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무 등을 민간에 위탁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개정내용중에는 지금까지 전문감리업체만 할 수 있었던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업무를 건축사 3인, 기술사 1인 이상을 보유한 법인건축사사무소에도 허용해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설계용역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도 자가업무용 사육에 한해 설계할 수 있도록

록 허용해 건설업체의 설계 외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고, 건축시험제도를 개선해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예비시험을 면제해 주므로써 1, 2급 자격 소지자간의 형평성을 꾀하는 한편 최소합격인원 사전예고제의 도입으로 적정

수의 건축사를 배출토록 할 방침이다.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 정 방 안	현 행	개 정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 건축사사무소의 법인설립 요건 미비 - 대표자는 건축사여야 함 - 인적구성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법인사무소나 개인사무소간 업무내용에 차이 없음	- 인적구성 등 법인설립 요건을 정함 - 현행과 같음 - 건축사 3명+기술사 1명 이상 등 -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에 인센티브 부여 -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 수행 등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없음	-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 하지보수 보증 업무 수행 - 설계이행 보증 업무 수행 - 회원에게 대출업무 수행
건축사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건축사사무소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휴·폐업 신고 처리는 시·도지사 업무임	건축사 등록 등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건축사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조정	- 행정처분내용이 과도하고 획일적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기술사법에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건축사법에선 과태료 100만원 또는 업무정지 1년 '공사현장 위해방지' 위반시 위반동기,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영업정지 8월	- 유사자격제도와 형평성을 갖도록 하고, 유연성 부여 -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만 부과토록 함 '시정지시제도'를 도입하여 경미한 사항은 영업정지전 시정기회 부여
일정경력 2급기사에게 건축사예비시험 면제	- 기사 2급자격자는 실무경력이 있어도 건축사예비시험이 면제 안됨 *기사 1급 소지자는 7년 경력이 있으면 예비시험 면제	기사 2급자격자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건축사예비시험 면제
건축사시험에 최소합격인원 사전예고제 도입	건축사시험에서 60점 이상 받아야만 건축사 자격취득	- 최소 합격인원 사전예고제 도입 60점이상 득점자가 미달시 등 인원까지 합격 처리

건축법 개정 추진

용도변경 규제완화,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 간소화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8일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대상도 대폭 축소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건축행정 기반마련을 위한 건축관련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한 건축법개정안을 마련해 곧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건축법개정

안의 주요내용중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건물용도군의 축소조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 ▶대형건축물의 시·도지사 사전승인제도 폐지 ▶도시설계수립지역은 건축사의 확인으로 건축허가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도시설계제도 활성화 ▶법령내용중 기술적·전문적 내용분리 ▶건축제도개선위원회 운영 ▶일조기준의 합리적 개선 ▶도로사선 등 건물높이제한 규정의 합리화 ▶소규모대지 활용방안 강구 등으로 이 가운데는 행정처리 절차는 물론 건축기준이 복잡해 그동안 민원발생의 주요인이 되었던 각종 규제사항들에 대한 개선내용이 포함돼 있다.

설계·감리용역

입찰참가자격제한 철폐 추진

공정위, 관련법령개정 추진과 함께 PQ제 폐지방안도 검토키로

지난 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법상 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 공사설계 및 감리용역의 경우 사전에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상위 몇 개 업체에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도록 돼 있는 PQ제도가 시장경쟁원리상 고도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적격업체 모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우선 현행 설계 및 감리용역 PQ대상이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치 않고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용역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를 과도하게 제한, 담합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설계 및 감리용역이 1단계에서 PQ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의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 대부분이 1단계에서의 PQ점수(70%)와 2단계에서 제시된 입찰가격(30%)만으로 낙찰자를 결정, 결국 중목심사로 인한 행정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입찰자격수 제한을 폐지하는 안과 PQ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만들어 관계부처 의견수렴후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중으로 관계법령을 고쳐 반영할 예정이다.

현상설계공모지침 개선 추진

공공건축사업 설계용역업체
선정과정상의 낭비 최소화

현상설계공모지침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중이다. 지난 4월 19일 조달청은 공공건축사업의 설계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생기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 현행 설계공모방식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현상설계공모방식의 개선을 위해 일선 설계업체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축경기가 크게 위축돼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이에따라 공공건축 설계용역사업에 참가신청을 내는 업체가 크게 늘어나 용역 한건당 많게는 수억원의 설계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또 설계업체의 평가항목 가점기준도 개선해 우수설계용역업체, ISO 9000인증 취득업체에 대한 가산점수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설계관련 가점기준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현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용역금액도 10억원이하의 용역임사인 경우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디자인학회, '98춘계학술세미나 개최

주제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실내디자인 정보구축과 대응'

한국실내디자인학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시부터 포스코센터 서관 4층에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실내디자인 정보구축과 대응'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김포전문대 김국선교수와 동주여자전문대 김재식 교수, (주)ISM 하안수 대표가 참가해 '정보화사회에서의 실내디자인 정보 활용 방안', '실내디자인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 체계화', '하이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실내디자인의 다양한 표현기법'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터/사/랑 5월 답사여행 참가자 모집

서산 개심사 등 전국 유명사찰
답사프로그램 마련

답사여행의 길잡이를 표방해 온 터/사/랑(대표 전숙희)에서는 5월 문화답사 참

가자를 모집한다.

주최측은 5월 한달동안 ▶서울문화유산 바로알기(2)-창덕궁·비원·창경궁·종묘(5월 5일) ▶보림사와 우리 차밭을 찾아서(5월 9일~10일) ▶아름다운 절집 개심사와 백제의 미소를 찾아서(5월 17일) ▶오대산 문수사상과 정선 아라리(5월 23일~24일) 등 일정별로 모두 4회의 답사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참가희망자는 자신의 답사목적이나 시간계획에 맞게 답사코스를 정할 수 있다. 특히 이들 건축답사에는 역사탐방연구회의 염상균, 이세웅씨가 강사로 동행해 전통문화와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문의: 터/사/랑 02-725-1284

<일정별 답사프로그램>

- 5월 5일 / 서울문화유산 바로알기(2)
 - 답사지: 창덕궁, 비원, 창경궁, 종묘
 - 강 사: 염상균
 - 참가비: 1만2천원 (학생 1만원)
- 5월 9일~10일 / 보림사와 우리 차밭을 찾아서
 - 답사지: 장흥보림사, 정음민 묘소, 보성차밭, 장광마을
 - 강 사: 이세웅
 - 참가비: 5만원
- 5월 17일 / 아름다운 절집 개심사와 백제의 미소를 찾아서
 - 답사지: 개심사, 해미읍성, 보원사터, 서산 마애삼존불
 - 강 사: 염상균
 - 참가비: 3만5천원
- 5월 23~24일 / 오대산 문수사상과 정선 아라리
 - 답사지: 상원사, 월정사, 정선아우라지, 청령포(단종 유배지), 장릉, 사자산 범종사
 - 강 사: 염상균
 - 참가비: 5만원

서귀포시,

「'98 칠십리 건축작품」 공모

지역정서 및 문화특성을 상징
건축물 선정, 시상

서귀포시는 지역정서와 문화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축물을 선정, 시상하기 위해 '98칠십리 건축작품을 공모한다.

기간은 5월 20일까지로 서귀포시에 건축돼 사용중인 건축물 가운데 지역특성을 잘 살려 주변경관과 잘 어우러지거나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자격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시공자로 소정양식의 응모원서와 폐널, 작품사진, 축소도면(B4규격 각 3부)을 제출해야 한다.

건축학회

98년도 정기총회 개최

총회전 춘계학술발표회도 열여

대한건축학회(회장 이정덕) 98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5일 아주대학교 올곡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정기총회는 오전 춘계학술발표회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됐다.

특히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이해성(전 한양대 총장)박사가 '전문지식의 변천'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가졌으며 올곡관과 팔달관 두 곳에서 분과별 학술발표가 진행됐다.

건축가 민현식 초청강연회

C3그룹 주최, '땅의 공간-땅의 형국을 추상화하는 작업' 주제로



월간 KA를 축으로한 C3그룹에서는 지난 4월 15일 연세대 공학관에서 건축가 민현식씨를 초청해 '땅의 공간-땅의 형국을 추상화하는 작업'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건축가 만프레디 니콜레티 내한

방한중 강연회와 건축전시회 열여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건축가로 대형건축물 설계분야에서 큰 역량을 보여온 만프레디 니콜레티가 우리나라를 찾았다.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의 주선으로 지난 4월 1일 내한한 만프레디 니콜레티는 방한기간중 지난 4월 7일 서울대 박물관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가진데 이어 서울대 박물관에서 4월 14일까지 건축전시회도 개최했다. 지난 1990년 그리스 정부가 주최한 아테네 '신아크로폴리스 박물관' 현상설계에 당선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그는 현재 사피엔차대학에서 건축디자인 교수로 재직중이

다. 주요작품으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아테네 '신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을 비롯해 프랑스 파리의 '뮤즈 프로젝트', '베니스 트론케토섬 주차터미널', '볼로냐 신중앙역사', '프랑스 자연박물관' 등이 있다. 한편 이번에 서울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만프레디의 독창적인 건축세계를 담은 1백여점의 패널들이 전시됐다.



만프레디와 그의 작품
「Calabria의 타워」



건축학회 정보센터 가동

인터넷주소는 'www. aik. or. kr'

대한건축학회 정보센터가 지난 4월 21일부터 가동됐다. 건축학회의 정보센터 인터넷주소는 'www. aik. or. kr'이며 접속지는 학회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뿐만 아니라 학회회원내 대한 정보검색과 각대학 건축관련학과에 대한 주소록과 논문집, 학회지 등을 본문검색할 수도 있다.

건축학회 대전·충남지부장에 목원대 김정동 교수

임기내에 '지역 건축가이드북' 발간,
'학술상' 제정 의지 밝혀

김정동(목원대 건축학과) 교수가 지난 4

월 4일 대전산업대학교 세미나실에서 열린 건축학회 대전·충남지부 정기총회에서 새 지회장에 선출됐다.

김정동 신임 지회장은 앞으로 대전 정부청사 이전과 더불어 이 지역 건축분야의 발전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임기 내에 '대전·충남지역 건축 가이드 북' 발간과 '학술상' 제정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 '일본을 걷는다'란 저서를 펴냈던 김교수는 현재 목원대에서 산업정보대학원장직을 맡고 있다.

IAI(건축·건설 표준협력체) 한국지부 창립

초대회장에 대우엔지니어링
남정현 대표이사

지난 4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는 AEC관련 인사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건설 표준협력체인 IAI(Industry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 한국지부 창립총회가 열렸다. IAI 한국지부 창립은 그동안 AEC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이 분야의 국제표준을 지정하는데 있어 한국 고유의 건설모델과 프로세스를 반영할 수 있어야만 글로벌화된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부결성을 위해 벌여왔던 활발한 준비작업의 결실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IAI 한국지부가 창립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AEC분야의 표준화 기준을 공유하고 해당분야의 정보를 제한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IAI는 지난 94년에 최초로 구성돼, 97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8개지부 30여개 국가, 55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디자인, 건설, 운영, 유지 등 건물의 생명주기동안 상호 정보교환과 가격, 품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IFC(Indu-

stry Foundation Classes /정보표준)를 공동으로 지정, 여러 소프트웨어의 상호호환성을 극대화하므로 AEC산업체를 통합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대우엔지니어링 남정현 대표이사가 초대회장에, 현대건설 박상문 부장과 성균관대 이승복 교수가 감사위원으로 각각 선출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선출에 앞서 경희대 김인한 교수가 'IAI/IFC Overview 및 해외 기술동향'이란 주제로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의 IFC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서울대학교 홍성목 교수 창립축사와 홍익대 김억교수의 창립경과 발표가 있었다.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개원

오는 5월 29일 서울교사에서
개원식 개최

지난해 12월 전문대학원으로 인가된 경기대 건축대학원이 오는 5월 29일 오후 3시 서울교사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개원식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건축계와 문화계, 학계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해 국내최초로 설립된 건축전문대학원의 탄생을 다함께 축하한다.

특히 이날 개원식을 전후해서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하고 새출발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시작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이문영 아태재단 이사장이 특별강연회를 개최하며, 또 교내 민주광장에서 김운선 무용단과 사물놀이패 '굿태극', 피아니스트 신수정씨의 축하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02-390-5245~6)

도로종합기술연구원 현상설계 당선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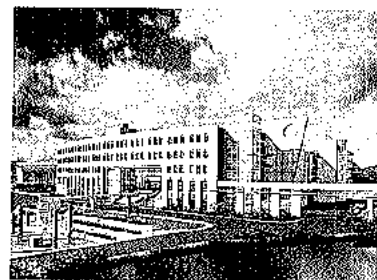
종현건축+코아건축 안,
에이텍건축 안 등 2개안 당선

한국도로공사가 21세기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최첨단 연구기관의 설립을 위해 실시한 도로종합기술연구원 현상설계에서 에이텍건축 안 등 2개안이 당선작에 선정됐다.

도로연구군과 도로기술대학원군 등 2개군으로 구분해 시행된 이번 현상설계경기에는 총 19개 작품이 응모해, 이중 (주)에이텍건축(김상길)안이 도로연구군 당선작에, (주)종현건축(최종철)과 (주)코아건축(전병직) 공동안이 도로기술대학원군 당선작에 각각 뽑혔다. 또 도로연구군군 우수작은 이오영임건축(김성렬)안이, 가작은 (주)무영건축(안길원)안이 차지하였으며 도로기술대학원군에선 (주)무영건축(안길원)안이 우수작에, (주)회림건축(이영희)안이 가작에 각각 선정됐다.

한편 이번 현상설계경기에는 심우갑(서울대 교수), 박영기(연세대 교수), 최찬환(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욱(건교부 건축과장) 등 각계 전문가와 도로공사측 임원 등 총 11인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할 도로종합기술연구원은 대지면적 총 19,200㎡에 지상 4층 규모의 도로기술대학원을 비롯해 도로연구소, 관리후생동, 교육생 숙소, 체육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로기술대학원 조감도(코아건축 안)

건축역사학회

5월 월례발표회

주제는 '부산의 건축'

한국건축역사학회는 오는 5월 16일과 17일 이틀간 부산광역시건축사협회 회관에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부산의 건축'을 주제로한 이번 월례발표회에서는 첫째날인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부경대 김기환 교수와 동명정보대 조승욱 교수가 각각 '부산건축의 시대사적 구분', '문맥과 건축-도시건축 읽기'를 주제로 발표를 하며 5월 17일엔 오전 9시부터 한국예술종합대학 김봉렬 교수의 안내로 복천 고분박물관과 기장학교에 대한 건축답사를 실시한다.

문의: 흥원건축사사무소 홍재동 소장 (051-469-1157)

BATIMAT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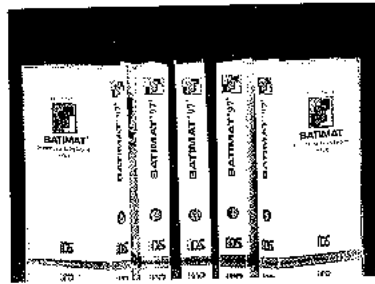
건축박람회 영상자료집 출시

해외 건축자재 신상품 및 신소재 정보 수록

지난해 11월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돼 연인원 7만여명이 관람할 정도로 화제가 됐었던 BATIMAT '97 세계건축자재박람회 영상자료집이 출시됐다. 국제전시회 영상자료 전문업체인 IDS사가 제작한 이 영상자료집은 40분용 비디오테이프 5개로 제작돼 있으며 건축·건설자재 및 기계장비류, 내외벽 자재 및 소재, 바닥재 및 욕실용 자재, 천장 및 지붕재 등 각 건축자재분야별 신상품과 신소재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특히 이 영상자료집에는 각 분야별 추천기업 프로젝트 매니저들의 인터뷰와 설명이 수록돼 있어 시

청자가 제품에 대한 특성과 장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IDS사는 소비자가 15만원이나 정보제공 차원에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면 필요부분만 복사해 주거나 「BATIMAT '97」 관련 디렉토리 및 참가업체 소개자료도 준비배부할 수도 있다.

문의: IDS (02-3141-3530 / 336-6101)



건축사진작가 3인전-

「땅·집·공간」

김재경·윤갑석·황숙정
사진작품 전시

최근 10여년 동안의 우리 건축물들에 대한 기록을 담은 건축사진전이 열렸다.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다동동아갤러리에서는 김재경 윤갑석 황숙정 등 3인 건축사진작가들이 모여 우리의 건축양식과 정서를 담은 자신들의 사진작품세계를 선보였다. 전시주제였던 「땅·집·공간」이 말해주듯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가옥과 절, 사원 등 현존하는 고건축물들을 주로 포커스에 담은 김재경씨의 고건축 사진작품과 건축물 자체보다는 「터」를 강조해온 황숙정씨의 옛집 사진들, 그리고 윤갑석씨의 이국적이면서도 소박한 교회건물 사진작품들이 한 곳에 전시돼 관람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특히 이번 사진전은 기술적으로 각기 소재에 적합한 프린트를 사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과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끼게한 것은 물론 흑백 밀착프린트에 서 컬러사진에 이르기까지 사진의 발달 과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해 관심을 모았다.



윤갑석작 고향의 교회

건축신간

건축정보원

도시건축의 공간창조

주거환경계획

건축만들기 II 「그자집, -자집」

◇ 건축정보원

이 책은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분야의 주요 정보원들에 관한 자료를 담고 있다. 즉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건축분야별 관련기관과 정보의 출처를 정리한 참고도서이다. 이 책은 크게 생활정보, 계획정보, 기술정보편으로 구분돼 있으며 생활정보편에서는 부동산, 행정, 법률, 시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분야의 정보원들에 관한 자료가 수록돼 있다. 또 계획정보편에서는 계획 및 기획일반, 주택, 정책, 표준화, 단지·도시·국토개발, 조정, 교통, 역사, 정보화 및 CAD, 인테리어, 기술자료 등으로 구분돼 있고 기술정보편에서는 환경, 설비, 구조, 시공, 공법, 자재, 건적,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력관리, 장비, 감리, 관리 및 유지보수, 분야로 세분화돼 있다. 특히 이 책은 각 분야별로 자료실과 신문·잡지, 온라인 주소 등이 함께 기술돼 있어 정보수집의 효율적인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기병·주 / 건축캐드넷(02-538-3383)
퍼넬 / 312쪽 / 1만원



◇ 도시건축의 경관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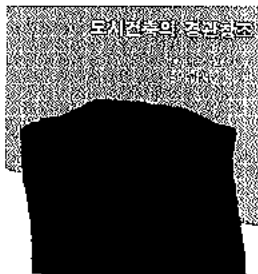
『도시건축의 경관창조』는 일본의 건축·마치나미 경관 연구회가 1992년 작업한 『바람직한 건축·가로경관의 실상연구 보고 - 건축·가로경관의 창조』를 근거로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1편에서는 건축·가로경관의 사정에 대한 논고를 정리하고 있으며, 제2편에는 건축 및 가로경관을 둘러싼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 메이저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도시계획 및 건축의 규제, 유도방법, 도시디자인에 관한 운동전개의 개요, 선진적인 지자체에서의 대처, 특히 건축물의 도시에 대한 공헌의 실상 등을 가로경관의 형성과 공간 디자인 등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3편은 사례편으로 실제작품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디자인 조정 등을 통하여 도시공간에 대한 공헌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어판 서문에서는 일본의 사례와 연구가 한국의 가로경관계획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당부하고 있다.

『건축물』이 건축물의 사용자가 규모에 따라 한정된다면, 『가로공간』은 불특정 다수인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책은 그동안 일본에서 행해져 왔던 도시경관을 계획하고 가꾸는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서 한국의 도시경관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및 상세계획등 단위 지역개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의 시가지 경관에 대한 관심과 고찰의 시작을 알리고, 건축법을 비롯한 관련제도의 정

비는 물론 시민을 비롯한 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노력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건축·마치나미 경관연구회출 / 조용준 외 7인譯 / 기문당(02-295-6171) 펴냄 / 19×26cm / 204쪽 / 1만2천원



권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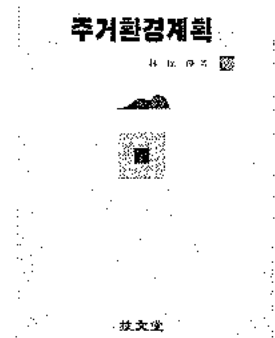
◇ 주거환경계획

『주거환경계획』은 주거건축물의 기획, 계획, 설계, 유지관리, 평가에 걸쳐 건축물 Life Cycle에 따라 중요한 환경요소를 계획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공기, 음환경, 빛환경, 수환경 뿐만 아니라 주거지로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적 환경 및 심리환경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의 구성에 따라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 주거설계의 기본적인 요건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복잡하게 얹혀 있는 환경을 하나하나 주거환경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래 주거생활의 새로운 경향에서 기술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등을 고려한 12가지 주택의 유형을 제시하고 계획의 주요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므로 건축 설계자가 앞으로 주거건축물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와함께 저자는 "편리성이 풍부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사회적인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사회발전이나 과거의 전통, 관습, 현재의 생활과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서도 탐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총합화'는 거주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계획자측에 의해서도 마친가지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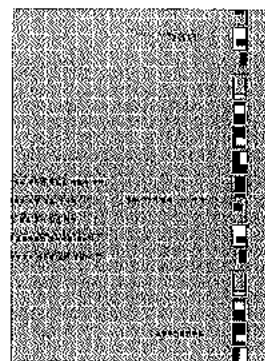
임만택출 / 기문당(02-295-6171) 펴냄 / 160쪽 / 1만2천원



◇ 건축만들기Ⅱ 『자집, -자집』

이 책은 지난해 발간된 『건축만들기Ⅰ '현대의 토속건축'』에 이어 서울 평창동과 일산, 분당에 위치한 건축가 조병수(조병수건축연구소 소장)씨의 주거 프로젝트들에 관한 건축애기를 담고 있다. 전편 건축만들기Ⅰ이 달동네로 불리는 서민 주거지역을 사이트로 해 그 사이트의 형성구조와 주변건물들의 건축적 요소들에서 출발점을 찾았던데 반해 이 책에 소개된 주택들은 일산, 분당 등 자연발생적인 아닌 계획된 주거지역을 사이트로 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집'에 얹힌 작가의 건축적 사유를 엿보게 해준다. 건축가 조병수씨는 평창동 자집과 -자 스튜디오주택, 일산 자집, 분당 -자 중정주택 등 이 책에서 소개된 그의 단순 평면·형태의 집들이 대지와 주변 자연과 관계 맺을 때 던져주는 정서적 감흥, 그러한 지역성과 토착성을 건축을 통해 이어주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실비평연구소(02-376-7775) 발행 / 68쪽 / 1만2천원



'98건축사예비시험 시험장소 공고

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4월 28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시험일자

1998. 5. 10(일)

2. 시험시간

10:00~12:20(140분간 연속 실시)

3. 시험과목

건축구조, 건축사공, 건축계획 - 객관식 선택형

4. 시험장소

시험장소	소재지	교통안내
홍익대학교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 지하철: 홍대입구역(2호선) - 도보 5분 - 일반버스: 103, 118, 129, 131, 132, 139, 588 - 좌석버스: 129-1, 131, 139, 588, 600, 601, 1003 - 공항버스: 601(서교호텔 앞) - 도보 5분

5. 기타사항

- ①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② 응시번호별로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반드시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③ 시험장내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본지 98년 3월호(통권 제347호) 신입회원 명단과 인터넷건축여행, 4월호(통권 제348호) 건축계소식 기사내용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98년 3월호〉

-신입회원 명단중 144쪽 임선택회원의 사무소명이 「건축사사무소 엘더종합」으로 잘못 게재되었기에 이를 「건축사사무소 엘티종합」으로 고칩니다.

-인터넷 건축여행 본문 내용중(139쪽) 천리안 DNS가 165. 194.1.1로 표기된것을 164. 124. 101. 2로 정정합니다.

〈98년 4월호〉

-제16회 공간학생건축전 관련 기사(124쪽) 가운데 심사위원 김원세를 김 현(에다건축 소장)으로 정정합니다.

알립니다.

환원상승에 따른 국내 해외저적 수입업체의 갑작스런 경영난으로 인해 그동안 본지 해외잡지동향란이 잠시 중단된 데 대해 독자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본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다 다양한 해외건축잡지를 입수해 독자여러분께 관련 해외건축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잡지동향」란에 대한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호암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영덕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립

호암고등학교

Ho-Am High School

경기도 교육청은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호암·중앙·영덕공업고등학교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호암고등학교 총 12개 작품, 중앙고등학교 총 15개 작품, 영덕공업고등학교 총 18개 작품이 각각 접수된 가운데 박재승(한양대), 이승복(성균관대), 민창기(평택대), 정인국(대우공업전문대), 문석창(대림전문대), 김대익(안성산업대), 김용승(한양대)씨와 공무원 3명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지난 3월 24일에 발표했다.

당선현황은 다음과 같다.

호암고등학교

당선작 / (주)엠파종합건축(마성호+박주환), 우수작 / 선경종합건축(홍장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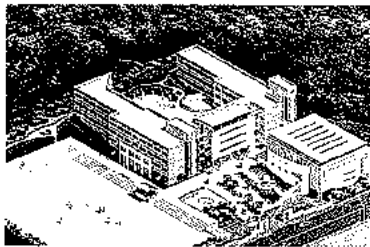
중앙고등학교

당선작 / (주)가향종합건축(조억재+이근규), 우수작 / (주)어반네트(최석원)

영덕공업고등학교

당선작 / (주)삼우종합건축(한상목), 우수작 / 두울건축(김경숙)

▶ 당선작 / (주)엠파종합건축(마성호+박주환)



조감도

대지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26-15번지의 7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7,280㎡

도로현황 15m도로

연면적 8,127.38㎡

건축면적 3,025.71㎡

건폐율 17.51%

용적률 47.0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4층

학급수 36학급

외부마감 적벽돌처장상기+화강석버너구이+합성수지올탈+알루미늄복합패널

주차대수 45대

조경면적 4,823.90㎡

배치계획

- 남북으로는 동적공간(대운동장)과 정적공간(교실군), 동서로는 준동적공간(전면광장/체육관/강당)과 정적공간(교실군)으로 영역 분리
- 동서로 경사대지의 진입축을 따라 공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배치
- 일반교실은 운동장을 전면으로 하는 남향배치를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평면계획

저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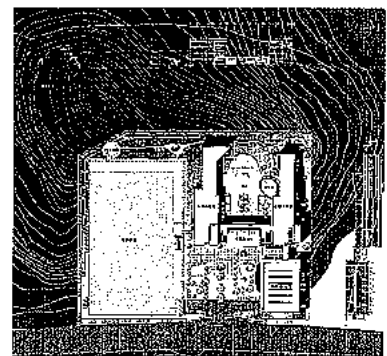
- 관리 및 부대시설을 1층에 설치하여 관리 용이
- 1층 주진입을 필로티로 하여 진입부의 접근을 유도
- 1층 음악실을 Mass의 선율적인 표현

으로 본건물과 차별적 성격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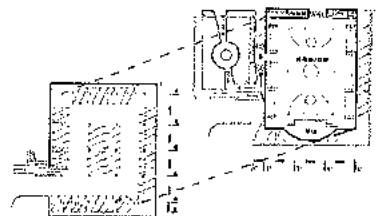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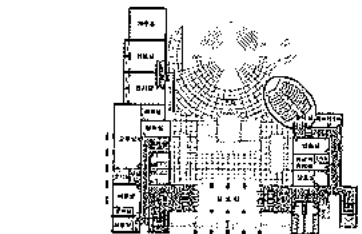
•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체육관하부를 주차장으로 계획, 토지이용 극대화 기준층

• 교사동과 체육관 사이에 연결 통로를 두어 동선의 흐름이 원활

• 각 층당 교실수를 12개로 하여 학년별로 같은 층에 Zoning을 했고 양쪽으로 나누고 가운데 특별교실을 두어 연결축이 되도록 계획하여 동선의 원활함과 동시에 최단화하였고 각 층당 한 학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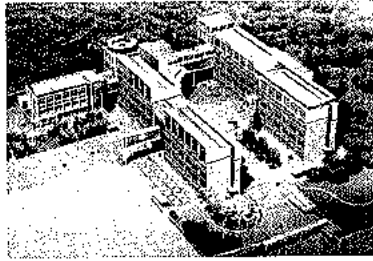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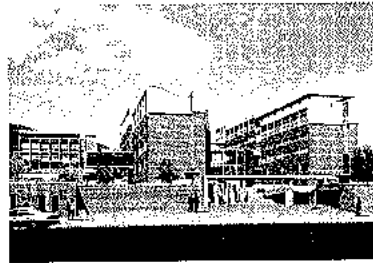


동측면도

▶ 우수작 / 신경종합건축(홍장표)



조감도



투시도

건축면적 1,766.41㎡

연면적 8,279.14㎡

건폐율 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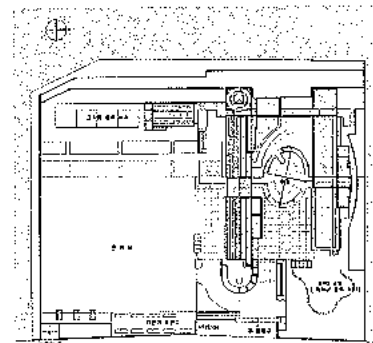
용적률 47.91%

시설규모 지상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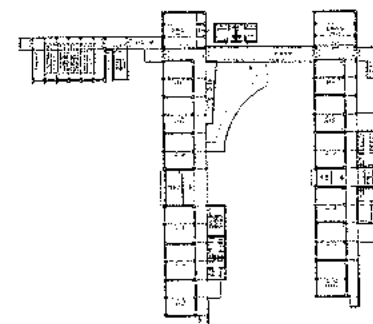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요 마감 붉은벽돌치장쌓기+수성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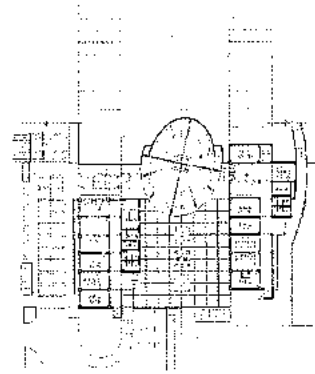
주차계획 법정 - 42대, 실제 - 60대



배치도



4,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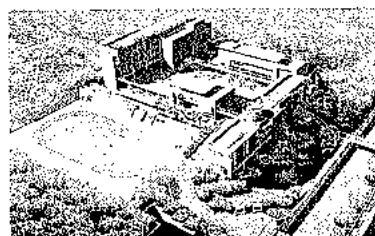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교실의 정남향배치
- 지형을 이용한 계단식 배치 - 최소한의 절토 및 성토
- 고속화도로(서측)면에는 소음 발생으로 인해 특별교실군으로 배치
- 열린공간 - 다양한 공간 및 시설계획
- 학교 운영 관리의 효율성 - 각 시설간의 기능 및 동선체계 확보
- 미래의 다양한 수업형태 대응 - 가변성 있는 공간 구성
- 지역사회와의 연계 -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고려
- 장래증축 - 장래 체육관 신축 및 교사동 증축을 고려
- 교직원들의 편의 - 휴게 및 연구공간 고려
- 환경의 질적향상 - 열, 빛, 음환경 개선

중앙고등학교

Jung-Ang High School

▶ 당선작 / (주)가향종합건축(조익재 +이근규)



조감도

대지위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7-1번

지외 9필지

대지면적 16,953.1㎡

건축면적 3,018.50㎡

연면적 8,255.35㎡

건폐율 17.80%

용적률 46.78%

규모 고학년동 - 지상 4층

저학년동 - 지상 2층

관리동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난방방식 온수난방

외부마감 벽돌미감+수성페인트+T16 패 어글라스

외부시설 중정/야외학습장, 야외휴식공간, 운동장, 외부주차장, 파고라

주차대수 옥의 42대(운동장하부 40대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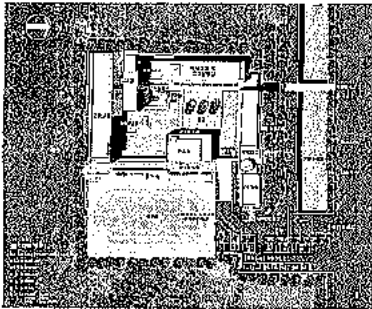
설계 양희명, 유재근, 이광희, 윤용임

대지 상황에 따른 배치 계획으로는 15m 전면 도로로부터 자연스레 펼쳐진 대지의 고저차와 수공간의 조화속에 도시의 축과 향축을 기본축으로 하여 저학년 및 고학년의 교실 동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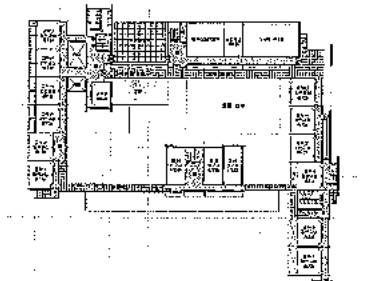
외부공간의 개념으로는 완만한 경사지라는 부지 특성상 진입부에 전정을 두었으며, 회랑개념이 도입된 중정, 수공간이 포함된 후정을 전통 공간 개념에서 도입 이 용자들의 편의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여유스러움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 절, 성토량의 균형적 사용 및 기존의 자연림을 이용하여 도로의 소음을 차단하는 Buffur Zone 및 휴게 공간과 산책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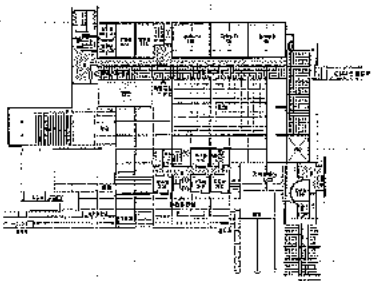
또한 추후 기능 요구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지역 주민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해 체육관을 진입로 동측에 증축계획 하였으며, 교사동은 각 교실동의 수직적 증축과 예비 Space의 융통성을 두어 수평적 증축을 고려하여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유도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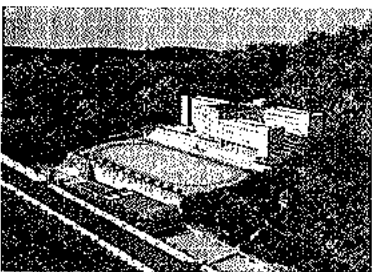


중정레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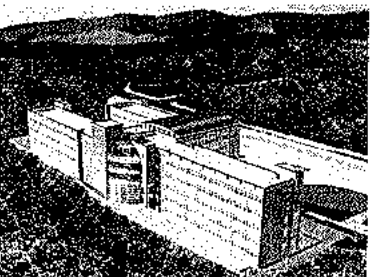


저학년동 정면도

▶ 우수작 / 어반네트(최석원)



조감도



투시도

도로현황 전면도로 24m

연면적 8,234.8㎡

건축면적 2,236.1㎡

건폐율 13.2%

용적률 48.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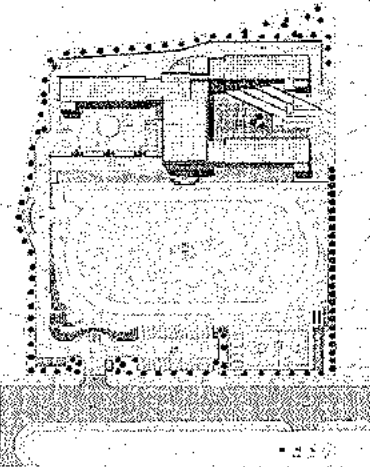
주요장재료 치장벽돌 및 석재 뿔칠재

층수 지하1층/지상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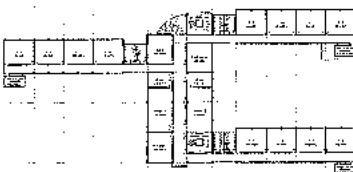
주차대수 34대(법정: 28대)

조경면적 3,550.3㎡(1,097.3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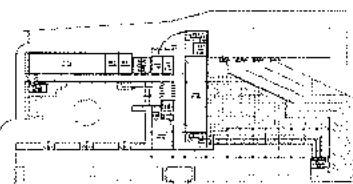
이 계획은 획일화된 교육시설을 탈피하고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는 가변성과 적응성(Flexibility & Adaptability),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부응하는 다양한 환경 및 조경공간의 확보, 명확한 동선 체계를 유도하는 교육공간의 분리,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패시브 시스템(Passive System)의 고려 등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배치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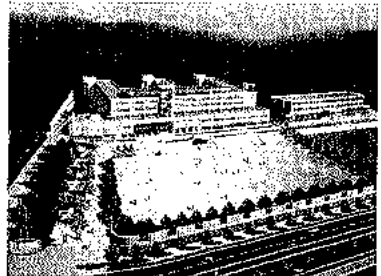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영덕공업고등학교

Young-Duk Industrial High School

▶ 당선작 / (주)삼우종합건축(한상묵)



조감도



투시도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지구 49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대지면적 18,710㎡(5,657평)

건축면적 5,058㎡(1,530평)

연면적 18,459㎡

건폐율 27.0%

용적률 98.7%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적벽돌, 복층유리

주차대수 옥내 63대, 옥외 7대

• 미래지향적 설계

-미래산업사회를 준비하는 첨단교육시설 지향

-밀도있는 실습교육을 위한 실용적 건물 계획

-지역사회에 개방된 문화적 중심체

• 학생중심의 공간

-일조와 조망을 고려한 남향 배치

-실습동과 일반교실동의 계열화된 구성

-충분한 녹지와 오픈스페이스 확보

• 경제성·환경우선의 계획

-남향배치 및 서측루버 설치로 에너지

절약 극대화

-지하공간의 적극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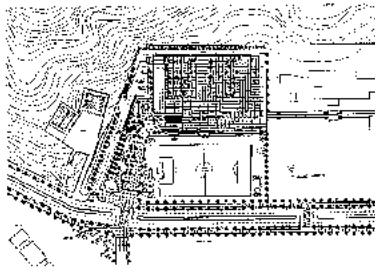
-주변환경과의 조화

• 전통건축사상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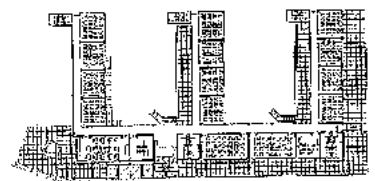
-중정: 내외부 공간의 자연스러운 전이

-회랑: 중성적 공간을 통한 유기적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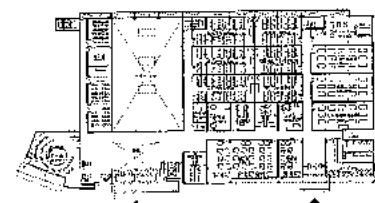
-치경: 외부공간의 확장 및 연속성 추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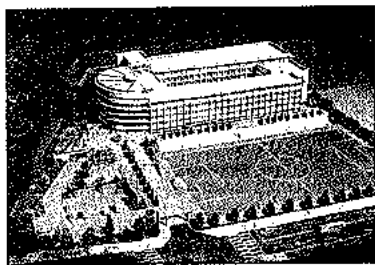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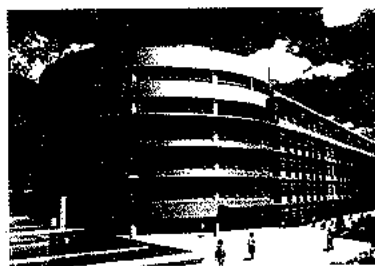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우수작 / 두울건축(김정숙)



조감도



투시도

건축면적 3,401.48㎡(1,028.95평)

연면적 지상-16,572.29㎡(5,013.12평)

지하-1,635.13㎡(494.63평)

합계-18,207.42㎡(5,507.74평)

건폐율 18.2%

용적률 88.6%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옥외: 41대, 옥내: 48대

합계: 89대(법정: 84대)

조경면적 3,553.19㎡(법정: 2,805.15㎡)

이상-대지면적의 15%)

• 지형의 고저차 및 형태를 이용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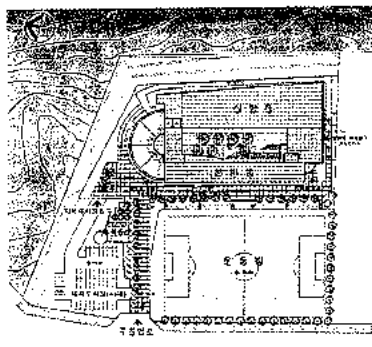
• 협소한 부지내에서 본관동과 실험동의 집약적인 배치로 가능한 체육시설 및 Open Space 확보

-각용도의 시설들은 각각의 독립된 기능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연결관계를 갖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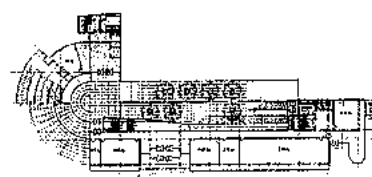
• 축과 향 및 조망을 최대한 고려한 배치

-인접한 절에서의 조망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건물 배치를 지향하므로 민원발생 소지를 없앴(진입로 및 휴식공간으로 계획).

-향의 문제는 대지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서향으로 배치하고 수평 수직 루바의 설치를 통해 빛을 차단한 배치



배치도



1층 평면도

부산광역시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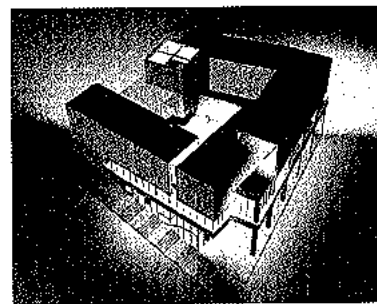
Pusan Independence Memorial Hall

부산시 종합건설본부는 부산 지역 독립운동사의 산 교육장이 될 부산 광복기념관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총 9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토원건축(정연근)안, 우수작에 시반건축(안성호)안과 한솔건축(이상일) + 김기환(부경대)안을 각각 선정, 그 결과를 지난 2월 12일에 발표했다. 이날 심사관계자들은 토원건축안을 구조적으로 가능성이 높고, 외관적 조형성이 단순 명쾌하다고 평하였다.

▶ 당선작 / 토원건축(정연근)



투시도



투시도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2가 99-11

지역지구 자연 녹지지역, 공원지구

대지면적 917.4㎡(278평)

중앙공원(5,038,933㎡)

건축면적 346.7㎡(105평)

연면적 1,037.6㎡(313.8평)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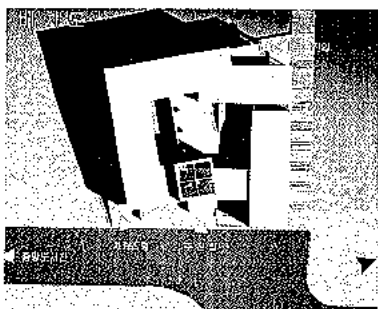
주차대수 7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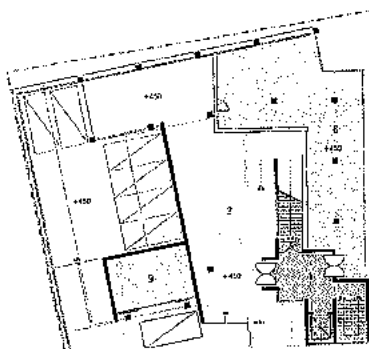
외부마감 제물처장 노출 콘크리트

광복기념관은 부산의 시가지를 동서로 나누는 산출기의 고개마루에 위치한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민주공원과 충혼탑의 중간이다. 대지는 서쪽으로 경사져 있고, 전시, 홍보(교육), 사무가 그 주된 활용방향이다. 공간별 규모는 각 60~80평 정도로 그리 크지않다. 공원법에 의한 볼륨의 제약(지하1층 지상2층)과 협소한 대지의 여유는 계획방향을 한정했다.

이러한 여건은 공중을 휘어감는 튜브가 전시관과 기념비의 양면을 모두 수용하는데 크게 제약하는 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히려 주변의 개방성이나 경사면은 기능적인 튜브를 그 이상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마루턱 정산부 도로에서 접근할 때 화려한 기념물들 사이에서 소박한 하나의 조각물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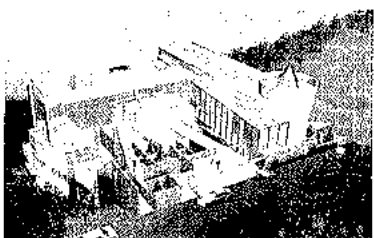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 우수작 I / 시반건축(안성호)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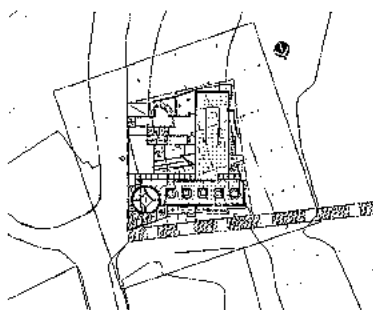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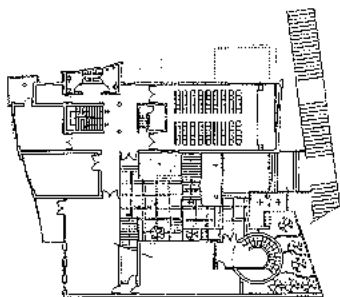
건축면적 537.88㎡(162.71평)
연면적 919.20㎡(278.07평)
총별면적 지하2층/107.75㎡(51.65평)
지상1층/393.55㎡(119.05평)
지상2층/354.88㎡(107.35평)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외부마감 시멘트 뿔철, 알루미늄 복합패널
설계담당 공부성, 조기원, 홍진의

대지의 깊이가 비교적 얇아 진입도로에서의 시각적 압박감을 덜어 주고자, 지상2층을 진입레벨로 하고 진입구를 위로 올려 건물을 가능한 한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경사지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한 수법은 중정과 피로티다. 중정은 지형의 보존과 함께 기능에 따른 동선을 처리하고 환경조건을 개선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수용은 진입레벨에 전시기능을 두고, 중정레벨에 교육기능을, 지하층에 사무기능을 나누어 두는 것이 앞으로의 쓰임새에 적응하기 쉬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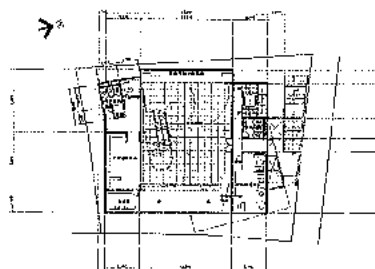
▶ 우수작 II / 이상일(한솔건축), 김기환(부경대)



모형도

건축면적 489.72㎡
연면적 847.0㎡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회강석 버너구이

부산광복기념관은 상징성을 요하는 건물이다. 그러나 이층정도의 건물이 형태상의 상징성을 갖기는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가급적 단순한 형태를 만들고 내부에서 상징성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기로 방향을 정하였다. 피로티를 통해 들어온 1층 광복광장에는 전면을 커다란 부조로 장식한 벽으로 시야를 차단하여 공간적 단절감을 유도하였다. 폐쇄감으로 외부공간과 감정의 변환을 유도하려는 시도였다. 이층에 전시실을 회랑의 형식으로 둘러 광복광장을 둘러싸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노출된 계단을 통해 이층으로 오르면 비로소 뒤편 산 아래 도시가 눈에 들어온다. 막혔던 공간을 일시에 열어 놓아 열리는 감정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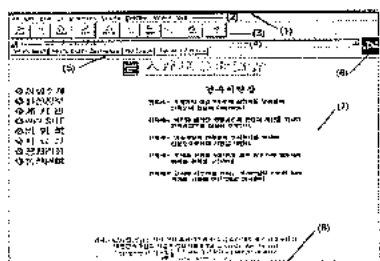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법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네스케이프사의 네스케이프 네비게이터로 양분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우리가 쉽게 주위에서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하기에도 비교적 쉬운 프로그램중의 하나이다. 이 중 먼저 네스케이프 네비게이터의 화면 구조 및 메뉴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절 네스케이프 화면 구조

네스케이프의 화면구조는 크게 8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네스케이프 3.0 화면 구성

1. 타이틀바(Title Bar)

일반적인 MS-Windows 프로그램과 같은 역할을 한다. 타이틀바는 현재 읽힌 Page의 제목을 나타내며, 현재 자신이

읽고 있는 Page가 어떤 것과 관련한 Page인지 명확하게 나타내준다(Page란 앞서 설명했다시피 Web Server에 제공하는 문서를 칭하는 것으로 HTML로 작성된 문서이며, 특히 Website에 접속해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문서를 Homepage라고 한다. 위의 그림은 대한건축사협회 Homepage 화면이다).

2. 메뉴바(Menu Bar)

네스케이프의 기능을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명령어의 묶음이다.

3. 툴바(Tool Bar)

네스케이프의 메뉴들중에서 특히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를 사용하기 쉽도록 따로 모아서 구성한 아이콘화한 버튼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툴바만을 가지고 사용해도 충분히 네스케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4. 로케이션바(Location Bar) 또는 로케이션 필드(Location Field)

"Location:" 이라고 바의 오른쪽에 있는 입력창이 로케이션 필드이며, 현재 사용자가 읽고 있는 페이지의 주소(URL)를 보여준다. 새로운 사이트의 URL를 그 입력창에서 입력하면 "Location" 부분이 "Go to"로 바뀌며, 사용자가 입력한 URL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기능은 제 2 절에서 배울 "Open" 명령어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5. 디렉토리 버튼(Directory Buttons)

이 디렉토리 버튼은 네스케이프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페이지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6. 네스케이프 버튼(Netscape Buttons)

이 네스케이프 버튼은 두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 기능은 그 버튼이 애니메이션 상태에 따라서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며(즉, 연결중일때는 별뿔이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남), 두 번째 기능은

그 버튼은 누르면 URL을 이용할 필요없이 바로 네스케이프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하이퍼링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7. 주화면(Content Area)

읽어들인 페이지의 내용이 표시된다. 다른 문서와 연결되는 링크들은 밑줄과 함께 홈페이지 제작자가 의도한 색깔이 같이 표시되며, 그곳으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면 포인터에서 손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표시된 내용은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어 복사, 검사, 저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8. 상태표시바(Status Bar)

화면의 가장 밑에 있는 표시영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것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보안표시자: 왼쪽에 보이는 열쇠모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의 보안표시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현재의 연결이 특별히 보안할 정도의 문서가 아니면 끊어진 열쇠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사용자에 의해서 지정된다).

나. 문서상태표시바: 왼쪽에서 두 번째의 표시영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접속중인 Site의 URL 또는 WWW문서를 읽는 상태를 표시하면 영역이다. 페이지를 모두 읽었을 때에는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하이퍼링크된 곳의 URL이나 WWW문서를 가리키게 된다.

다. 로드바(상태진행 바): 왼쪽에서 세 번째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현재 자신이 읽고 있는 페이지의 로드작업의 진행정도를 표시하는 영역이다.

라. 네스케이프 메일: 가장 오른쪽에 있는 편지봉투 모양의 아이콘을 말하며, 이것을 마우스 포인터로 클릭하면 네스케이프 메일상자가 나타나게 된다.

제 2 절 네스케이프 메뉴구성

1. File 메뉴

가. New Web Browser

새로운 네스케이프의 창을 생성한다. 여러 문서의 내용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그러나 사용자의 컴퓨터가 성능이 떨어지거나 메모리(RAM)의 용량이 적다면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최소한 펜티엄급에 메모리(RAM)가 16MB이상인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New Mail Message(Ctrl + N)

전자우편 화면을 열고 전자메일을 보내고자 할 때 사용한다.

다. Mail Document(Ctrl + M)

전자우편 송신 화면을 열고 현재 보여지는 문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때 제목과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라. Open File(Ctrl + O)

디스크상에 있는 파일을 읽어들이기 때 사용한다. HTML파일 또는 일반 텍스트파일도 불러올 수 있으며, 기타 그림파일들도 불러올 수가 있다. 주로 기존에 자신이 저장했던 HTML 파일이나 사용자가 작성한 HTML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홈페이지 만들기 할 때도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마. Save As...(Ctrl + S)

네스케이프의 주화면에 있는 내용을 자신은 FDD나 HDD에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자신이 저장되는 파일의 형태를 텍스트나 HTML파일 형태 등 임의로 저장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저장되는 것은 그림파일이 아니라 텍스트만이 저장된다.

바. Page Setup

프린터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출력하고자 하는 문서의 형태를 지정한다. 이것은 한글(HWP)에서 "편집용지"에서 여백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네스케이프에서는 자동적으로 문서에 맞추어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지정해 줄 필요가 없다.

사. Print

현재 보여지는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툴바에서의 프린트 아이콘과 같은 기능이다(현재 문서를 그대로 프린트할 수 있으며, 화면에 맞추어 이미지파일도 출력된다. 그러나 바탕화면이나 색은 출력되지 않는다).

아. Close

현재 사용자가 쓰고 있는 네스케이프 화면을 닫는다. 만약에 자신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멀티플하게 네스케이프 화면을 사용하고 있다면 현재 화면만 닫히게 되고, 그냥 하나의 네스케이프 창을 사용하고 있다면 밑에서 설명할 "EXIT"와 같은 기능을 한다.

자. Exit

네스케이프를 종료한다.

2. Edit 메뉴

가. Undo(Ctrl + Z): 작업취소

가장 최근에 수행한 작업을 취소시키고 원상태로 돌아가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것은 바로 전까지의 화면이나 문서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작업이 이미 수행되었다면(예, 키보드리드 하나 눌렀다면) 실행되지 않는다.

나. Cut(Ctrl + X): 오려두기

현재 선택된 내용을 없애고 그 내용을 Windows의 클립보드로 복사한다. 주로 로케이션바에서 많이 사용된다.

다. Copy(Ctrl + C): 복사하기

현재 선택된 내용을 Windows의 클립보드로 복사한다. 이것은 오려두기와는 다르게 선택된 내용이 없어지지 않는다.

라. Paste(Ctrl + V): 붙이기

Cut이나 Copy를 이용해서 클립보드에 복사해 둔 내용을 현재 선택표시가 있는 곳으로 복사한다. 로케이션 필드에서 주로 사용된다.

마. Select All(Ctrl + A): 선택

현재 보여지는 문서의 모든 내용을 선택한다. 문서의 내용을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복사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즉 문서를 HTML파일로 저장하지 않고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 Find(Ctrl + F): 찾기

현재 보여지는 문서에서 특정한 문자열을 검색한다. 내용이 많은 문서에서 특정한 단어나 내용을 찾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 툴바에서 Find 아이콘과 같은 기능을 한다.

3. View

가. Reload(Ctrl + R): 재실행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를 다시 로드한다. 가장 최신의 페이지가 읽히게 된다. 페이지를 로드하는 중에 중단시킨 경우에 다시 그 페이지를 로드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툴바에서의 Reload 아이콘과 같은 기능을 한다.

나. Reload Cell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을 다시 로드한다. 여기서 프레임이란 주화면을 여러개의 부분(Page)으로 나누어서 이용하는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마우스 포인터가 지정한 화면만을 다시 읽어들이는 기능을 말한다.

다. Load Images(Ctrl + I)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에 포함된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는 페이지가 로드될 때 이미지화일도 같이 불러지나 이미지를 "Auto Load Images"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라면 페이지를 로드하는 속력이 빨라지나 이미지파일을 불러지지 않는다. 이 경우 이미지를 보고자 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 툴바에서의 "Images" 아이콘과 같은 기능을 한다.

라. Refresh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한다. 즉 Reload처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다시 페이지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Site와의 연결없이 이미 불러와진 페이지를 읽어들이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Refresh시킬 파일들은

캐쉬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마. Document Source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의 HTML 소스를 보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때 소스는 별도의 창을 통해서 불러와지게 되며 보여지는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Cut이나 Copy를 이용하여 메모장 등으로의 복사는 가능하다.

4. Go 메뉴

가. Back(Alt + <): 전화면

네스케이프의 주요 기능중에 하나가 네스케이프를 실행시키면 종로시가지 다녀간 곳을 기억하는 것이다. Back 명령은 사용자가 지금까지 돌아본 곳을 가장 최근의 것부터 다시 되돌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History 목록에서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의 바로 앞 페이지를 보여주는 기능이다. 툴바의 "Back" 아이콘과 같은 기능을 한다.

History 목록이란 네스케이프를 실행시킨 후에 접속되었던 페이지들에 대한 참조목록을 말한다.

나. Forward(Alt + >): 앞화면

History 목록에서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의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여준다. 툴바의 "Forward" 아이콘과 같은 기능을 한다.

다. Home: 홈페이지로

네스케이프의 Default로 지정해준 URL로 이동한다. 툴바의 "Home"과 같은 기능을 한다.

라. Stop Loading(Esc): 실행중지

새로운 페이지를 로드하는 도중에 로드작업을 중지시킬 때 사용한다. 툴바의 "Stop"과 같은 기능을 한다.

5. Bookmarks 메뉴

이것은 일종의 책갈피를 말하는 것으로 네스케이프상에서의 항해일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사용자가 나중에 다시 들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용자가 URL을 기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물론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사용자가 필요한 URL이 한두개가 아니라 여

러개일 경우에 그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주 가는 URL이나 Site를 남겨놓게 된다면 아주 쉽게 그곳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네스케이프에서의 Bookmark기능이다.

가. Add Bookmark(Ctrl + D): 북마크 추가

현재 보여지는 페이지를 북마크의 목록에 추가하는 기능이다.

나. Go Bookmark(Ctrl + B): 북마크로 가기

북마크 목록 관리화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메뉴중에서 Window 메뉴로 가는 기능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8. Window 메뉴에서 서술한다.

6. Options 메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네스케이프 사용자가 신경써서 봐야 할 부분이다. 네스케이프를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쓰고자 한다면 이 메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가. General Preferences

1) Appearance

여기에는 Toolbar, Startup, Link Style등의 세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가) 툴바: 툴바는 버튼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Picture, Text, Picture and Text로 되어있다. 이것은 처음에 페이지를 열 때 과연 어떤 형식으로 읽어들이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Picture and Text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텍스트문서만 읽고 싶으면 Text만, 그림만 읽고 싶으면 Picture만 선택하면 된다.

나) 스타일: 이것은 맨처음 네스케이프를 실행시킬 때 과연 어떤 것을 먼저 실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먼저 가고 싶은 URL을 정해줄 수가 있다.

다) 링크 스타일: 이것은 하이퍼링크된 것을 어떻게 지정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Expire"는 사용자가 방문했던 페이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Never를 선택하면 그 흔적이 계속 남게 되고, "Expire After 수치"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표시가 사라지게 된다.

라) Fonts

이것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화면에 쓰여진 글자체를 바꾸어 주고자 할 때 사용된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정해주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글자체로 잡히게 된다.

마) Color

이것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화면에 쓰여진 색깔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 사용된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정해주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색깔로 잡히게 된다.

바) Images

이것은 페이지를 읽어들이는 때 이미지 파일을 읽어들이는 방식을 나타낸다. 이도 역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사) Apps

이것은 네스케이프에 연결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것이다. 첫 번째 Telnet은 Telnet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 TN3270은 IBM과 같은 대형기종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냥 Blank로 남겨둔다). 세 번째 View Source는 페이지 소스를 보고자 할 때 어떤 응용프로그램을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택이 안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네스케이프의 다른 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히 지정해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정해 주고자 한다면 Windows에 있는 메모장이나 워드퍼드를 지정해 주면 된다.

아) Helpers

이것은 네스케이프의 플러그 인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등

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것은 네스케이프의 내부에서 자체 지원해주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외부에서 따로 동작하도록 도와주는 응용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것으로, 소리나 음성같은 오디오 파일이나 동영상, 무비파일등과 같은 비디오 파일, 압축파일, 한글파일 등을 읽어들이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자) Language

이것은 네스케이프에서 지원하는 언어들을 묶어 놓은 것으로, 세계 여러 곳을 접속하다 보면 글자들이 깨어지거나 이상한 문자(Ascii)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네스케이프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Accept List에 사용자가 자주가는 언어들을 등록시켜 놓으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차) Mail and News Preferences

이것은 제 3 장에서 따로 다루도록 한다.

나. Network Preferences

이 옵션은 네스케이프의 캐쉬와 Proxy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다. 다른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원래의 형태로 놔두는 것이 좋고, 캐쉬와 Proxy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

1) Cache: 캐쉬는 일반적으로 메모리 캐쉬와 디스크 캐쉬가 있는데 메모리 캐쉬는 현재 읽어들이는 페이지에 있어서 사용되는 메모리를 메인 메모리 캐쉬에 저장하는 것이고, 디스크 캐쉬는 현재 읽어들이는 페이지를 디스크에 자동저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2) Proxies: 프록시란 각 통신 서비스마다 인터넷에 좀더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각 통신 서비스의 고유의 도메인 네임과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프록시를 지원하지 않는 페이지가 있으므로 아점 유념해서 사용해야 한다.

다. Security Preferences

이 옵션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정보들에 대한 보안을 설정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이다. 일반 사용자들은 특별한 보안이 없으므로 이 항목은 초기에 설정된 값 그대로 놓는 것이 좋다.

라. Show Toolbar

네스케이프 화면에서 툴바를 보여줄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앞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으면 네스케이프 화면에 툴바를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마. Show location

로케이션바를 보여줄 것인지 아닌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바. Show Directory Button

디렉토리 버튼을 보여줄 것인지 아닌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사. Show Java Console

자바 스크립터를 지원하는 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자바 언어의 유형을 보여줄 것인지 아닌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7. Directory 메뉴

가. Netscape's Home

네스케이프사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서비스를 메뉴로 직접 접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항상 새롭게 변하는 네스케이프사의 메뉴를 보고자 할 때는 이것을 선택하면 된다. 즉 네스케이프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다.

나. What's New?

네스케이프사에서 제공하는 읽을 거리를 볼 수 있다. 읽을 거리와 더불어 다른 홈페이지와의 링크도 제공해 준다.

다. What's Cool

새롭게 등장한 홈페이지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새롭게 개설된 홈페이지들중에서 인기가 있는 홈페이지들을 먼저 접할 수 있다.

라. Customer Showcase

→ Netscape Galleria

네스케이프 홈페이지의 제작 사례 및 네스케이프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

프트웨어를 소개하고 있다.

네스케이프사에서 만든 네스케이프 서버를 이용해서 구축된 WWW Site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접속된다.

마. Netscape Destination

→ Internet Search (변경)

네스케이프사에서 미리 선정해 놓은 홈페이지들을 둘러볼 수 있다.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WWW Site를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nfoSeek, Lycos 등과 같은 Site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접속된다.

바. Internet Directory

Yahoo등과 같이 WWW Site 들의 목록을 제공하는 Site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접속된다.

사. People → Internet White Page (변경)

네스케이프사에서 구축해 놓은 인물 DB이다.

아. About the Internet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8. Window 메뉴

가. Netscape Mail

전자우편 관리 화면을 보여준다(제3장에서 다룬다).

나. Netscape News

뉴스화면을 보여준다. 즉 뉴스그룹에 가입이 된 경우 그곳으로 부터 오는 각종 News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 Address Book

전자우편 주소록을 보여준다.

라. Bookmarks

북마크 관리화면을 보여준다.

마. History

네스케이프가 실행된 이후에 접속되었던 Site의 목록을 보여준다. Go메뉴의 History 목록과 같은 기능이다.

설계도서신고현황

98년도 3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3월분 1천2백4만7천5백24㎡ 보다 54.6%(6백5십7만2천2백13㎡) 감소한 5백4십7만5천3백11㎡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3월분 2천7백2십4만7천8백85㎡ 보다 33.3%(9백6만5천3백24㎡) 감소한 1천8백1십8만2천5백61㎡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2월분 5백7십7만5천4백40㎡보다 5.2%(3십만1백29㎡) 감소한 5백4십7만5천3백11㎡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7년도	1998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대 전	139,756	166,650	26,894	19.2%
울 산	-	36,395	36,395	-
전 북	164,894	165,114	220	0.1%
감소지역				
서 울	4,981,282	3,125,486	(1,855,796)	-37.3%
부 산	1,654,405	255,947	(1,398,458)	-84.5%
대 구	694,023	53,357	(640,666)	-92.3%
인 천	510,964	225,374	(285,590)	-55.9%
광 주	93,618	49,169	(44,449)	-47.5%
경 기	1,454,575	693,686	(760,889)	-52.3%
강 원	198,785	138,551	(60,234)	-30.3%
충 북	430,304	118,297	(312,007)	-72.5%
충 남	208,251	133,938	(74,313)	-35.7%
전 남	111,781	52,923	(58,858)	-52.7%
경 북	192,886	73,908	(118,978)	-61.7%
경 남	1,155,111	161,749	(993,362)	-86.0%
제 주	56,889	24,767	(32,122)	-56.5%
합 계	12,047,524	5,475,311	(6,572,213)	-54.6%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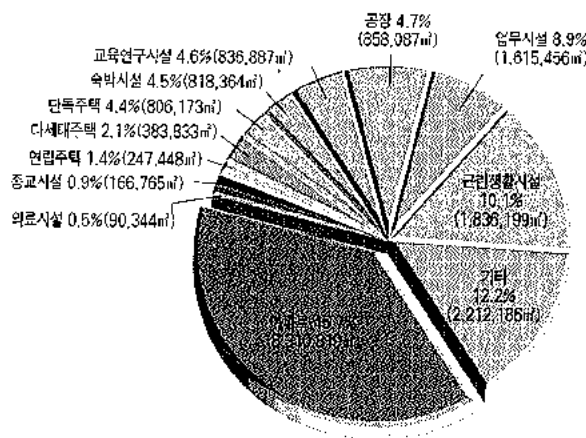
(용도)

단 독 주 택	194,793 187,024 (-4.0%)	
다 세 대 주 택	63,521 107,303 (68.9%)	
연 립 주 택	81,217 89,779 (10.5%)	
아 파 트		2,969,444 2,662,677 (-10.3%)
근린생활시설	468,335 540,500 (15.4%)	
종 교 시 설	20,548 83,330 (305.5%)	2월
의 료 시 설	48,459 24,321 (-49.8%)	3월
교육연구시설	387,207 228,499 (-41.0%)	연면적 합계/ 2월 : 5,775,440㎡ 2월 : 5,475,311㎡ (-5.2%)
업 무 시 설	575,918 579,445 (0.6%)	
숙 박 시 설	103,425 40,835 (-60.5%)	
공 장	299,574 251,167 (-16.2%)	
기 타	562,999 680,431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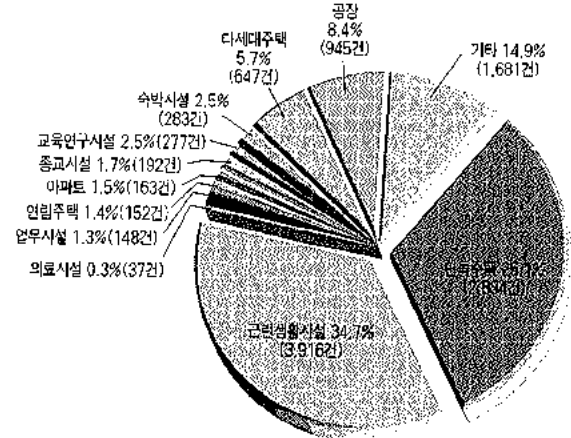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3월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3,144	3,232	922,591	744	778	187,024	(2,400)	(2,454)	(735,567)	-79.7	
다 세 대 주 택	424	439	243,638	163	174	107,303	(261)	(265)	(136,335)	-56.0	
연 립 주 택	107	123	149,378	53	53	89,779	(54)	(70)	(59,599)	-39.9	
아 파 트	125	293	4,602,355	65	178	2,662,677	(60)	(115)	(1,939,678)	-42.1	
근린생활시설	3,295	3,390	1,534,606	1,227	1,273	540,500	(2,068)	(2,117)	(994,106)	-64.8	
종 교 시 설	97	115	150,080	82	93	83,330	(15)	(22)	(66,750)	-44.5	
의 료 시 설	33	36	81,070	10	11	24,321	(23)	(25)	(56,749)	-70.0	
교육연구시설	94	100	345,925	77	86	228,499	(17)	(14)	(117,426)	-33.9	
업 무 시 설	103	104	537,031	49	50	579,445	(54)	(54)	42,414	7.9	
숙 박 시 설	183	182	436,807	60	63	40,835	(123)	(119)	(395,972)	-90.7	
공 장	619	817	790,280	250	323	251,167	(369)	(494)	(539,113)	-68.2	
기 타	871	990	2,253,763	488	560	680,431	(383)	(430)	(1,573,332)	-69.8	
합 계	9,095	9,821	12,047,524	3,268	3,642	5,475,311	(5,827)	(6,179)	(6,572,213)	-54.6	(-) =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8년 3월분)



연면적 (총 18,182,561㎡)



건수 (총 11,275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3월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401	1,407	4,981,282	718	728	3,125,486	(683)	(679)	(1,855,796)	-37.3	
부산	402	646	1,654,405	102	212	255,947	(300)	(434)	(1,398,458)	-84.5	
대구	579	579	694,023	99	99	53,357	(480)	(480)	(640,666)	-92.3	
인천	260	260	510,964	265	266	225,374	5	6	(285,590)	-55.9	
광주	162	199	93,618	69	87	49,169	(93)	(112)	(44,449)	-47.5	
대전	304	305	139,756	95	95	166,650	(209)	(210)	26,894	19.2	
울산	0	0	0	51	52	36,395	51	52	36,395	-	
경기	2,008	2,251	1,454,575	613	727	693,686	(1,395)	(1,524)	(760,889)	-52.3	
강원	566	588	198,785	184	211	138,551	(382)	(377)	(60,234)	-30.3	
충북	568	648	430,304	189	220	118,297	(379)	(428)	(312,007)	-72.5	
충남	401	297	208,251	190	170	133,938	(211)	(127)	(74,313)	-35.7	
전북	241	241	164,894	107	107	165,114	(134)	(134)	220	0.1	
전남	327	343	111,781	125	135	62,923	(202)	(208)	(58,858)	-52.7	
경북	479	510	192,886	164	189	73,908	(315)	(321)	(118,978)	-61.7	
경남	1,238	1,378	1,155,111	230	274	161,749	(1,008)	(1,104)	(993,362)	-86.0	
제주	159	169	56,889	67	70	24,767	(92)	(99)	(32,122)	-56.6	
합계	9,095	9,821	12,047,524	3,268	3,642	5,475,311	(5,827)	(6,179)	(6,572,213)	-54.6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3월 누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4,144	4,182	11,847,384	2,088	2,108	10,272,537	(2,056)	(2,074)	(1,574,847)	-13.3	
부산	1,507	2,201	3,176,021	696	1,117	1,237,803	(811)	(1,084)	(1,938,218)	-61.0	
대구	1,256	1,257	1,659,621	208	208	197,701	(1,048)	(1,049)	(1,461,920)	-88.1	
인천	827	846	1,460,855	461	469	510,724	(366)	(377)	(950,131)	-65.0	
광주	911	1,016	575,779	294	367	263,453	(617)	(649)	(312,326)	-54.2	
대전	629	641	316,042	327	327	358,888	(302)	(314)	42,846	13.6	
울산	0	0	0	154	158	114,275	154	158	114,275	-	
경기	4,134	4,662	2,853,869	3,269	3,718	2,328,265	(865)	(944)	(525,604)	-18.4	
강원	1,078	1,152	383,771	608	684	360,607	(470)	(468)	(23,164)	-6.0	
충북	1,137	1,383	921,155	564	702	691,043	(573)	(681)	(230,112)	-25.0	
충남	923	700	603,836	461	403	288,750	(462)	(297)	(315,086)	-52.2	
전북	450	450	399,224	223	223	236,448	(227)	(227)	(162,776)	-40.8	
전남	764	828	326,915	317	338	145,401	(447)	(490)	(181,514)	-55.5	
경북	1,054	1,175	479,594	607	684	374,024	(447)	(491)	(105,570)	-22.0	
경남	2,503	2,834	2,091,778	831	1,009	744,306	(1,672)	(1,825)	(1,347,472)	-64.4	
제주	353	382	152,041	167	194	58,336	(186)	(188)	(93,705)	-61.6	
합계	21,670	23,709	27,247,885	11,275	12,709	18,182,561	(10,395)	(11,000)	(9,065,324)	-33.3	()=마이너스

신입회원 new member

< '98. 3. 1~3. 31 기준 >

강성진 : 1958년생/조선대/(주)경향종합건축사사무소/528-4881/광주시 북구 신안동 501-15

강양구 : 1957년생/순천공전/아트건축사사무소/654-1144/전남 여수시 미평동 527

강영은 : 1966년생/경남대/대우건축사사무소/44-7780/경남 진해시 이동 69-127

권혁수 : 1968년생/연세대/어려연 건축사사무소/3452-2666/강남구 대치동 906-18

김남성 : 1961년생/강원대/아름건축사사무소/243-5009/강원도 춘천시 중앙로2가1

김대홍 : 1966년생/금오공대/건축사사무소 가산/562-7928/강남구 역삼동 748-24

김동욱 : 1965년생/대구대/건축사무소 하늘/605-5683/양천구 신정5동 908-17

김만기 : 1961년생/경상대/김만기건축사사무소/291-0003/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25-18 정명빌딩 302호

김명수 : 1963년생/서울산업대/삼성건축사사무소/83-4101/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29-2

김오성 : 1956년생/연세대 대학원/명인에아엔디건축사사무소/571-4883/서초구 양재동 82-2 우도빌딩 5층

김종일 : 1963년생/충남대 대학원/건축사사무소 구가. 김/257-3458/대전시 중구 용두2동 182-78

김종화 : 1962년생/강원대/(주)태영건축구조방재연구소 건축사사무소/427-1115/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11-10

김창석 : 1956년생/단국대/씨. 아이. 씨건축사사무소/563-9515/강남구 포이동 226-11 참빌딩 4층

김충환 : 1961년생/홍익대 대학원/(주)시마건

축사사무소/529-0909/서초구 양재동 402-16 유성빌딩 4층

김태항 : 1964년생/대전공업대/건축사사무소 공간/223-7544/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9-6

김효환 : 1966년생/한남대 대학원/(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632-3224/대전시 동구 용전동 143-21

남숙경 : 1967년생/경일대/전건축사사무소/33-5067/경북 김천시 성내동 40-20 한일상가 3층

명대민 : 1958년생/동아대/명건축사사무소/247-2601/부산시 중구 동광동2가12-6

문찬정 : 1963년생/건국대/문건축사사무소/547-6169/강남구 논현동 89 혜성빌딩 4층

박성열 : 1961년생/원광대/건축사사무소 마당/753-6161/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86

박용도 : 1964년생/영남공전/대건건축사사무소/762-7813/대구시 수성구 수성2가 70-7

박원형 : 1958년생/동양공전/시대건축사사무소/512-8474/서초구 잠원동 18-1

박정원 : 1932년생/청주대 대학원/건축사사무소 신정/522-0761/대전시 서구 갈마동 361-7

박종석 : 1958년생/대성건축사사무소/551-2994/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01-5

박환용 : 1957년생/경일대/(주)대도건축사사무소/566-3300/대구시 서구 평리동 1186-1

배완덕 : 1966년생/연세대/(주)범창건축사사무소/929-6223/동대문구 신설동 97-22

변규섭 : 1963년생/전북대/(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632-3224/대전시 동구 용전동 143-21

변소영 : 1962년생/인덕공전/(주)건축사사무소 한림건축/65-2288/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9-1

서필호 : 1960년생/아영건축사사무소/676-7364/영동포구 당산동3가 270 우미빌딩 205-1

서해동 : 1958년생/중앙대/(주)주안건축사사무소/712-9038/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7 흥국생명빌딩 5층

손권욱 : 1964년생/송원공전/건축사사무소 영조. 묵우/522-5600/광주시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7층

신승덕 : 1964년생/건축사사무소 우진건축

/52-3995/경북 안동시 동부동 65-8 2층

신진균 : 1959년생/건축사사무소 우창/529-0406/광주시 북구 유동 2-11 해동빌딩 3층

실광진 : 1961년생/대림공전/(주)스텝건축사사무소/39-7531/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0-10

안광석 : 1962년생/경기대/건축사사무소 영신엔지니어링/554-2080/충남 천안시 문화동 69-3

안종배 : 1954년생/단국대/신일건축사사무소/698-6655/경기도 시흥시 선전동 748

양승창 : 1965년생/서울시립대/나루종합건축사사무소/3446-0811/강남구 청담동 43-9

양원모 : 1966년생/홍익대/(주)솔토스 비에스조 건축사사무소/764-8261/성북구 성북동 210-40

엄형섭 : 1958년생/전북대 대학원/동광 건축사사무소/85-7636/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24-1

오태운 : 1959년생/본청건축사사무소/303-7755/부산시 북구 구포동 1184-17

유대중 : 1965년생/중앙대/씨. 아이. 씨건축사사무소/563-9515/강남구 포이동 226-11 참빌딩 4층

유병숙 : 1970년생/충남대/이갑준건축사사무소/665-2520/충남 서산시 동문동 937-3

유영부 : 1957년생/(주)원일건축사사무소/224-2521/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2-2

윤주길 : 1961년생/조선대/원형건축사사무소/234-3009/광주시 동구 수기동 23-2 제일오피스텔 1312호

이 윤 : 1966년생/충남대/건축사사무소 구가. 윤/257-3459/대전시 중구 용두2동 182-78

이근왕 : 1967년생/건축사사무소 가을/767-7233/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809-7

이봉우 : 1964년생/경기대/(주)태광건축사사무소/73-7733/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봉산리 66-1

이석권 : 1966년생/강원대/건축사사무소 유덕건축/82-4380/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97-5

이원우 : 1962년생/강원대/건축사사무소 가가/244-2848/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1번지

이유경 : 1968년생/홍익대 대학원/정익건축사

사무소/883-5474/관악구 봉천6동 1690-154
 이재화 : 1960년생/경북대/이대건축사사무소 /653-6376/대구시 남구 봉덕동 1206-1
 이정실 : 1964년생/부경대/건축사사무소 몽하 /462-4556/부산시 동구 수정동 841
 이정언 : 1964년생/원광대/서정건축사사무소 /226-0766/광주시 동구 서석동 47-21
 임기철 : 1964년생/준경공전/누리건축사사무소/867-2011/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신흥리 110-2
 장명숙 : 1963년생/충북대/가인건축사사무소 /55-3306/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2가 116-90
 장일식 : 1963년생/영남대/예담건축사사무소 /981-9888/대구시 동구 방촌동 902-36 3층

전병식 : 1957년생/대전공업대/(주)산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632-3224/대전시 동구 유전동 143-21
 정방영 : 1964년생/울산대/(주)내외종합건축사사무소/72-2772/경기도 오산시 원동 772-7
 조정권 : 1961년생/홍익대/(주)인선건축사사무소/508-5505/강남구 삼성동 160-22 영풍빌딩 3층
 주홍돈 : 1960년생/대림공전/(주)건축사사무소 마당/85-7333/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601
 지광명 : 1950년생/중앙대/엘림조형건축사사무소/730-1002/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3-4
 지승호 : 1966년생/대전공업대/삼원건축사사무소/575-4830/충남 천안시 쌍용동 926
 최광호 : 1961년생/대전공업대/코아건축사사무소/841-6655/충남 논산시 두마면 업사리 220

최병관 : 1964년생/동의공전/청산건축사사무소/258-1040/울산시 남구 신정동 650-1
 최진석 : 1963년생/(주)아해건축사사무소 /38-713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3-3 반도빌딩 3층
 허상호 : 1965년생/경남공전/건축사사무소 혜인/853-2777/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244-1
 한형식 : 1965년생/건축사사무소 한맥/744-6315/대구시 동구 신천3동 132-1
 홍승완 : 1965년생/인천대/(주)상건축사사무소/426-8008/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9-31
 황규태 : 1962년생/모. 을건축사사무소/47-2361/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10-3

회원 현황

('98. 3월말 기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입 회	15	5	7	2	5	6	1	14	2	2	5	1	1	2	1		69
재입회								1									1
전 입	3			1			1	10	2			1	1	2	1		22
전 출	5	1	1	1	2			1			1				1		13
폐 업	8	4	2		1	4	1	3			1	1					25
변 동	+5	0	+4	+2	+2	+2	+1	+21	+4	+4	+3	+1	+2	+4	+1	0	+54
계	2,769	638	520	218	214	246	127	763	157	169	164	186	101	226	330	59	6,888

